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지은이: 밀란 쿤데라 송동준 번역

제 1부 가벼운 것과 무거운 것 영원한 재귀는 아주 신비스런 사상이다.

니체는 이 사상으로 많은 철학자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모든 것이 그 언젠가는 이미 앞서 체험했던 그대로 반복된다는 것이다. 이 반복 또한 무한히 반복된다는 것! 이 어처구니 없는 신화가 말해주는 것은 무엇인가? 영원한 재귀, 이 신화는 그것의 부정적 이면에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가 있다. 영원히 사라져가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삶은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 그것은 아무런 무게도 없는 하찮은 것이며 처음부터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을. 삶이 아무리 잔인했던, 아름답거나 찬란했던 그것은 마찬가지로이다. 그와 같은 잔인함, 아름다움, 찬란함은 아무 의미도 없는 것으로, 우리는 이러한 것들에 조금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없다. 그것은 마치 14세기 아프리카에 있었던 두 나라간 전쟁과 같다. 비록 전쟁에서 30만명의 흑인이 이룰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면서 죽었다 하더라도 이 전쟁은 세상 상황을 아무것도 바꾸놓지 못했다. @p 10 만약 아프리카 두 나라간의 이 전쟁이 영원한 재귀의 형식으로 수없이 반복된다면, 그것이 이 전쟁에서 무엇인가를 바꾸어 놓게 될 것인가? 확실한 것은 이 전쟁은 보다 오래 지속되는 우뚝 솟은 하나의 큰 덩어리가 될 것이며, 전쟁이라는 우둔한 짓거리는 결코 개선될 수 없을 것이다. 만약 프랑스 혁명이 영원히 반복되도록 되어 있다면 프랑스의 역사 기술은 로베스피에르를 그토록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프랑스의 역사 기술은 반복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기 때문에 피비린내 나던 혁명의 세월은 그야말로 다양한 이론 및 토론으로 번졌다. 그것은 것털보다 더 가볍게 되어 아무에게도 두려움을 불어넣어 주지 못한다. 역사에서 단 한번 등장했던 로베스피에르와 프랑스 사람들의 머리를 자르기 위해 영원히 재귀하는 로베스피에르 간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영원한 재귀의 생각은 사물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게 보게끔 하는 시각을 우리에게 열어준다고 말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이 시각에서는 사물이 그 것이 갖는 무상의 완화적 상황을 상실하고 나타난다. 그런데 무상의 이 완화적 상황은 우리가 어떤 판결을 내릴 수 없게끔 한다. 무상한 것을 어떻게 심판할 수 있단 말인가? 저녁 노을에 비치면 모든 것은 향수의 유혹적인 빛을 띠고 나 타난다. 단두대 까지도 그렇다. 얼마 전 나는 믿을 수 없는 어떤 감정에 사로잡혀 있는 나 자신을 보았다. 히

틀러에 관한 책을 넘기고 있었는데 그 속에 실린 많은 사진들에 나는 마음이 몹시 동했다. 그 사진들은 나 어린시절을 회상시켜 주었다. 나는 전쟁 중에 자라났다. 몇몇 내 친구들은 히틀러의 강제노동수용소에서 죽었다. 하지만 그들은 히틀러의 사진들 앞에서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지 @p 11 난 시절 내 삶에 대한 회상을 생생히 불러일으켜 준 이들 사진 앞에서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히틀러와의 이 같은 화해는 본질적으로 재귀가 있을 수 없는 세계의 깊숙히 놓여 있는 도덕적 전도현상을 드러내 준다. 그러한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처음부터 용납되어 있다. 결국 무슨 짓이든 냉소적으로 허용되어 있기 때문이다. 2 만약 우리 삶의 순간 순간이 모두 수없이 반복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박혔듯이 영원히 못박힌 꼴이 된다. 너무나도 무서운 생각이다. 영원한 재귀의 세계에서는 모든 동작에 견디어낼 수 없는 무거운 책임의 짐이 지워져 있다. 이러한 근거에서 니체는 영원한 재귀의 생각을 (가장 무거운 무게)라 일컬었다. 만약 영원한 재귀가 가장 무거운 무게라면 우리들의 삶은 이 배경 앞에서 아주 가벼운 것으로 찬란하게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무거운 것은 정말로 무겁고, 가벼운 것은 찬란한가? 가장 무거운 무게는 우리를 짓눌러 우리를 압사케 한다. 우리를 땅바닥에 압착시킨다. 하지만 어느 시대나 사랑의 서정시에서 여자는 남자 육체의 육중한 무게를 동경한다. 따라서 가장 무거운 무게는 동시에 가장 집약적인 삶의 총족 이미지다. 무게가 무거우면 무거울 수록 우리의 삶은 더욱더 땅에 가깝다. 그것은 더욱더 실제적이고 참된 것이 된다. 이와는 반대로 무게가 전혀 없을 때 그것은 인간이 공기보다도 더 가볍게 되어 둥둥 떠올라 땅으로부터, 세속의 존재로부터 멀리 @p 12 떠나게 한다. 그래서 인간은 절반만 실제적이고, 그의 동작은 자유롭고 동시에 무의미한 것이 된다. 자, 그러니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무거운 것을? 아니면 가벼운 것을? 기원전 6세기 파르메니데스는 자신에게 이 질문을 던졌다. 그는 온세계가 여러 가지 대립의 쌍으로 양분되어 있다고 보았다. 빛-어둠, 섬세-난삽, 따뜻함-차가움, 존재-비존재 등. 그는 한쪽 극(빛, 섬세, 따뜻함, 존재)을 양으로, 다른 극을 음으로 생각한다. 그와 같은 분할은 너무나 쉽게 보이지만 한가지 어려움을 동반한다. 즉, 어떤 것이 양이나 하는 것이다. 무거운 것이? 아니면 가벼운 것이? 파르메니데스는 대답했다. 가벼운 것은 양이고 무거운 것은 음이다라고. 그의 대답이 옳았는가? 아니면 틀렸는가? 이것이 문제다. 확실한 것은 오직 한가지 뿐이다. 즉 가벼운 것과 무거운 것의 대립 쌍은 모든 대립들 중에서 가장 신비스럽고 가장 타의적인 것이다. 3 이미 여러 해 전부터 나는 토마스를

생각해 왔다. 그러나 이 같은 철학적 숙고의 조명 아래서야 비로소 나는 그를 명백히 내 앞에 보게 되었다. 그가 자기 집 창가에서 서서 안마당 너머, 건너편 거주구획의 담벽을 바라보며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하고 있는 것을 나는 본다. 그는 약3주 전에 테레사를 보헤미안 지방의 시골도시에서 알게 되었다. 그들은 겨우 한시간 동안 하계 보냈다. 그녀는 정거장까 @p 13 지 전송하여 그가 기차에 올라타기까지 기다렸다. 열흘 후 그녀는 프라하에 있는 그를 찾아왔다. 바로 그날 그들은 서로 사랑했다. 그날밤 그녀는 몸에 열이 났다. 그리고 그녀는 독감으로 일주일 내내 그의 집에서 머물렀다. 그때 그는 거의 알지 못했던 이 처녀에 대해 형언할 수 없는 사랑을 느꼈다. 그에게는 그녀가 마치 어느 누가 까맣게 톨타르를 칠한 바구니 속에 넣어 강물에 띄워 버린 아기처럼 생각 되었다. 그가 이 아기를 자기 침대의 강독에서 구조하도록 말이다. 그녀는 일주일 동안 그의 곁에 머물렀다. 그리고 다시 건강하게 되었을 때 그녀는 프라하에서 2백 킬로미터 떨어진 그녀의 시골도시로 되돌아 갔다. 그런데 이제 내가 바로 앞서 이야기 했던 그 순간이 이어진다. 바로 나는 토마스의 삶을 열어줄 열쇠를 본다. 토마스는 창가에 서서 안마당 너머 건너편에 있는 거주 구획의 담벽을 바라보고 꼼꼼히 생각한다. 그녀를 영원히 프라하로 데려올 것인가? 그가 그녀를 초청한다면 그녀는 자기의 온 삶을 그에게 바치기 위해 올 것이다. 아니면 그녀에게 자신의 소식을 더이상 아무것도 전하지 않을 것인가? 이는 테레사가 시골도시에서 식당 종업원으로 머물고, 그가 그녀를 다시는 못 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녀가 그에게 오기를 그는 원하는가? 아니면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 않는가? 그는 안마당 너머 건너편 담벽을 바라보며 대답을 구한다. 계속 그에게는 자기 침대에 누워 있던 그녀의 모습이 눈앞에 떠올랐다. 그녀는 그가 지금까지 살아온 기억으로는 어느 누구와도 닮지 않았다. 그녀는 연인도 부인도 아니었다. 그녀는 그가 까맣게 칠한 광주리에서 주워올려 자기 침대의 강독에 내려놓은 아이였다. 그녀는 잠이 들었다. 그는 그녀 곁에 무릎 @p 14 을 꿇고 앉았다. 열기 있는 그녀의 호흡은 보다 빨라졌다. 그리고 그는 약한 신음소리를 들었다. 그는 자기 얼굴을 그녀의 얼굴에 갖다대고 잠들어 있는 그녀에게 위로의 말을 속삭였다. 얼마 후 그녀의 숨결이 조용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가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얼굴을 그의 얼굴을 향해 치켜 뜨는 것을 느꼈다. 그는 그녀의 입술에서 열기의 씩씩한 냄새를 느꼈다. 마치 그녀 육체의 친밀감을 완전히 빨아드리려는 듯 오는 이 냄새를 들이켰다. 그에게는 그녀가 이미 여러해 동안 그의 곁에 있었고 이제 임종의 자리에 누워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 갑자기

그는 그녀가 죽은 뒤 자신이 살아남을 수 없으리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녀 곁에 누워 그녀와 함께 죽고 싶었다. 그는 얼굴을 그녀 옆 베게에 묻었다. 그 리고는 오랫동안 이런 자세로 머물렀다. 이제 그는 창가에서 바로 그 순간을 생각한다. 그것이 이런 식으로 그에게 나타났던 사랑 이외에 다른 것일 수 있을까? 하지만 그것이 사랑이었는가? 그녀의 곁에서 죽고 싶었던 느낌은 명백히 사리에 맞지 않는 것이었다. 그는 그때 그녀를 자기 삶에서 겨우 막 두번째 보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오히려 히스테리가 아니었던가? 자기 마음의 밑바닥에서는 자기가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의식하고도 자신을 속여 이것이 사랑임을 믿도록 하기 시작한 인간의 히스테리 말이다. 이때 그의 잠재의식은 너무도 비겁하여 자기 희극을 위해 근본적으로 자기의 삶에 뛰어 들 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않은 식당 종업원을 하필이면 선정했던 것이다. 그는 안마당 너머 더러운 담벼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히스테리 인가 아니면 사랑인가를 자기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을 책망했다. 정상적인 남자라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p 15 즉각 알았을 상황에서 자기는 주저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자기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의 (그는 그녀가 잠자는 침대 곁에 무릎을 꿇고 있었고 그녀가 죽은 뒤 자신이 살아남을 수 없을 것처럼 여겨졌다) 의의를 송두리째 빼앗아버리고 말았다는 것을 책망했다. 그는 이러한 자신과 다투었다. 결국 그는 자신에게 말했다. 자기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것은 아주 정상적인 것이라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우리는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단 하나의 삶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것을 이전의 삶과 비교할 수도 없거니와 이후의 삶에서 교정할 수도 없다. 테레사와 사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혼자 있는 것이 나은 것인지? 어떤 결단이 올바른 것인가를 검토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어떤 비교도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든 것을 직접적으로 체험한다. 최초로 준비없이 체험한다. 미리 앞서 연습도 해보지 않고 무대에 등장하는 배우와 같다. 하지만 삶을 위한 최초의 시연이 이미 삶 자체라면 삶은 어떤 가치가 있을 수 있는가? 이러한 근거에서 삶은 언제나 스케치와 같다. 스케치 또한 맞는 말이 아니다. 스케치는 언제나 어떤 것에 대한 초안, 어떤 그림의 준비인데 반해 우리들 삶의 스케치는 무에 대한 스케치로서 그림없는 초안이기 때문이다. 한번은 엮는 것과 같다고 토마스는 자신에게 말한다. 여하튼 우리가 단 한 번만 살 수 있다면 그것은 도대체가 살지 않는 것과 같다. @p 16 4 어느날 한 간호원이 두 수술 사이의 휴식 때 전화를 받으라고 그를 불렀다. 그는 수화기에서 테레사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정거장에서 전화했다.

그는 기뻐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날 저녁 그에게는 선약이 있었다. 그래서 그녀를 다음날에 자기에게 오도록 초청했다. 그는 수화기를 내려놓자마자 즉시 자기에게 오도록 그녀에게 청하지 않은데 대해 자신을 책망했다. 그에게는 그날 저녁 자기의 약속을 취소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 그는 그들이 서로 만나기까지 36시간 동안 테레사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았다. 그러자 즉시 자동차를 타고 프라하의 거리에서 그녀를 찾고 싶은 충동이 그에게 일어났다. 그녀는 다음날 저녁에 왔다. 어깨에 백을 메고 있었다. 그녀가 지난번보다 더 세련되었다고 그는 생각했다. 손에는 두터운 책을 들고 있었다. 톨스토이의 안나 카레니나였다. 그녀는 명랑하게 행동했다. 뿐만 아니라 다소 목소리를 높여 이야기 했고 전혀 우연스럽게 들르게 되었다는 것을 그에게 암시하려 애썼다. 직업적인 이유에서 프라하에 왔노라고 그녀는 밝혔다. 가능하다면(이말은 확실하지가 못했다) 일자리를 하나 찾으려고 왔노라 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옷을 벗고 지친 몸으로 한 침대에 나란히 누워 있었다. 날은 이미 어두웠다. 그는 그녀가 어디에 머무냐고 묻고 차로 그녀를 그곳으로 데려다 주겠다고 제의했다. 그녀는 아직 호텔을 정하지 못했으며 트렁크는 역 화물보관소에 맡겨 두었다고 당황하며 대답했다. 전날 저녁까지만 해도 그는 그녀를 프라하에 있는 자기에게로 @p 17 데려올 경우 그녀는 온 삶을 자기에게 바칠 것이라고 염려했었다. 그녀의 여행 가방이 화물보관소에 맡겨져 있다고 말했을 때 그에게 그녀의 온 삶이 이 가방 속에 들어 있으며 그녀가 그것을 결국 그에게 바치기 위해 다만 일시적으로 역에 맡겨두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그녀와 함께 집 앞에 세워둔 차를 타고 정거장으로 가 트렁크를 찾아(이 트렁크는 아주 컸고 말할 수 없이 무거웠다)테레사와 함께 자기 집으로 돌아왔다. 거의 보름 동안이나 주저했고 그녀에게 안부 카드 한 장조차 보낼 수 없었는데 이제 어떻게 그토록 빨리 그가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가? 그 자신도 놀랐다. 그는 자기 주의에 반해서 행동했던 것이다. 10년 전 그는 자기의 첫째 부인과 이혼을 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결혼식에서나 가능한 축제 분위기 속에서 그는 이 이혼을 체험했다. 그때 그가 깨달은 것은 어떤 여인 곁에서 계속 살도록 자기가 태어나지 않았다는 것, 오직 독신자로서만 온전히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어떤 여인도 트렁크를 가지고 자기가 사는 곳에 들어오지 않도록 자기의 삶을 꾸려나가는데 세심한 신경을 썼다. 이 때문에 그가 사는 곳에는 단 하나의 침대만이 놓여있었다. 비록 그것이 충분히 넓은 침대였지만 토마스는 모든 자기 여자친구들에 대해 자기는 어느 누구와도 같은 침대에서는 잠들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그는 여자친구들을 모두 밤이면 번번이 차로 집에 데려다주었다. 테레사가 처음 독감으로 자기 집에 머물게 되었을 때도 그는 그녀와 같은 침대에서 잠자지 않았다. 첫날밤에는 큰 안락의자에서, 다음 며칠 밤은 병원에서 보냈다. 병원 그의 진찰실에는 그가 야근을 하는 동안 사용하였던 소파가 놓여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그는 그녀 곁에서 @p 18 잠들었다. 다음날 아침 그가 깨었을 때, 아직도 잠들어 있는 테레사가 그의 손을 잡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그들은 온밤을 손을 마주잡고 누워 잤던가? 이것은 그에게 거의 믿기지 않았다. 그의 손을 잡은 채(아주 꼭 잡고 있어 그의 손은 그녀의 움켜쥔 손에서 풀려날 수가 없었다)그녀는 잠결에 깊은 숨을 쉬었다. 그리고 침대 옆에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무거운 트렁크가 세워져 있었다. 그는 감히 자기의 손을 빼내지 못했다. 그녀를 깨우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그녀를 더 잘 관찰할 수 있도록 몸을 옆으로 살짝 돌렸다. 다시금 그에게 테레사는 누군가가 까맣게 콜타르 치룽= 한 바구니 속에 넣어 물에 띄워 버린 아기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아기가 담긴 바구니를 매정스럽게 강물에 휩쓸려가게 할 수 없지 않은가! 파라오의 딸이 어린 모세가 담긴 바구니를 물 위에서 건져 내지 않았던들 구약성서도, 우리들의 문명도 없을 것이다. 얼마나 많은 옛 신화가 어느 누군가가 버려진 아이를 구제한 데서 시작되었던가. 폴리보스가 어린 오이디푸스를 돌보지 않았던들 소포클레스는 자기의 가장 훌륭한 비극을 쓰지 못했을 것이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토마스에게는 메타포가 위험하다는 것이 분명하지 않았다. 은유의 놀이를 해서는 안된다. 사랑은 단 하나의 은유에서 탄생될 수 있다. 5 그는 그의 처음 부인과 겨우 2년 함께 살았고 아들을 하나 낳았 @p 19 다. 이혼 판결에서 법정은 아이를 어머니에게 주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리고 토마스가 모자의 생활비로 자기 월급의 3분의 1을 지불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동시에 격주마다 자기 자식을 만나볼 수 있는 권한이 그에게 인정되었다. 하지만 그가 아들을 만나고자 할 때마다 아이 어미는 번번이 어떤 핑계를 찾아냈다. 그가 모자에게 값비싼 선물을 했던들 방문은 틀림없이 보다 쉽게 이루어질 수 있었을 것이다. 그는 자기 아들에 대한 사랑을 어미에게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아니 미리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어떻게 하면 자기 아 들에게 후에 모든 점에서 어미의 견해와 반대되는 자기 자신의 견해들을 돈키호 테의 경우처럼 단단히 명심시켜 줄 것인가를 생각했다. 하지만 이 생각은 이미 그를 패하게 했다. 어느 일요일 어미가 다시금 마지막 순간에 아들과의 상면을 거부했을 때, 그는 갑자기 아들을 다시는 보지 않으리라 결심했다. 뿐만

아니라 경솔했던 하룻밤 말고는 더 이상 아무것도 그를 아이와 결부시키고 있지 않는데, 그가 어떤 다른 아이보다 이 아이에게 더 이상의 감정을 가져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그는 어김없이 정확히 지불할 것이다. 하지만 아무도 그가 아버지로서 느끼는 여하한 감정의 이름으로 자기 아들을 쟁취하기 위해 싸울 것을 그에게 요구하지 말아야 한다! 아무도 이 같은 생각에 동의하고 있지 않다고 구태여 말할 필요조차 없다. 그 자신의 부모까지 그를 비난했다. 그리고 그가 자기 자식을 돌볼 것을 거부하는 경우, 자기들도 그에 대해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을 것임을 선언했다. 그의 양친은 보라는 듯 며느리와 긴밀한 관계를 가졌다. 그리고 며느리의 모범적인 행동과 그녀의 정의감을 말할 수 있는 곳이면 어디서나 자랑했다. 그래서 그는 아주 짧은 기간에 부인, 아들, 어머니와 아버지 모 @p 20 두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그에게는 오직 여자들에 대한 두려움만이 남아 있었다. 그는 여자들을 열망했다. 하지만 그들을 두려워했다. 그는 두려움과 열망 간에 타협을 찾아내야 했다. 그는 이것을 '에로틱한 우정'이라 일컬었다. 그의 여자친구들에게 그는 특히 강조해서 말했다. 상대의 삶과 자유에 대해 요구를 하지 않는 비감상적 관계에서만 두 사람은 행복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에로틱한 우정이 공격적인 사랑으로 절대 변질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케 하고자 했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영속적인 여자친구들을 시간적으로 긴 간격을 두고 만났다. 그는 이 방법이 완전하다고 생각해 친구들에게 이 방법을 선전하기까지 했다.: '세번의 규칙을 지켜야 해. 여자를 짧은 간격으로 만나게 될 때는 세 번 이상 만나지 말 것이며, 아니면 여자와 수년 동안 사귀고자 할 때는 어떤 든 간에 적어도 3주 간격을 두고 만난다는 조건을 지켜야 해' 이 3의 규칙은 토마스에게 그의 고정적인 여자친구들과의 관계를 유지시켜 주고 또한 동시에 상당한 수의 여인들과 일시적인 사귀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을 마련해 주었다. 하지만 모두가 그를 늘 이해해 준 것은 아니다. 그의 여자친구들 중에서 사비나가 그를 누구보다도 잘 이해했다. 그녀는 화가였다. 그녀는 말했다. '나는 너를 좋아해. 너는 저속의 반대니까. 저속의 제국에서는 너는 하나의 괴물이 될 거야. 미국 영화나 소련 영화의 시나리오에서 네가 경고의 본보기로 등장하지 않을 경우는 하나도 없을 거야.' 그는 사비나에게 간청했다. 테레사를 위해 프라하에서 일자리를 하나 찾는데 도와줄 수 없느냐? 에로틱한 우정의 행동규범인 불문율에 따라서 그녀는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실제로 그녀는 얼마있지 않아 어느 그림잡지의 사진실에서 일자리를 하나 찾아냈다. 이 일자리는 특별한 자격을 요구하고 있지 않지만, 그것은 테레사를 식당 종업원의

미래에서 잡지사 직원 @p 21 의 미래로 승격시켜 주었다. 사비나 자신이 테레사를 데리고 편집실로 들어갔다. 토마스는 평생에 이보다 더 좋은 여자친구를 가진 적이 없었다고 자신에게 말했다. 6 에로틱한 우정의 비성문화된 계약은 토마스가 사랑을 자기 삶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내용을 내포하고 있었다. 그가 이 조건을 무시하는 순간에 그의 다른 여자친구들은 제2급으로 냉대받는다고 느껴 반발한 것이다. 그는 그 때문에 테레사를 위해 방 하나를 내주었다. 이곳에 테레사는 그녀의 무거운 트렁크를 내려놓아야 했다. 그는 그녀에게 주의를 기울여 그녀를 보호하려 했다. 그리고 그녀와 함께 있는 것을 즐거워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생활방식을 바꾸고 싶은 생각이 조금도 없었다. 테레사가 그의 집에서 잤다는 사실을 아무도 알아서는 안되었다. 함께 잠을 잤다는 것은 사랑의 증거 자료다. 그는 한 번도 다른 여자 곁에서 자지 않았다. 그가 다른 여자들에게 갔을 때는 간단했다. 즉, 그가 원할 때 나올 수 있었다. 하지만 다른 여자들이 그에게로 와, 자정이 지난 후 그가 그들을 차로 집으로 데려다 주겠다는 것을 설명해야 할 때 그것은 비교적 어려웠다. 그는 잠을 잘 자지 못해 고생하고 있어 다른 사람 가까이에서는 잠들 수 없기 때문이라고 그들에게 설명해야 했다. 이것은 실은 사실과 동떨어진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주된 이유는 이보다 더 나쁜 것이었다. 그것을 그는 감히 여자친구들에게 고백할 수 없었다. 즉, 성교를 하고 난 후 그는 혼자 있고 싶은, 자제할 @p 22 수 없는 욕구를 느꼈다. 한밤중에 다른 사람의 옆에서 잠을 깬다는 것은 그에겐 너무나 불쾌했다. 함께 아침에 일어난다는 것 또한 그의 마음에 거슬렸다. 그가 욕실에서 이 닦는 것을 누가 엿듣는다는 사실을 그는 전혀 좋아하지 않았다. 둘이서 다정하게 조반을 한다는 것도 그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 때문에 그가 잠을 깨 테레사가 그의 손을 짚고 있는 것을 보자 그는 매우 놀랐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다. 그는 지난 시간을 생생히 눈앞에 떠올렸다. 마치 이들 시간이 알지 못할 행복의 향기를 풍기는 것처럼 그에게 여겨졌다. 이 순간부터 두 사람은 함께 잠자는 것을 즐거워했다. 성교의 목적이 두 연인에게는 쾌감에 있기보다는 오히려 오히려 그 후에 따르는 잠에 있다고 말하고 싶다. 특히 테레사는 토마스 없이는 잠들 수가 없었다. 테레사가 때때로 혼자 그녀의 단칸 셋방에 있을 때에는(이것은 점점 일종의 알리바이가 되었다)그녀는 온밤 동안 눈 한번 붙일 수 없었다. 토마스의 품안에서는 그녀는 아직도 매우 불안해 했지만 언제나 잠들 수가 있었다. 그는 그녀를 위해 생각해 낸 동화나, 짧은 이야기들을 그녀에게 속삭이듯 이야기해 주었다. 그리고 단조로운 목소리로 위안의

말이나 재미있는 말을 반복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이 말들은 어지러운 환상들로 변했다. 이 환상들과 더불어 그녀는 첫번째 꿈속으로 들어갔다. 그녀의 잠은 완전히 그의 지배아래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그가 정한 순간에 잠이 들었다. 그들이 잠을 잘 때는 그녀가 첫날밤에서처럼 그를 잡았다. 손으로 꼭 그의 손목을, 손가락 하나를, 아니면 그의 손가락 마디를 움켜잡았다. 그가 그녀를 깨우지 않고 그녀로부터 떨어지고자 할 때에는 피를 써야만 했다. 그녀가 움켜쥐고 있는 자기의 손가락(손 @p 23 목, 손마디)을 그가 빼낼 때, 번번이 그녀는 잠이 반쯤 깨었다. 그녀는 잠자면 서도 그를 유심히 감시하기 때문이다. 그녀를 안심시키기 위해 그는 자기 손목 대신에 어떤 물건을 그녀의 손에 쥐어 주었다(접어서 만 파자마라든가, 책, 혹은 신 한 짝을). 그러면 그녀는 이것을 마치 그의 몸 한 부분인 것처럼 꼭 움켜쥐었다. 언젠가 그가 그녀를 막 잠재워 놓아, 그녀가 아직은 그의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잠결이었을 때, 그는 그녀에게 말했다. '자, 됐군. 이제 가봐야지.' '어디로 가요?' 하고 그녀가 물었다. '떠나는 거야' 하고 그가 엄하게 대답했다. '함께 가겠어요.!' 하고 그녀는 말했다. 그리고는 침대에서 일어났다. '안돼, 그건 안 돼. 나는 영원히 가는 거야.' 하고 그가 말했다. 그리고는 방에서 나와 현관으로 갔다. 그녀는 몸을 일으켜 눈을 깜빡거리면서 그를 따랐다. 그녀는 짧은 잠옷 하나만을 입고 있었고 그 속에는 아무것도 입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을 굳어져 표정이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동작은 단호했다. 토마스는 건물 현관(아파트 셋집의 공동현관)으로 나가 테레사 면전에서 현관문을 닫았다. 그녀는 우악스럽게 현관문을 열고 그를 따라갔다. 반쯤 잠이 든 상태인데도, 그녀는 그가 영원히 떠나가려 하기 때문에 그를 잡아두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확신했다. 그는 첫번째 계단참이 있는 데 까지 계단을 내려와 그녀를 기다렸다. 그녀는 그에게로 다가와 그의 손을 잡고 그를 자기 침대로 도로 데려갔다. 토마스는 자신에게 말했다. '여자와 잔다는 것과 여자와 잠든다는 것은 두가지 상이한 열정일 뿐만 아니라 정반대의 열정이야. 사랑은 성교 행위의 욕구에서 표명되는 것이 아니라(이 욕구는 무수한 여자에게 해당된다). 공동의 수면 욕구에서 표명된다(이 욕구는 오직 한 여자에게만 해당된다). @p 24 7 한밤중에 그녀는 잠 속에서 신음하기 시작했다. 토마스는 그녀를 깨웠다. 그러나 그의 얼굴을 보자 그녀는 증오에 차 말했다. '가버려요! 가버려!' 하고. 그런 다음 그녀는 자기가 꿈꾸었던 것을 그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 그들이 사비나와 함께 어떤 엄청나게 큰 방에 있었고 방 한가운데에는 침대 하나가 높은 단처럼 놓여 있었다. 토마스가 그녀에게 구석으로 가도록

명령하고는 사비나를 그녀 눈앞에서 사랑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바라만 보았는데 이렇게 바라본다는 것이 그녀에게는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불러 일으켰다. 그녀는 정신적 고통을 육체적 고통속에서 질식시키려 했다. 그래서 그녀는 자기 손톱 밑을 바늘로 찔러댔다. '미치도록 아팠어요.'하고 그녀는 말했다. 그녀는 두 손으로 주먹을 꼭 쥐었다. 마치 두 손이 실제 다쳤거나 한 것처럼. 그는 그녀를 두 팔로 안았다. 그러자 천천히 그녀는 (그녀는 오래도록 몸을 부들부들 떨었다)그의 포옹 속에서 잠이 들었다. 그가 이튿날 아침 이 꿈을 생각했을 때 그에게는 어떤 생각이 떠올랐다. 그는 자기 책상 서랍을 열었다. 그리고 사비나가 그에게 써보냈던 편지 꾸러미를 끄집어내었다. 그는 재빨리 다음 글이 적힌 곳을 찾아냈다. '나는 당신을 마치 무대 위에서처럼 아틀리에에서 사랑하고 싶어요. 사방에는 사람들이 둘러서 있지만 한 발짝도 더 가까이 다가와서는 안 되지요. 그러나 그들은 우리로부터 눈을 뗄 수가 없지요.' 일을 무엇보다도 악화시키는 것은 이 편지에 날짜가 적혀 있다는 점이다. 테레사가 이미 오래전부터 토마스의 집에서 살았는데, @p 25 이 편지는 최근에 써어졌다는 사실이다. '당신은 내 편지를 뒤적였어!'하고 그는 테레사를 다그쳤다. 그녀는 부인하지 않고 말했다. '그러니 나를 쫓아버려요!'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는 테레사가 사비나의 아틀리에 벽에 몸을 바싹 붙여 서서 자기 손톱 밑을 바늘로 콕콕 찌르는 모습을 자기 앞에 그려보았다. 그는 그녀의 손가락을 두 손으로 쥐고 쓰다듬었다. 그리고는 그의 입술에 갖다대고 키스했다. 마치 아직도 핏 자국이 그녀 손가락에 묻어 있거나 한 것처럼. 이때부터 모든 것이 그에 대해 공모를 한 듯 보였다. 테레사가 그의 비밀에 정생활에 대해 어떤 새로운 것을 알게 되지 않는 날이 거의 없었다. 처음에 그는 모든 것을 부인했다. 그러나 사실들이 너무나도 명백히 드러나자 그는 일부다처적인 그의 생활과 테레사에 대한 그의 사랑이 결코 모순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려 애썼다. 그의 말에는 논리적인 필연성이 없었다. 한번은 자신의 불성실을 부인하는가 하면 다음에는 다시금 자신의 불성실을 정당화시켰다. 어느 날 그는 어떤 여자와 만날 약속을 하기 위해 그녀와 전화했다. 통화가 끝났을 때 옆방에서 마치 소리 높여 이를 덜덜 떠는 것 같은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테레사가 우연히 집에 돌아와 있었다. 그는 이것을 알지 못했던 것이다. 그녀는 진정제가 담긴 작은 병 하나를 손에 들고 그 내용물을 자기 입에 따랐다. 그녀의 손이 너무도 떨려, 작은 유리병이 그녀의 이빨에 부딪혔던 것이다. 그는 그녀에게로 달려갔다. 마치 그녀를 익사하기 전에 구조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처럼. 진정제 약병이 바닥에

떨어져 양탄자위에 약물이 쏟아졌다. 그녀는 저항했다. 그로부터 빠져나가려 했다. 그는 그녀가 진정될 때까지 15분 동안 그 녀를 미친 사람에게 @p 26 뒤집어쓰우는 옷을 입혀놓은 것처럼 꼭 붙들고 있었다. 그는 자기가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왜냐하면 이 상황은 절대적인 불공평에 근거했기 때문이다. 아직 그녀가 사비나와 가진 그의 편지 왕래를 찾아내기 전 어느날 저녁, 그들은 몇몇 친구들과 함께 테레사의 새로운 직장을 축하하기 위해 바에 간 적이 있었다. 테레사는 랩실에서 하는 일을 그만두고 어느 주간지의 사진사가 되었던 것이다. 토마스는 춤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의 젊은 동료 한 사람이 그녀와 춤을 추었다. 쪽 마루판 바닥에서 움직이는 이들의 동작은 아주 멋졌다. 테레사는 토마스에게 어느 때보다도 더 아름답게 보였다. 그녀가 자기 파트너의 의지에 한순간 앞서 이 의지에 정확하게 순응하는 것을 보고 그는 놀라 아찔했다. 이 춤은 그녀가 토마스의 눈치를 보고 알 수 있는 것은 모두 이행하려는 그녀의 소망, 그녀의 이 희 생정신이 반드시 그 개인에게만 관계된 것이 아니라, 그녀가 자기 대신에 만났을 어느 남자의 부름에도 기꺼이 따랐을 것임을 그에게 보여주는 것 같았다. 테레사와 춤추고 있는 그의 동료를 한쌍의 연인으로 생각해 보기란 그에게 조금도 어렵지 않았다. 그로 하여금 바로 이같이 생각할 수 있게끔 한 이 경솔함이 그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 테레사의 육체가 어느 다른 남자의 육체와 함께 동침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는 것도 힘들지 않았다. 바로 이 생각이 그의 기분을 잡쳐 놓고 말았다. 그들이 밤늦게 집으로 돌아올 때 그는 그녀에게 자기의 질투심을 털어놓았다. 순전히 이론적인 가능성에 연관된 어처구니없는 이 질투심은 그가 그녀의 정절을 하나의 전제로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였다. 그녀가 그의 아주 현실적인 여자친구들에 대해 질투하고 있는 것을 그가 나쁘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인가? @p 27 8 낮 동안 그녀는 토마스가 말하는 것을 믿으려고 애썼고 또 이전과 똑같이 명랑하고자 애썼다(이것은 다소의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낮에 억제된 질투심은 더욱더 격렬하게 그녀의 꿈속에 터져 나왔다. 그녀가 꾸는 꿈들은 번번이 소리 높인 그녀의 흐느낌으로 끝났다. 그는 그녀를 잠에서 깨움으로써 그녀를 진정시킬 수 있었다. 그녀의 꿈들은 변주를 담은 테마나, 아니면 TV연속극의 에피소드적 사건처럼 반복되었다. 예컨대 그녀의 얼굴에 뛰어올라 날카로운 발톱으로 그녀의 얼굴을 할퀴는 고양이에 관한 꿈이 종종 반복되어 나타났다. 이 꿈은 아주 쉽게 해명될 수 있다 : 체코의 일상어에서 '고양이'는 매력있는 여자를 위한 표현이다. 테레사는 여자들, 아니 모든 여자들로부터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느꼈다. 여자들은

모두 토마스의 잠재적인 애인이었기에 그녀는 여자들을 두려워했다.
연속된 또 다른 그녀의 꿈에서는 그녀가 죽음으로 보내지는 것이었다.
그녀가 꿈에서 기겁을 해 소리쳤기 때문에 토마스는 그녀를 다시금 깨우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자 그녀는 그에게 꿈 이야기를 했다.
'넓은 실내 수영장이었어요. 우리는 약 스무 명 가량이었어요.
여자들뿐이었어요. 우리는 모두 알몸이었고 물을 담아 놓은 풀 주위를 돌아 행진해야만 했지요. 지붕 밑에 바구니가 하나 걸려 있었고 그 속에 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그는 그의 얼굴을 온통 가린 차양 큰 모자를 쓰고 있었지만 나는 그 사람이 당신임을 알았어요. 당신은 우리에게 명령을 했어요. 당신은 소리쳤어 @p 28 요. 우리는 행진하면서 노래부르고 무릎꿇기를 해야 했어요. 한 여자가 이것을 못할 때엔 당신은 권총으로 그 여자를 쏘았어요. 그러면 그 여자는 풀 속으로 떨어져 죽었어요. 이 순간 모든 여자들은 웃음을 터뜨리고 더 소리 높여 노래 불렀어요.
그런데 당신은 우리에게서 잠시도 한눈 팔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금 어떤 여자가 잘못된 동작을 할 때면 당신은 이 여자를 쏘아 죽였어요. 결국 풀은 수면 바로 밑에 떠돌아 움직이는 시체들로 가득 찼어요. 나는 내게 다음 무릎꿇기를 위한 힘이 더 이상 없다는 것을, 그리고 당신은 나를 쏘아 죽이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연속된 세번째의 또 다른 꿈들은 테레사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였다. 그녀는 가구 운반용 자동차만큼 큰 시체 운반용 차 속에 누워 있었다. 그녀 주위에는 순전히 여자들만이 누워 있었다. 너무나 많은 여자들이 실려 있어 차의 뒷문을 열어두지 않을 수 없었고 몇 개의 다리가 밖으로 나와 있었다. 테레사는 소리쳤다. '나는 아직 죽지 않았어요! 난 아직도 모든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우리도 모든 것을 느낄 수 있어' 하고 시체들이 웃었다.
그들은 그때의 산 여자들과 똑같이 웃었다. 이 여자들은 그녀에게 전에 언젠가 심술궂게 말했었다. 자기들 자신이 나쁜 이빨, 병든 난소와 주름살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녀 또한 나쁜 이빨, 병든 난소와 주름살을 지니게 될 것이라고. 시체들은 웃음과 함께 이제 그녀가 죽었으며, 죽은 존재 또한 그 나름대로의 질서를 갖는다고 그녀에게 해명했다! 그리고서 그녀는 갑자기 오즘이 마려웠다. 그녀는 소리쳤다. '그러나 나는 오즘을 누어야 하겠어요! 이것은 내가 죽지 않았다는 증거요!' @p 29 다시금 여자들은 웃음을 터뜨렸다. (네가 오즘을 누어야 하는 것은 아주 정상적이야! 그러한 욕구는 오래 남는 거야. 팔을 하나 절단하게 된 사람과 같은 것이지. 그는 절단 후에도 오랫동안 팔이 있는 것으로 느껴. 우리에게는 오즘이 없는데도 아직도 계속 오즘을 누어야 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테레사는 침대 속에서 토마스의 품에 바싹

매달려 말했다. (그런데 모든 여자 들이 내게 말을 놓았어요. 마치 나를 이미 항상 알기나 하는 것처럼. 내 여자친 구들인 것처럼 말예요. 그리고 나는 영원히 그들에게 머물러야 한다는 생각에 더할 나위없이 무서웠어요!) 9 라틴어에 뿌리를 두고 있는 언어들 은 모두가 (동정)이라는 단어를 (com, 함께 라는 뜻)이라는 전철과, 원래는 (참고 견딤)이라는 의미였던 (passio)라는 단어로 만들었다. 다른 언어들, 예컨대 체코어, 폴란드어, 스페인어 등은 이 개념을 하나 의 명사를 통해 표현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함께)라는 의미의 전철과 (감정)이 라는 단어로 구성되는 명사이다. 라틴어에 뿌리를 두고 있는 언어들에서 이 (compassio)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 은 다음과 같다. 우리는 냉정하게 어떤 다른 사람의 고통을 바라볼 수 없다. 혹은 우리는 다른 사람의 고통에 참여한다. 대개 이와 동일한 뜻을 지닌 다른 말 등에는 뿐만 아니라 고통받고 있는 사람에 @p 30 대한 관대한 마음씨 같은 여운이 모를지기 깔려 있다. Avoir de la pitié pour une femme는 (우리는 이 여인보다 입장이 낫다. 우리는 이 여인을 굶어본다. 우 리는 자신을 낮춘다) 를 뜻한다. 이러한 근거에서 (동정)이란 말은 불신을 야기 시킨다. 그것은 사랑과는 그다 지 많은 관련이 없는, 부차적으로 느껴지는 좋지 않은 감정을 표현한다. 누구를 동정하여 사랑한다고 함은 그를 진정하게 사랑하지 아니함을 일컫는다. 이 말을 (참고 견딤)이라는 뿌리로부터가 아니고 (감정)이라는 명사에서 만들 고 있는 언어들에서도 이 말은 대개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 말이 부차적인 좋지 않은 감정을 나타낸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 말의 어원이 지닌 신비한 힘이 이말을 다른 빛을 띠도록 하며, 그것에 보다 포괄적인 의미를 부여한다. (함께하는 감정)이란 어원의 동정은 다른 사람의 불행을 함께 체험한 다는 것, 꼭 마찬가지로 모든 다른 감정도 함께 느낄 수 있음을 의미한다. 기쁨, 두려움, 행복, 고통 등. 이러한 동정은 다라서 감정적 표상력의 극치를, 감정 텔 레파시의 기법을 표현한다. 감정체계에서 그것은 제일 높은 위치를 차지한다. 테레사가 자기 손톱 밑을 바늘로 찌르는 꿈을 꾸었을 때에는 그녀가 몰래 토 마스의 서랍을 살살이 뒤졌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만 것이다. 다른 여자가 그렇 게 했던들 그는 그녀와 더이상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테레사는 이것 을 알고 있었다. 그 때문에 그녀는 말했다. (나를 쫓아 버려요!) 하고. 그러나 그 는 그녀를 쫓아 버리지 않고 오히려 그녀의 두 손을 잡고 그녀 손가락 끝에 키 스했다. 왜냐하면 그는 바로 그 순간 스스로가 그녀 손톱 밑의 고통을 느꼈기 때문이다. 마치 그녀의 손가락 신경이 직접 그의 뇌와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말 이다. @p 31 느낌을

함께하는 이 (동정)의 저주스런 능력을 갖지 못한 자는 테레사의 태도를 오로지 냉담하게만 비판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사적인 영역은 신성하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왕래했던 편지들을 넣어둔 서랍은 남이 열지 않는다. 그러나 (동정)은 토마스의 숙명이 (혹은 저주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 스스로가 자기 책상의 열려진 서랍에 무릎을 꿇고 사비나가 쓴 글귀에서 눈을 뗄 수가 없는 듯 여겨졌다. 그는 테레사를 이해하고 있었고, 그는 그녀에게 화를 낼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녀를 오히려 더욱더 사랑했던 것이다. 10 그녀의 동작은 거칠고 산만해졌다. 그녀가 토마스의 부정을 발견한 이래 2년의 세월이 지나갔다. 상황은 더욱더 나빠져 갔다. 한마디로 말해 돌파구가 없었다. 실제로 그는 에로틱한 우정관계들을 그만둘 수 없었던가? 그렇다. 만약 그만둔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를 파괴하고 말았을 것이다. 다른 여자들과 즐기는 그의 쾌락을 억제할 힘이 그에게는 없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한다는 것이 그에게는 소용없는 짓거리로 여겨졌다. 그의 에로스 행각이 전혀 테레사를 위협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그 자신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러니 무엇 때문에 그가 그것을 포기해야 한단 말인가? 그것은 그에게 마치 축구시합 구경가는 것을 단념하는 것과 꼭 마찬가지로 어처구니 없는 짓거리같이 여겨졌다. 하지만 아직도 기쁨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었던가? 그는 이미 @p 32 여자친구에게 가는 도중 일종의 반발을 느끼곤 했다. 그러면 그는 이 여자를 마지막으로 만나는 것이라고 자신에게 맹세했다. 그는 테레사의 모습을 눈앞에 떠올리고 있었다. 테레사를 더이상 생각하지 않기 위해서 그는 재빨리 술을 마셔야만 했다. 그가 그녀를 알고난 뒤부터는 알콜을 마셔야만 다른 여자들과 동침할 수 있었다. 그런데 바로 이 알콜냄새 때문에 테레사는 더욱더 쉽게 그의 의도를 알아차렸다. 그는 일종의 함정에 걸려들었다. 그가 다른 여자에게 갈 때면 언제나 그 여자에 대한 욕구가 그에게서 사라졌다. 그런대도 다른 여자없이 하루만 지나도 곧 그는 벌써 전화 다이얼을 돌려 만날 약속을 했다. 그가 가장 기분 좋게 동침할 수 있었던 여인은 사비나였다. 그녀가 조심성 있는 여자임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그녀에게 가 있을 때 들킬까봐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그녀의 화실은 그로 하여금 그의 지난 삶을, 그의 목가적인 총각 시절을 회상시켜 주었다. 어쩌면 그동안 자기가 얼마나 변했는가에 대해 그 자신 확실히 알지 못했다. 테레사가 자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너무 늦게 집으로 돌아가게 되지 않을까 하고 그는 염려했다. 언젠가 사비나는 그가 성교 도중에 시계를 바라보고 빨리 끝내려고 애쓰는 것을 알아차렸다. 성교가 끝난 후 그녀는 발가벗은 채 아주 침착히 화실을 거닐며 돌아왔다.

그리고는 반쯤 완성된 화가 앞에 멈추어 서서 옆으로부터 토마스가 황급히 옷을 주워 입는 것을 바라보았다. 그는 이미 옷을 다 입었다. 오직 한쪽 발만이 양말을 신고 있지 않았다. 그는 사방을 돌아 보았다. 그리고는 무릎을 꿇고 책상 밑에서 무엇인가 열심히 찾았다. @p 33 그녀는 말했다. '당신 그런 모습으로 보면 당신이 내 그림의 영원한 테마로 변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게 돼요. 두 세계의 만남, 이중 조명 말예요. 방탕아 토마스의 윤곽 이면에 낭만적으로 훌쩍 반한 자기의 믿기지 않는 얼굴이 나타나고 있어요. 아니면 거꾸로, 오직 자기의 테레사만을 생각하는 트리스탄의 실루엣을 통해 방탕아의 아름다운, 노출된 세계를 볼 수 있어요' 토마스는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사비나의 말을 건성으로 들었다. '도대체 당신을 무엇을 찾고 있어요?' 하고 그녀는 물었다. '양말 한 짝을' 그들은 함께 온 방을 샅샅이 찾았다. 그런 다음 그는 다시금 무릎을 꿇고 다시 한번 책상 밑을 들여다 보았다. '여기에는 양말이 없어요' 하고 사비나는 말을 이었다. '당신은 틀림없이 한쪽 양말을 신지 않고 왔어요' '어떻게 내가 양말을 신지 않고 올 수 있었겠어!' 하고 토마스는 소리치고 시계를 들여다 보았다. '난 절대 한쪽 양말만을 신고 오지는 않았어!' '반드시 그렇다곤 말할 수 없어요. 당신은 최근 너무나도 정신이 산만해요. 계속 서두르고, 계속 시계를 들여다 본단 말예요. 그러니 한쪽 양말 신는 것을 잊었다고 이상해할 필요가 없어요' 그는 한쪽 양말을 신지 않은 채 신발을 신을 결심을 이미 하고 있었다. '밖이 몹시 추운데' 하고 사비나는 말했다. '그러지 말아요. 당신께 스타킹 하나 빌려줄게!' 그녀는 그에게 긴 니트 스타킹 하나를 내밀었다. 그가 성교할 때 시계를 들여다 보았기 때문에 이것이 일종의 복수라는 것을 그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그의 양말 한쪽을 그녀가 어디엔가 감추었습니 틀림없었다. 그런데 실제 날씨가 차가웠기 때문에 @p 34 그는 그녀의 말에 순순히 따를 수 밖에 없었다. 그는 한쪽 발에는 양말을, 다른 한쪽 발에는 여자 스타킹을 발목까지 말아 신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의 상황은 절망적이었다. 그의 여자친구들 눈에는 테레사에 대한 사랑 때문에, 테레사의 눈에는 여자친구들과 놀아난 그의 정사 때문에 그에게는 굴욕적인 낙인이 찍혔다. 11 테레사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그는 그녀와 결혼했다. 그리고 그는 그녀에게 강아지 한마리를 구해 주었다. (마침내 그녀는 셋방을 그만두고 나올 수 있었다. 셋방은 이미 오래 전부터 비워두었던 방이었다) 토마스 동료의 세인트 베나트(역주: 망도 보고 사람 구조도 돕는 개의 일종) 암캐가 새끼를 낳았다. 새끼들의 아버지는 이웃집의 셰퍼드였다. 아무도 이 어린 잡종 새끼들을 갖고자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것들을 죽인다는 것이 이

동료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토마스는 이 잡종 새끼를 한마리 골랐다. 그리고 그는 다른 새끼들은 죽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자기가 마치 사형 업도를 받은 네사람 중에 한 사람 에게만 특사의 은전을 베풀 수 있는 대통령처럼 생각되었다. 결국 그는 암강아 지로 결정했는데 그것의 몸은 셰퍼드를 연상시켰고 머리는 반대로 세인트 베나 트를 연상시켜 주었다. 그는 그것을 테레사에게 가져왔다. 그녀는 강아지를 치켜 들고는 가슴에 겨안았다. 그러자 즉시 강아지는 그녀의 블라우스에 오줌을 싸다. @p 35 강아지의 이름을 찾아내야 했다. 토마스는 강아지의 이름에서 이미 이 개가 테레사에게 속한다는 것을 알아 차릴 수 있기를 바랐다. 그녀가 사전통보도 하지 않고 불쑥 프라하로 왔을 때 팔 밑에 끼고 있던 책이 그의 생각에 떠올랐다. 그래서 그는 개를 톨스토이로 명명할 것을 제의했다. '톨스토이, 그것은 안돼요'하고 테레사가 이의를 제기했다. '이 개는 암컷이에요. 어쩌면 안나 카레리나가 어떨까요' '안나카레리나는 안돼요. 이렇게 장난기 있게 생긴 주둥이를 가진 여자는 없 어' 하고 토마스는 말했다. '차라리 카레닌이 낫지 않아? 분명, 그래 카레닌이 좋아. 이 이름을 난 언제나 꼭 그렇게 생각했었어' '이 암강아지를 남자 이름인 카레닌으로 이름 붙인다면 성적인 발전에 지장 을 주지 않을까요?' 토마스는 말했다. '자기 주인이 계속 수캐 이름으로 부르는 암캐에게 동성애 적인 경향이 발생한다는 것은 가능하겠지' 이상하게도 토마스의 말대로 되었다. 암캐는 보통 바깥 주인에 더 매달리는 데도 불구하고 카레닌의 경우에는 그 반대였다. 그 암캐는 테레사를 보다 더 좋아할 것을 결심했던 것이다. 토마스는 이 개에게 그것을 감사하게 생각했다. 그는 개의 머리를 쓰다듬고 말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아, 카레닌. 네가 바로 그렇게 하기를 기대했던 거야. 내가 혼자 해내지 못할 때엔 네가 나를 도와주어 야겠어' 하지만 그는 카레닌의 도움을 받고도 테레사를 행복하게 할 수 없었다. 이 사실은 러시아 탱크가 체코를 점령한 뒤 약 2주일쯤 지나 그에게 분명해졌다. 1968년 8월 이었다. 그가 어느 국제 회합에서 알게 된, 취리히에 있는 한 병원의 과장 선생이 그때 매일처럼 토마스와 전화했다. 그는 토마스를 몹시 염려했다. 그래서 토 @p 36 마스에게 일자리를 하나 제의했다. 12 토마스가 스위스에서의 직장 제의를 오래 생각하지 않고 거부했다면 이는 테 레사 때문이었다. 그녀가 이주하려 하지 않을 것임이 그에게 확실했다. 그녀는 러시아군 점령의 첫주를 일종의 최면상태에서 보냈다. 이것은 행복의 상태와 비 슷한 것이었다. 그녀는 사진기를 가지고 거리를 소다녀사다. 그리고 자기가 찍은 사진을 외국기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들은 그녀의 사진을 얻으려고 안간힘

을 썼다. 한번은 그녀가 너무나 과감하게 앞으로 나아가 권총으로 시위대를 겨냥하고 있던 장교 한사람을 가까이에서 찍었는데 이때 그녀는 체포되어 러시아 진영 본부에서 그날 밤을 지새워야 했다. 그녀를 총살시키겠다고 위협했으나 결국은 풀어 놓아주었다. 그러자 그녀는 즉시 다시금 거리로 나가 사진을 찍었다. 그 때문에 그녀가 점령후 10일째 되던 날 '왜 당신은 스위스로 가려 하지 않아요?' 하고 말했을 때 토머스는 자못 놀랐다. '왜 내가 스위스로 가야 해?' '여기서 그들은 당신에게 책임 추궁을 할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 있소?' 하고 토머스는 그녀의 말을 거부해 버렸다. '당신 외국에 가서도 살 수 있겠어?' '왜 못 사아요?' '당신이 이 나라를 위해 당신의 목숨을 바칠 각오를 하고 있다 @p 37 는 것을 본 후 당신이 어떻게 이 나라를 떠날 수 있을 것인가 하고 나는 자문 하오' '두브체크가 돌아온 이래 모든 것은 바뀌었어요' 하고 테레사는 말했다. 그것은 틀림없었다. 점령후 처음 일주일 동안만 고조된 감정이 두루 지배했었다. 체코의 대변자들은 러시아군에 의해 마치 범법자들처럼 끌려갔다. 그들이 어디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다. 모든 사람들이 목숨을 잃을까 떨고 있었다. 러시아인에 대한 증오가 사람들을 도취시켰다. 그것은 증오의 도취된 축제였다. 체코의 도시들에는 손으로 그린 수천의 플래카드가 사방에 걸려 있었다. 브레즈네프와 그의 군대에 대한 조소적인 글귀, 경구들, 시, 만화들. 이것들을 보고 모두 웃었다. 마치 문맹자들의 서커스 구경을 하듯. 하지만 어떤 축제도 영원히 지속 되지는 않는다. 그러는 사이 러시아인들은 체포된 대표인사들을 강제로 모스크바에서 타협안에 서명하게끔 했다. 두브체크가 이 서류를 가지고 프라하로 돌아왔다. 그는 자기의 연설문을 라디오를 통해 낭독했다. 6일 동안의 감금이 거의 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를 형편없이 만들어 놓았다. 그는 더듬거렸고 숨이 차 헐떡거렸다. 그래서 문장 사이에는 매우 긴 침묵이 생겼다. 그러한 침묵은 30초까지 계속되기도 했다. 타협안은 체코를 최악의 것으로부터 보호했다. 처형과 시베리아로의 집단수송으로부터 보호했다. 이것들에 대해 사람들은 모두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공포를 가졌었다. 나라가 침략자에게 굴복해야 하며 앞으로 계속 알렉산드르 두브체크 처럼 더듬거리고 헐떡거리야 할 것이다. 굴욕의 날이 따랐다. 이 모든 것을 테레사는 토머스에게 말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이 사실임을 알았고, 또한 이 사실 이면에 테레사가 프라하를 떠나고 @p 38 자 하는 또 다른 하찮은 이유가 숨겨져 있었다는 것도 알았다. 즉, 지금까지의 생활에서 그녀가 행복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자기 삶의 가장 좋은 날들을 프라하의 거리에서 보냈다. 그것은 러시아군의

탱크를 사진 찍으며 위협에 몸을 맡겼을 때였다. 오직 이 며칠 동안 그녀의 꿈에서 나타나던 TV시리즈는 중단되었고 그녀의 밤은 행복했었다. 탱크위의 러시아 군인들이 그녀의 불행을 보상했던 것이다. 이제 증오의 축제는 지나 갔다. 그녀는 다시금 밤을 두려워 했고, 이 밤들로부터 도망가고 싶었다. 그녀는 자신이 강하고 만족스럽게 느낀 상황이 있음을 경험했다. 그래서 그녀는 밖으로 멀리 떠나가, 그곳에서 어찌면 그와 비슷한 상황을 다시금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희망했다. '그런데 사비나도 스위스로 이민갔는데 그것이 당신에게 아무 상관 없을까?' 하고 토마스는 물었다. '제네바는 취리히가 아베요' 하고 테레사는 말을 계술했다. '확실히 그녀는 여기 프라하에서보다 그곳에서 내게 덜 방해가 될 거예요'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고자 하는 사람은 행복하지 않은 것이다. 토마스는 이민가려는 테레사의 소망을 마치 죄지은 사람이 판결을 대하듯 받아 들였다. 그는 상황에 순응했다. 어느날 그는 테레사와 개 카레닌과 함께 스위스의 가장 큰 도시에 나타났다. 13 빈집에 들여놓을 침대 하나를 그는 샀다(다른 가구 마련을 위해서는 아직은 돈이 없었다). 그는 사십이 넘어 새로운 삶을 시작하 @P 39 는 사람의 열성을 띠고 일에 뛰어 들었다. 그는 제네바에 있는 사비나에게 여러 번 전화했다. 그녀가 그곳에서 러시아군의 체코 침공이 있고 난 일주일 후에 미술전람회를 열었던 것은 아주 다행이었다. 스위스의 예술 애호가들은 그녀의 작은 고향나라 체코에 대한 동감의 물결에 아직도 완전히 휩쓸려 있었다. 그들은 그 때문에 그녀의 그림들을 몽땅 사 버렸다. '러시아군 덕택에 나는 부자가 되었어' 하고 그녀는 전화에 대고 웃었다. 그리고는 토마스를 자기의 새로운 화실로 초대했다. 화실은 그녀의 말에 의하면 그가 프라하에서 알고 있던 그녀의 화실과 거의 다르지 않다고 했다. 그는 그녀를 기꺼이 방문했을 거다. 하지만 테레사에게 그의 여행을 설명할 핑계를 그는 찾지 못했다. 그래서 사비나가 취리히로 왔다. 그녀는 어느 호텔에서 서 여장을 풀었다. 토마스는 근무시간이 끝난 뒤 그녀를 방문했다. 그는 수납에서 그녀에게 전화하고 그녀의 방으로 갔다. 그녀는 문을 열고 그녀의 아름다운 긴 다리를 드러내고 그의 앞에서 있었다. 그녀는 팬티와 브래지어만 제외하고 옷을 훌쩍 벗고 있었다. 머리에는 검은 멜론모를 쓰고 있었다. 그녀는 한참동안 움직이지 않고 한 마디 말도 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토마스 또한 말없이 서 있었다. 갑자기 그는 자기가 감동되었음을 의식했다. 그는 그녀의 머리에서 모자를 벗겨 그것을 침대 머리맡 작은 탁자 위에 올려 놓았다. 그러고서 그들은 한 마디 말도 없이 서로 사랑을 했다. 호텔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도중(그의 새 집에는 이미 오래전에 책상,

의자, 안락의자, 양탄자를 갖추어 놓았다) 그는 행복감에 젖어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는 자기의 생활방식을 마치 달팽이가 달팽이집을 가지고 돌아 다니듯 자신과 함께 지니고 다닌다고. 테레사와 사비나는 그의 삶의 양극을 구현하고 있었다. 이 두 극은 뿔 @P 40 어저 서로 합쳐질 수 없으며 제 나름으로 아름다웠다. 그러나 그가 자기의 바로 이 생활체제를 마치 그것이 자기 육체의 일부인 양 사방으로 지니고 돌아다녔기 때문에 테레사는 아직도 계속 같은 꿈을 꾸었다. 그가 언젠가 저녁 늦게 귀가해서 책상 위에 편지 한장이 놓여 있는 것을 본 것은 그들이 취리히에서 이미 6,7개월 산 때였다. 이 편지에서 테레사는 자기가 프라하로 돌아갔노라고 그에게 알렸다. 그녀는 외국생활을 할 힘이 더이상 없기 때문에 돌아가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자기가 토마스에게 여기서 하나의 받침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노라고 했다. 그러나 그녀는 그렇게 될 수 없다고 했다. 외국이 그녀를 변하게 할 것이라는 믿음이 어리석은 것이었다고 했다. 러시아군이 침입했던 동안에 그녀가 체험했던 모든 것에 비추어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편협하고 소심하게 행동하지 않고 성숙하고 현명하고 강한 존재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자신을 과대평가 했노라고 말했다. 그녀는 그에게 하나 의 짐이라고 말하고 그러한 존재가 되고 싶지 않다거나 했다. 그리고 그녀는 너무 늦기 전에 귀결을 짓겠노라고 했다. 또 카레닌을 자기가 데려가는데 대해 그에게 용서를 빈다고 했다. 그는 강한 수면제를 먹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이 가까워서야 비로소 잠이 들었다. 다행히 토요일이어서 그는 집에 머물 수가 있었다. 그는 150번이나 상황을 반추해 보았다. 그의 고국과 세상의 나머지 지역간의 경계는 그들이 떠날 때처럼 그렇게 더이상 개방되어 있지 않았다. 전보로도, 전화로도 테레사를 되돌아 오도록 부를 수가 없었다. 당국은 그녀를 다시금 출국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의 귀향은 완전히 최종적인 것이 되고 말았다. @P 41 14 자기가 손을 쓸 수 없는 자신의 무력감에 대한 의식이 그를 완전히 굳어지게 만들었다. 그러나 또한 그것은 동시에 그를 진정시켜 주었다. 아무도 이제 그가 결단을 내리도록 강요하지 않았다. 그는 건너편 집들의 담벽을 바라보고 자기가 그녀와 살고자 하는지 아닌지를 자문할 필요가 없었다. 테레사는 모든 것을 스스로 결단했던 것이다. 점심을 먹으러 그는 식당으로 갔다. 그는 기가 꺾인 듯 느껴졌다. 하지만 식사 하는 동안에 그의 처음 절망감은 마치 힘을 잃은 듯 사라지는 것 같았다. 오직 우울한 감정만이 남게 되었다. 그는 함께 보낸 세월을 되돌아 보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녀의 이야기가 더 좋게 끝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누가 이 이야기를 상상으로 생각해 냈다고

하더라도 이 이야기를 달리 종결지을 수 없었을 것이다. 테레사는 어느날 초청도 하지 않았는데 그에게 왔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녀는 같은 방법으로 다시금 가버렸다. 그녀는 무거운 트렁크를 하나 들고 그녀는 다시금 여행길을 떠났다. 그는 식비를 지불하고 식당에서 나와 거리를 돌아다녔다. 그리고 우울한 감정에 흠뻑 젖어 있었고 이 감정이 점점더 아름다워졌다. 테레사와 함께 산 7년의 세월이 그의 뒤에 놓여 있었다. 이 세월이 실제에 있어서보다 회상에서 훨씬 더 아름답다는 것을 지금 그는 확인했다. 그와 테레사 간의 사랑은 아름다웠지만 힘겨웠다. 그는 계속 두 @P 42 인가를 비밀로 해야 했고, 은폐해야 했고, 거짓말하고 보상해야만 했다. 그는 그녀를 기분 좋게 해주어야 했고 그녀를 진정시키고 그녀에게 계속 자기의 사랑을 증명해야 했다. 그는 그녀의 질투, 그녀의 고통, 그녀의 꿈의 탄식을 참아내야 했고 죄책감을 느껴야 했다. 그는 변명해야 했고 그녀에게 용서를 빌어야 했다. 이제 이 모든 부담이 사라진 것이다. 그리고 오직 아름다움만이 남았다. 토요일 저녁이 다가왔다. 처음으로 그는 혼자 취리히 시를 산책하고 그의 자유의 향기를 호흡했다. 길모퉁이 뒤마다 모험이 숨겨져 있었다. 그의 미래는 다 시금 비밀이 되었다. 독신자의 삶이 그에게 다시 돌아왔다. 이 삶이야말로 자기에게 정해진 것이었다고 그는 이전에 확실히 믿었다. 왜냐하면 오직 그런 삶의 방식으로만 그는 그의 실제와 일치하여 존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7년 동안 그는 사슬로 테레사와 묶여 있었다. 그래서 그녀의 두 눈은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를 추적 했었다. 마치 그녀가 그를 묶은 사슬에 무거운 쇳덩이를 매달아 놓은 것같이 여겨졌다. 이제 그의 발걸음은 갑자기 아주 가벼워졌다. 그는 거의 똥똥 뜨는 듯 했다. 갑자기 그는 파르메니데스의 마술영역으로 들어와 있었다. 그는 존재의 달콤한 가벼움을 즐기고 있었다. (그는 사비나에게 전화하고 싶은 욕망을 느꼈던가? 아니면 지난 몇 달 동안 그가 사귀었던 취리히 여자들 중 누구에게 데이트를 청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던가? 아니다. 그런 것에 그는 조금도 관심이 없었다. 그가 어떤 다른 여자와 함께 있게 된다면 테레사에 대한 회상이 그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줄 것임을 그는 예감했다.) @P 43 15 이 독특한 멜랑콜리한 마력상태는 일요일 저녁까지 지속되었다. 월요일에 모든 것은 달라졌다. 테레사가 그의 생각 속으로 뛰어 들어 왔다. 그는 그녀가 작별 편지를 쓸 때 그녀의 마음이 어떠했던가를 느꼈다. 그는 그녀의 두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그녀가 한 손으로는 트렁크를 끌고 다른 손으로는 커레인을 맨 끈을 잡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가 프라하에 있는 집의 문을 여는 것을 그는 눈앞에 그려보았다. 그녀가 문을 열자 황량함과 고독감이

그녀 얼굴에 불어오는 것을 그는 자기 가슴속에 느꼈다. 멜랑콜리한 감정이 지배했던 지난 이틀간의 아름다운 시간동안 그의 동감은 잠을 잤었다. 일주일간의 힘든 교대작업을 하고 난 뒤 월요일에는 다시금 쉼으로 들어가 일할 수 있기 위해 일요일에 잠자는 광부처럼 그는 폭 잠을 잤던 것이다. 그는 환자 한 명을 진찰했다. 그러자 환자 대신에 그는 테레사를 보았다. 그는 머릿속에서 자신을 나무랐다. 그녀를 생각하지마! 하고, 그는 또 스스로에게 말했다. 바로 내가 동정(역주: 동일 감정이란 뜻으로 연민과 구분됨. 9장을 참조) 병에 걸려 있었기 때문에 그녀가 떠나간 것, 그녀를 내가 다시는 보지 않게 되는 것이 올바른 거야. 내가 해방되어야 하는 것은 그녀로부터가 아니라 나의 동정인, 바로 이 병으로부터야. 나는 이 병을 옛날에는 알지 못했는데, 그녀가 내게 이 병의 병균을 감염시켰어! 토요일과 일요일에 그는 존재의 달콤한 가벼움이 미래의 심원에서 자기에게로 다가오는 것을 느꼈었다. 월요일엔 그가 아직껏 알지 못했던 크나큰 무거움이 그에게 떨어져 그를 짓눌렀다. 러시아군 탱크의 수백톤짜리 쇠덩이들을 모두 합쳐도 이 무게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동정보다 더 무거운 것은 아무것도 없다. 자신의 고통까지도 다른 사람과 함께, 다른 사람을 위해, 다른 사람 대신에 느끼는 고통처럼 무겁지는 않다. 이 고통은 표상력을 통해 수없이 많아지고 수백의 메아리로 연장된다. 그는 동정에 굴복하지 않도록 자신에게 경고했다. 그의 동정은 마치 자신이 죄스럽게 느끼는 듯 머리를 덜구고 그의 말을 경청했다. 그의 동정은 자기 권리를 옹호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말없이 권리를 고집했다. 그래서 토마스는 테레사가 떠난 후 5일째 되는 날 병원장에게 (이 병원장은 프라하에서 러시아군 점령이 있을 후 그에게 매일 전화했던 사람이다) 지체없이 고향으로 되돌아가야겠다고 통보했다. 그는 부끄럽게 생각했다. 자기의 태도가 병원장에게 무책임하고 용서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졌음이 틀림없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그는 원장에게 솔직히 털어 놓고 테레사가 그의 책상위에 써놓았던 편지에 대해 이야기해 주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스위스의 의사에게 테레사의 행동은 신경질적이고 동감이 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날 것임이 틀림없기 때문이었다. 토마스는 어느 누구도 테레사에 대해 나쁘게 생각하는 것을 용납하려 하지 않았다. 원장은 실로 당황했다. 토마스는 어깨를 으쓱하고 말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 일종의 암시였다. 베토벤의 마지막 4중주곡 마지막 악장은 다음의 두 모티브에 따라 작곡되었다. @P 45 (그렇게 해야하나? 그렇게 할 수 밖에! 그렇게 할 수

밖에!) 이말의 의미를 아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베토벤은 이 마지막 악장의 제목을 (힘겹게 내린 결심)이라 붙였다. 베토벤에 대한 이러한 암시로 토마스는 근본에 있어서 이미 테레사에게 돌아 간 것이었다. 왜냐하면 결국 베토벤의 4중주와 소나타를 담은 전축판 구입을 관철시켰던 것은 테레사였기 때문이다. 이 같은 암시는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효과가 있었다. 왜냐하면 병원장은 대단한 음악 애호가였기 때문이다. 그는 부드럽게 미소짓고 조용히 베토벤의 펠 로디에 맞추어 말했다. '그렇게 해야 하나?' 토마스는 다시한번 말했다. '네 그렇게 할 수 밖에요' 16 파르메니테스와 다르게 베토벤에게는 무거움이 명백히 어떤 궁극적인 것이었다. (힘겹게 내린 결심)은 운명의 소리(그렇게 할 수 밖에!)와 연관되어 있다. 무 거움, 필연성, 가치는 서로 긴밀히 연관된 세 개념이다. 필연적인 것만이 무겁고, 무게있는 것만이 가치가 있다. 이러한 확신은 베토벤의 음악에서 탄생했다. 그리고 작곡가 베토벤 자신보다 도 오히려 그의 해설자인 연주가들에게 그러한 확신 @P 46 에 대한 책임이(개연성은 없지만) 있을 수 있다고 할지라도, 오늘날 우리 모두 는 다소 이 확신에 동조한다. 우리에게 인간의 위대성은 인간이 자기의 운명을, 마치 아틀라스(역주: 희랍신화에서 하늘을 떠받치고 있는 거대한 신)가 천개를 자기 어깨에다 받쳐들고 이었듯. (받쳐들고 있다)는 데 있다. 베토벤의 주인공은 형이상학적 중량을 들어올리는 역도선수다. 토마스는 스위스 국경을 갔다. 시무룩한 표정을 짓고 있는 베토벤이 머리는 어지럽게 헝크러뜨린 채 직접 소방대 악단을 지휘하여 토마스의 이민생활 작별 을 위해 그에게 행진곡 (그렇게 할 수 밖에!)를 연주해 주었다고 나는 생각해 본 다. 토마스는 체코 국경을 통과하자 곧 러시아군 전차대열과 만났다. 그는 교차로 앞에 멈추어서, 이들 전차가 모두 지나갈 때까지 반시간이나 기다려야 했다. 검은 제복을 입은 섬뜩한 탱크 운전병이 교차로 위에 서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었다. 마치 체코의 모든 도로가 자기 혼자의 소유인 것처럼. (그렇게 할 수 밖에!)하고 토마스는 혼잣말로 반복했다. 그러나 그는 곧 이것 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정말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가? 하고. 틀림없다. 쿼리히에 남아, 프라하에서 테레사 혼자 산다는 것을 생각하기란 견 딜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그의 동정이 그를 얼마동안 괴롭혔을까? 평생동안? 일년내내? 한 달 동안을까? 아니면 다만 일주일 동안만 그를 괴롭혔을까? 어떻게 그가 그것을 알 수 있었겠는가? 어떻게 그것을 검토할 수 있었겠는가? 물리시간에 학생은 어느 누구나 실험을 통해 어떤 학문적 가설이 맞는지 검 토할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은 오직 한평생을 살 뿐 @p 47 이다. 그에게는 가정의 정당함을 실험을 통해 증명할 가능성이 없다.

그 때문에 자기 감정에 따랐던 것이 옳았는가 아니면 잘못되었는가를 그는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그가 자기 집 문을 열었을 때 그의 생각은 거기에까지 이르렀었다. 카레닌이 그에게 뛰어올랐다. 이것은 재회의 순간을 어렵지 않게 해주었다. 테레사의 품에 안기고 싶은 욕구가 (이 욕구는 그가 쿼리히에서 자동차에 탔을 때 느꼈던 것이 다) 완전히 사라졌다. 그 감정은 마치 눈 쌓인 들판 한가운데서 그녀와 마주보고 서서 두 사람 모두 추위 몸을 떨고 있는 듯했다. 제17장 러시아군 점령 이후 러시아의 군용기들은 밤마다 프라하 상공을 날았다. 토마스는 이 소음에 익숙하지 않아 잠들 수가 없었다. 그는 잠자고 있는 테레사의 옆에서 얼치락뒤치락 몸을 움직였다. 그는 그녀가 오래전에 하찮은 대화에서 그에게 말했던 것을 생각했다. 그들은 그때 그의 친구 <Z>에 관해 이야기했었다. 그때 그녀는 말했다. 「당신을 만나지 않았던들 나는 틀림없이 그에게 반했을 거예요」 그 당시 이 말은 토마스를 이미 독특한 멜랑콜리에 젖어들게 했었다. 말하자면 테레사가 그를 사랑하고 그의 친구 <Z>를 사랑하지 아니한 것이 다만 우연 이었다는 것이 갑자기 그에게 분명해졌던 것이다. 토마스에 대한 그녀의 실현되었던 사랑 외에도, 가능성의 영역에는 다른 남자들에 대한 무한히 많은 실현되지 아니한 사랑이 있다는 것이 갑자기 그에게 분명해졌다. @p 48 우리들 삶의 사랑이 어떤 가벼운 것, 어떤 무게 없는 것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우리들의 사랑이 어떤 필연적인 것이라는 것, 즉 우리들의 사랑이 없을 경우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이 아닐 것으로 우리는 생각한다. 헝클어진 머리를 하고 시무룩한 표정을 짓고 있는 베토벤이 직접 그의 <그렇게 할 수 밖에!>를 우리들의 큰 사랑을 위해 연주 한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한다. 토마스는 그의 친구 <Z>에 관한 테레사의 말을 회상했다. 그의 삶이 지닌 사랑의 역사에서는 <그렇게 할 수 밖에!>가 아니라 <달리 할 수도 있어!>가 울려 퍼진다는 것을 그는 확인했다. 7년 전 <우연히> 테레사가 살았던 도시의 병원에서 복잡한 뇌병 케이스가 하나 나타났다. 그래서 토마스의 과장(의사) 선생님은 급한 대진 부탁을 받았다. <우연히도> 그때 과장 선생은 좌골신경통을 앓아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래서 토마스를 대리료 그곳 지방병원으로 보냈다. 그 도시에는 다섯 개의 호텔이 있었다. 그런데 토마스는 <우연히도> 테레사가 일하고 있던 곳에서 내렸다. <우연히도> 그에게는 기차가 출발하기 전 다소의 시간이 있었다. 그래서 그는 어느 레스토랑에 들어갔다. 테레사가 <우연히도> 일하는 시간이었고 <우연히도> 그가 앉은 식탁 시중을 들었다. 따라서, 마치 토마스 자신이 전혀 그녀에게 가려 하지 아니한 것처럼, 그를 그녀에게로 밀치기

위해서는 여섯 번의 우연이 필요 했었다. 그는 그녀 때문에 프라하로 되돌아왔다. 이 막중한 결단은 그의 과장 선생이 7년 전 좌골신경통에 걸리지 않았던들 전혀 존재하지도 않았을, 그토록 우연한 사랑에 근거했다. 그리고 절대 우연을 구체화시키고 있는 이 여인이 이제 그의 곁에 누워서 잠 속에서 깊은 숨을 쉬고 있었다. @p 49 벌써 밤도 깊었다. 정신적 피로움이 있을 때 흔히 있는 위의 통증이 나타났음을 그는 느꼈다. 그녀의 숨소리는 한두 번 조용히 코고는 소리로 넘어갔다. 토마스는 한치의 동정도 느끼지 못했다. 그가 느꼈던 유일한 것은 위에서의 압박감과 자기가 돌아온 데 대한 실망이었다. @p 51 **제2부**

육체와 영혼 @p 53 제1장 작가가 자기의 작중인물이 실제 살았노라고 독자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한다면 이것처럼 바보짓거리도 없을 것이다. 작중인물은 어머니 뱃속에서 탄생한 것이 아니라 몇몇 암시적인 문장이나 어떤 키 포인트가 되는 상황에서 탄생한다. 토 마스는 <한 번은 없었던 것과 같은 것>이란 관용어에서 태어났고 테레사는 꾸 르룩거리는 배에서 태어났다. 그녀가 처음으로 토마스가 살던 집에 들어설 때 그녀의 뱃속이 꾸르룩거렸다.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었다. 그녀는 그날 점심도 저녁도 먹지 않았기 때문이다. 먹은 것이라곤 오직 그날 오전 기차에 오르기 전 플랫폼에서 먹은 샌드위치 하나 뿐이었다. 그녀는 그녀의 대담한 여행에 완전히 정신을 쏟고 있어서 식사하는 것을 망각했던 것이다. 자기의 육체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더욱더 쉽게 육체의 희생이 된다. 그때 토마스의 앞에 서서 자기의 뱃속이 요런하게 소리내는 것을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난처한 일이었겠는가. 그녀는 거의 울음을 터뜨릴 지 경이었다. 다행스럽게 토마스가 @P 54 10초 뒤 그녀를 포옹해 주었다. 그래서 그녀는 자기 뱃속의 소리를 잊을 수 있었다. 제2장 테레사는 무자비하게도 기본적 인간경험인, 육체와 영혼이 통합될 수 없는 이 원성을 드러내주는 상황에서 탄생했다. 아득한 옛날 언젠가 인간은 자기 가슴속의 규칙적인 고동소리에 놀라 귀를 기울였다. 하나 그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 그는 육체 처럼 그토록 낯설고 생소한 것과 자신을 일치시킬 수 없었다. 육체는 일종의 새 장이었다. 그리고 그 속에 보고 듣고, 두려워하고 생각하며 놀라워하는 그 무엇이 있었다. 육체를 빼낸 다음 남는 잔유물, 그 무엇이 영혼이었다. 오늘날 육체는 더 이상 생소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알고 있다. 가슴속에서 고 동치는 것이 심장이고, 코는 허파에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 육체에서 밖으로 돌 출한 호스의 끝이라는 것을, 사람의 얼굴은 소화시키고, 보고 듣고 숨쉬고 생각 하는 육체의 모든 기능이 집결되어 있는 일종의 계기관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인간이 자기 육체에

붙어 있는 모든 것을 명명할 수 있게 된 이래 육체는 인간을 덜 불안케 한다. 또한 우리는 영혼이란 것이 회색빛 덩어리의 뇌 활동 외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육체와 영혼의 이원성은 학문적 개념으로 감싸지게 되었다. 오늘날 이러한 이원성은 시효를 잃은 선입관으로서 우리는 흔쾌히 그것을 조소할 수 있다. 그러나 한번 훌쩍 반해서 자기의 내장에서 꾸르륵거리는 소리를 @P 55 들어보기만 해보라. 그러면 이미 학문적 시대의 서정적 환상인 육체와 영혼의 통일성을 해체되고 만다. 제3장 그녀는 자기 육체를 통해 자신을 보려 애썼다. 그때문에 그녀는 종종 거울 앞에 섰다. 그럴 때 어머니에게 들키지 않을까 걱정했기 때문에 거울을 들여다 보는 그녀의 시선은 몰래 저지르는 최악의 성격을 띠었다. 그녀는 거울 앞으로 유혹한 것은 허영이 아니라 자신의 자아를 보는 데 대한 놀라움이었다. 그녀는 자기 육체기능의 계기판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을 망각했다. 그녀는 자기 얼굴 모습에서 나타나는 자기의 영혼을 본다고 믿었다. 그녀는 코가 다만 허파로 가는 공기통의 끝에 불과하다는 것을 망각했다. 그녀는 자기 얼굴에서 자기 성격의 순수한 표현을 보았다. 그녀는 자신을 오랫동안 관찰했다. 때때로 자기 얼굴에서 어머니의 모습을 발견하고 당황해했다. 그 때문에 그녀는 더욱더 집요하게 자신을 관찰했고, 어머니의 모습을 지워 생각하려고 안간힘을 썼다. 결국 그녀는 자기 얼굴에서 어머니의 모습을 완전히 지울 수가 있었다. 그녀 얼굴에는 오직 그녀 자신인 것만이 남아 있어야 했다. 이것이 성공될 때 그것은 감격적인 순간이었다. 그때 그녀의 영혼은 마치 갑판 안에서 밖으로 뛰어나와 온 갑판을 뒤덮고 하늘을 향해 손을 저으며 노래하는 선박의 승무원들처럼 육체의 표면으로 솟아올랐다. @p 56 제4장 그녀는 그녀의 어머니와 닮은 것만이 아니었다. 때때로 나는 그녀의 삶이 다만 어머니 삶의 연장에 불과하다는 인상을 받는다. 마치 당구알 굴러가는 것이 당구 치는 사람의 손동작의 연장인 것처럼 말이다. 뒤에 테레사의 삶으로 바뀐 동작은 언제 어디에서 시작했는가? 아마도 프라하의 상인이었던 테레사의 할아버지가 자기 딸의 아름다움을 최초로 지나치게 칭찬했던 순간일 것이다. 테레사의 어머니는 그때 세 살 아니면 네 살이었다. 그때 그는 테레사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라파엘이 그린 마돈나와 닮았다고 했다. 겨우 네 살의 나이인데도 그녀는 그 말을 귀담아들었다. 그래서 후에 그녀가 중학교 책상에 앉아 공부할 때 그녀는 선생님 말을 듣는 대신에 자기 가 어떤 그림과 비슷한가를 꼼꼼이 생각했다. 그녀가 결혼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 그녀에게는 아홉 명의 구혼자가 있었다. 모두가 무릎을 꿇고 그녀 주위에 둘러앉았다. 마치 공주처럼 그녀는 한가운데 앉아서 누구를

선택해야 할지 알지 못했다. 첫번째 남자는 미남이었고, 두 번째 남자는 재주가 많았고, 세번째 남자는 부자였고, 네번째 남자는 스포티했고, 다섯번째 남자는 가문이 좋았고, 여섯번째 남자는 그녀에게 시를 낭송해주었고, 일곱번째 남자는 온세상을 두루 돌아다닌 사람이었고, 여덟번째 사람은 바 이올린 연주자였고, 아홉번째 사람은 모든 구혼자 중에서 가장 남성적이었다. 그런데 모두가 똑같은 식으로 무릎을 꿇고 있었고, 모두가 똑같이 무릎에 굳은 살이 박혀 있었다. 결국 그녀는 아홉번째 남자를 택했다. 그러나 그가 가장 남성적 @p 57 이었다는 이유에서가 아니었다. 그녀가 그와 서로 사랑하는 동안 그의 귀에 대고 「조심해요, 조심해」 하고 속삭인 순간, 바로 그때 그는 전혀 조심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녀는 임신중절을 할 의사를 제때에 찾아낼 수 없었기 때문에 황급히 그를 남편으로 맞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 식으로 테레사가 태어났다. 수많은 친척들이 체코의 구석구석에서 와 요람을 굽어보고 속삭였다. 테레사의 어머니는 속삭여주지 않았다. 그녀는 입을 다물었다. 그녀는 다른 여덟 구혼자를 생각했다. 여덟 명 모두가 아홉번째였던 남편보다 훨씬 나았다고 생각했다. 딸 테레사처럼 어머니 또한 거울을 들여다보고 자신을 관찰하는 것을 좋아했다. 어느 날 그녀는 자기 눈가에 많은 주름이 생긴 것을 확인했다. 그리고 자기 의 결혼생활이 하나의 착오라고 자신에게 말했다. 그녀는 비남성적인 남자를 만 난 것이다. 그는 여러 차례의 착복 횡령 전과가 있었고 두 번이나 이혼했었다. 그녀는 무릎에 굳살이 박힌 구혼자를 증오했다. 그녀는 스스로 무릎을 꿇고 싶은 무한한 충동을 느꼈다. 그녀는 어느 사기꾼 앞에 무릎을 꿇었고 남편과 테레 사에게서 떠났다. 가장 남성적이었던 남자는 가장 불쌍한 남자가 되었다. 그는 너무나도 슬퍼한 탓으로 모든 것이 그에게는 무관심하게 되었다. 어디에서나 그는 생각나는 대로 지껄여댔다. 그는 무지막지한 진술을 함으로써 공산당 경찰을 자극시켰다.경찰은 그를 체포했고 재판하여 투옥시켰다. 그의 집은 차압당했고 테레사는 어머니에 게로 갔다. 더없이 불쌍한 그 남자는 투옥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죽었다. 어머니는 그녀의 사기꾼과 테레사와 함께 산기슭에 있는 작은 도시로 이사를 했다. 테레사의 의붓아버지는 어떤 관청에서 일했고 어머니는 상점 점원이 되었다. 어머니에게는 테레사 말고도 세 아이 @p 58 가 있었다. 어느 날 그녀는 다시금 거울을 보고 자신을 관찰했다. 그리고 자기 가 늙고 추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제5장 그녀는 모든 것을 상실했다는 것을 확인하자 죄 있는 남자를 하나 찾았다. 모두 죄가 있었다. 남성적이고 사랑을 받지 못했던 그녀의 첫번째 남편은 죄가 있었다. 그는 그녀가 그의 귀에 대고

조심해야 한다고 속삭였는데도 이에 따르지 않았었다. 남성적이 못되었으나 사랑을 받았던 그녀의 두번째 남편은 죄가 있었다. 그는 그녀를 프라하로부터 작은 도시로 끌고 갔고, 그곳에서 모든 여자들의 꿈무늬를 쫓아다녀 그녀의 질투가 하루도 잠잠 날이 없었다. 이 두 남자에 대해 그녀는 힘이 없었다. 그녀의 말에 순종했고 그녀로부터 떠나갈 수 없는 유일한 인간, 모든 남자들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인질, 그것은 테레사였다. 어쩌면 그녀가 실제로 그녀 어머니의 운명에 책임이 있었는지 모른다. 그녀는 가장 남성적인 남자의 정자와 가장 아름다운 여자의 난자가 서로 만난 어처구니 없는 결과이기 때문이다. 테레사라고 일컫는 그 운명적 순간에 어머니에게는 실 패한 그녀 삶의 마라톤이 시작되었던 것이다. 어머니는 테레사에게 어머니가 된다는 것은 모든 것을 희생시키는 것임을 끊임 없이 설명해 주었다. 그녀의 말은 설득력이 있었다. 그녀의 말은 자기 아이 때문에 모든 것을 상실하고 만 한 여인의 경험을 표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테레사는 귀담아듣고 믿었다. 인생에서 가장 값진 가치는 어머니가 되는 것이며, 어머니가 @p 59 되는 것은 크나큰 희생이라고 믿었다. 어머니가 되는 것이 하나의 <희생>이라면, 딸의 운명은 결코 속죄될 수 없는 하나의 <죄>인 것이다.

제6장 물론 테레사는 그녀의 어머니가 아버지 귀에다 조심하라고 속삭였던 그날 밤 이야기를 알지 못했다. 테레사는 일종의 죄의식을 느꼈다. 하지만 그것은 원죄처럼 불확실했다. 그녀는 그 죄를 속죄하기 위해 모든 것을 다했다. 어머니는 딸이 15세 되었을 때 학교를 그만두게 했다. 그 후 그녀는 식당 종업원으로 일했고 그녀가 번 돈을 모두 어머니에게 주었다. 그녀는 어머니의 사랑을 얻기 위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모두 할 각오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살림을 돌보았고 자기 동생들을 보살폈다. 일요일에는 온종일 청소하고 빨래하는 시간을 보냈다. 그것은 안타까운 일이었다. 왜냐하면 학교 다닐 때 그녀는 반에서 공부를 제일 잘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보다 높이 오르고자 했다. 하지만 이 작은 시골 도시에서 그녀에게 보다 높은 곳은 없었다. 테레사는 빨래를 빨았다. 그런데 빨래통 옆에는 언제나 책 한 권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책장을 넘겼고 물방울이 책 종이에 떨어졌다. 집에서는 수치심이라곤 없었던 어머니는 속옷만 입고 집안을 돌아다녔다. 때로는 브래지어도 하지 않고, 때로는 여름날에는 아주 알몸으로 집안을 돌아다녔다. 의붓아버지는 알몸으로 돌아다니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는 테레사가 욕조에 들어가 물 속에 누워 있을 때면 언제나 욕실로 들어왔다. 그때문에 그녀가 언젠가 한번 @p 60 욕실문을 잠그자 어머니는 야단법석을 했다. 「넌 너를 도대체 누구로 생각하

느냐? 도대체 내가 누구라고 믿느냐? 네 아버지는 너의 미모를 훑쳐보지 않을 테니 염려하지 마!」 (이 상황은 딸에 대한 어머니의 증오가 남편이 자극하는 질투심보다 강하다는 것을 아주 분명히 하고 있다. 딸의 죄는 무한히 컸고 남편의 부정(不貞)까지도 내포한 것이 되었다. 딸이 해방되어 자기의 권리 주장을—예컨대 목욕할 때 욕 실문을 잠가두는 권리 같은 것—하러 한다면, 어머니에게 그것은 여하한 경우에 도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차라리 남편이 테레사에게 눈독을 들이는 것은 용납할 수 있을 것이다.) 어느 겨울날 저녁 어머니는 불을 켜놓은 채 알몸으로 집안을 돌아다녔다. 테레사는 건너편에 사는 이웃사람들이 어머니를 볼 수 없도록 재빨리 커튼을 닫았다. 그녀는 등뒤에서 웃음소리를 들었다. 다음날 어머니의 여자친구분들이 방문 했다. 한 분은 이웃이었고, 한 분은 상점 동료였으며, 한 분은 같은 구역에 사는 여선생, 그리고 규칙적으로 만나는 두세 명의 여자들이었다. 테레사는 이들 중 한 여자분의 16세짜리 아들과 함께 방으로 들어갔다. 어머니는 즉각 이 기회를 이용하여 자기 딸이 자기의 수치심을 보호하려 했다는 것을 이야기했다. 그녀는 웃었다. 그러나 모든 여자들이 함께 웃었다. 그러자 어머니가 말했다. 「테레사는 인간 육체가 오줌 싸고 방귀 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순응하려 하지 않는 거야」 그리고는 즉각 요란한 소리로 방귀를 킴으로서 스스로 대답했다. 모든 부인들이 웃었다. @p 61 제7장 어머니는 소리 높이 코를 골고,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신의 성생활에 대해 이야기한다. 또한 자기 틀니를 뽑아 보이기도 한다. 그녀는 틀니를 놀랍도록 익숙하게 혀를 이용하여 잇몸으로부터 떨어지게 한다. 한번 활짝 웃으면서 윗니를 아랫니에서 떨어지게 함으로써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녀의 얼굴은 갑자기 징그러운 표정을 갖는다. 그녀의 이 태도는 그녀의 젊음과 아름다움을 던져버리기 위한 유일하고도 잔인한 제스처다. 아홉 명의 구혼자가 무릎을 꿇고 그녀 주위를 둘러앉았던 그때, 그녀는 살이 드러날까봐 부끄러워 세심한 신경을 썼다. 마치 그녀 육체의 가치를 그녀의 부끄러움의 척도에서 재려고 하는 것처럼 그랬다. 오늘에 와서 그녀가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그녀는 이 점에서 아주 극단적이다. 그것은 마치 그녀가 수치심을 모르는 그녀의 태도로써 그녀의 삶말에 엄숙하게 선을 긋고, 자기가 과대평가했던 젊음과 아름다움이 실은 아무런 가치가 없노라고 소리 높여 외치려는 것처럼 보였다. 테레사는 내게 바로 이 제스처의 연장인 것처럼 보였다. 아름다운 여인으로서의 그녀 어머니는 그러한 제스처로 그녀의 삶을 멀리 던져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테레사의 행동이 신경질적이고 그녀의 제스처가 우아하지 못할 때 우리는 놀랄 필요가 없다. 거칠고 자기

파괴적인 어머니의 그 큰 제스처가 테레사가 남아 있었다. 아니 테레사가 되어버렸다!) @p 62 제8장 어머니는 정의를 요구하고 죄 있는 사람에게 벌이 내리기를 바랐다. 그 때문에 그녀는 그녀의 딸이 자기와 함께 부끄러움을 모르는 세계에 머물 것을 고집 한다. 그러한 세계에서는 젊음과 아름다움이 전혀 의미가 없고 세상 모두가 똑 같을 뿐, 영혼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거대한 하나의 육체 집단수용소에 불과하다. 이제 우리는 테레사가 비밀리에 행하는 최악의 의미를 보다 잘 이해할 수가 있다. 즉 자주 오랫동안 거울을 들여다보는 그녀의 행위를 보다 잘 이해할 수가 있다. 그것은 그녀에게는 어머니와의 싸움이였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처럼 하나의 육체가 되지 않고, 자기 얼굴 표면에서 영혼의 승무원들이 배의 내부로부터 밖으로 뛰어나오는 것을 보려는 소망이였다. 그것은 단순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영혼이 겁에 질리고 위축되어, 기가 죽고 슬픈 나머지 테레사의 내장 깊숙한 곳으로 숨어버려 전면에 나오기를 부끄러워했기 때문이다. 그녀가 토마스를 처음으로 만났던 그날 테레사는 바로 그런 상태였다. 그녀는 식당 술집에서 술취한 사람들 틈을 왔다갔다하느라 안간힘을 썼다. 그녀의 몸은 그녀가 둥근 판자 위에 엎어 나르는 맥주조끼의 무게에 눌러 휘청 굽었다. 그리고 그녀의 영혼은 위나 책장 어디엔가 깊숙이 숨어 있었다. 이 순간 토마스가 그녀에게 말을 걸었다. 그는 그녀의 어머니도 알지 못했고 또 그녀에게 매일 짓 궂은 말을 건네는 술꾼들도 알지 못하는 어느 누구였기 때문에, 그가 그녀에게 말을 건 것은 더욱더 의미가 있었다. 낯선 사람의 신분이란 것이 그를 다른 사람들보다 격상시켰다. @p 63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다. 펴놓은 책이 그의 탁자 위에 놓여 있었다. 이 호텔 식당에는 아직 어느 누구도 책을 펴놓고 보는 사람은 없었다. 책은 테레사에게 어떤 비밀협회의 식별표지였다. 그녀를 둘러싼 거친 세계에 대해 그녀는 말하자면 단 하나의 무기를 소유하고 있었다. 그것은 그녀가 시립도서관에서 빌리는 책들이였다. 특히 소설류를 많이 빌렸다. 그녀는 필딩에서 토마스 만에 이르는 작가들의 수많은 소설을 읽었다. 이 소설들은 그녀에게 자기의 불만스런 삶에서 환상적으로 도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해 주었다. 또한 동시에 그것들은 대상으로서도 의미가 많았다. 그녀는 팔 밑에 책을 끼고 길을 산보하기를 좋아했다. 책은 그녀에게 지난 세기의 멋쟁이들의 근사한 지팡이와 같은 것이였다. 책을 통해 그녀는 다른 사람들과 구분되였다. (책과 멋쟁이의 근사한 지팡이와의 비교가 아주 올바른 것은 못된다. 지팡이는 멋쟁이의 식별표지였고 또한 그의 모던하고 유행적인 존재로 만들었다. 책은 테레사를 다른 사람들과 구분지어 주지만 그녀를 유행에

뒤지게 했다. 그러나 그 녀는 나이가 너무 어려 무엇이 그녀에게서 유행에 뒤진 것이었나를 알지 못했다. 요란한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들고 그녀 옆을 지나가는 젊은 남자들을 그녀는 멍청하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들이 모던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녀에게 말을 걸었던 바로 그 남자는 말하자면 낯선 사람이었고 동시에 어떤 비밀협회의 회원격이었다. 그는 공손한 어조로 말했다. 그리고 테레사는 그녀의 영혼이 모든 핏줄과 땀구멍을 통해 뛰쳐나와 자신을 그에게 보이려 하는 것을 느꼈다. @p 64 제9장 취리히에서 프라하로 돌아오는 도중 토마스에게는 자기와 테레사의 만남이 여섯 번의 거의 불가능한 우연에 근거했다는 생각에 일종의 불쾌감이 들었다. 하지만 어떤 사건은 그것의 발생을 위해 필연적인 우연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옥더 의미가 많아지고 더욱더 중요하게 되지 않는가? 오직 우연만이 메시지로서 이해될 수 있다. 필연성에서 발생하는 것, 예측할 수 있는 것, 매일 반복되는 것에는 메시지가 없다. 오직 우연만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해 준다. 우리는 우연에서, 마치 집시여인들이 잔의 밑바닥에 그려진 커피세트의 무늬를 보고 점을 치듯 무엇인가를 읽으려 애쓴다. 그 호텔 식당에 토마스가 나타난 것은 테레사에게는 절대적 우연의 계시였다. 그는 책을 앞에 펴두고 탁자에 앉아 있었다. 그는 테레사를 쳐다보고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다. 「코냑 한 잔 줘요!」 이 순간 음악이 라디오에서 울려나왔다. 테레사는 코냑을 가져 오기 위해 카운터로 갔다. 그리고 라디오 소리를 더 크게 하려고 스위치를 돌렸다. 그녀는 이 음악이 베토벤임을 다시금 알아차렸던 것이다. 그녀는 프라하의 한 4중주단이 그녀의 이 도시에서 초청 연주를 한 이래 베토벤의 이 곡을 알고 있었다. 테레사는(우리가 알다시피 그녀는 <보다 높은 것>에 대해 꿈꾸었다)이 콘서트에 갔었다. 홀은 텅 비어 있었다. 그녀 외에 다만 약제사가 부인과 함께 와 있었다. 단상 위에는 네 명의 악사들이 앉아 있었고, 홀에는 세 명의 청중이 앉아 있었다. 그러나 이 악사들은 아주 친 @p 65 절하여 콘서트를 그만두지 않았다. 그들은 하루 저녁 내내 단 세 사람을 위해 베토벤의 마지막 세 4중주곡을 연주했다. 콘서트가 끝나고 나서 약제사는 음악가들을 식사에 초대했고, 그가 알지 못하는 여자 청중 테레사까지도 합류해 줄 것을 간청했다. 그 이래 베토벤은 그녀에게 <다른 편에 있는> 세상의 형상이었다. 그녀가 꿈꾸었던 세계의 형상이었다. 그녀가 주문한 코냑을 카운터로부터 토마스가 앉아 있는 탁자로 가져오는 동안, 그녀는 이 우연에서 무엇인가를 읽으려고 애썼다. 그녀가 자기의 마음이 끌리고 있는 알지 못하는 이 남자에게 코냑을 날라다 주고 있는 지금 하필이면 베토벤 곡을 듣는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마술처럼 신비스런 것은

필연이 아니고 우연이다. 사랑이 잇을 수 없는 것이 되자면 처음 순간부터 우연들이 사랑 위에 내려앉아 있어야 한다. 마치 성자 프 란츠 폰 아시아의 어깨 위에 내려앉은 새들처럼.

제10장 그는 술값을 지불하기 위해 그녀를 불렀다. 그는 책(비밀협회의 식별표지)을 접었다. 그녀는 그가 무슨 책을 읽는가고 기꺼이 물었을 것이다. 「내 호텔 계산으로 달 수 있나요?」 「물론이죠, 당신의 호텔방 번호는요?」 그는 호텔방 열쇠가 매달려 있는 팻말을 그녀에게 보였다. 거기에는 붉은색으로 6이라는 숫자가 써어 있었다. 「이상한데, 6호실이라」 하고 그녀는 말했다. @p 66 「그것이 어째서 이상하단 말시오?」 하고 그는 물었다. 그녀는 그녀의 양친이 이혼하기 전 살았던 프라하의 집 번호가 6이었음을 회상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전혀 달리 대답했다(우리는 그녀의 약삭빠른 재치에 놀랄 뿐이다). 「당신의 호텔방 번호는 6이고, 저는 6시에 근무를 끝내거든요」 「그런데 내가 탈 기차는 7시에 떠나요」 하고 낯선 사람은 말했다. 그녀는 무슨 말을 해야할 지 몰랐다. 그녀는 그에게 서명할 계산서를 건네주었고 그것을 수납에 갖다주었다. 그녀가 근무를 끝냈을 때 그 낯선 남자는 이미 그의 탁자에 앉아 있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은근한 메시지를 이해했는가? 그녀는 흥분되어 식당을 떠났다. 맞은편에 작은 공원이 하나 놓여 있었다. 몇 그루 되지 않는 나무들이 보잘것 없이 가꾸어져 있었다. 더러운 소도시의 공원이었다. 그러나 그곳은 그녀에게는 언제나 아름다운 섬이었다. 그곳에는 잔디밭이 있었고, 네 그루의 버드나무, 벤치, 수양버들, 개나리나무가 있었다. 그는 노란 벤치에 앉아 있었다. 그곳에서는 호텔식당의 입구를 볼 수 있었다. 바로 이 벤치에서 어제 그녀는 무릎 위에 책을 놓고 앉아 있었다! 이 순간 그녀는 알지 못하는 이 남자가 자기에게 정해진 사람임을 파악했다(우연의 새들이 그녀의 어깨 위에 내려앉은 것이었다). 그는 그녀에게 말을 걸고 자기 옆에 앉으라고 권했다(영혼의 선원들이 육체의 갑판 위로 뛰쳐나왔다). 그런 다음 얼마 뒤 그녀는 그를 동반하여 역에까지 갔다. 그곳에서 그는 그녀와 작별할 때 전화 번호가 적힌 자기의 명함을 주며 말했다. 「언젠가 우연히 프라하에 올 기회가 있을 때……」 @p 67 제11장 그가 그녀에게 마지막 순간에 주었던 이 명함보다도 훨씬 더 크게 그녀에게 작용한 것은 우연의 손짓(책, 베토벤, 6번, 공원에서의 노란 벤치)이었다. 그것은 그녀에게 집을 떠나 자신의 삶을 바꾸겠다는 용기를 주었다. 그녀의 사랑을 동하게 하였고, 그녀 삶의 마지막까지 공급원이

될 에너지 원천이 되었던 것은 어찌면 이 우연들이었는지 모른다(그런데 이들 우연은 아주 평범한 것으로서 두드러진 것이 못되며 하찮은 이 소도시의 격에 맞다고 볼 수 있다). 우리들의 일상은 우연의 폭격을 받는다. 더 정확히 말하면 흔히 우리가 우연의 일차라고 일컫는 인간과 사건 간의 우연한 만남으로 점철된다. 예기치 않았던 두 사건이 동시에 발생한다든지, 이 두 사건이 서로 만날 때 우리는 우연의 일차에 대해 말한다. 토마스가 라디오에서 베토벤 곡이 방송될 때, 바로 그 순간 그 식당에 나타난 것이다. 그와 같은 우연의 일차들은 아주 빈번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흔히 그것을 감지하지 못한다. 토마스가 아니라 식당옆에 사는 푸줏간 주인이 식당의 그 식탁에 앉았던들 라디오에서 베토벤 곡이 연주되었던 것이 테레사에게는 눈에 띄지 않았을 것이다(비록 베토벤과 푸줏간 주인의 만남 역시 재미있는 우연의 일차이겠지만). 그러나 싹트고 있는 사랑은 테레사에 있어서 아름다운 것에 대한 감각을 예민하게 했고 그녀는 이 음악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이 음악을 듣게 될 때마다 그녀는 감동될 것이다. 그리고 이 순간 그녀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그녀에게 이 음악의 찬란한 빛을 띠고 나타날 것이며 아름다운 것이다. @p 68 그녀가 토마스에게 올 때 팔에 끼고 있었던 그 소설의 시작 부분에서 안나와 브론스키가 독특한 상황에서 서로 만난다. 그들은 플랫폼에서 있었는데 바로 그때 그곳에서 누가 차 밑으로 떨어졌다. 이 소설의 마지막에서 안나는 기차 밑으로 몸을 던진다. 동일한 모티브가 처음과 마지막에 나타나는 이 대칭적 구조가 독자 여러분에게는 너무나도 <소설처럼>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나도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소설처럼>이란 말은 여하한 경우에도 <만들어낸>, <인위적인>, 혹은 <삶과는 낯선> 등의 말로 이해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그것을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삶은 바로 위에서와 똑 같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죠. 인간의 삶은 음악 작품처럼 구성되어 있다. 미적 감각에 이끌린 사람은 어떤 우연한 사건(베토벤의 음악, 정거장에서의 죽음)을 차기 인생의 총보에 담는 하나의 모티브로 변형시킨다. 그는 마치 작곡가가 자기 소나타의 테마를 전조(轉調)하듯 그 모티브를 다시금 수용하고 반복하며, 변형하고 반전시킨다. 안나는 자기의 생명을 달리 끊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정거장과 죽음의 모티브, 그녀 사랑의 탄생과 결부된 이 잊을 수 없는 모티브는 절망의 순간에 그것의 어스름한 아름다움으로 그녀의 마음을 끌었다. 인간은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삶을 아름다움의 법칙에 따라 구성한다. 이것은 더없이 깊은 절망의 순간에서도 마찬가지다. 그 때문에 우리는 소설이 우연들의 신비한 만남에 매료되어 있다고 비난할 수 없다(예컨대

브론스키, 안나, 플랫폼, 죽음의 서로 만남이라든가 혹은 베토벤, 토마스, 테레사, 코냐의 서로 만남 등). 그러나 인간이 일상에서 그러한 우연에 대해 눈멀고 그래서 삶에서 아름다움의 영역을 빼버린다고 그 인간을 비난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 제3부 이해되지 아니한 단어들 @p 69

제12장 그녀의 어깨에 내려앉은 우연의 새들에서 용기를 얻어 그녀는 어머니에게 한 마디 말도 하지 않고 일주일간 휴가를 받아냈다. 그리고는 기차를 탔다. 그녀는 자주 화장실에 가 거울을 들여다보고 그녀의 영혼이 그녀 삶의 이 결정적인 날에 잠시도 그녀 육체의 갑판으로부터 떠나지 말아줄 것을 간청했다. 그런 식으로 거울에 비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녀는 갑자기 깜짝 놀랐다. 그녀는 목 안이 쓰림을 느꼈다. 하필이면 이 운명적인 날에 병이 나아만 했던가? 그러나 되돌아갈 수는 없었다. 그녀는 역에서 그에게 전화했다. 그리고 그가 문을 열어주는 순간 그녀의 뱃속은 요란하게 꾸르륵 거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부끄러워 어지랄 바를 몰랐다. 그것은 마치 그녀의 어머니가 뱃속에 들어앉아 그녀의 랑데부를 망치기 위해 요란한 진동소리를 내며 웃는 것처럼 여겨졌다. 처음 순간 그녀는 그가 자기를 이 어처구니없는 뱃속 소리 때문에 내보낼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그녀를 두 팔로 꼭 안아주었다. 그가 꾸르륵 거리는 뱃속 소리를 들어주지 아니한 데 대해 그녀는 그에게 더욱더 정열적으로 키스했고 눈앞은 눈물 때문에 안개막이 낀 듯 보이지 않았다. 시간은 정지했고 그들은 사랑했다. 그때 그녀는 소리를 질렀다. 그녀에게는 이미 열이 있었다. 독감에 걸렸던 것이다. 산소를 허파로 공급하는 호스의 입구가 빨개졌고 막혀버렸다. 그러고서 그녀는 다시 한번 그녀의 모든 소유물을 꾸러 담은 무거운 트렁크를 가지고 왔다. 그녀는 다시는 그녀의 작은 도시로 @p 70 돌아가지 않으리라 결심했다. 그는 그녀를 다음날 저녁에야 비로소 초청했다. 그래서 그녀는 값싼 호텔에서 밤을 지냈다. 이튿날 아침 그녀는 트렁크를 역의 수화물 보관소로 가져가 보관하고 하루 종일 소설 안나 카레니나를 팔에 끼고 프라하의 거리를 어슬렁거리면서 돌아다녔다. 저녁에 그녀는 그의 집 초인종을 울렸다. 그는 문을 열었고 그녀는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마치 그것이 토마스의 세계로 들어가는 입장권인 것처럼, 그녀는 통행증으로서 보잘것없는 이 입장권 외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는 것을 명백히 의식했다. 그녀는 더없이 울고 싶었다. 그러나 울지 않으려고 그녀는 말을 많이 했고, 소리 높여 이야기했고 웃었다. 첫번째와 마찬가지로 그는 그녀가 도착하자 곧 두 팔로 안아주었고, 그들은 사랑의 동침을 했다. 그녀는 안개처럼 몽롱한 상태 속에 침잠했다. 이 상태에서 그녀는 아무것도 볼 수도, 들을 수도 없었다. 오직 그녀는

외침소리만이 있었다. 제13장 그것은 한숨소리도 신음소리도 아니었다. 그것은 실제 외침소리였다. 그녀가 그토록 소리 높이 외쳐, 토마스는 그의 귀에다 대고 외친 이 소리가 그의 고막을 찢기라도 하는 것처럼 그녀의 얼굴에서 머리를 돌렸다. 이 외침은 육육의 표현이 아니었다. 육육이란 모든 감각의 가능한 최대 동원이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긴장해서 바라보며 극히 미세한 소리도 감지하는 상태다. 그것과는 반대로 그녀의 외침소리는 감각을 마비시켜, 들을 수도 볼 수도 없도록 하는 것이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외침은 모든 대답들을 지양하 @p 71 하는 그녀 사랑의 소박한 이상주의였다. 육체아 영혼의 이원성 지양, 어찌 먼 시간의 지양까지도 그녀의 사랑은 지향했다. 그녀는 눈을 감았던가? 아니었다. 그러나 그녀의 눈은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텅 빈 천장을 응시하고 있었다. 때때로 그녀는 머리를 격하게 내저었다. 그녀는 외침소리가 조용해졌다. 그녀는 그의 옆에서 잠들었고 밤새도록 자기 의 한 손에 그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벌써 여덟 살 나이에 그녀는 그렇게 한 손으로 다른 손을 잡고 잠들었고,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 그녀 삶의 동반자 손을 잡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녀가 이제 토마스의 손을, 자면서 그토록 고집스럽게 꼭 잡고 있었다면 우리는 이것을 잘 이해할 수 있다. 말하자면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그것을 위한 준비를 했었고, 연 습을 통해 익혔던 것이다. 제14장 보다 높은 것을 지향하는 대신에 술취한 사람들에게 맥주를 팔아야만 하고 일요일에는 동생들의 더러운 빨래를 해야 하는 젊은 처녀는 내면에 큰 생활력을 저장하고 있다. 이 같은 생활력은 대학에서 공부하며 책을 보며 하품하는 사람들에게는 납득이 가지 않을 것이다. 테레사는 이들 모두보다도 더 많이 읽었고, 삶에 대해 더 많이 경험했다. 그러나 그녀는 이 사실을 결코 의식하지 못할 것이다. 대학 공부를 한 사람과 독학한 사람을 구분짓는 것은 풍부한 학식이 아니라 생활력과 자신감의 차이이다. 테레사가 프라하에서 삶에 뛰어 들었던 돌진력은 저돌적이고도 부서지기 쉬운 것 @p 72 이었다. 어느 날 자기에겐 누군가 너는 이곳에 속하지 않아! 네가 왔던 그곳으로 돌아가! 하고 말해 주기를 그녀는 기대라도 하는 것 같았다. 그녀의 온 삶은 가는 끈에 매달려 있었다. 접을 먹고 내장 깊숙이 숨은 그녀의 영혼을 언젠가 표면으로 나오게 했던 토마스의 소리에 매달리고 있었다. 테레사는 사진실에 직장을 구했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다. 그녀는 스스로 사진 촬영을 하고자 했다. 토마스의 여자친구 사비나는 그녀에게 유명한 사진사들의 사진책을 훑어보며 그들이 보고 있는 각 사진에서 무엇 이 주목할 만한가를 그녀에게 설명해 주었다. 테레사는 사바나의 말을

조용히 주의 깊게 들었다. 아마도 어느 대학교수도 이같은 주의력을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들의 얼굴에서 보지 못했을 것이다. 사비나 덕택에 그녀는 사진과 그림 간의 유사성을 파악했다. 그녀는 프라하에 서 개치되었던 모든 전시회를 자기와 함께 구경가자고 토마스를 즐겼다. 그 뒤 그녀는 그림잡지에 자신이 찍은 사진들을 게재할 수 있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녀는 신문 사진사로 일하기 위해 그 동안 일하던 사진실을 떠났다. 그날 저녁 그들은 그녀의 이 승진을 축하하기 위해 친구들과 함께 바 무도장에 갔다. 토마스는 갑자기 기분이 상했다. 이유를 가르쳐달라고 그녀는 그에게 즐겼다. 집에 돌아와서야 그는 질투했었다고 자백했다. 그녀가 그의 동료와 춤추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그는 말했다. 당신 정말 질투했어요? 하고 그녀는 그에게 적어도 열 번은 물었다. 마치 그가 그녀에게 당신 노벨상 탔어 하고 알려주었는데 그녀가 이 말을 믿지 않으려는 것처럼 그녀는 수없이 묻고 또 물었다. @p 73

그녀는 그의 허리를 잡고 그와 함께 온 방을 돌아다니며 춤추기 시작했다. 그 것은 그녀가 방금 전 바의 플로어에서 추었던 유행춤이 아니었다. 그것은 템포 빠른 일종의 시골춤으로서 멍청하게 꺾충꺾충 뛰는 춤이었다. 그녀는 발을 공중으로 던졌고 서투른 땀질을 하면서 그를 끌고 방을 가로질러 갔다. 유감스럽게도 그녀는 그 후 곧 자신이 질투하게 되었다. 토마스에게 그녀의 질투는 노벨상이 아니고 하나의 짐이었다. 그는 죽기 1년인가 아니면 2년 전에 가서야 비로소 이 짐을 벗도록 되어 있었다. 제15장 그녀는 알몸으로 한 무리의 발가벗은 다른 여자들과 함께 품 주위를 행진해야 했다. 토마스는 위쪽 천장에 매달려있는 바구니안에 서서 그들에게 고함쳤다. 그는 그들을 노래부르게 강요했고 무릎굽히기를 시켰다. 한 여자가 틀린 동작을 할 때면 그는 그녀를 사살했다. 나는 다시 한번 이 꿈 이야기로 되돌아가고자 한다. 질겁한 무서움은 토마스가 처음으로 총을 발사했을 순간에 시작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처음부터 악몽이었다. 발가벗고 다른 발가벗은 여자들과 함께 동일한 템포로 행진한다는 것, 그것은 테레사에게 공포의 원형이었다. 그녀가 어머니에게서 살던 당시 그녀의 육실문을 잠가서는 안 되었다. 어머니는 이것을 통해 그녀에게 말하고자 했다. 너의 육체는 모든 다른 육체들과 같다. 네게는 부끄러움에 대한 권리가 없다. 동일한 형태로 수없이 많이 존재하는 무엇을 @p 74 감출 이유가 네게는 없다. 어머니의 세계에서는 모든 육체가 동일했고 일렬종대로 행진하는 것이었다. 어린 시절부터 나체는 테레사에게 강제노동수용소의 획일화 표지였다. 굴욕의 표지였다. 꿈의 맨 처음에 또 다른 무서운 것이 있었다. 즉 모든 여자들이 노래를 불러야 한다는

것이였다! 그들의 육체는 동일하여, 똑같이 격하된 영혼 없는 소리나 는
장치일 뿐 아니라, 또한 이들 여인은 그것에 대해 즐거워했다! 영혼 없는
자들의 환호하는 단결이였다! 이들 여인은 영혼의 짐을, 이 우스꽝스런
자만을, 유 일무이성에 대한 이 환상을 던져버려 서로가 완전히
동일하다는 데 대해 행복 해했다. 테레사는 그들과 함께 노래불렀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즐겁지 않았다. 그녀는 겁이 나 노래불렀다. 자기가
함께 노래하지 않을 경우 이 여인들은 자기 를 죽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토마스가 그들을 쏘아, 하나씩하나씩 죽어 풀 속으로 떨어진
것은 무 었을 의미한단 말인가? 자신들의 동일성과 구분 불가능한 것을
기뻐하는 이 여 인들은 근본적으로 그들의 앞에 닥칠 죽음을 축하했다.
죽음은 그들의 동일성을 절대화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총의 발사는
소름끼치는 그들 행진의 행복한 종말 일 따름이다. 이러한 근거에서
권총 발사가 있을 때마다 그들은 즐거운 웃음을 터뜨렸다. 시체들이
천천히 물 속에 가라앉는 동안 그들의 노랫소리는 더욱더 높아진다.
총을 쏘는 사람이 왜 하필이면 토마스인가? 그가 테레사까지도 사살하려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테레사를 이 여자들에게로 보낸 것이 그였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이 꿈이 토마스에게 알리고자 한 것이다.
왜냐하면 테레사 스스로 그에게 그것을 말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모든 육체가 동일한 어머니의 세계를 탈출하기 위 해 그에게로
왔었다. 그녀는 자기의 육체가 유일무이하며 전혀 대체할 수 없는 것이
되려 @p 75 고 그에게로 왔었다. 그런데도 토마스 또한 그녀와 다른
여자들간에 동일성 표지를 두었다. 즉 그는 그들 모두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키스하고 그들을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쓰다듬는다. 그는 전혀
구분을 하지 않는다. 그는 테레사의 육 체와 다른 육체들 간의
구분조차도 하지 않는다. 그는 테레사를 그녀가 탈출하 려 했던 세계로
되돌려보낸 셈이였다. 그는 그녀를 다른 여들과 함께 맨몸으 로
행진하게 했다. 제16장 그녀는 세 가지 시리즈의 꿈을 번갈아가면서
꾸었다. 고양이들이 행패를 부리 는 첫번째 시리즈의 꿈은 생시 그녀의
괴로움에 대한 이야기였다. 두번째 것은 수없이 많은 변형으로 그녀의
처형 현상들을 보여주었고, 세번째 것은 그녀의 굴욕이 영속적인 상태가
되어버린 사후의 그녀 삶에 대한 이야기였다. 이들 꿈에서 풀이할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었다. 이 꿈들이 토마스에게 한 비 난들은 너무나
명백하여 그는 다만 입다물고 머리를 떨군 채 테레사의 두 손을 쓰다듬을
뿐이였다. 이 꿈들은 많은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었다. 또한 아름다운
꿈들이였다. 이것 이 바로 프로이트가 그의 꿈 해석에서 빠뜨려놓았던
관점이다. 꿈은 어떤 (아마 도 암호로 된) 보고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또한 미학적인 적극적을 뜻하는 상상 의 유희다. 그리고 이 유희는 그 자체 하나의 가치다. 꿈은 상상의 유희다. 그리고 이 유희는 그 자체 하나의 가치다. 꿈은 상상하는 것, 즉 발생하지 아니한 것 을 꿈꾸는 것이 인간의 가장 깊은 욕구들에 속한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 바로 이 점에 꿈에 숨겨져 있는 배반적인 위협의 근 @p 76 거가 있다. 꿈이 아름답지 않다면 우리는 그것을 빨리 잊어버릴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테레사는 계속해서 그녀의 꿈으로 되돌아왔고 그것을 머릿속에서 반복했다. 그리고 그것을 그녀는 전설로 변화시켰다. 토마스는 테레사의 꿈이 지닌 고통스러운 아름다움의 최면적인 마술 아래에서 살았다.

「테레사, 테레사 당신이 내게서 떠나가는 곳은 어디지? 당신은 마치 정말 나 를 두고 떠나려는 것처럼 매일 죽음의 꿈을 꾸고 있으니」 하고 언젠가 그는 그 들의 어느 포도주 집에서 마주앉아 있을 때 그녀에게 말했다. 낮이었다. 이성과 의지가 다시금 우세한 세력을 잡은 후였다. 한 방울의 빨간 포도주가 천천히 잔을 타고 흘러내렸다. 테레사는 대답했다. 「토마스, 나는 어쩔 수가 없어요. 모두 이해하겠어요. 당신이 나를 사랑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 같은 나의 탈선이 비극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어요」 그녀는 그를 다정하게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녀는 다가오는 밤을 두려워했다. 그녀는 자신의 꿈을 두려워했다. 그녀의 삶은 분열되어 있었다. 밤과 낮이 그녀 를 차지하려고 싸우고 있었다. 제17장 언제나 보다 높이 올라가려는 사람은 언제나 갑자기 현기증이 그를 찾아온다는 것을 계산하고 있어야 한다. 현기증이란 무엇인가? 추락공포증인가? 그렇다면 난간으로 안전장치를 해놓은 높은 전망대에서도 우리에게 현기증이 오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현기증은 추락공포증과는 다른 것이다. 현기증은 깊이가 우리를 유인 @p 77 하는 것을 의미한다. 깊이는 우리 마음속에 추락에 대한 동경심을 불러일으킨다. 그럴 때 우리는 깜짝 놀라 이 동경에 대해 방어한다. 발가벗은 여인들이 풀 주위를 도는 것, 테레사가 자기들처럼 죽었음을 기뻐하는 시체운반차에 실린 죽은 여인들, 이런 것은 바로 그 밀인 것으로서 그것은 그녀를 놀라게 했고, 그녀는 언젠가 이미 그것 앞에서 도망쳤다. 그런데 그녀는 신비스럽게도 그것에 이끌렸다. 그것은 현기증에 대한 그녀의 느낌이였다. 즉 그녀에게는 운명과 영혼을 포기하게끔 하는 달콤한 (거의 즐거운) 부름이 들렸다. 그리고 약해지는 순간에 그녀의 이 부름에 따라 어머니에게로 돌아가고자 했다. 그녀의 영혼의 선원들을 그녀 육체의 갑판으로부터 물러가도록 명령하고, 그녀 어머니의 친구들 편으로 가서 그들 중 누군가가 요란스럽게 방귀 끼는 것을 보고 웃고, 발가벗고 그들과 함께 풀 주위를 행진하며 노래부르고자 했다. 제18장

테레사가 어머니 집에 살았을 때, 계속 어머니와 싸웠다는 것은 맞는 말이다. 그러나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사실은 불행하게도 그녀가 동시에 어머니를 사랑 했다는 것이다. 만약 어머니가 사랑의 목소리로 그녀에게 간청했던들 그녀는 어머니를 위해 무엇이든지 할 각오가 되어 있었을 것이다. 다만 그러한 목소리를 한 번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녀는 집을 떠날 힘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다. 그녀의 어머니가 자기의 공격력이 딸에 대해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녀는 프라하에 있는 딸에게 불평이 가 @p 78 득 담긴 편지를 썼다. 그녀는 그녀의 남편에 대해 불평을 늘어놓았다. 그녀 직 장의 사장, 건강, 자식들에 대한 불만을 썼다. 그리고는 테레사만이 그녀가 세상 에서 가진 유일한 인간이라고 했다. 테레사는 20년 동안 그토록 동경했던 어머니의 사랑의 목소리를 듣는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테레사는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다. 이것은 그녀가 약하다고 느낄 때 더욱더 심했다. 토마스의 불성실은 갑자기 그녀의 무기력을 드러나게 했다. 그리고 이 무기력의 감정에서 현기증이, 추 락에 대한 이 무한한 동경이 발생했다. 언젠가 어머니가 그녀에게 전화했다. 암에 걸려 그녀의 생명은 몇 달밖에 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소식은 토마스의 불성실에 대한 테레사의 실망을 반 향으로 변질시켰다. 그녀는 자기를 사랑하지도 않는 남자 때문에 자기가 어머니를 배반했다고 자신을 나무랐다. 그녀는 어머니가 자기를 괴롭혔던 모든 것을 잊으려 했다. 그녀는 더구나 어머니를 이해할 입장이었다. 이 모녀는 동일한 상 황에 처해 있었다. 어머니는 테레사가 토마스를 사랑하듯 의붓아버지를 사랑했 다. 토마스가 테레사를 괴롭힌 것과 똑같이 의붓아버지는 외도를 함으로써 어머니를 괴롭혔다. 어머니가 테레사에게 화를 냈을 때는 그것은 오직 어머니가 너 무나도 고통받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토마스에게 어머니의 병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에게 일방적으로 말했 다. 일주일간 휴가를 내 어머니에게 가겠노라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반항의 기미 가 있었다. 테레사를 어머니에게로 이끈 것이 현기증 감정이었음을 알기라도 했던 것처럼 그는 이 여행을 반대했다. 그는 그곳 소도시에 있는 병원에 전화했다. 암 조사에 관한 환자 기록은 그곳 보헤미아 지방에서는 아주 철저하게 작성되어 있어 그는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그는 테레사 어머니의 경우 암 징조가 진단된 적이 한 번도 @p 79 없었고, 또한 지난 1년 동안 그녀는 한 번도 의사를 찾은 적이 없었음을 확인 했다. 테레사는 토마스의 말을 듣고 어머니에게로 가지 않았다. 그런데 바로 그날 그녀는 길에서 넘어져 무릎을 다쳤다. 그녀의 걸음은 불안정하게 되었다. 그녀는 거의 매일 넘어져 몸을 다치거나 손에 쥐고 있던 물건들을 떨어뜨렸다. 그녀는

떨어지고 싶은 무한한 갈망을 느꼈다. 그녀는 중단되지 않는 현기증 상태에서 살았다. 넘어지는 사람은 말한다. 「일어나게 도와줘요!」

참을성을 가지고 토마스는 그녀를 도와 일으켰다. 제19장 「나는 당신을 마치 무대 위에서처럼 내 화실에서 사랑하고 싶어. 주위에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한 발짝도 가까이 와서는 안되는 거야. 그러나 그들은 우리에게서 눈을 돌릴 수는 없지」 시간이 지나는 동안 이 이미지는 그것이 원래 지녔던 잔혹성을 상실하고 그녀를 자극하기 시작했다.

동침하는 동안에 때때로 그녀는 이 상황을 속삭이면서 토마스에게 회상시켜 주었다. 토마스의 부정에서 그녀가 본 저주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이 있다고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가 그녀를 데려가는 것이다! 그의 여자친구들에게로 함께 데려가는 것이다! 어쩌면 그것은 그녀 육체를 다시 금 제일의, 유일무이한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었는지 모른다. 그렇게 할 때 그녀의 육체는 그의 제2의 자아가, 그의 부 @p 80 관이, 그의 조수가 될 것이다. 「나는 당신을 위해 그들의 옷을 벗기겠어요. 당신을 위해 그들을 목욕통에서 목욕시키겠어요」 하고 그녀는 서로 몸을 휘감고 그와 함께 누워 있을 때 그에게 속삭였다.

그녀는 그와 합쳐져 하나의 자웅동체가 되고자 했다. 그리고 다른 여자들의 육체는 그들 공동의 장난감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제20장 그의 일부다처제적인 삶에서 제2의 자아가 된다는 것, 그것을 토마스는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는 이 생각을 뿌리칠수 없어 사비나에게 접근하려 애썼다. 그녀는 사비나에게 반신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제의했다. 사비나는 그녀를 자기 화실로 초청했다.

테레사는 그때서야 드디어 한가운데 넓은 침대가 있는 널찍한 화실 공간을 보았다. 그곳 침대는 마치 연단처럼 놓여 있었다. 「당신이 아직 내 집에 한 번도 오지 아니한 것은 치욕스런 일이에요」 하고 사비나는 말하고 벽에 기대놓은 그림들을 그녀에게 보였다. 그녀는 그 외에도 자기가 대학 시절에 그렸던 캔버스까지 끄집어 내었다. 이 그림에서는 전조중에 있는 용광로를 볼 수 있었다. 그녀는 이 그림을 미술대학에서 엄격한 사실주의가 요구되던 시절에 그렸다 (비사실적인 예술은 당시 사회주의를 매몰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사비나는 유희충동에 자극되어 미술대학 교수들보다도 더 엄격하게 되려고 노력했었다. 그녀는 터치를 전혀 찾아 볼 수 없게 그려 마치 사진 처럼 보이게끔 그림을 그렸다. @p 81 「여기 이 그림은 망가뜨렸어요, 붉은 색감이 그곳에 그어졌어요, 처음에는 몹시 속상했어요. 그러나 얼룩이 마치 하나의 갈라진 틈처럼 보였기 때문에 내 마음에 들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마치 이 용광로 공사장이 실제 공사장이 아니라 공사장을 그린 파손되기 쉬운

극장 장식처럼 보였어요. 나는 그 갈라진 틈에 붓을 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시리즈를 나는 무대배경 장식 세트인 측벽이라고 명명했어요. 물론 아무도 이 그림들을 볼 수 없었어요. 만약 그랬다면 나는 학교에서 쫓겨났을 거예요. 전면에는 언제나 완전히 사실적인 세계가 있었고 그리고 그 이면에서 우리는 마치 무대화의 찢겨진 캔버스 뒤를 보는 것처럼, 다른 것을 볼 수 있었지요. 신비스럽거나 혹은 추상적인 것을 말이에요. 테레사는 다시금 믿을 수 없을 정도의 대단한 주의력을 집중시켜 들었다. 이 같은 주의력은 지금까지 어느 대학교수도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들의 얼굴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을 것이다. 그녀는 사비나가 전에 그린 그림이든 최초에 그린 그림이든 모든 그림들이 실제 언제나 동일한 것에 대해 말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즉, 모든 그림이 마치 이중조명을 한 사진처럼 두 주제, 두 세계의 만남임을 확인했던 것이다. 탁상램프의 불빛을 받고 있는 풍경화, 사과, 호도,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는 목가적인 정물화를, 뒤에서 활활 타고 있는 촛불을 가지고 파괴하는 손. 그녀는 사비나에 경탄하기 시작했다. 이 여류화가가 매우 친절하게 대해 주었기 때문에 그녀의 경탄에는 불안이나 불신이 전혀 깃들지 않았다. 그것은 동감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자신이 사진 촬영하기 위해 왔다는 것을 거의 망각할 뻔 했다. 사비나가 그녀에게 그것을 회상시켜 주어야만 했다. 그녀는 @p 82 그림들로부터 몸을 돌려 방 한가운데 연단처럼 놓여 있는 침대를 다시금 보았다. 제21장 침대 옆에 침대용 작은 테이블이 하나 놓여 있었고 그 위엔 가발을 씌워놓기 위해 이발사들이 사용하는 것 같은 머리 모양의 일종의 스탠드가 있었다. 사비나의 가발용 머리에는 그러나 가발이 아니라 멜론모가 씌워 있었다. 사비나는 미소를 짓고 말했다. 「이것은 우리 할아버지의 멜론모지요」 검고, 뽀뽀하고 둥근 그와 같은 모자를 테레사는 지금까지 오직 영화관에서만 보았다. 채플린이 그와 같은 모자를 썼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모자를 손에 들고 그것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런 다음 그녀는 말했다. 「당신은 이것을 쓰고 촬영해 주기를 바라나요?」 사비나는 이 질문에 한참 동안 웃었다. 테레사는 모자를 내려 놓고 사진기를 손에 들어 촬영하기 시작했다. 거의 한 시간 뒤 그녀는 사비나에게 갑자기 물었다. 「당신에게 나체 사진 찍어드릴까?」 「나체로?」 「그래요」 하고 테레사는 과감히 말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린 좀 마셔야 하겠어요」 하고 사비나는 말하고 술병을 따러 갔다. 테레사는 그녀의 육체가 약해짐을 느꼈다. 사비나가 손에 술잔을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어느 지방도시의 시장이었던 그녀의 할아버지 @p 83 버지에 대해 지껄이고 있는 동안 입을 다물었다. 사비나는 할아버지를 알지

못했다. 할아버지에게서 남은 것이라곤 이 모자와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전부였다. 사진에는 소도시의 고위 관직자들이 연단에 서 있었다. 그들 중 한 사람이 사비나의 할아버지였다. 그들이 연단에서 무엇을 했는지는 명백하지가 않았다. 어쩌면 어떤 다른 고위 관직자를 위한 기념비를 제막했는지 모른다. 그도 경사 스런 기회가 있을 때엔 마찬가지로 멜론모를 썼을 것이다. 사비나는 멜론모와 할아버지에 대해 길게 이야기했다. 그녀가 세번째 잔을 다 비우고는 「좀 기다려요」 하고 말하고 욱실로 사라졌다. 그녀는 목욕 가운을 입고 돌아왔다. 테레사는 사진기를 들어 눈 앞에 갖다댔다. 사비나는 가운을 열었다. 제22장 사진기는 테레사에게 토마스의 여자친구를 관찰하는 기계의 눈으로서, 동시에 또한 자신의 얼굴을 그 뒤에 감추기 위한 우산으로 봉사했다. 사비나가 입을 가운을 벗기로 결심하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을 필요로 했다. 그런데도 상황은 그녀가 예견했던 것보다 더 어려웠다. 사비나는 한동안 나체 포즈를 취한 뒤 테레사에게 다가가 말했다. 「이제 내가 당신을 촬영할게. 옷을 벗어!」 「옷을 벗어!」란 말을 사비나는 토마스로부터 자주 들어왔다. 그래서 이 말은 그녀의 기억 속 깊이 박혔다. 그것은 토마스의 명령으로서 이제 그의 여자친구가 그의 부인에게 말했던 것이다. 토마 @p 84 스는 이 두 여자를 동일한 요술 같은 이 하나의 문장으로 묶어놓았었다. 아무 령지도 않은 대화를 예기치 않게 애로틱한 상황으로 바꾸어놓는 것은 그의 매우 독특한 방식이다. 그는 아무를 한다든가, 만진다든가, 쓰다듬는다든가, 아니면 간 청함으로써가 아니라 명령을 함으로써 그렇게 했다. 그것은 갑자기 내려지는 뜻 밖의 명령으로서 조용하지만 엄하고 언제나 상대에 대해 일정한 거리를 두고 하는 말이었다. 그 때문에 명령의 순간 그는 여자에게 손을 댄 적이 한 번도 없었다. 테레사에게도 그는 종종 동일한 어조로 「옷을 벗어!」 하고 말했다. 그가 그 것을 아주 조용히 말할 때에도, 다만 속삭일 때에도 그것은 하나의 명령이었다. 테레사는 그의 말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럴 때면 그녀는 이미 흥분되었다. 이제 그녀는 동일한 이 말을 들었다. 순종하고 싶은 그녀의 욕구는 아마도 더욱더 컸을 것이다. 어느 낯선 사람의 말에 순종한다는 것은 독특한 광적 행동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것은 명령이 남자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한 여자에게서 나오는 것이기에 더욱더 멋진 광적 행동이다. 사비나는 테레사의 손에서 사진기를 받아들였고 테레사는 옷을 벗었다. 나체로 무장해제되어 그녀는 사비나 앞에 서 있었다. 단어의 참된 의미 그대로 무장 해제되어. 다시 말하면 방금 전 그녀가 자기의 얼굴을 가릴 수 있었고 동시에 하나의 무기로서 사비나를 겨냥했던 사진기 없이 사비나

앞에 서 있었다. 그녀는 토마스의 여자친구에게 양도된 셈이다. 이 아름다운 복종은 그녀를 도취시켰다. 그녀는 나체로 사비나 앞에 서 있는 순간순간이 결코 끝나지 않기를 바랐다. 이 상황의 독특한 마력이 사비나까지도 사로잡고 있었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녀 애인의 부인이 기이하게도 자기에게 순종하여 부끄러워하면서 자기 앞에 서 있었기 때문이다. 두 세번 그녀는 @p 85 터를 누른 다음 마치 그녀가 이 마력을 두려워한 것처럼 소리 높여 웃었다. 그리고 그녀는 이 마력을 재빨리 쫓아보내고자 했다. 테레사도 함께 웃었다. 그리고 두 여자는 다시금 웃을 입었다. 제23장 러시아제국이 전에 범한 범법행위는 모두가 눈에 띄지 않는 어스름한 어둠의 엄호 속에서 자행되었다. 백만 리투아니아 사람들의 유형, 수십만 폴란드인의 살해, 크림반도의 타타르인 숙청, 이 모든 것이 사진 증거물도 없이 우리들 기억 속에 묻히고 말았다. 그것은 따라서 증명할 수 없는 것으로서 그들은 그것을 조만간 기만적인 거짓이라고 해명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것과는 반대로 1968년 러시아군의 체코 침공은 촬영되었고 필름화되어 세계의 모든 기록수집실에 보관되었다. 체코의 사진사들과 카메라맨들은 아직도 할 수 있었던 유일한 것을 하는 것이 그들의 과제임을 잘 파악하고 있었다. 즉, 먼 장래를 위해 폭력의 모습을 잡아두는 것이었다. 테레사는 이 7일 동안 러시아군 병사 및 장교들의 폭력상황들을 사진 찍기 위해 거리에서 보냈다. 러시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물었다. 그들은 누가 자기들을 향해 총을 쏜다든지 돌을 던질 경우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하는 정확한 지침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누가 카메라 렌즈를 자기들에게 향하게 할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가 하는 시달을 아무도 그들에게 해주지 않았다. 테레사는 백통 이상의 필름을 촬영했다. 그중에서 반 정도를 그녀는 현상하지 않고 외국 기자들에게 건네주었다 (국경은 아직도 @p 86 여전히 열려 있었다. 기자들이 멀리에서 들어왔다. 대부분의 경우 그들은 잠시 머물렀기 때문에 어떤 도큐먼트를 입수하든 그것에 매우 감사해했다). 그녀가 찍은 많은 사진들이 여러 외국 신문에 실렸다. 사진에는 험박하는 주먹, 훼손된 집, 피에 얼룩진 청백적색의 깃발로 덮어놓은 시체, 오토바이를 타고 고속으로 전차 주위를 맴돌며 긴 대에 매단 국기를 흔드는 젊은이들, 러시아군의 눈앞에서 알지 못하는 행인에게 키스함으로써 여자에 굶주린 러시아의 가련한 병사들을 자극하던 아주 짧은 미니스커트를 입은 처녀들을 볼 수 있었다. 이미 언급했듯이 러시아 침공은 하나의 비극일 뿐만 아니라 또한 증오의 축제로서 여기에는 독특한 (아무에게도 설명할 수 없는) 들뜬 병적인 쾌감이 지배했다. 제24장 그녀는 스위스로 갈 때 약 오십 장의 사진을

가져갔다. 이들 사진은 그녀 자신이 정성들여 사진 예술의 모든 규범에 따라 현상했던 것이었다. 그녀는 그것 들을 큰 잡지사에 제시했다. 편집인은 그녀를 친절하게 맞아주었다 (모든 체코인 들은 아직도 불행의 후광을 지니고 있었고, 그들의 불행은 착한 스위스인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그는 그녀를 안락의자에 앉도록 하고 그녀의 사진들을 살펴 보았다. 그는 이 사진들을 칭찬하고는 그녀에게 말하기를, 사진의 사건들이 이 미 오래전의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사진들을 게재할 가능성이 없다고 했다 (사 진은 아주 좋지만!). 「프라하에서는 아직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는데요!」 하고 그녀는 항의했다. 그리 고서 그녀는 점령된 자기 나라에서 지금 막 노동위 @87 원회들이 결성되었으며, 대학생들이 점령에 대한 항의 스트라이크를하고 있으며, 전국이 자기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서투른 독일어로 편집인에게 해명하려 애썼다. 그런 것이야말로 바로 믿어지지 않는 대단한 것이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무의 관심도 끌지 못한다고! 편집인은 정열적인 여자 한 명이 편집실로 들어와 대화를 중단시키자, 안도의 숨을 쉴 수 있었다. 이 여자는 그에게 서류 봉치 하나를 건네주고 말했다. (이것 은 나체촌 해변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이 편집인은 민감한 사람이었다. 그는 탱크를 촬영했던 체코의 이 여인이 해변의 나체 사진들을 뻔뻔스러운 것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하고 염려했다. 그는 서류 봉치를 가능한 한 멀리 책상가로 밀어놓고 들어온 여자에게 재빨리 말했다. (당신에게 프라하의 동료 한 분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그분은 내게 훌륭한 사진들을 가져왔어요) 그 여자는 테레사에게 손을 내밀어 악수를 하고 테레사의 사진들을 손에 들었다. (제 사진도 한번 보세요)하고 그녀는 말했다. 테레사는 서류 봉치를 굽어보고 그 속에서 사진들을 꺼냈다. 편집인은 거의 사죄하는 어조로 그녀에게 말했다. (그것은 당신이 찍은 사진과는 완전히 반대죠) 테레사는 응답했다. (아니에요, 거의 마찬가지로) 아무도 이 문장을 이해하지 못했다. 테레사가 나체촌 해변을 러시아의 침공과 비교할 때 무엇을 말하려고 했는지 를 해명하는 데는 내게까지도 다소의 어려움이 있었다. 그녀는 사진들을 눈여겨 바라보았고 한 사진을 오랫동안 응시 했다. 이 사진에는 네 식구의 가족이 둥그 령게 원을 그리며 서 있 @88 었다. 나체의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몸을 굽혔다. 그래서 그녀의 큰 젖가슴이 마치 염소나 암소의 젖처럼 아래로 드리워져 있었다. 앞쪽으로 몸을 기울인 남 편은 뒤만 보였다. 그래서 그의 고환주머니가 꼭 마찬가지로 작은 암소 유방과 같았다. (마음에 드시지 않나요?)하고 편집인이 물었다. (사진을 잘 찍었는데요) (아마 사진 테마에 쇼크를 받았나 봐요)하고 사진사는 말을

계속했다. (당신을 보면 당신이 나체촌 해변에는 가지 않을 것임을 알겠어요) (가지 않지요)하고 테레사는 말했다. 편집인은 미소를 지었다. (당신의 출신을 알 수 있겠어요. 공산주의 국가들은 너무 청교도적이죠) 사진사는 어머니 같은 친절을 가지고 말했다. (발가벗은 육체들,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그것은 아주 정상적이에요! 정상적인 것은 모두 아름다워요!) 테레사는 발가벗고 집안을 돌아다니던 어머니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녀는 아무도 어머니를 볼 수 없도록 재빨리 커튼을 닫았을 때 그녀 등뒤에서 옷 음소리를 들었었다. 25 여자 사진사는 테레사를 구내식당으로 초대하여 커피를 샀다. (당신의 사진들은 아주 흥미 있어요. 나는 당신이 여자 육체에 대해 비상한 감각을 지니고 있는 것을 알아챘어요.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말하는지 아시겠지요! 도적적인 자세를 하고 있는 그 젊은 여자들을 생각하고 있어요) @89 (러시아군 탱크 앞에서 지나가는 남자들에게 키스하고 있는 여자들 말인가요?) (바로 그래요, 당신은 탁월한 유해 전문사진사라고 생각하는데요. 무엇보다도 우선 모텔을 찾아야만 해요. 바로 당신처럼 우선자신을 관찰시킬 수 있는 처녀가 제일 좋아요. 그런 다음 당신은 어떤 회사를 위해 시험 촬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궤도에 오를 때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려요. 그때까지 어찌면 내가 당신을 위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들의 정원)이란 표제를 단 잡지의 편집인에게 당신을 소개할 수 있어요. 어찌면 그는 선인장, 장미 등의 사진들을 필요로 할 거예요) (당신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고 테레사는 상대가 선의에서 말하는 것을 보고 솔직히 말했다. 그러나 그녀는 곧 자신에게 말했다. 무엇 때문에 내가 선인장 사진을 찍어야 하자? 그녀가 자기가 프라하에서 이미 알았던 것을 다시 한번 감수해야 한다는 생각에 거부감을 느꼈다. 즉, 일자리를 얻고 경력을 쌓으며 사진 게재를 위한 투쟁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허영으로라도 야심을 가져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녀는 어머니의 세계로부터 도피하고자 했었다. 그렇다. 그녀는 이것에 대해 아주 명백히 알고 있었다. 그녀는 실로 대단한 열의를 가지고 사진을 찍었다. 그녀는 이러한 열의를 꼭 마찬가지로 어떤 다른 업무에도 바칠 수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진 촬영은(보다 더 전진하고 보다 더 높이) 올라 코마스의 옆에서 살수 있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말했다. (제 남편은 의사예요. 그래서 먹고 살 수는 있어요. 사진 찍는 것이 제게 꼭 필요한 것은 아니예요) 사진사는 대답했다. (당신이 그토록 좋은 사진들을 찍었는데 어 @90 땡게 사진 찍기를 그만둘 수 있는지 이해 못하겠는데요!) 그렇다. 러시아군 침공 때의 사진들, 그것은 아주 다른 것이었다. 그녀는 그것을 정열에서

찍었다. 사진 촬영을 위한 정열이 아니라 증오의 정열에서였다. 그 러한 상황은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시사성이 없기 때문에 아무도 갖고자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정열에서 찍은 사진들이었다. 오직 한 포기의 선인장만이 영원히 시사성이 있는 것이었다. 그러한 선인장은 그녀에게 전혀 흥미를 주지 못했다. 그녀는 말했다. (당신은 매우 친절합니다. 그러나 나는 차라리 집에 있겠어요. 나는 일할 필요가 없어요) 사진사는 물었다. (그렇다면 집에 있는 것에 당신이 만족하겠어요?) 테레사가 대답했다. (선인장 사진을 찍기보다는 낫죠) 사진사는 말했다. (당신이 선인장을 찍는다고 해도 그것은(당신의)삶이에요. 그 런데 당신이 당신 남편만을 위해 산다면 그것은(당신의)삶이 아니에요) 테레사는 갑자기 화가 났다. (나의 삶, 그건 내 남편이지 선인장이 아니에요!) 사진사도 화가 나서 물었다. (당신이 행복하다는 것을 할하려 하시나요?) 테레사는(여전히 흥분해서)말했다. (물론이죠, 난 행복해요!) 사진사는 말했다. (그와 같이 말하는 여자란 매우....)그녀는 자기가 생각했던 것을 입 밖에 내지 않는 것이 차라리 좋겠다고 생각했다. 테레사가 보충했다 (매우 고루한 여자란 말이죠) 사진사는 자제해서 말했다. (고루하단 말이 아니라 시대착오적이란 말예요) @91 테레사는 생각에 잠겼다. (당신 말이 옳아요, 그것이 정확히 내 남편이 나에 대해 말하고 있는 거예요)

26 그런데 토마스는 낮 동안은 언제나 병원에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혼자 집에 있었다. 그녀에게 적어도 카레닌이 있었고 이 개와 함께 장시간의 산보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은 다행한 일이었다. 산보 후 그녀는 독어와 불어 학습서를 공부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녀는 슬펐고 정신집중을 할 수 없었다. 종종 그녀는 두 브체크가 모스크바로부터 돌아온 후 라디오를 통해 낭독했던 연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는 벌써 완전히 잊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아직도 그의 떨리는 음성이 들렸다. 그녀는 그를 생각했다. 외국 병사들이 주권국가의 원수인 그를 자신의 나라에서 체포하여 끌고 가 그를 4일 동안이나 우 크라이나 산악 속에 잡아두었다. 그들은 그에 앞서 12년 전에 그 헝가리 선임자 임래 나기를 그랬듯이 그를 총살하게 될 것임을 그에게 귀띔해 주었다. 그들은 그를 모스크바로 데려가 목욕하고, 면도하고, 옷을 입고 벡타이를 빨 것을 그에게 명령했다. 그들은 그가 처형되지 않을 것임을 그에게 알려주었다. 그들은 그 가 앞으로도 자신을 국가원수로 보아야 한다고 명령하고 그를 부레크네프와 함께 테이블에 앉혀 협상하도록 강요했다. 굴욕을 당하고 돌아와 굴욕을 당한 민족에게

그는 연설했다. 그의 굴욕은 너 무도 심했기 때문에 그는 바르게 말할 수조차 없었다. 케레스는 문장 사이에 너 무나도 긴 그 침묵을 결코 잊지 못할 @92 것이다. 그가 그토록 지쳤던가? 그토록 아팠던가? 그에게 약을 먹었던가? 아 니면? 다만 절망 때문이었을까? 두브체크에게서 아무것도 남게 되지 않을지라도, 그가 더 이상 숨을 쉴 수 없어, TV화면에 매달리고 있는 국민들 앞에서 혈 떡일 때의 무섭도록 긴 그사이, 바로 이 사이만은 남을 것이다. 이 사이 속에 그 토록 무겁게 이 땅을 뒤덮었던 그 무서운 공포가 놓여 있었다. 침공 후 7일째 되는 날이었다. 테레사는 그때 저항의 확성기역을 했던 어느 일간신문의 편집실에서 이 연설을 들었다. 그 방에서 두브체크의 연설을 들었던 사람도 모두가 그 순간 그를 증오했다. 그들은 그가 받아들였던 타협을 나쁘게 생각했다. 그들은 그의 비굴함을 통해 자신이 비굴하게 된 듯 느꼈고, 그의 허약을 통해 모욕을 당한 듯 느꼈다. 그녀가 쿼리히에서 이 순간을 돌이켜 생각했을 때,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떨시 를 느끼지 못했다. (허약)이란 말은 그녀에겐 더 이상 어떤 유죄판결처럼 들리지 않았다. 우리가 보다 강한 세력과 대치될 때 우리는 언제나 약하다. 이것은 두브 체크처럼 그토록 건강한 체격을 가졌을 때도 마찬가지다. 당시 그들 모두에게 그토록 참을수 없이 생각되었고 반감을 불러일으켰으며 그녀를 체코에서 쫓겨나게 했던 그 허약을 그녀는 갑자기 매력적인 것으로 생각했다. 그녀는 자기 또한 허약한 사람들에 약자의 진영에, 약자의 나라에 속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이들 약자는 힘을 써다. 바로 그 때문에 자기가 이들에게 성실하게 머물러야 한 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마치 헝기증에 이끌리듯 이러한 허약에 마음이 끌렸다. 그녀는 자신이 허약하게 느껴졌기 때문에 그것에 이끌렸다. 그녀는 다시금 질투심이 났다. 그녀의 두손은 다시금 떨리기 시작했다. 토마스는 이것을 알아차리고 다정한 동작을 취했다. 즉 그는 그녀의 두 손을 자기의 손에 쥐고 꼭 눌러줌으로써 그녀를 진 정시 @93 키고자 했다. 그녀는 손을 뿌리쳤다. (당신 왜 그래?) (아무것도 아니예요) (당신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당신이 늙었으면 좋겠지요. 십 년, 이십 년 더요) 그녀가 이말을 통해 말하고자 한것은 당신이 약해졌으면 좋겠어요, 당신도 나 처럼 똑같이 약해졌으면요 하는 것이었다. 27 스위스로 이주하는 것은 카렌닌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 카렌닌은 변화를 싫어 했다. 개에게는 시간이 직선상에서 겨오가하지 않는다. 시간은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계속, 지속적인 전진운동을 하지 않는다. 그것은 시계침처럼 회전운동을 한다 시계침은 미친듯 앞으로만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문자판 위에서 빙빙 원을 그리며 돈다. 매일매일 동일한 궤도를 돈다. 그들은 프라하에서 다만

새 의자 하나를 사고 화분 하나를 다른 장소에 놓기만 하면 되었다.
그러면 카레닌은 이것을 불쾌하게 받아들였다. 그것은 개의 시간감각을
어지럽게 했던 것이다. 만약 우리가 계속 문자판 위의 숫자들을
교체한다면 시계침에게도 그와 같은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는 곧 쿼리히의 집에서 전의 질서와 전의 의례를 다시금
도입할 수 있었다. 프라하에서처럼 개는 아침에 침대에 뛰어올라
새로운 날을 맞는 그들 부부에게 인사를 했다. 그리고는 테레사를 따라
아침 쇼핑하는 데 갔고 프라하에서처럼 규칙적인 산책을 고집했다. @p
94 카레닌은 그녀 삶의 해시계였다. 절망의 순간 그녀는 자기에게 말했다.
카레닌이 그녀보다 더 약하기 때문에, 어쩌면 두브체크와 그녀의
고국보다 더 약하기 때문에 카레닌을 위해서라도 버티나가야 한다고.
그녀는 막 산책에서 돌아왔다. 바로 그때 전화벨 소리가 울렸다. 그녀는
수화기를 들고 누구냐고 물었다. 그것은 독일말로 토마스를
바꾸어달라고 요구하는 여자 목소리였다. 이 목소리는 성급하게 들렸다.
그리고 테레사에게는 경멸의 어조가 섞여 있는 듯 여겨졌다. 토마스가
집에 없으며 언제 귀가할지 모르겠다고 그녀가 말하자 상대방 여자는
소리 높여 웃고는 작별 인사도 하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다. 테레사는
그것을 중요하게 여길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병원 간호사일
수도 있고 여자 환자, 여비서, 아니면 그 외의 어느 누구일 수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당황했고 아무 일에도 집중할 수가
없었다. 이 순간 그녀는 자기가 프라하 집에서 지니고 있었던 마지막
남은 힘마저도 이젠 사라져 버려 이렇게 하찮은 일까지도 견디어낼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이국에서 사는 사람은 지면 위 높이 허공 속을 걷는
것이다. 가족, 동료, 친구가 있고 어렸을 때부터 익혀 알고 알고 있는
언어로 힘들지 않게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곳인 자기의 나라가 제공해
주는 구조망이 그에게는 없다. 프라하에서 그녀는 그녀의 마음에서만
토마스에게 얽매어 있었다. 여기 쿼리히에서 그녀는 모든 면에서 그에게
얽매어 있었다. 그가 그녀를 떠난다면 그녀는 어떻게 되겠는가? 그를
잃어버리지 않을까 하는 불안 속에서 그녀가 평생을 보내야 하겠는가?
그녀는 그들의 만남이 처음부터 착오에 근거했다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녀가 팔에 끼고 있었던 소설 '안나 카레니나'는 잘못된 @p 95
입장권이었다. 이것으로 그녀는 토마스를 속였던 것이다. 그들은 서로
사랑했지만 하나의 지옥을 만들고 말았다. 그들은 정말 사랑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잘못된 점이 그들에게, 그들의 태도에, 혹은 그들의
불안한 감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서로 맞지 않았다는 점에 있다는
증거다. 그는 강했고 그녀는 약했기 때문에 그들은 서로 맞지 않았다.

그녀는 문장 한가운데서 30초나 중단했던 두브체크와 같았다. 더듬거렸고, 숨이 막혀 안간힘을 썼고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그녀의 고국과 같았다. 그러나 바로 그러한 약자는, 그 약자가 너무 약해 강자가 부당한 일을 가할 수 없을 때는 강하게 될 수 있어야 하고 가버려야 한다. 이것을 그녀는 자신에게 명백히 했다. 그녀는 그녀의 얼굴을 털이 털수룩한 카레닌의 머리에 대고 말했다. `카레닌, 내게 화내지마. 난 다시 한번 이사를 해야겠어.` 28 그녀는 기차 좌석의 구석에 바싹 몸을 밀착시켰다. 무거운 트렁크를 머리 위 선반에 얹고 카레닌은 그녀의 발밑에 두었다. 그녀는 어머니와 함께 살 때 일했던 식당의 요리사를 생각했다. 그는 기회있을 때마다 그녀의 엉덩이를 찰싹 때 렸었다. 그리고는 수차례 모든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자기와 잠 한 번 자자고 요구했다. 그녀가 바로 지금 그를 생각했다는 것은 이상하다. 그는 그녀에게 구 역질나게 한 모든 것을 구현했었다. 그런데 이제 그를 찾아가 `나와 잠자고 싶다고 하지 않았나? 여기 내가 왔어`라고 그에게 말 @p 96 할 것이리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었다. 그녀에겐 되돌아갈 수 있는 모든 길을 차단하고픈 충동이 생겼다. 지난 7년간 을 강제로 지워버리고 싶은 욕구가 일어났다. 그것은 현기증나는 감정이었다. 사람을 마취시키는, 자제할 수 없는 추락에 대한 동경이었다. 현기증이란 허약을 통한 도취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자기 허약을 의식 하고 허약을 막으려 하지 않고 그것에 복종하려는 것이다. 자신의 허약함에도 취되어 더욱더 허약하게 되고자 한다. 어떤 장소의 가운데서 모두가 보는 앞에서 쓰러지고자 한다. 밑에, 밑보다 더 깊은 곳에 있고자 한다. 그녀는 자기가 프라하에 있고 싶지 않으며 더 이상 사진사로도 일하고 싶지 않다는 것을 확신했다. 그녀는 토마스의 목소리가 언젠가 그녀를 불러냈던 그 작은 도시로 되돌아 갔 을 것이다. 그녀는 프라하에 도착했을 때 우선 그곳에 머물러 실제 필요한 일을 처리해야 했다. 그녀는 프라하를 떠나는 것을 연기했다. 그래서 닷새가 지나갔고 갑자기 토마스가 집에 나타났던 것이다. 카레닌이 그 에게 뛰어 올랐고 무엇인가 말해야 하는 필연의 순간을 위해 그들을 해방시켜 주었다. 그녀에게는 눈덜인 들판의 한가운데 서서 추위 몸이 떨리는 느낌이 들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아직 한 번도 키스하지 못한 연인들처럼 서로를 향해 다가 갔다. 그는 물었다. `별일 없소?` `없어요` `신문사에 갔었소?` `전화를 했어요` @p 97 `그래서?` `아무것도요. 난 기다렸어요` `무엇을?`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기다렸다고 그에게 말할 수 없었다. 29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순간으로 돌아갑시다. 토마스는 절망했고 위에 통증을 느꼈다. 그는 밤늦게야 비로소 잠이 들었다. 잠시 후 테레사가 잠에서

깨었다.(러시아군 비행기가 아직도 여전히 도시 위를 선회했다. 그 같은 소음에서는 잠을 잘 수 없었다). 그녀의 처음 생각은 다음과 같았다. 그는 그녀 때문에 되돌아 왔다. 그녀 때문에 그는 그의 운명을 바꾸었다. 이젠 그녀를 위해 책임질 사람은 그가 아니었다. 이젠 그녀가 그를 위해 책임을 져야 했다. 그녀에겐 이러한 책임이 그녀의 힘을 넘어서는 것같이 여겨졌다. 그런데 그녀에겐 그가 어제 막 문으로 들어왔을 때, 프라하 교회의 종들이 6 시를 쳤다는 것이 갑자기 생각났다. 그들이 처음으로 만났을 때 그녀의 근무는 6시에 끝났었다. 노란 벤치에 앉아 있는 그의 모습이 다시금 눈앞에 보였고 교회탑의 종소리가 들렸다. 아니다. 그것은 미신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름다운 것을 위한 미적 감각으로서 그녀의 조바심을 덜어주고 그녀에게 새로운 삶의 @p 98 욕구를 충만시켜 주었다. 우연의 새들이 한번 더 그녀의 어깨 위에 내려앉았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피었고, 토마스가 자기 옆에서 숨쉬고 있는 소리를 듣고는 그녀는 무한히 행복해했다. @p 99 제 3부 이해되지 아니한 단어들 @P 101 1 제네바는 분수와 분수 놀이의 도시다. 도시공원에는 전에 음악이 연주되었던 원형 소음악당들이 서 있다. 대학까지도 나무 속에 파묻혀 있다. 방금 오전 강의 를 끝마친 프란츠가 대학건물에서 나왔다. 스프링크러에서 뽑어진 물이 가랑비 처럼 잔디에 내리고 있었다. 프란츠는 더없이 기분이 좋았다. 그는 대학에서 곧 바로 그의 애인에게로 갔다. 그녀는 몇 개의 거리만 지나면 되는 곳에 살고 있었다. 그는 종종 그녀에게 들렀다. 그러나 언제나 불임성이 있는 친구로서 들렀지만 번도 정부로서 가지는 않았다. 다시 말하면 그라 그녀의 화실에서 그녀와 동침을 했던들 그는 하루 사이에 한 여자로부터 다른 여자에게로(부인으로부터 애인에게로, 또한 그 반대로) 갔을 것이다. 제네바에서 부부는 불란서 침대(역주:부 부가 함께 잘 수 있는 2인용 침대)에서 잠을 자기 때문에 그는 몇 시간 안에 이 침대에서 저 침대로 옮겨갔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그에게는 애인을 위해 서나 자기 부인을 위해서나 그리고 이에 못지않게 그 @P102 자신을 위해서 저속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가 몇 달 전 훌쩍 반했던 이 여자에 대한 그의 사랑은 그에게 무척이나 소중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는 자기 삶에 있어서 그녀에게 그녀 자신의 자리, 아무 도 들어갈 수 없는 순수한 영역을 비워 주려고 애썼다. 그는 종종 외국 대학의 초청 강연에 초대받았다. 그리고 지금은 모든 강연 제의를 그는 기꺼이 받아들였다. 초청강연으로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부인에게 여행하는 것을 정당 화시키기 위해 그는 각종 회의와 심포지엄들도 생각해 냈다. 자기 시간을 자유로이 활용할 수 있는 그의 애인이 그를 동반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그를 통해 짧은 시간 동안에 유럽의 많은 도시들과 미국의 한 도시를 알게 되었다. 「당신이 반대하지 않는다면 우린 열흘 후 이탈리아의 팔레르모로 여행할 수 있겠어」 하고 그는 말했다. 「내겐 제네바가 더 좋아요」 하고 그녀는 대답했다. 그녀는 캔버스 앞에 서서 미완성의 그림을 바라보고 있었다. 「팔레르모를 난 알고 있어요」 하고 그녀는 말했다. 「어떻게?」 하고 그는 거의 질투하듯 물었다. 「아는 여자분이 내게 그곳의 그림카드를 보내왔어요. 그것을 화장실 벽에다 붙여두었어요. 그 카드가 당신 눈에 띄지 않았나요?」 그래고 그녀는 덧붙여 말했다. 「20세기초에 시인 한 분이 있었어요. 그는 이 미 나이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의 비서가 그를 모시고 산책했어요. 선생님, 하늘을 쳐다보십시오 하고 비서는 그에게 말을 계속했어요. 최초의 비행기가 우리 도시 위를 날아가고 있어요! 하고. 시인은 자기 비서에게 말했지요. 땅에서 눈을 들지 않고도 난 그것을 상상할 수 있어 하고. 그것 보아요. 나도 팔레르모를 @P 103 상상할 수 있어요. 그곳에는 모든 도시에서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호텔, 똑같은 자동차가 있을 게 아녜요. 적어도 내 화실의 그림들은 번번이 다르죠」 프란츠는 슬퍼했다. 그는 사랑의 삶과 여행의 연결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어. <팔레르모로 여행 가요!>라고 한 그의 요구에는 에로틱한 메시지가 내포되어 있었다. 그래서 <내겐 제네바가 더 좋아요!>라고 한 대답은 그의 애인이 자기를 더 이상 욕구하지 않음을 의미할 수 있을 뿐이었다. 그가 그녀에 대해 왜 그토록 자신이 없었던가? 그럴 만한 이유가 전혀 없었다. 그들이 서로 알게 된 직후 적극적인 주도권을 잡은 것은 그가 아니라 그녀 였다. 그는 외모가 잘생긴 남자였다. 그는 자기의 학문적 경력의 정상에서 있었고, 그의 동료들까지도 그의 자신만만한 태도와 전문분야 토론에서 양보할 줄 모르는 그의 태도 때문에 그를 두려워했다. 그의 애인이 자기를 버리지 않을까 하고 그가 매일같이 생각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은 나는 오직 다음처럼 해명할 수밖에 없다. 사랑은 그에게 공적인 사회 생활의 연장이 아니라 그 반대극이었다는 것이다. 사랑은 그에게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조건 없이 내맡기자 하는 요구를 의미했다. 마치 병사가 포로가 되듯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내맡기는 사람은 앞서 무기를 버리고 항복해야 한다. 타격을 막아내기 위해 아무것도 갖지 못한 사람은 언제 이타적이 자기를 맞출 것 인가를 자신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나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프란츠 에게 사랑은 이 타격을 계속 기다리고 있는 것을 의미했다. 그가 자신을 마음 조이는 불안에 내맡기고 있는 동안 그의 애인은 붓을 놓고 옆방으로 사라졌다. 그녀는 포도주 한 병을 들고 돌아왔다. 그녀는 코르크 마개를 뽑고 잔을 두개 채웠다. @P 104 그는

겨우 안심했다. 그는 자신이 우스꽝스럽게 생각되었다. <내겐 제네바가 더 좋아요>란 말은 그녀가 더 이상 그와 동침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았다. 전혀 반대로 그녀는 사랑의 시간을 낚선 도시에만 국한시키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 뿐이었다. 그녀는 자기 잔을 들고 단숨에 비웠다. 프란츠는 잔을 들고 한모금 마셨다. 그는 그녀가 팔레르모로 여행하기를 거부한 것이 오히려 사랑의 요구로 드러나자 매우 기뻐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유감스러움을 느꼈다. 그가 그녀와의 관계에 부여했던 순수의 질서규범을 어길 것을 그녀가 결심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사랑을 진부하게 되지 않도록 하고 그것을 부부관계와는 과격적으로 분리시키려는 그의 불안스런 노력을 알지 못했다. 제네바에서 이 여류화가와 동침하지 않는다는 것은 본래 하나의 별이었다. 자기가 다른 여자와 결혼하고 있는 데 대한 대가로 그가 자신에게 부과한 하나의 별이었다. 그는 이 상황을 하나의 죄, 하나의 흠처럼 느꼈던 것이다. 자기 부인과의 에로틱한 삶은 근본적으로 말할 가치조차 없었지만 그들은 늘 같은 침대에 서 잠을 잤다. 그들은 그들의 시그러운 숨소리 때문에 서로 상대의 잠을 깨웠고 상대의 입김 또한 들이마셨다. 그는 실은 혼자 자고 싶었다. 그러나 공동의 침대는 여전히 부부생활의 상징이며, 또 상징들이란 우리가 알다시피 가히 불가침적이다. 그는 자기 부인 곁에 누울 때마다 자기 애인이 지금 막 그가 부인 곁에 눕는 것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이러한 생각을 할 때마다 그는 부끄러워했다. 그리고 바로 그 때문에 그는 자기 부인 곁에 누워 잠자는 침대가 그가 사랑하는 애인 침대로부터 가능한 한 멀리 떨어져 있기를 바랐다. 여류화는 술잔에 술을 다시금 따라 한 모금 마셨다. 한마디말도 않고 그녀는 이상하게도 아무렇지 않게 그녀의 블라우스를 @P 105 벗었다. 마치 프란츠가 그곳에 없는 것 같은 행동이었다. 그녀의 행동은 방안에 혼자 있고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을 때, 어떤 동작을 하는가를 즉흥 연기 연 습에서 보여야만 하는 연극 여배우의 행동 같았다. 그녀는 스커드와 브래지어만 하고 서 있었다. 연인들간에는 재빨리 연애놀이 규범이 발생한다. 두 연인은 이 규범을 의식은 못하고 있지만 그것은 통용되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이 규범에 위배되는 것이다. 이 시선은 보통 그들의 연애놀이 앞에 앞서 나타나는 시선과 제스처와는 전혀 공통점이 없었다. 이 시선 속에는 성적인 요구도 교태도 들어 있지 않고 오히려 일종의 질문이 담겨 있었다. 다만 프란츠는 이 시선이 무엇을 묻는가를 전혀 알 수가 없었다. 그런 다음 그녀는 스커트를 벗었다. 그녀는 프란츠의 손을 잡고 그를 돌려 큰 거울로 향하게 했다. 거울은 벽에서 한걸음 떨어진 곳에 놓여 있었다. 그의 손을 놓지 않고

그녀는 꼼짝 않고 거울을 들여다보았다. 그 속에서 그녀는 그 긴 질문조의 시선을 때로는 그에게로, 때로는 자기 자신에게 향하게 했다. 거울 옆 방바닥 위에 오래된 멜로모가 썩어져 있는 가발용 머리가 하나 세워져 있었다. 그녀는 허리를 굽혀 모자를 잡아 그것을 썼다. 거울에 비친 모습은 갑자기 변했다. 거기에는 속옷만 입은 여자가 서 있었는데 그녀의 모습은 아름답고, 가까이 할 수 없는 듯했고 무관심하게 보였다. 그리고 머리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멜론모를 쓰고 있었다. 그는 회색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맨 신사 한 분이 손을 잡고 있었다. 다시 한번 그는 자기의 애인을 얼마나 잘못 이해했는가 생각하고 이에 몹시 놀랐다. 그녀는 그에게 사랑을 요구하려고 옷을 벗 @P 106 은 것이 아니었다. 그에게 하나의 소극, 오직 그들 두 사람을 위한 다정한 해프닝을 연출하려고 그녀는 옷을 벗었던 것이다. 그는 이해심 있게 동의하는 태도로 미소지었다. 그는 이 여류화가가 그의 미소에 응답하기를 바랐다. 그러나 그의 기대는 헛된 것이었다. 그녀는 그의 손을 놓아주지 않았고 거울 속의 그녀의 시선은 한 사람에서 다른 사람으로 옮겨갔다. 해프닝의 시간으로서는 훨씬 지났다. 프란츠는 이 소극이(비록 그는 이 소극을 재미있게 해보려고 했지만) 너무나 오래 지속된다고 생각했다. 그는 멜론모를 조 심스럽게 두 손가락으로 잡고 미소지으면서 사비나의 머리에서 벗겨 그것을 다 시금 스탠드에 썩웠다. 그는 마치 버릇없는 아이가 동정녀 마리아의 그림에 그 린 콧수염을 지워버리기도 하는 것 같았다. 그녀는 그러고도 몇 초 동안 움직이지 않고 서서 거울 속의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런 다음 프란츠는 그녀에게 애정어린 키스를 퍼부었다. 그는 다시 한 열흘 뒤 함께 팔레르모로 가자고 그녀에게 간청했다. 그녀는 순순히 응했고 그는 작별을 했다. 그의 좋은 기분은 다시금 되살아났다. 그가 평생 권태의 수도로 저주했던 이 도시 제네바가 그에게 아름답고 모험에 찬 듯 나타났다. 거리로 나와 그는 몸을 돌려 그녀 화실의 넓은 창을 향해 시선을 던졌다. 초여름이라 매우 더웠다. 모든 창에는 블라인드가 드리워져 있었다. 프란츠는 공원으로 갔다. 멀리에서 그리스 교회의 둥근 황금빛 지붕탑들이 마치 도금한 둥근 포탄처럼 보였다. 강타 직전 볼 수 없는 힘을 집약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포탄이 공중에 멈추어 선 것처럼 탑들도 공중에 떠 있는 듯 보였다. 프란츠는 기분이 좋았다. 그는 호반을 따라 내려가 정기여객선을 타고 호수를 건너 그가 사는 다른 쪽 호반으로 갔다. @p 107 2 사바나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거울 앞에 섰다. 그녀는 여전히 속옷만 입고 있었다. 그녀는 다시금 멜론모를 쓰고 자신을 오랫동안 바라보 았다. 그녀는 자기가 이미

그토록 오랫동안 잃어버린 유일한 한순간을 뒤쫓고 있었다는 데 놀랐다. 여러 해 전 언젠가 토마스가 그녀에게 왔었다. 그때 이 멜론모는 그를 매료시켰다. 그때 그는 이 모자를 쓰고 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을 바라보았다. 프라하의 그녀 화실에서 그때의 거울 또한 여기에서와 똑같이 벽에 기대어 있었다. 그는 자신이 지난 세기의 시장으로서 어떤 모습을 띠었을까를 보고자 했다. 사비나가 천천히 옷을 벗기 시작할 때 그는 그녀에게 이 멜론모를 씌웠다. 그들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들을 바라보았다(사비나가 옷을 벗는 동안 그들은 언제나 그렇게 했다). 그녀는 속옷만 입고 머리에 멜론모를 쓰고 있었다. 갑자기 그녀는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그들 둘을 흥분시킨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방금까지도 그녀에게는 머리에 쓴 이 멜론모가 마치 하나의 익살처럼 여겨졌다. 우스꽝스러운 것과 선정적인 것은 다만 한 발자국 차이란 말인가? 그렇다. 그녀가 그때 거울을 들여다보았을 때 그녀는 우선 하나의 우스꽝스런 상황만을 보았다. 그러나 곧 이 우스꽝스러움은 흥분에 밀려났다. 멜론모는 더 이상 익살이 아니었다. 그것은 위력을 의미했다. 사비나에 있어서의 위력, 여자로서 그녀의 품위가 담은 위력을 의미했다. 그녀는 얇은 팬츠만 입고 맨살의 다리를 그대로 드러낸 자신을 보았다. 팬츠를 통해 그녀 치부의 삼각형이 @p 108 은은히 비쳤다. 속옷이 그녀의 여성다운 매력을 돋보이게 했다. 뺨뺨한 남자모자인 멜론모가 이 여성다움을 부정하고 억압했으며 그것을 우스꽝스럽게 만들었다. 토마스는 옷을 입은 채 그녀 옆에 서 있었다. 이것은, 그들 둘이 거울 속에 제공한 모습은 익살이 아니라(익살이기 위해서는 그는 속옷만을 입고 멜론모를 씌야 했을 것이다) 저속이었다. 이 저속을 저지하는 대신 그녀는 동조했다. 마치 그녀가 자발적으로 공공연하게 자신에게 폭행을 가하도록 하는 것처럼 그녀는 자만스럽고도 도전적이었다. 결국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토마스를 방 바닥으로 잡아끌었다. 멜론모는 굴러서 책상 밑으로 들어갔고 그들은 거울 앞 양탄자 위에서 뒹굴었다. 다시 한번 멜론모로 되돌아가 보자. 우선 그것은 지나 세기 보헤미아 지방의 작은 도시의 시장이었던 잊혀진 할아버지에 대한 막연한 회상이었다. 둘째, 그것은 사비나의 아버지에 대한 기념 유물이었다. 장례식이 끝난 후 그녀는 오빠의 양친의 소유를 모두 차지했다. 그녀는 자만심에서 반항조로 상속권 투쟁을 거부했다. 그녀는 냉소적인 어투로 아버지로부터의 유일한 유물로 멜론모를 갖겠다고 선언했다. 셋째, 그것은 그녀가 의식적으로 가꾸어온 그녀의 특이성을 위한 표지였다. 그녀는 스위스 이주시 많은 것을 가져갈 수가 없었다. 많은 장소를 차지하는 집이 자실용성이 없는 이 물건을 함께

갖고 같다는 것은 보다 유용한 다른 물건들을 포기함을 의미했다. 넷째, 외국에서 이 멜론모는 감상적 대상물이 되어버렸다. 그녀가 쿼리히로 가 토마스를 방문할 때, 그녀는 이 멜론모를 가져갔다. 그리고 토마스에게 호텔 방문을 열어줄 때 그녀는 그것을 머리에 쓰고 있었다. 이 순간 그녀가 예기치 않았던 일이 일어났다. 멜론모는 익살스럽지도 선정적이지도 못했다. 그것은 과거의 회상 @p 109 물이었다. 두 사람은 감동했다. 그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열렬히 사랑했다. 음란한 유희를 위한 여지가 없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만남은 과거 그들의 에로틱한 랑데부의 연장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러한 랑데부를 할 때 그들은 번번히 다소 성도착적 유희를 생각해 냈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의 만남은 시간의 개괄 이었고, 그들 공동의 과거에 대한 후절이고, 멀리 사라지는 바감상적인 그들 역사를 감상적으로 요약한 것이었다. 멜론모는 그녀 삶의 총보에서 하나의 모티브가 되었다. 이 모티브는 계속 돌아왔다. 그리고 그때마다 그것은 다른 의미를 가졌다. 이 모든 의미가 마치 물이 강바닥을 흘러 지나가듯 이 멜론모를 관류했다. 그것은 헤라크리트의 하사이였다고 나는 말할 수 있다. <같은 강물에서 두번 목욕하지 못한다>고 헤라크리트는 말한다. 멜론모는 강바닥이었고 여기서 사비나는 매번 다른 <의미론적 강물>이 흐르는 것을 보았다. 즉, 동일한 대상이 매번 다른 의미를 불러일으키지만, 앞서 생겨났던 모든 의미들을 잃는 이 새로운 의미 속에서 들을 수가 있다 (마치 산울림, 연속된 산울림들과 같다). 하나하나의 새로운 체험이 보다 풍부한 화음의 선율을 만들었다. 쿼리히 호텔에서 토마스와 사비나는 멜론모를 보고 감동되었었다. 그래서 그들은 거의 눈물을 흘리며 사랑했다. 왜냐하면 이 검은 물건은 그들의 사람의 유희에 대한 회상이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사비나의 아버지, 자동차와 비행기가 없었던 세기에 살았던 그녀 할아버지에 대한 기념이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사비나와 프란츠를 분리시키고 있는 심연을 아마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그녀의 삶의 역사를 열심히 들었고 그녀 또한 마찬가지로 그의 이야기를 열심히 들었다. 그들은 실제 서로가 말했던 단어들의 의미를 잘 이해했다. 하지만 이들 단어를 관류하는 의미론적 강물의 흐르는 소리를 그들은 들을 수 @p 110 가 없었다. 이러한 근거에서 프란츠는 사비나가 자신이 보는 앞에서 멜론모를 썼을 때 그 토크 당황했었다. 그것은 마치 누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그에게 말했던 것과 같았다. 그는 그 동작을 음란한 것으로도 감상적인 것으로도 생각하지 않았다. 그것은 그가 납득할 수 없는 행동으로서 그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그를 당황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사람들이 아직 젊고 자기들 삶의 총보가 겨우

처음 박자에 와있는 한 그들은 공동으로 작곡하고 모티브들을 서로 교체할 수 있다(토마스 와 사비나가 멜론모 의 모티브를 그랬듯이). 이미 서로가 나이가 들어 만나게 되면 이 작곡은 많은 적든 간에 완성된 것이다. 그래서 어떤 말이나 어떤 대상을 막론하고 그것은 각 자의 작곡에 있어서 다른 것을 의미한다. 사비나 와 프란츠 간의 모든 이야기들을 추적했던들 나는 그들의 오해를 자료 로 큰 사전을 하나 펴낼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얼마 되지 않는 (단어)목록으 로 만족하기로 하자. 3 이해 못한 단어 소물록 여자 여자인 것이 사비나에게는 하나의 운명이다. 그녀는 이 운명을 @p 111 자신이 선택하지 않았다. 자신이 선택하지 아니한 것은 공로나 실패로 기록될 수 없다. 누구나 자기에게 주어진 운명에 대해 좋은 관계를 만들어나가야 한다는 것이 사비나의 견해였다. 여자로서 태어난 사실에 반발한다는 것은 그녀에게는 그 사실에 자만하는 것과 똑같이 어리석게 생각되었다. 그들이 처음 만나던 어느 날 프란츠는 유별나게 강조하며 그녀에게 말했다. 「사비나, 당신은 정말 <여자>요」 무엇 때문에 그가 이 말을, 마치 아메리카 해 안을 방금 발견한 콜럼버스처럼 장엄한 표현으로 그녀에게 했는지를 그녀는 이해하지 못했다. 뒤에 가서야 비로소 그가 그토록 힘을 주어 강조했던 <여자>란 말이 그에게는 성의 표시가 아니라 하나의 <가치>를 서술한다는 것을 그녀는 알았다. 모든 여자가 여자라고 일컬어질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사비나가 프란츠에게 <여자>라고 한다면 그의 부인 마리-클로드 는 무 엇인가? 20년 전 이들이 겨우 몇 달간 사귀었을 때 그녀는 그가 자기를 버릴 경 우 자살하겠다고 위협했다. 프란츠는 이 위협에 매혹되었다. 마리-클로드는 실은 그의 마음에 각별히 든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녀의 사랑이 그에게는 놀랍게 나타났다. 그는 자신이 것처럼 큰 사람을 받을 자격이 없으며 그녀 앞에 깊이 허리 굽히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머리가 땅에 닿도록 허리를 굽혔고 그녀와 결혼했다. 비록 마리-클로드는 그녀가 자살하겠다고 위협하던 그 순간처럼 그토록 강한 감정을 그 후 다시 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의 계율이 살아 있었다. 그녀의 마음을 절대 아프게 하지 않는다는 것과 그녀 내면에 있는 여자를 존경한다는 것이 었다. 이 문장은 아주 흥미롭다. 그는 마리-클로드 자신이 하나의 여자일진대 그가 존경하지 않을 수 없는 그녀 내면에 숨어 있는 다 @p 112 른 여자는 누구란 말인가? 말하자면 그것은 플라톤의 여자의 이데아란 말인 가? 아니다. 그것은 그의 어머니였다. 그에게는 그의 어머니에 대해 말할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을 거다. 그는 그녀 내면의 여자를 존경했다. 그는 그의 어머니를 신격화했지 그녀 내면의 어떤 여자는

아니었다. 플라톤의 여자의 이데아와 그의 어머니는 동일한 것이었다. 프란츠의 아버지가 갑자기 가족을 떠나버렸을 때, 그의 나이는 열둘이었다. 이 소년은 어떤 중대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예감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그를 보호하고자 부드럽고 중립적인 말로 이 사실을 숨겼다. 그들은 그날 시내로 갔다. 그들이 집에서 나왔을 때 프란츠는 어머니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신발을 신고 있다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그를 어리둥절하게 했다. 그는 어머니에게 그 것을 알려주려고 했으나 자기가 그것을 말함으로써 어머니의 마음을 해칠까봐 두려워했다. 그는 두 신간을 어머니와 함께 시내에 있었는데도 한시도 어머니의 발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그때 그는 고통이 무엇을 뜻하는지 이해하기 시작 했다. 충실과 배반 그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시신을 따라 공동묘지로 갔던 순간까지 어머니를 사랑했다. 그는 또한 회상 속에서도 어머니를 사랑했다.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는 충실이 모든 덕목에서 최고의 것이라는 감정이 생겨났다. 충실은 우리들 삶에 하나의 통일성을 부여한다. 충실이 없을 때 우리의 삶은 수천의 순간적 인상으로 산산 조각이 나고 만다. @p 113 프란츠는 사비나에게 종종 그의 어머니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어쩌면 무의 식적 타산에서 그랬다고 볼 수도 있다. 그는 자기가 충실할 수 있다는 것이 사 비나의 마음을 매료시킬 것이며 그렇게 해서 그녀를 자기 손에 넣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사비나를 매혹시킨 것이 충실이 아니라 배반임을 알지 못했다. <충실>이란 말은 그녀로 하여금 그녀 아버지를 회상 시켰다. 소도시의 청교도 였던 그의 일요일 취미는 해지는 숲의 모습과 화병에 꽂은 장미꽃다발을 그리는 것이었다. 아버지 때문에 그녀는 벌써 아이 때 그림 그리기를 시작했었다. 열네 살이 되었을 때 그녀는 동갑내기 소년에게 반했다. 그녀의 아버지는 걱정이 되어 1년 내내 그녀가 혼자 외출하는 것을 금했다. 어느 날 아버지는 그녀에게 피카소의 복사물을 보여주었다. 그는 이것들을 웃음거리고 보고 재미있어했다. 자기 동급반 소년을 사랑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녀는 적어도 피카소의 이 입체 파 그림을 사랑했다. 고등학교 졸업 후 그녀는 이제 드디어 자기 집을 배반할 수 있다는 즐거운 기분으로 프라하로 갔다. 배반, 그것은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혐오스런 것이라고 우리는 어릴 때 부터 아버지와 선생님으로부터 들어왔다. 그런데 배반이란 무엇인가? 배반은 대 열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배반은 대열에서 이탈하여 미지를 향해 출발 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비나는 미지를 향해 출발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알지 못했다. 그녀는 미술대학에서 공부했다. 그러나 그녀는 피카소처럼 그러서는 안 되었 다. 그때는 의무적으로 소위

사회주의 사실주의에 충실해야 했고 초. 중. 고등학 교에서는 공산주의 정치가들의 초상화를 그렸던 시기였다. 아버지를 배반하려는 그녀의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왜냐하면 공산주의는 다른 아버지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공산주의는 사랑을 금했고(당시는 청교도적인 시기였다) 피 @p 114 카소를 금한 아버지와 똑같이 엄했고 편협했다. 그녀는 어느 프라하 극단의 형편없는 배우와 결혼했다. 그것은 그가 행패부리는 사람으로 소문나 있어 그녀의 두 아버지에게 용납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 후 그녀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다. 어머니의 장례식에서 돌아온 하루 뒤에 그녀는 전보를 받았다. 그녀의 아버지가 슬픈 나머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내용이였다. 그녀는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아버지가 장미꽃다발이 꽃힌 화병을 그렸고 피 카소를 싫어한 것이 그토록 나빴단 말인가? 열네살 먹은 자기 딸이 임신하여 집에 오지나 않을까 하고 두려워했던 것이 그토록 비난스런 것인가? 그가 부인 없이 살 수 없었다는 것이 그토록 우스꽝스러운가? 다시금 배반에 대한 욕구가 그녀를 사로잡았다. 그녀는 남편에게(남편에서 그녀는 더 이상 행패꾼을 볼 수 없었고 다만 성가신 술주정뱅이를 보았다) 자기가 그를 떠날 것이라고 통보했다. B를 위해 A를 배반했던 사람이 B를 배반한다고 할 때 그 사람이 그렇게 함으로써 A와 화해했음을 반드시 일컫는 것은 아니다. 이혼한 이 여류화가의 삶은 배반당한 그녀 양친의 삶과 같지 않았다. 최초의 배반은 보상될 수가 없다. 그것은 일종의 연쇄반응을 불러일으킨다. 이때 각 배반은 우리를 원조배반의 시발점으로부터 점점 더 멀리 떨어지게 한다. 음악 프란츠에게 음악은 도취로서 이해되는 디오니소스적 아름다움에 가장 근접하는 예술이다. 소설이나 그림에 의해 도취되기란 힘들 @P 115 다. 하지만 베토벤의 제9번 심포니, 바르토크의 두 개의 피아노와 타악기를 위한 소나타, 혹은 비틀즈의 노래에 우리는 쉽게 도취될 수 있다. 프란츠는 진지한 음악과 오락음악을 구분하지 않는다. 이 구분은 그에게 구태의연하고 잘못된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는 록음악을 모차르트와 꼭 마찬가지로 좋아한다. 그에게 음악은 해방이다. 음악은 그를 고독, 한적, 책면지에서 해방시켜 준다. 음악은 그의 육체의 문들을 열어주고, 이를 통해 그의 영혼은 세상으로 나가 친교를 맺을 수 있다. 그는 기꺼이 춤춘다. 사비나가 이 정열을 그와 함께 나누어 갖지 않는 점을 그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그들은 식당에 앉아 있다. 식사를 위해 확장기에서 요란한 리듬 음악이 울려 나온다. 사비나는 말한다. 「이건 빠져나가지 못하고 계속 제자리를 맴도는 꼴이지. 사람들은 점점 더 큰 소리의 음악을 듣기 때문에 귀가 어두워져요. 그리고 그들은 귀가 어둡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보다 더 크게

트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당신은 음악을 좋아하지 않나요?」 하고 프란츠가 묻는다. 「좋아하지 않아요」 하고 사비나는 말한다. 그런 다음 곧 그녀는 덧붙여 말한다. 「내가 다른 시대에 살았다면 아마 좋아할지도 모르죠...」 그녀는 음악이 끝 없는 침묵의 설원에 핀 장미와 같았던 요한 세바스찬 바하의 시대를 생각한다. 음악으로 위장된 소음은 소녀 때부터 그녀를 따라다니며 괴롭혔다. 모든 대학 생들처럼 그녀는 방학을 소위 청년건설단에서 보내야 했다. 공동숙박소에서 생활했고 제련소를 건조했다. 아침 5시에서 저녁 9시까지 음악이 확성기에서 울려 나왔다. 그녀는 울고싶을 지경이었다. 그러나 음악은 신나게 울렸다. 음악소리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었다. 화장실에서도, 이불을 뒤집어써도 마찬가지였다. 도처에 확성기가 있었다. 음악은 그녀에게 달라붙도록 풀어놓은, 사냥개의 무리 같았다. 그때 그녀의 음악의 이 같은 야만적 짓거리가 공산주의 세계에서만 있을 것을 믿었다. 그 후 외국에서, 그녀는 음악을 소음으로 변질시킨 것은 인류로 하여금 추한 것이 전적으로 지배하는 역사적 단계로 돌입하도록 한 범세계적 과정임을 확인했다. 추한 것의 전적인 지배는 우선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청각적 불쾌감 으로서 나타났다. 자동차, 오토바이, 전기기타, 압축공기굴착기, 확성기, 사이렌 등. 시각적 불쾌함의 향존도 곧 뒤따라올 것이다. 그들은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그녀의 바로로 가 사랑을 했다. 프란츠의 생각은 잠의 문턱에서 몽롱해졌다. 그는 저녁식사 동안의 요란한 음악을 회상했다. 그는 자신에게 말했다. 소음이 이로우 때가 있어. 한마디 말도 들을 수가 없거든. 청소년 시절부터 그는 말하고, 쓰고, 강의하고 또한 문장을 만들고, 표현들을 찾고 이것들을 수정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므로. 결국 그에겐 단어도 정확하게 생각되지 않아 그 의미가 애매하게 되었음이 명백해졌다. 단어들은 내용을 상실하여 부스러기, 껍질, 쓰레기가 되었고 모래가 되어 그의 뇌를 통해 흘날려 그에게 두통과 불면증을 불러일으켜 그의 병이 되었다. 그래서 그는 어쩔 수 없이, 비록 불확실했지만, 강력한 음악을, 거대한 소음을, 멋있고 즐거운 굉음을 동경했다. 그러한 소음, 그러한 괴음은 모든 것을 뒤덮고 넘쳐흘러 마비 시켰다. 그리고 그 속에 괴로움, 허영, 내용 없는 단어들의 공허함이 영원히 침 몰하고 말았다. 음악은 문장의 부정이었다. 음악은 반 단어였다! 그는 사비나와 함께 한없이 오랫동안 서로 껴안고 누워서 침묵한 채 다시는 한 문장도 말하지 않고 육적 쾌감을 음악의 열광적 굉음과 함께 흐르게 하기를 동경했다. 머릿속에 이 같은 행복스런 소음을 지니고 그는 잠이 들었다.

@P 117 빛과 어둠 사비나에게 삶은 본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다는 것은 두 극을 통해 경계가 지어진다. 즉, 눈부신 빛과 절대적 어두움이 그것이다. 사비나가 어떠한 극단도 싫어한 것은 아마도 거기에서 유래했을 것이다. 극단은 경계를 표시하는 것으로 이 경계를 넘어설 때 삶은 끝장이 난다. 극단에 대한 정열은 예술에 있어서나 정치에 있어서나 은폐된 죽음의 동경이다. 빛이란 말은 프란츠에게 낮의 부드러운 반사광 속에 놓인 풍경의 표상 같은 것이 아니라, 광원 자체의 표상을 불러일으킨다. 예컨대 해, 전구, 조명 등이 그 것이다. 그는 잘 아련진 메타포를 회상한다. 진실의 빛, 이성의 눈부신 빛 등. 그는 어둠에 못지않게 빛에도 매력을 느낀다. 사랑할 때 불을 꺼버리는 것이 오늘날에는 우스꽝스럽게 작용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다. 그 때문에 그는 침대 위에 있는 작은 등을 켜둔다. 그러나 그의 남근이 사비나 몸속으로 들어가는 순간에 그는 눈을 감는다. 그를 사로잡는 쾌락은 어둠을 요구한다. 이 어둠은 순수하고 절대적이다. 표상이나 비전이 거기에는 없다. 이 어둠에는 끝도 경계도 없다. 이 어둠은 우리 모두가 우리 내면에 지니는 무한한 것 그것이다. (그렇다. 무한한 것을 구하는 사람은 눈을 감아라!) 쾌감이 그의 육체를 관통해 흐르는 것을 느끼는 순간 프란츠는 늘어나 그의 어둠의 무한 속으로 용해되며 스스로 무한한 것이 된다. 남자가 자기 내면의 어둠 속에서 크게 되면 될수록 그의 원형은 더욱더 작아진다. 눈을 감은 남자는 다만 자기 자신의 잔여에 불과하다. 사비나에게 이러한 모습은 불쾌하다. 그녀는 프란츠를 @P118 더 이상 바라보려 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녀는 자기 편에서 눈을 감아버린다. 그녀에게 이 어둠은 무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보았던 것과의 불일치, 보았던 것의 부정, 보기를 거부함을 뜻한다. 4 사비나는 자기 나라 사람들의 한 모임에 가 달라는 설득을 받아 들었다. 당시 손에 무기를 들고 러시아군에 대항하여 싸웠어야 했는지 아닌지에 대해 다시 한 번 토론이 벌어졌다. 여기 안전한 망명지에서 모든 사람들은 물론 말할 필요도 없이 싸웠어야만 했을 거라고 공언했다. 사비나는 말했다. (그렇다면 가서 싸워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지 말았어야 좋았다. 희끗희끗한 곱슬머리를 한 남자 하나가 긴 집게손가락으로 그녀를 가리키며 말했다.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아요, 우리 모두가 고국에서 일어났던 것에 대해 책임이 있어요. 당신도 말이오, 도대체 당신은 고국에 있을때 공산주의 정권에 대항해서 무슨 말을 했나요? 당신은 그림을 그렸지요. 또한 그것이 전부였을 거요....) 공산주의 나라에서는 시민들을 평가하고 조사하는 것이 사회적인 주업무에 속한다. 화가에게

전람회를 허락해 주기 전에, 시민이 해변에서 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그에게 비자를 발급하기 전에, 축구선수가 국가대표팀에 수용되기 전에,
우 선 이들 인물에 대한 판정서 및 증명서를(집 관리인 안주인으로부터,
동료로부터, 경찰 및 당기관으로부터, 노동조합으로부터) 받아 와야
한다. 그러면 이들 판정서는 특별히 이를 위해 지정된 관리들에 의해
읽혀 @P 119 지고 심사숙고되어 요약된다. 이 판정서에 적혀 있는 것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자질, 혹은 축구를 할 수 있는 능력에 관한 것도
아니요, 휴가를 해변에서 보내기 위해서 필요하게 될 건강상태에 관한
것도 아니다. 그것들은 오로지(시민의 정치적 프로필)이라고 일컫는 것에
관련되어 있다.(그 시민이 어떤 것을 말하고, 무엇을 생각하며, 어떻게
행동하느냐, 또 그가 각종 회의와 5·1절 노동자 시위에 참석하는지
또는 어떤 식으로 참석하는지 등). 그런데 모든 것이(일상생활, 승진,
휴가 등) 어느 시민이 어떻게 판정받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에 누구나(국가
대표팀에서 활약하려 하든, 그림을 전시하려 하든, 아니면 해변으로
여행하여 하든 간에) 자기에게 유리하게끔 처신해야 한다. 사비나는 이
반백의 남자가 말하는 것을 듣자 그러한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자기 나라 사람들이 축구를 잘하는지, 혹은 그림을 잘 그리는지(사비나
의 그림에 대해 관심을 가졌던 체코인은 한 사람도 없었다)하는 것에
그는 관심이 없었다. 그러나 아마도 그들이 적극적으로 아니면
소극적으로, 솔직하게 아니면 다만 겉보기로만, 처음부터 아니면 지금에
와서 비로소 공산정권에 반대하는 태도를 취했는가 하는 데에는 그의
관심이 있었을 것이다. 화가로서 그녀는 얼굴을 관찰할 줄 알았다.
프라하에서부터 그녀는 열성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검사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의 인상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가운데손가락보다 긴
집게손가락을 지녔고 이것으로 그들은 자기들 대화의 상대를
손가락질한다. 뿐만 아니라 14년간(1968년까지) 보헤미아 지방에서 통치
했던 노보트니 대통령도 또같이 반백의 곱슬머리였고 중유럽의 모든
주민들 중에서 가장 긴 집게손가락을 가졌었다. 공로가 있는 이 반백의
망명가는 사비나의 그림을 한 번도 본적이 없었다. 이 여류화가의 입에서
자기가 공산주의 대통령 노보 @P 120 트니와 같다는 말을 듣고 그의
얼굴은 새빨갳게, 그리고 백묵처럼 하얗게 되었다. 다시 한번
새빨갳게, 그런 다음 다시금 하얗게 되었다. 그는 무엇인가 말 하려
했으나 아무것도 말하지 못하고 입을 다물고 말았다. 다른 사람들도
모두 사비나가 자리에서 일어나 그 곳을 떠날 때까지 함께 침묵했다.
그녀는 이 불상사에 대해 슬퍼했다. 그러나 벌써 보도 위에서 그녀는
생각했다. 도대체 자기가 무엇 때문에 체코 사람들과 왕래해야 하는가?

무엇이 자기를 그들과 연결시키고 있는가? 풍경인가? 그들 모두가 보헤미아라는 지명 아래 생 각하는 바를 말해야만 했다면 그들의 눈앞에 떠오른 모습들은 아주 상이할 것이 며 결코 통일성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 아니면 문화인가? 그러나 무엇이 문화인가? 음악? 드보라크와 야나체크? 그렇 다. 그러나 체코인이 음악적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하고? 체코의 특성의 본질은 갑자기 사라지고 만다. 아니면 위대한 사람들? 얀 후스?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 중 그가 쓴 작품의 한 줄이라도 읽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들이 공히 이해할 수 있었던 유일한 것 은 불꽃, 그 불꽃의 명예였다. 이 불꽃속에서 그는 자유신앙주의자로 장작더미 위에서 화형당했던 것이다. 또한 그것은 재의 명예였다. 그는 한줌의 재가 되었 기 때문이다. 체코 특성의 본질은 그들에게 이 한줌의 재 외에 아무것도 아니라 고 사비나는 자신에게 말했다. 이 체코인들을 연결시키고 있는 것은 공동의 패 배와 그들이 서로 상대에게 퍼붓고 있는 비난들이다. 그녀는 급한 걸음으로 길을 갔다. 망명인들과의 단절보다 더 그녀의 마음을 뒤숭숭하게 만든 것은 그녀 자신의 생각들이었다. 그녀는 자기가 부당했음을 알 고 있었다. 그 체코인들 중에는 긴 집게손가락을 한 그 남자와는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 그녀가 한 말 @P121 에 뒤따랐던 당혹스럽고도 조용한 분위기는 모두가 그녀에게 반대 했음을 의 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그들은 갑작스런 증오의 폭발에, 물이해에 놀 랐다. 망명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 물이해의 희생이 되었다. 어째서 그들은 그녀 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았는가? 어째서 그녀는 그들에게서 감동적인 버림받은 인간을 볼수가 없었는가? 그 대답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이미 그녀가 자기 아버지를 배반했을 때 삶은 배반에서 배반으로 연결되는 먼 길로 그녀 앞에 나타났었다. 새로운 배반 은 어느 것이나 죄악이나 승리처럼 그녀의 마음을 매료시켰다. 그녀는 대열에 서 있지 않으려 한다. 그리고 그녀는 대열에 서 있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언제나 같은 것을 말하는 같은 사람들과 언제나 함께 한줄에 서 있지 않을 것이다. 그 때문에 그녀는 자기 자신의 부당성에 대해서 그토록 당황해했다. 그러나 이 당황은 불쾌한 것이 아니라 전혀 그 반대였다. 사비나는 방금 승리를 했으며 어 느 보이지 않는 사람의 박수갈채 소리를 듣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 그러나 이 같은 도취에 불안이 뒤따랐다. 언젠가에서 이 길이 틀림없이 끝날 것이라는 불안이었다. 언젠가는 배반도 틀림없이 끝날 것이다. 언젠가는 그녀도 클림없이 멈추어 설 것이다.! 저녁이었다. 그녀는 서둘러 플랫폼을 따라갔다. 암스테르담행 기차가 벌써 떠 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기가 탈 기차간을 찾았다. 친절한 차장이 그녀 를 동반하여 그녀의 칸막이 차실로

안내했다.그녀는 차실 문을 열었다. 그리고 퍼놓은 침대에 프란츠가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녀에게 인사하려고 일 어났다. 그녀는
그를 껴안고 그에게 키스를 퍼부었다. 그녀는 마치 모든 여자들 중에서
가장 평범한 여자처럼 그에게 다음처럼 말하 고 싶은 욕구를 느꼈다. 나를
떼어놓지 말아요. 나 @P 122 를 붙들어요 나를 길들이고, 나를 꼼짝
못하게 해요. 강하게 되어줘요! 그러나 이것은 그녀가 말할 수도, 말하려
하지도 않았던 말들이었다. 그녀는 그에게 포옹을 풀어주고 말했다.
(당신과 함께 있게 되어 아주 기뻐요) 그녀의 조심스런 태도에서 그녀가
할 수 있었던 말은 이것뿐이었다. 5 이해못한 단어 소 목록 (계속) 행진
이탈리아나 프랑스는 살기가 편하다. 교회에 가도록 부모의 강요를 받을
경우 입당함으로써 복수를 한다(공산당, 모택동당, 트로츠키당, 혹은
이와 유사한 당). 그런데 사비나의 아버지는 처음에는 그녀를 교회에
내보냈는데 그런 다음 겁이 나서 자기가 직접 그녀로 하여금 공산주의
청소년연맹에 가입하도록 했다. 그녀는 5·1절 행진에 늘 함께
행진해야만 했다. 그럴 때면 그녀는 한 번도 보조를 맞출 수가 없었다.
그러면 뒤따라오던 여학생이 그녀에게 소리쳤고 고의 로 그녀의
발뒤꿈치를 밟았다. 노래 불러야 했을 때 그녀는 그 노래가사를 외운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녀는 다만 소리 없이 입술만 움직였다. 그녀의
여자동료 들이 이것을 눈치채고 고자질했다. 젊을 때부터 그녀는 모든
행진을 싫어 @P 123 했다. 프란츠는 파리에서 공부했다. 그의 비상한
재능 덕분에 이미 스무 살의 나이 에 그에게는 학문적 출세의 길이
확실했다. 그때 이미 그는 자기의 삶을 대학 연구실, 공립도서관,
강의실에서 보낼 것임을 알고 있었다. 이러한 생각을 하면 서 그는
감정을 억눌러야 했다. 마치 집에서 거리로 나가듯, 그는 자기의 삶에서
뛰어나고 싶은 욕망을 느꼈다. 이러한 근거에서 그는 파리에서 살 때
기꺼이 시위하러 나갔다. 무엇을 축하 하고 요구한다는 것, 무엇에
항의한다는 것. 혼자 있지 않고 밖에서 다른 사람들 과 함께 있다는
것은 그토록 멋졌다. 환상도로 생 제르맹을 지나가거나 혹은 공화국
광장에서 바스티유 감옥으로 가는 시위행렬은 그를 매혹시켰다. 행진하
면서 합창으로 구호를 외치는 무리는 그에게 유럽과 유럽역사의 모습이
었다. 유럽, 그것은 긴 행진인 대장정이다. 혁명에서 혁명으로,
싸움에서 싸움으로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행진이다. 나는 이것을 또한
달리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책 사이에 파묻힌 프란츠 의 삶은
그에게 비현실적으로 여겨졌다. 그는 현실적인 삶을 , 자기 옆에 가는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동경했다. 그는 그들의 외침을 동경했다. 그에게
비현실 적으로 보였던(서재와 도서관의 고독 속에서의 공부) 그것이 바로

자기의 현실 적 삶이었고, 반면 그에게 현실로 보인 시위행진들은 연극, 춤, 축제 다른말로 표현해서 하나의 꿈이었다는 것이 그에게 분명하지 않았다. 사비나는 대한 시절에 기숙사에서 살았다. 5.1철 노동자의 날에 모든 학생들은 행진을 위해 아침 일찍 집합장소에 나와야 했다. 아무도 빠지지 않도록 학생 간부들은 건물이 정말 비어 있는가를 조사했다. 그녀는 화장실에 숨었다가 다른 모든 학생들이 떠나간 지 오래되어서야 비로소 자기 방으로 돌아왔다. 거기에는 사비 @P 124 나가 아직껏 한 번도 체험하지 못했던 고요함이 지배한다. 다만 멀리에서 행진음악 소리가 울려왔다. 그녀는 조개 속에 숨어서 멀리 적의 세계에서 부서지는 파도소리를 듣고 있다고 믿었다. 그녀가 고향을 떠난 뒤 1,2년이 지나서 러시아군 침공 기념일에 그녀는 우연 히도 파리에 와 있었다. 향의 시위가 개최되었다. 그녀는 이 시위에 참가하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었다. 젊은 프랑스 사람들이 주먹을 높이 들고 소련 제국주의 를 반대하는 구호들을 외쳤다. 이들 구호는 그녀의 마음에 들었다. 그러나 갑자기 그녀는 자기가 함께 외칠 수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깜짝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그녀는 불과 몇 분 동안만 시위행진 속에서 버틸 수 있었다. 그녀는 이 체험을 프랑스 친구들에게 이야기 했다. 그들은 이상하게 여겼다. (너는 너의 나라 점령을 반대하는 투쟁을 하려 하지 않느냐?) 그녀는 그들에게 공산주의, 파시즘, 모든 점령과 모든 침입이 오직 하나의 보다 근본적인 그리고 보다 보편적인 화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다. 이 화는 그녀에게 하나의 의 이미지로 집약되었다. 팔을 들고 하나가 된 소리로 같은 말을 외치대며 행진 하는 사람들의 시위행진이 그것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그것을 그들에게 해명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

뉴욕의 아름다움 몇 시간이고 그들은 뉴욕을 산책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그 들에게는 새 로운 광경이 나타났다. 그것은 마치 그들이 꼬부랑길을 따라 결정을 이룬 산악 지대를 돌아다니는 듯하게 했다. 보도 한가운데 한 젊은 남자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었다. 조금 떨어진 곳에 흑인 미녀가 나무에 기대어 멍하니 앞만 보고 있었다.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가 거리를 횡단하며 큰 동작으로 보이지 않는 오케스트라를 지휘했다. 우물에서 물이 출렁거렸다. 우물 주위에는 공사장 일꾼들이 둘러앉아 점심식사를 하고 있었다. 철제 사다리들이 흉측한 빨간 별돌집 구역의 건물 정면에 높이 세워져 있었다. 이

건물들은 흥측할 정도로 낡아서 이제 다시금 아름답게 보였다. 아주 가까이에 유리로 지은 거대한 마천루가 하늘 높이 치솟아 있었다. 그 뒤에 똑같은 또 하나의 마천루가 있었는데 그 지붕 위에는 자그마한 탑들과 회랑, 도금된 원주형 기둥들이 세워져 있는 자그마한 아랍식의 공전이 솟아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그림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거기에서도 서로 어울리지 않는 것들이 서로 마주치고 있었다. 건축중에 있는 제련소와 배경의 석유등, 혹은 또 다른 등, 채색된 유리로 만든 이등의 구형 것이 산산조각이 났는데, 그 조각들이 활랑한 습지풍경 위에 떠 있었다. 프란츠는 말했다. 「유럽에서 아름다움은 언제나 국제적 유형의 것이었어요. 언제나 미학적인 의도와 장기적인 설계가 있었어요. 그러한 설계에 따라 수십 년 동안 고딕 성당이나 르네상스 양식의 도시가 건립되었던 거요. 뉴욕의 아름다움은 전혀 다른 근원을 지니고 있어요. 그것은 비국제적 아름다움이거든요. 그것은 종유석 동굴처럼 인간의 의도 없이 생성된 거요. 자체만으로 바라보면 흥측한 형태들이 우연히 아무런 계획 없이, 전혀 예기치 못한 유사형태로 변질되어 갑자기 신비스런 시로 빛을 발하는 것이요」 사비나는 말했다. 「비국제적 아름다움, 잘 표현했어요, 하지만 (착오에서 이룩된 아름다움)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아름다움이 최종적으로 세상에서 사라지기 전 이 아름다움은 한동안 착오로 말미암아 존재할 거예요. 착오에서 이룩된 아름다움, 그것 @P 126 은 아름다움의 역사에서 마지막 장이지요」 그녀는 실제 성공된 자기의 최초 그림을 생각했다. 그것은 실수로 붉은색 물감이 캔버스에 떨어졌기 때문에 생성된 작품이었다. 그렇다, 그녀의 그림들은 착오의 아름다움에 근거했다. 그리고 뉴욕은 그녀의 그림 화법의 은밀하고도 본래적인 고향이었다. 프란츠는 말했다. 「뉴욕의 비국제적 아름다움은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설계의, 너무나도 엄격하고 하나하나 완벽하게 구성한 아름다움보다 훨씬 더 풍부하고 화려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더 이상 유럽의 아름다움은 아니요, 그것은 우리에게 낯선 세계요」 그렇다면 이 두 남녀가 의견의 일치를 볼 수 있는 것이 있단 말인가? 그렇지 않다. 거기에도 차이가 있다. 뉴욕의 아름다움에서 낯선 점은 사비나에게는 대단히 매력적인 것으로 작용한다. 프란츠도 그것에 매료되었지만 동시에 그 낯선 점은 그를 놀라게 한다. 그것은 그에게 유럽에 대한 향수를 일깨운다. 사비나의 고향 사비나는 미국에 대한 그의 거부감을 이해한다. 프란츠는 유럽의 구현이다. 그의 어머니는 비엔나 출신이고 그의 아버지는 프랑스 사람이다. 그리고 그 자신은 스위스 사람이다. 프란츠로서는 사비나의 고향을 경탄해한다. 그녀가 그에게 자신과

보헤미아 출신의 친구에 대한 이야기르 할 때 프란츠는 감옥, 추적, 거리의 탱크, 망명, 금 서, 금지된 전시회 등과 같은 말들을 듣는다. 그러면 그는 향수가 섞인 부러움 같은 것을 느낀다. 그는 사비나에게 고백한다. 「언젠가 어떤 철학자가 내가 말하는 @P 127 모든 것을 증명할 수 없는 사변이라고 써서어요, 그리고 그는 나를 (거의 정말 같지 않은 소크라테스)라고 일컬었어요. 나는 심한 모욕을 당해 그에게 격노한 어조로 대답했어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어이없는 에피소드가 내가 지 금까지 체험했던 가장 큰 갈등이라는 것을! 이 갈등으로 나의 삶은 극적 가능성 의 최대를 기록했어요. 우리 둘은 전혀 다른 척도에 따라 살고 있어요. 당신은 내 삶에 마치 걸리버가 난쟁이 나라로 들어가듯 들어온 것이오」 사비나는 항의한다. 갈등, 드라마, 비극은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뜨하지 않으 며, 여하한 가치도 구현하지 않고 또한 존중도 경탄도 받을 가치가 없다고 그녀 는 말한다. 누구나 프란츠를 부러워한다면 그것은 그가 조용히 수행할 수 있는 그의 작업 때문이라고 그녀는 말한다. 프란츠는 머리를 흔들다. 「부유한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두 손으로 일할 필요 가 없고, 정신적 활동에 전념해야 해요, 점점 더 많은 대학, 점점 더 많은 대학 생이 있게 돼요. 이들 대학생들이 그들의 공부를 끝마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졸업논문을 위한 테마들을 찾아내야만 해요. 수없이 많은 테마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 모든 것에 대해서 논문을 쓸 수 있기 때문이오. 산더미 처럼 많은 논문들이 문헌실로 수집되어요. 이들 문헌실들은 공동묘지보다 더 서글픈 거요. 만령절(역주:11월 2일로 모든 죽은 이들의 영혼을 기리는 카톨릭 기념일)때도 사람들은 공동묘지는 찾지만 문헌실엔 들어가지 않으니까 말이오. 문 화가 물량 속에, 문화사태에, 대중의 광기속에 침몰하는 것이오. 그래서 난 당신 께 항상 말하죠, 당신 고향에서 단 한 권의 금서가 우리들 대학에서 내뿜어지는 역조의 단어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뜻한다는 것을」 @P 128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모든 혁명에 대한 프란츠의 약점을 이해할 수 있다. 언젠가 그는 쿠바에 동감을 가졌고 그런 다음에는 중국에 동감했다. 그런데 이 들 정권의 무자비성에 혐오감을 느껴, 그는 자기에게는 오직 무게도 없고 삶도 아닌 문자의 이 넓은 바다만이 있다는 것으로써 우울하게 자신의 마음을 달랬 다. 그는 제네바에서(이곳에는 데모가 없다) 교수가 되었다. 그리고 그는 일종의 체념 속에서(여자도 시위행진도 없는 고독에서)학문적 저서들을 출간하여 팔목 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런 다음 어느 날 사비나가 마치 계시처럼 나타난 것이다. 그녀는 혁명의 환상이 이미 오래전에 지나가버린 나라에서 왔다. 그러나 그 곳에서 프란츠가 혁명에서

무엇보다도 경탄해 마지않았던 것, 즉 모험과 용기와 죽음의 위협으로 이룩된 대범한 차원이 문제가 되는 삶이 지속되고 있었다. 사비나는 그에게 다시금 인간 운명의 위대성에 대한 믿음을 주었다. 그녀는 자기 나라의 고통에 찬 드라마를 그녀의 모습을 통해 표출하고 있어 더욱더 아름답다. 그런데 사비나는 드라마를 좋아하지 않는다. 감옥, 박해, 금서, 점령, 탱크 같은 말들이 그녀에게 낭만주의의 입김이 전혀 없는 흉측스런 말들이다. 그녀의 귀에 그녀 고향에 대한 향수적인 회상 처럼 부드럽게 울리는 단어는 공동묘지란 말이다. 공동묘지 보헤미아 지방에는 공동묘지들이 정원과 같다. 무덤 위에는 풀과 찬란한 꽃들이 자라고 있다. 여러 가지 유형의 묘비들이 푸른 나뭇잎 속에 가려져 있다. 날이 어두워지면 활활 타는 촛불로 뒤덮인다. 죽은 이들이 아이들의 축제를 벌이고 있다고 여겨질 수 @P 129 있겠다. 그렇다. 아이들의 축제다. 죽은 이들은 아이들처럼 순진하니까. 삶이 아무리 무자비할지라도 공동묘지에는 언제나 평화가 지배했다. 전쟁의 와중에서도, 히틀러 치하에서도, 스탈린 치하에서도, 모든 점령이 있는 동안에도, 사비나는 슬플 때면 자동차에 몸을 던져 프라하로부터 멀리 타고 나가, 그녀가 각별히 좋아했던 공동묘지에서 산책을 했다. 파아란 산들을 배경으로 한 이들 공동묘지는 자장가처럼 아름다웠다. 프란츠에게 공동묘지는 뼈와 돌을 버리는 흉측스런 쓰레기장이었다. 6 「난 자동차를 절대 타지 않을 거야! 난 사고날까 무서워! 죽지 않는다 해도 충격의 영향은 남은 인생 내내 있게 돼」 하고 조각가는 말했다. 그리고 그는 무심코 자기의 집게손가락을 잡는다. 그는 언젠가 목각작업을 할때 이 집게손가락을 잘라버릴 뻔했었다. 기적적으로 그는 이 손가락을 구제할 수 있었다. 「아니 무슨 소릴」 하고 멋진 품을 지닌 마리-클로드가 소리 높여 말했다. 「언젠가 나는 큰 자동차 사고를 당했어요. 그런데 그건 멋졌어! 「언젠가 나는 큰 자동차 사고를 당했어요. 그런데 그건 멋졌어! 난 당시 병원에서처럼 그토록 기분 좋았을 때가 한 번도 없었어! 난 눈을 감을 수가 없었고 밤낮으로 계속 책을 읽었어!」 모두가 놀라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것은 그녀를 눈에 띄게 행복하게 했다. 프란츠의 마음속에는 혐오감과(그는 자기 부인이 앞서 언급한 사고가 있는 후 아주 침울했으며 설새없이 불평을 늘어놓았던 것을 생각했다) 일종의 경탄(체험한 것을 모조리 변형하는 @P 130 재주에 대한 경탄으로 이것은 대단한 활력을 드러낸다)이 뒤섞였다. 그녀는 말을 계속했다. 「그곳에서 책을 밤에 읽을 것과 낮에 읽을 것으로 나 누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낮을 위한 책이 있고 밤에만 읽을 수 있는 책이 있어요」 모두가 경탄하면서 놀라워하는 기색을 보였다. 여전히 손가락을 꼭 쥐고 있는 조각가만이

그때의 불쾌한 기억 때문에 침울한 얼굴을 했다. 마리-클로드는 그를 향해 물었다. 「당신은 스탕다르이 저서를 어떤 그룹의 책에 넣었어요?」 조각가는 귀담아듣지 않았고 당황해서 어깨만 으쓱했다. 그의 옆에 있던 예술 평론가 한 사람이 자기 생각으로는 스탕달의 저서는 낮에 읽을 책 그룹에 속한 다고 분명히 말했다. 마리-클로드는 머리를 흔들고 외쳤다. 「당신 틀렸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스탕달은 밤의 작가예요!」 프란츠는 이 낮예술과 밤예술에 대한 토론에 다만 방심한 상태로 참여했을 뿐 이다. 그는 사비나가 여기 나타나게 되리라는 것 외에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다. 사비나와 프란츠 둘은, 마리-클로드가 그 동안 그녀의 사설 화랑에서 그녀의 작품 전시를 했던 모든 화가와 조각가들을 위해 베푼 이 칵테일 파티에의 초청을 사비나가 수락해야 할지의 여부를 놓고 며칠 동안을 이리저리 곰곰이 생각 했다. 프란츠와 가까운 사이가 된 이래 사비나는 그의 부인을 피했다. 그들 사이 가 드러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서 결국 사비나가 파티에 가는 것이 더 자연 스럽고 덜 의심스러울 것이 리라는 데 두 사람은 합의를 보았다. 그가 몰래 입구 쪽을 살펴보고 있는데 화랑의 다른 모퉁이에서 @P 131 열여덟 살 된 그의 딸 마리-안네의 지칠 줄 모르는 목소리가 들려 왔다. 그는 자기 부인이 모아놓고 있는 그룹에서 자기 딸의 서클 쪽으로 갔다. 안락의자에 누가 앉아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빙 둘러서 있었다. 마리-안네가 바닥에 앉아 있었다. 프란츠는 자기 화랑의 다른 끝에 있는 마리-클로드로 곧 바닥에 앉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손님들 앞에서 바닥에 앉는 마리-클로드의 정력은 프란 츠로 하여금 그들이 담배를 사는 상점에서 상점 다밖에 낮아 있는 그녀를 만나 지나 않을까 하고 염려케 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 「지금 당신은 무슨 일을 하고 있나요?」 하고 마리-안네가 그녀 앞에 서 있는 남자에게 물었다)이 남자의 발부리에 그녀가 앉아 있었다.) 알랑은 자기 천생 그 대로 순진하고 솔직하게 화랑 여주인의 딸에게 진지하게 대답하려 했다. 그는 그녀에게 사진과 유화를 연결시킨 그의 새로운 기법을 설명해 주기 시작했다. 그가 겨우 세 문장을 말하자마자 그녀는 휘파람을 불기 시작했다. 화가는 천천 히 집약적으로 이야기 했다. 그는 그녀의 휘파람소리를 듣지 못했다. 프란츠가 속삭였다. 「왜 휘파람을 부는지 내게 말해 줄 수 있겠니?」 「정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고 그녀는 아주 소리 높여 대답했다. 실제로 거기 모인 그룹에서 두 남자가 앞으로 있을 프랑스 선거에 그녀는 아주 소리 높여 대답했다. 실제로 거기 모인 그룹에서 두 남자가 앞으로 있을 프랑스 선거에 대해 토론 하고 있었다. 환담을 조정할 책임이 있다고

느낀 마리-안네는 두 사람에게 이탈리아 앙상블이 다음주 제네바에서 공연하는 로시니 오페라를 극장에서 구경하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화가 알랑은 그러는 사이 자기의 새로운 그림법을 해명하려고 더 @P 132 욱더 적중하는 표현을 찾았다. 프란츠는 자기 딸 때문에 부끄럽게 여겼다. 그는 딸을 입다물게 하기 위해, 오페라는 자기에게는 죽도록 지루하다고 말했다. 「아버진 정말 우스꽝스러워요」 하고 마리-안네는 말했다. 그리고 그녀는 여 전히 바닥에 앉아서 아버지의 배를 치려고 했다. 「주연 배우는 너무 멋져요! 그 가 얼마나 잘생겼는지 미치겠어요! 난 겨우 두 번 그를 보았는데 벌써 훌쩍 반 했어요!」 프란츠는 자기의 딸이 그녀의 어머니를 너무나도 닮았다는 것을 확인했다. 왜 그녀가 자기를 닮지 않았는가? 아무 소용 없는 짓거리였다. 딸은 그를 닮지 않았다. 마리-클로드가 이 화가 혹은 저화가에게, 음악가와 작가에게 혹은 정치가에게 반했노라고 공포하는 것을 그는 이미 수백 번이나 듣지 않을 수 없었다. 언젠가는 자전거 선수에게 반했다고까지 말했다. 물론 그것은 파티 환담에서 수 사학적 표현에 불과했다. 그러나 그는 때때로 그녀가 20년 전같은 말을 그에게 주장했고 자살하겠다고 위협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순간 사비나가 화랑으로 들어왔다. 마리-클로드가 그녀를 보고 그녀에게로 갔다. 그의 딸은 계속해서 로시니에 대해 환담하고 있었다. 그러나 프란츠는 두 여자가 서로 주고받는 말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몇 마디 친절한 인사말을 하고 난 뒤 마리-클로드는 사비나의 목에 걸려 있는 도자기 장식을 손에 들고 큰소리로 말했다. 「도대체 무엇을 달고 있지? 얼마나 보기 흥해!」 이 문장은 그를 사로잡았다. 그것은 공격적으로 내뱉은 말이 아니었다. 그 반대였다. 큰소 리로 그녀가 웃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장식을 거부하는 그녀의 말이 화가에 대 한 마리-클로드의 우정을 아무것도 변화시키지 않았음을 순간적으로 명백히 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말은 보통 때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그 @p 133 녀의 어조에 상응하지 않는 문장이었다. 「내가 직접 그것을 만들었어요」 하고 사비나는 말했다. 「그런데 그건 정말 보기 흥해요」 하고 마리-클로드는 아주 큰 소리로 반복 했다. 「그와 같은 것은 달고 다니지 말아야 좋겠어!」 프란츠는 장식이 보기 흥한가 아닌가 하는 것은 자기 부인에게 조금도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가 흥하게 보려 했던 것은 흥했고, 아름답게 보려 했던 것은 아름다워쌌다. 그녀의 여자친구들의 장식은 아예 볼 것도 없이 아름다웠다. 그녀가 무엇을 흥하게 보았을 때는 입을 다물었다. 왜냐하면 아첨하는 것이 이미 오래전부터 그녀의 제2의 천성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사비나 자신이 만든 목걸이 장식을

그녀가 흥하게 보려고 결심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 프란츠에게 사비나의 전시회하는 성공적인 것이 못 되었다. 마리-클로드는 각 별히 사비나의 호의를 사려고 애쓰지 않았다. 거기에 반해 사비나에게는 마리-클로드의 호의를 살 충분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녀의 태도는 그와 같은 태도를 전혀 드러내지 않았다. 그렇다. 프란츠에게는 명백해졌다. 마리-클로드는 사비나에게(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기들 둘간의 힘의 관계가 실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알도록 하기 위한 기호를 이용한 것이었다. @p 134 7 이해 못한 단어 소목록(마지막) 암스테르담의 옛 교회 한쪽 편에는 주택들이 있고 쇼윈도처럼 보이는 제일 밑층 큰 창문들 안으로 창녀들의 작은 방들이 보인다. 이 창녀들은 속옷만 걸치고 창유리 바로 뒤 작은 안락의자에 앉아 있다. 그들은 지루해하고 있는 큰 고양이들처럼 보였다. 길의 다른 쪽 편에는 14세기에 지은 크나큰 고딕 성당이 서 있다. 창녀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는 마치 두 세계 사이에 강이 놓인 것처럼 코를 찌르는 오줌 냄새 나는 구역이 있다. 성당 내부에 고딕 건축양식으로 아직 남아 있는 것은 높고 흰벽, 원주형의 기둥, 천장, 창문들뿐이다. 벽에는 그림도 걸려 있지 않고, 어느 곳에도 입상 하나 서 있지 않다. 교회는 마치 체육관처럼 텅 비어 있었다. 다만 한가운데 연단 둘레에 큰 사각형을 이루도록 줄지어 놓은 의자들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연단 위에는 설교자를 위한 작은 책상 하나가 놓여 있다. 의자 뒤에는 부유한 시민가족의 칸막이 특별한 목조 밀실이 자리잡고 있다. 의자들과 밀실들은 교회의 벽과 기둥의 배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세워져 있다. 마치 고딕 건축양식에 대한 무관심 및 멸시를 표현하려는 것처럼 보였다. 수백년 전 칼빈교가 이 교회를 신자들이 기도하는 것을 눈비로부터 보호해 주는 것 외에는 전혀 다른 @p 135 기능을 갖지 않은 단순한 홀로 바꾸어놓았다. 프란츠는 매료되었다. 이 거대한 홀을 통해 역사의 대장정이 지나갔기 때문이다. 사비나는 공산당이 세력을 잡은 뒤 보헤미아 지방의 모든 성들이 국가에 귀속 되어 견습공 실습장으로, 양로원 및 소외양간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생각했다. 그와 같은 소외양간을 그녀는 언젠가 구경했었다. 쇠고리가 달린 꺾쇠가 회벽에 박혀 있었고 그것에 소들을 매어 두었다. 이 소들은 창무를 통해서 닭들이 뛰어 돌아다니고 있는 성의 공원을 멍하니 내다보고 있었다. 프란츠는 말했다. 「이렇게 텅 빈 것은 나를 매로시켜요. 제단들, 입상들, 의자 및 안락의자들, 양탄자들, 책들을 쌓이도록 들여 놓지요. 그러면 이런 모든 것을 식탁에서 빵부스러기를 쓸어내듯 깨끗이 쓸어버리는 즐거운 경쾌의 순간이 오는 거요. 이 성당을 깨끗이 쓸어버린 헤라클레스의 비를 상상할 수 있어?」 사비나는 목조 밀실을 가리켰다.

「가난한 사람들은 서 있어야만 했고 돈 많은 사람들에게는 밀실이 있었어요. 그러나 은행가를 가련한 가난뱅이와 결합시켜 주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아름다움에 대한 혐오였어요」 「그런데 무엇이 아름다움이지?」 하고 프란츠는 물었다. 그의 눈앞에는 얼마 전에 있었던 그림시사회가 떠올랐다. 그는 자기 부인 곁에서 이 시사회를 참고 견디어야 했었다. 한없이 허황된 말과 말들, 문화의 허황, 예술의 허황. 대학에서 공부할 때 그녀는 청년건설단에서 일했었다. 끊임없이 확장기에서 올려나온 경쾌한 행진곡 음악의 해독이 그녀의 영혼속에 박혔다. 어느 일요일 그녀는 모터사이클을 타고 멀리 숲속으로 갔다. 그녀는 산 중턱에 있는 알지 못 하는 작은 동리에서 멈추었다. 모터사이클을 교회 벽에 기대어놓고 그녀는 교회 안으로 들어갔다. 그때 마침 미사가 낭송되었다. 그 당시 종교는 공산정권 @p 136 에 의해 박해 받았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를 둘러싸고 큰 궁형을 이루었다. 교회 안 의자에는 다만 나이 많은 남자와 여자들만이 앉아 있었다. 그들은 당시의 정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들은 다만 죽음을 두려워했다. 신부가 노래하는 목소리로 한 문장을 선창해싸다. 그러면 교구의 사람들이 그 것을 합창으로 반복했다. 그것은 신부와 신도들이 번갈아 올리는 연도였다. 동일 한 말들이 끊이지 않고 계속 반복되었다. 마치 순례자가 풍경에서 시선을 뗄 수 없을 때와 같았고, 인간이 삶에서 작별을 할 수 없을 때와도 같았다. 그녀는 뒤쪽 ㅁ벤치에 앉아서 잠시 동안 눈을 감고 음악에 귀를 기울이다가 다시 눈을 떴다. 그녀는 머리 위에 커다란 금빛 별들이 있는, 파랗게 그려진 둥근 천장을 보았다. 그녀는 완전히 매혹되는 듯했었다. 그녀가 이 교회에서 예기치 않게 찾았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아름다움이 었다. 이 교회, 이 연도 자체가 아름다웠던 것이 아닐. 그녀가 음악의 소음속에서 나날을 보내야 했던 건설단에서와 비교해서 아름다웠다는 것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미사는 그녀에게 예기치 않게 은밀히, 마치 누설된 세계처럼 나타났기 때문에 아름다웠다. 그때 이후 그녀는 아름다움이란 누설된 세계라는 것을 알고 있다. 아름다움의 박해자들이 잘못해서 이 아름다움을 어디에선가 잊고 '빠뜨릴 때만 우리는 이 아름다움과 마주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아름다움은 5,1절 행진 무대의 측벽 뒤에 숨어 있다. 아름다움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이 측벽을 찢어버려야 한다. 「교회가 나를 때려시키기는 이것이 처음이오」 하고 프란츠가 말했다. 개신교도, 금욕도 그의 아픔속에서 이 같은 열광을 불러일으키지 @p 137 못했다. 이것은 그가 사비나 앞에서 감히 말할 수 없었던 극히 다른 개인적인 것이었다. 마리-클로드의 시사회, 마리-안네의 가수, 회의와 심포지엄, 공허한 말

들과 흥허한 단어들을 그의 삶에서 싹 쓸어내기 위해 헤라클레스의 비를
잡으라 고 그에게 경고하는 목소리를 그는 듣는 것 같았다. 크고 텅 빈
암스테르담 성 당의 홀은 그에게 그 자신의 해방상으로 나타났다. 힘
그들이 사랑을 부태웠던 여러 호텔 중 어느 한 호텔방 침대에서 사비나는
프란츠의 팔을 가지고 장난했다. 「믿을 수가 없어요. 당신이 이런
근육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프란츠는 이 칭찬에 기뻐했다. 그는
침대에서 내려와 무거운 떡갈나무 의자 발밑 쪽을 잡고 천천히 높이
들어올렸다. 「당신은 아무것도 겁낼 필요가 없어요」 하고 근 말했다.
「나는 당신을 어떤 상황에서도 보호할 수가 있어요. 전에 난
유도시합까지 했었어」 실제 그는 무거운 의자를 든 팔을 머리 위 높이
쪽 펼 수가 있었다. 그러자 사비나는 말했다. 「당신이 그렇게 힘이
세다는 것을 알아두기를 잘했어요」 그러나 혼잣말로 그녀는 덧붙였다.
프란츠는 힘이 세! 하지만 그의 힘은 다만 외부로만 향하고 있어. 그가
함께 살고 그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약해. 그의 약함은 친절을
말하지. 프란츠는 사비나에게 절대 무엇을 명령하지 못할 거야. 그는
언젠가 큰 거울을 바닥에 놓고 발가벗고 그 위에서 왔다갔다하라고
사비나에게 명령했던 토마스처럼 하지 못할 거야. 그러기 위한 육감성이
그에게 없다는 말은 아니야. 그에게는 명령하는 힘이 있어. 폭 @p 138
력을 토해서만 이룩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 법이야. 육체적 사랑은 폭력
없인 생각할 수 없어. 사비나는 프란츠가 의자를 높이 든 채 방안을
가로질러 오가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것이 그녀에게는
그로테스크하게 여겨졌다. 일종의 서글픔이 그녀의 마음을 채웠다.
프란츠는 의자를 내려놓고 그 위에 앉아 사비나에게로 얼굴을 돌렸다.
「내가 그렇게 힘이 있다는 게 불만스러운 것은 아니오」 하고 그는
말했다. 「그런데 제네바에서 그러한 근육이 무엇에 필요하겠어? 난
그러한 근육을 마치 장신구같이 달고 다니는 꼴이오. 칠면조가 그의
허려한 깃털을 달고 다니듯 말 이오. 난 평생 한 번도 누구와 붙들고
싸운 적이 없어요.」 사비나는 그녀의 우울한 생각을 계속했다. 그런데
지금 그녀에게 명령을 내릴 남자가 있다면? 그녀를 지배하려고 하는
남자가 있다면? 그녀는 얼마 동안 그를 참고 견딜 수 있었을까? 5분도 못
견딜 거야! 결국 그녀에게 맞을 남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 드러난다.
힘이 세든 약하든 하나도. 그녀는 말했다. 「그런데 왜 당신은 그 힘을
종종 내게 쓰지 않나요?」 「사랑은 힘을 포기하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오」 하고 프란츠가 나지막하게 대답했다. 사비나에게 두 가지
사실이 확실해졌다: 첫째, 방금 프란츠가 말한 이 문장은 참되고
아름답다는 것. 둘째, 바로 이 문장은 그녀의 에로틱한 삶에서 프란츠를

겨하시켰다는 것이 그것이다. @p 139 진실에서 산다 이 말은 카프카가 그의 일기장인가 아니면 편지에서 사용했던 표현이다. 프란 츠는 어디에서였는지 정확히 기억할 수가 없다. 이 표현은 그의 마음을 사로잡 았다. <진실에서 산다>라는 말은 무엇을 말하는가? 부정적 정의를 내리는 것은 쉽다. 그것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 자신을 숨기지 않는다는 것, 아무것도 비 밀로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사비나와 쉰 이래 프란츠는 거짓에서 살고 있다. 그는 자기 부인에게 전혀 개최된 바 없었던너 암스테르담에서의 호의에 대해 이 야기한다. 「가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마드리드 대학에서의 강의를 대해 이야 기 한다. 사비나와 함께 제네바 거리를 산보하는 것이 그에게는 두렵다. 거짓말 하고, 자신을 숨기고 하는 것이 그를 재미있게 한다. 왜냐하면 그는 평소 그렇게 해본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이다. 그는 그런 짓을 할 때 유쾌하게 흥분한다. 마 치 드디어 한번 학교수업을 빼먹겠다고 결심하는 반 수석학생처럼 흥분한다. 사비나에게는 <진실에서 산다>는 것, 자기 스스로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관객 없이 산다는 것을 전제하고서야 가능하다. 어느 누가 우리들의 행위를 바라보는 순간부터 우리는 잘하건 못하건 간에 우리를 관 찰하는 눈에 우리 자신을 맞춘다. 그러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은 참되지 않게 된다. 관객을 갖는다는 것, 관객을 생각한다는 것은 거짓에 사는 것을 말한다. 사비나는 작가가 자신과 자신의 친구에 대한 모든 은밀성을 배반하는 문학을 떨 시한다. 자신의 은밀성을 상실한 사람은 모든 것을 상실한 것이라고 사비나는 생각한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그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괴물이다. 그 때문에 사비 나는 자기의 사랑 @p 140 을 비밀로 해야 한다는 데 대해 조금도 괴로워하지 않는다. 반대로 그녀는 그 령게 함으로써한<진실에서 살 수 있다> 그와는 반대로 프란츠는 삶을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으로 구분하는 데 모 든 거짓의 원천이 놓여 있음을 확신한다. 인간은 사적 생활에서는 공적 생활과 는 다른 사람이 된다는 것이다. <진실에서 산다>는 것은 그에게는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 간의 답을 허물어버리는 것을 말한다. <전혀 비밀이 없고 모든 시선 에 활짝 열려 있는 유리집에> 살았으면 좋았을 거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앙드 레 브르통의 문장을 인용하기를 그는 좋아한다. 「이 장식은 훌륭해!」 라고 자기의 부인이 사비나에게 말하는 것을 그가 들었 을 때 그에게는 자기가 더 이상 거짓 속에서 살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왜 냐하면 그 순간 그는 사비나 편을 들었어야 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그렇게 하는 것을 그만두었다. 비밀로 하고 있는 그들의 사랑이 누설될까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칵테일 파티가 끝난 다음날 그는 사비나와 함께

이틀 동안 로마로 여행하려 했다. 머릿속에서 그는 계속 「이 장식은 보기 흉해」라는 문장을 들었다. 그는 자기 부인을 갑자기 지금까지 살아온 삶과는 다른 눈으로 보았다. 그녀의 확고한, 목소리 큰 정력적인 공격성이 그가 23년의 결혼생활 동안 참고 꾸준히 지고 왔던 친절의 집에서 그를 해방시켰다. 그는 암스테르담 성당의 크나큰 내면공간을 회상하고, 다시금 그 텅 빈 공간이 그의 마음속에 불러일으켜 주었던 독특하며 이해할 수 없는 그 열광을 느꼈다. 마리-클로드가 방에 들어왔을 때 그는 트렁크에 짐을 꾸리고 있었다. 그녀는 전날 저녁의 손님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거기에서 주위들은 견해들 중 몇몇에는 동의했고 다른 것들은 야유적인 어조로 비난했다. 프란츠는 그녀를 오랫동안 바라보고 나서 말했다. 「로마에서는 @p 141 회의가 없어요」 그녀는 이해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왜 가지요?」 그는 대답했다. 「내게는 9개월 전부터 애인이 있어요. 제네바에서 그녀와 함께 있고 싶지 않소. 그 때문에 나는 그토록 자주 여행하오. 당신이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오」 처음 몇 마디를 말하고서 그는 갑자기 놀랐다. 처음 가졌던 용기가 그에게서 떠나갔다. 그는 마리-클로드의 얼굴에서 절망을 보지 않으려고 시선을 돌렸다. 그는 자기가 한 말이 그녀에게 절망을 불러일으켰을 거라고 생각한 것이다. 잠시 침묵이 있는 위 「내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물론 나 역시 그렇게 생각해요」라는 말을 그는 들었다. 이 목소리는 확고했다. 프란츠는 눈을 들었다. 마리-클로드에게는 조금도 충격 받은 기색이 없었다. 그녀는 여전히 전날 저녁 큰 소리를 「이 장식은 보기 흉해!」 하고 말했던 여자와 다를 바 없었다. 그녀는 말을 계속했다. 「당신이 9개월 전부터 나를 속여왔다고 내게 말할 용기를 이미 당신이 가졌다면 누구와 그랬는지 내게 밝힐 수 없나요?」

마리-클로드 속에 있는 여자를 존중하기 위해 그녀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그는 늘 말해 왔다. 그러나 마리-클로드 속에 있는 이 여자는 어떻게 되었는가? 달리 말하면. 그가 자기 부인의 상과 결합시킨 자기 어머니의 상은 어떻게 되었는가? 발에 짹짹 신을 신은, 상처받은 슬픈 그의 어머니, 그녀는 마리-클로드를 떠났던 것이다. 어쩌면 떠났다고 말할 수 없는지도 모른다. 한번도 마리-클로드 속에 있지 않았으니까. 갑작스런 혐오의 발작에서 그는 그것을 알게 되었다.

「그것을 당신에게 입다물 이유가 없소」하고 그는 말했다. @p 149 에서 사라지기 전 그녀는 헤라클레스의 비를 그의 손에 쥐어줄 시간을 내었다. 그것은 그가 원하지 아니한 것은 모두 그의 삶에서 이 비로 깨끗이 쓸어버리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예기치 않았던 이 행복, 이 만족감, 자유와 새로운 삶에 대한 이 기쁨, 이것들은 그녀가 그에게 남기고 떠난

선물이었다. 뿐만 아닐 그는 늘 비현실적인 것을 현실적인 것에 우선했다. 그는 시위행진 을 할 때가(말했다시피 이것은 연극 및 꿈에 불과한 것이다) 그가 강의를 하는 연단 위 에 서 있을 때보다 더 좋았던 것처럼, 꼭 마찬가지로 그는 보이지 않는 여신으로 변화된 사비나와 있는 것이, 자기와 함께 세상을 돌아다녔으며 또한 그로 하여금 그녀의 사랑을 구하도록 계속 마음 졸이게 했던 사비나와 함께 있을 때보다 더 행복했다. 그녀는 그에게 뜻밖에도 혼자 사는 남자의 자유를 주었다. 그녀는 그에게 유혹자의 매력을 선사했다. 그는 여자들에게 매력있게 되었다. 그에게서 공부하는 여대생 한명이 그에게 반했다. 그의 삶의 무대장치는 아주 짧은 시간에 완전히 변했다.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는 부르주아적인 큰 집에서 시녀를 거느리고 딸과 부인과 함께 살았다. 이제 그는 구시가지의 작은 집에서 산다. 그리고 그의 젊은 애인은 거의 매일 그의 집에서 동침한다. 이 여학생은 까다롭지가 않았다. 특별히 예쁜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그녀는 파란츠에게 경탄했다. 마치 프란츠가 얼마 전 사비나를 그랬던 것처럼. 그것은 그에게 불쾌하지 않았다. 비록 그가 사비나를 안경 쓴 이 여대생과 교체한 것을 어쩌면 약간의 하강으로 간주할 수 있겠지만. 그의 다정한 마음은 그가 새로운 이 애인 @P 150 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녀를 위해 아버지 같은 사랑을 느끼도록 작용했다. 마리-안네가 딸처럼 행동하지 않고 제2의 마리-클로드처럼 행동했기 때문에 그는 그와 같은 아버지다운 사랑을 한번도 베풀 수가 없었다. 어느 날 그는 자기 부인을 찾아가 자기는 기꺼이 재혼하겠노라고 말했다. 마리-클로드는 머리를 저었다. “우리가 이혼한다고 해도 변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당신이 손해보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전재산을 당신에게 남겨두겠소” “재산은 내게 문제되지 않아요”하고 그녀는 말했다. “그럼 무엇이 문제요?” “사랑이 문제예요” “사랑이라고?”하고 그는 놀라 물었다. “사랑은 싸움이에요”하고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난 오래오래 싸울 거예요. 끝까지” “사랑이 싸움이라고? 그러나 내겐 싸우고 싶은 생각이 조금도 없소”하고 프 란츠는 말했다. 그리고 그는 떠났다. 10 제네바에서 4년을 보낸 뒤 사비나는 파리에 거주지를 정했다. 그녀는 그녀의 우울한 마음에서 회복하지 못했다.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누가 물었다고 하더라도 그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을 것이다. 인생의 드라마는 언제나 무게의 메타포로 표현될 수 있다. 어떤 짐이 누구의 어깨 위에 떨어졌달들 말한다. 사람은 그 짐을 지 @p 151 고 갈 수 있기도 하고 혹은 지고 갈 수 없기도 하다. 짐의 무게에 쓰러지고, 그것에 대항해서 싸우고, 지거나 이기거나 한다. 그런데 사비나에게 정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아무 일도. 그녀는 한 남자를 떠났다. 그를 떠나고 싶어했기 때 문이다. 그가 그녀를 박해 했던가? 그가 보복을 했던가? 아니. 그녀의 드라마는 무거움의 드라마가 아니라 가벼움의 드라마다. 사비나의 어깨 위에 떨어진 것은 짐이 아니라 존재의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이다. 지금까지 배반의 순간들은 그녀를 흥분으로 충만시켰으며, 또 그녀 앞에 새로운 길이 열려 있고, 이 길의 끝에는 배반의 새로운 모험이 있다는 데 대한 기쁨 으로 충만시켰다. 그런데 이 길이 언젠가 끝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양친을, 남편을, 사랑을, 고향을 배반할 수는 있다. 그러나 양친도, 남편도, 사랑도, 고향 도 없다면 배반할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사비나는 자기 주위가 텅 빈 것을 느 꼈다. 그런데 지금 바로 이 공허가 그녀의 모든 배반의 목적이 었다면? 지금까지 그녀는 그것을 의식 못했다. 이것은 충분히 납득할수 있다. 사람이 추적하는 목적은 언제나 베일에 가려 있기 때문이다. 결혼생활에 대해 꿈꾸는 젊은 처녀는 그녀가 전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 꿈꾼다. 명예를 좇는 젊은이는 명예가 무엇인지 모른다. 우리들 행우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언제나 전혀 미 지의 것이다. 사비나 또한 어떤 목적이 배반에 대한 그녀의 욕구 뒤에 숨어 있 는가를 알지 못한다. 존재의 참을 수 없는 가벼움, 그것이 목적인가? 제네바에서 떠난 후 그녀는 이 가벼움에 많이 접근했다. 사비나가 보헤미아 지방에서 편지 한 장을 받았을 때는 그녀가 파리에서 이미 3년을 지낸 후였다. 이 편지는 토마스의 아들로부터 왔다. 그는 어떻게 해서 사 비나에 대해 들었고, 그녀의 주소를 알아내 자기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애인'인 그녀에게 편지를 썼 @p 152 다. 그는 그녀에게 토마스와 테레사의 사망통보를 했다. 그들은 최근 수년 동안 어떤 마을에 살았으며, 토마스는 그곳에서 그들은 소박한 호텔에 묵었다고 했다. 길은 가파랐고 꼬불꼬불한 사행길이었는데 그들의 트럭이 산언덕에 굴러 떨어졌다고 했다. 그리고 그들의 육신은 완전히 으스러졌으며, 후에 경찰은 브레 이크 장치가 아주 형편없는 상태였음을 확인했다고 했다. 그녀는 이 비보에서 거의 회복할 수가 없었다. 그녀는 과거와 결합시켰던 최 후의 끈이 끊어지고 말았다. 옛날 습관에 따라 그녀는 공동묘지를 산책함으로써 마음을 진정시키고자 했다. 몽파르나스 공동묘지가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다. 무덤 위에는 아주 작은 집 들, 소형 예배당들이 세어져 있었다. 왜 죽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궁전 모방물을 자기 위에 갖고자 하는지를 사비나는 이해하지 못했다. 이 공동묘지는 돌이 된 허영 그것이었다. 죽은 뒤 이성을 갖는 대신, 공동묘지 주민들은 생전보다 더 어 리석었다. 들들은 자기들의 중요성을 기념비에 과시했다. 여기 고이 잠들어 있는 사람들은 아버지들, 형제들, 할머니들이 아니라

고위 관직자들과 공직자들, 타이틀, 학위 및 계급, 표장 및 훈장의 소지자들이었다. 하물며 우체국 관리까지도 자기의 계급과 자신의 사회적 위치를 과시했다-자기의 지위를. 공동묘지의 흙을 지나갈 때 그녀는 길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장례식이 거행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장례 의전관이 두 손 가득히 꽃을 들고 유족들에게 나누어주고 있었다. 그는 사비나에게도 꽃 한 송이를 건네주었다. 그녀는 장례 행렬에 합류했다. 그들은 석관의 뚜껑이 열려 있는 무덤에 이르기 위해서 여러 무덤을 돌아서 가야 했다. 사비나는 몸을 앞으로 굽혔다. 무덤 속은 한없이 깊었다. 사비나는 손에 든 꽃을 그 속에 떨어뜨렸다. 원형의 작은 동작 @P 153 을 그리며 꽃은 관 위에 떨어졌다. 이같이 깊은 무덤은 보헤미아에는 없었다. 파리에 는 무덤들이 집건물 높이만큼이나 깊었다. 그녀의 시선은 무덤 옆에 놓인 석판에 떨어졌다. 그녀는 놀라움에 사료잡혀 서둘러 집으로 갔다. 그녀는 온종일 이 돌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무엇 때문에 그것이 그토록 그녀를 놀라게 했는가? 그녀는 대답했다. 무덤이 돌로 덮여 있다면 죽은 사람은 다시는 나올 수가 없다고. 하지만 죽은 자는 그러지 않아도 다시는 나올 수가 없다! 죽은 자가 흙 밑에 누워 있건 아니면 돌 밑에 누워 있건 마찬가지가 아닌가? 아니, 그것은 마찬가지가 아니다. 무덤을 돌로 덮을 경우 죽은자가 되돌아오는 것을 바라지 않는 것이 된다. 무거운 돌은 죽은 자에게 말한다. "네가 있는 곳에 있어!" 사비나는 그녀 아버지의 무덤을 회상한다. 그의 관 위에는 흙이 놓여 있다. 이 흙에서 꽃이 자라난다. 그리고 단풍나무 한 그루가 뿌리를 관 있는 밑 쪽으로 뻗는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 이 뿌리의 꽃을 통해 올라온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그녀의 아버지가 돌로 덮여 있다면 그녀는 그가 죽은 뒤 결코 그와 말할 수 없었을 것이며, 그녀를 용서한 그의 목소리를 나무꼭지에서 결코 듣지 못했을 것이다. 테레사와 토마스가 잠들고 있는 공동묘지는 어떤 모습일까? 다시 그녀의 생각은 이 두 사람에게로 돌아왔다. 그들은 자주 이웃 도시로 나가 호텔에서 묵었다. 편지의 이 부분은 그녀를 아주 감동시켰다. 그녀는 그들이 행복했었다고 풀이했다. 다시금 그녀의 눈앞에 토마스가 마치 그녀 그림들 중 하나인 것처럼 떠올랐다. 전면에는 순진한 화가가 그린, 마치 무대화 같은 돈 후 안이, @P 154 그러나 이 장식의 틈을 통해 트리스탄이 보인다. 그는 트리스탄으로 죽었지 돈 후안으로 죽지는 않았다. 사비나의 양친은 같은 주에 돌아갔다. 토마스와 테레사는 같은 순간에 죽었다. 갑자기 그녀에게는 프란츠에 대한 그리움이 솟았다. 그녀가 공동묘지를 배회한 데 대해 언젠가 프란츠에게 이야기해 주었을 때 그는 무서워 몸을 떨었다. 그는 공동묘지를 빼와 돌을 버리는

쓰레기장이라 했었다. 그 순간 그들간에는 몰이해의 심연이 벌어졌었다. 오늘에야 비로소, 몽파르 나스의 공동묘지에서 그녀는 그가 말했던 것을 이해했다. 그녀는 자기가 참을성이 없었다는 것을 후회했다. 그들이 보다 더 오랫동안 함께 있었다라면 그들은 서로가 했던 말들을 아마도 이해했을 것이다. 마치 수줍어하는 두 연인들처럼 한쪽 편의 어휘가 부끄러워하면서 서서히 다른편의 어휘에 접근했을 것이다. 그리고 한쪽 편의 음악이 다른 편 음악에 동화되기 시작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젠 너무 늦었다. 그렇다 너무 늦었다. 사비나는 자기가 파리에 머물지 않고 떠나 갈 것임을, 또 한 더 멀리 떠나갈 것임을 알고 있다. 그녀가 여기서 죽는다면 그녀는 돌뚜껑 밑에 매장되어 갇힐 것이다. 어디에서도 안정을 찾을 수 없는 여자에게 그녀의 도주에 영원히 중지부가 찍히게 된다는 생각은 참을 수 없는 것이다. 11 프란츠의 친구들은 모두 마리-클로드에 대해 알고 있었고, 또한 큰 안경을 낀 그의 여대생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다. 사비나에 대해서만 아무도 알지 못했다. 자기 부인이 그녀의 친구들에게 사 @P 155 비나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프란츠가 생각했던 것은 착각이었다. 사비나는 아름다운 여자였다. 그리고 마리-클로드는 누가 그들의 얼굴을 비교하는 것을 싫어했다. 그는 들통이 날까 두려워했기 때문에 사비나의 그림 하나, 스케치 하나도 갖지 않았다. 그녀의 사진 한 장까지도 그는 갖지 않았다. 그녀는 흔적도 없이 그의 삶에서 사라진 셈이다. 그가 자기 삶의 가장 아름다운 세월을 그녀와 함께 보냈다는 데 대한 뚜렷한 증거가 그에게 전혀 없었다. 그 때문에 더욱더 그는 사비나에게 충실한 존재가 되고자 한다. 그들이 단둘이서 방에 있을 때에는 그의 짧은 애인은 종종 읽고 있던 책에서 눈을 들어 살피는 눈초리로 그를 바라보았다. "당신 무엇을 생각하고 있어요?" 프란츠는 두 눈을 천장에 두고 안락의자에 앉아 있다. 그가 그녀에게 무슨 대답을 하든 그가 사비나를 생각하고 있음은 확실하다. 그가 전문잡지에 논문을 발표하면 그의 여대생은 자기 논문의 첫번째 독자로서 그것에 대해 그와 토론하려고 한다. 그러나 그는 사비나가 이 글에 대해 무언가라고 말할 것인가를 생각한다. 그가하는 모든 것을 그는 사비나를 위해 한다. 그것도 그것이 그녀의 마음에 들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은 일종의 매우 순진한 부정으로서, 안경 쓴 그의 짧은 애인의 마음을 결코 아프게 할 수 없는 프란츠에게 꼭 맞는 태도다. 그의 사비나에 대한 숭배는 사람에서라기보다 오히려 종교심에서 연유한다. 그의 짧은 애인을 사비나가 그에게 보냈다고 그가 믿는 것은 그의 종교 신학에서 나온 것이다. 그의 세속적 사랑과 그의 초세속적 사랑은 완전히 조화를 이루고 있다. 초세속적 사랑은

필연적으로(초세속적이기 때문에) 해명할 수 없고 이해될 수 없는
부분을(오해들을 길게 나열한 '이해되지 아니한 목록'을 회상 해
보자) 많 @P 156 이 내포한다. 그것에 반해 그의 세속적 사랑은 다른
사람을 확실히 이해하는 데 근거한다. 그의 여대생은 사비나보다 훨씬
젊다. 그녀의 삶의 작곡은 초안도 거의 되지 않은 상태다. 그래서
그녀는 그녀가 프란츠로부터 남겨받은 모티브들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녀의 작곡에 짜넣는다. 프란츠의 대장정 또한 그녀의 신앙고백이다.
음악은 그녀에게 그에게와 꼭 마찬가지로 디오니소스적인 도취다. 종종
그들은 춤추러 간다. 그들은 진실 속으로 살며 다른 사람들 앞에 비밀이
없다. 그들은 친구, 동료, 대학생,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찾고
그들과 함께 앉아서 마시고 잡담하기를 좋아한다. 종종 그들은
알프스산으로 도보여행의 방랑을 즐긴다. 프란츠가 몸을 앞으로 굽히면
그의 애인은 그의 등에 뛰어오른다. 그는 그녀와 함께 초원을 달린다.
그리고 그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그에게 가르쳐주었던 긴 독일 시를
그는 소리 높여 낭송한다. 처녀는 웃고 그의 목에 매달려 그의 발, 그의
발, 그의 어깨, 그의 폐를 경탄한다. 다만 러시아제국의 굴레 밑에
고생하는 모든 나라에 대한 프란츠의 특이한 동감만은 그녀에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러시아 침공일에 제네바에 있는 체코인협회는 기념행사를
가졌다. 홀에는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이 앉아 있다. 연사는 회색의
곱슬머리를 하고 있다. 그는 긴 연설을 한다. 그의 연설을 들으러 온
마지막 영광자들까지도 지루하게 하는 긴 연설이다. 그는 완전한 불어로
말한다. 하지만 악센트가 혐오감을 불러일으킨다. 자기의 생각을
강조하기 위해 계속 반복해서 그는 홀에 있는 청중을 위협하려는 듯
집게손가락을 든다. 안경 쓴 처녀는 프란츠 앞에 앉아 하품을 참는다.
그러나 프란츠는 행복스런 미소를 짓는다. 그는 회색머리의 연사를
바라본다. 그는 그 기이한 집게손가락에 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좋게
본다. 이 남자가 그에게는 그와 그의 여신(사비나) 간의 연결을 지속시켜
@P 157 주는 밀사로, 천사로 보인다. 그는 두 눈을 감고 꿈꾸기
시작한다. 유럽의 15 개 호텔과 미국의 한 호텔에서 그가 사비나의 육체
위에서 눈을 감았던 것처럼 그는 눈을 감는다. @P 159 **제4부** 육체와 영혼
@P 161 1 테레사는 밤 1시 반경 집에 왔다. 욕실에 들어가 파자마를
입고 토마스의 곁에 누웠다. 토마스는 잠들어 있었다. 그녀는 그의 얼굴
위로 몸을 기울인다. 그의 얼굴에 키스를 했을 때 그녀는 그의 머리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녀는 코를 실룩거리며 냄새를
몇 번이고 맡았다. 마치 개처럼 그녀는 그의 머리를 사방으로 쿵쿵거리며
냄새를 맡았다. 그녀는 알아냈다. 그것이 여자의 음부 냄새라는 것을.

6시에 자명종이 울렸다. 카레닌의 시간이었다. 그놈은 언제나 그들
들보다 훨씬 일찍 잠을 잤다. 그러나 감히 그들의 잠을 방해하지는
못했다. 못 참겠다는 듯 그놈의 따라랑 소리가 울리기만 기다렸다.
이것은 그놈이 침대에 뛰어올라 그들의 몸을 밟으며 주둥이로 쿡쿡
찔러대는 것을 허락한다는 소리였다. 오래전 그들은 침대에 올라온 개를
밧으로 던짐으로써 개의 이 버릇을 없애려고 했다. 하지만 개는 그들보다
더 고집이 세었다. 결국 그것은 자기의 권리를 쟁취하고 말았다.
테레사는 얼마 전에야 비로소 새로운 @P 162 날의 시작에 카레닌으로부터
인사받는 것이 불쾌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다. 개에게는 잠에서
깨어난다는 것은 완전히 행복의 순간이었다. 순진하고 어리석 게도
세상에 다시금 있게 된 것을 놀라운 것으로 여겼고 솔직하게 기뻐했다.
그 것에 반해 테레사는 마지못해 일어났다. 그녀는 밤이 연장되고 눈을
뜨지 않기를 바랐다. 이제 카레닌은 현관에 서서 목 끈과 줄이 걸려 있는
옷걸이를 쳐다보았다. 테레사는 그놈의 모곤을 매어주고 함께 가게로
갔다. 그곳에서 그들은 우유, 빵, 버터를 샀다. 그리고 언제나와
마찬가지로 개를 위해 뿔 모양의 과자인 크라상 하나를 샀다. 집으로
돌아올 때 개는 과자를 입에 물고 종종걸음으로 그녀 옆을 따랐다.
자랑스럽게 사방을 둘러보기도 했다. 누가 자기를 주의해서 보고 손가락
으로 가리킬 때면 개는 매우 기분 좋아했다. 집에 도착하면 개는 입에
과자를 문 채 문지방에 앉아 토마스가 자기를 볼 때 까지 기다렸다가
엎드려 으르렁거리기 시작하고, 토마스가 자기에게서 크라상을
뺏으려고나 하는 것처럼 행동했다. 이것은 매일 아침 반복되었다. 적어도
5분간 은 그들은 온 집안을 사냥하듯 했다. 결국 카레닌은 책상 밑으로
기어들어가 그의 뿔과 자를 다 먹어치운다. 그런데 이번에 카레닌은
그와 같은 아침의례를 기다렸으나 헛되었다. 토마스가 책상에 앉아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앞에 두고 긴장해서 경청하고 있었다. 2
라디오에서는 체코인의 망명에 관한 소식이 방송되었다. 도청된 @p 163
사적인 이야기를 몽타주한 것이었다. 망명자들 속에 침투한 체코
스파이가 녹 으했다. 그는 도청녹음을 가지고 의기양양하게 다시 체코로
돌아왔던 것이다. 별 중요하지 않은 집단들이었다. 이따금 고국에 있는
점령군에 대한 날카로운 말들이 들어 있었다. 또한 망명자들이 서로
바보, 사기꾼하며 욕하는 문장도 있었다. 바로 이런 대목이 이 보도에서
트결히 강조되었다. 그것은 이 사람들이 소련연 방에 대해서만 나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그렇다고 이 것은 아무도 화나게 하지
않는다)또한 그들끼리 서로 모함하고 욕한다는 것을 증명하도록 한
것이였다. 이것은 매우 흥미롭다. 사람들은 이른 아침부터 늦게까지

험악한 말을 마구 한다. 그러나 라디오에서 어떤 잘 알려진 존경받는 사람이 문장이 끝날 때마다 ‘빌어먹을’하고 말하는 것을 들으면 여하튼 실망하게 된다. “이것은 모두가 프록사스카부터 시작되었던 것이야”하고 토마스는 말했다. 그리고 그는 계속 라디오에 귀를 기울였다. 얀 프록사스카는 체코의 작가다. 그는 40의 나이에 황소 같은 활력을 지녔다. 그는 벌써 1968년 이전에 사회상황을 소리 높여 비판하기 시작했다. 그는 프라하의 봄, 현기증을 불러일으킬 정도의 저 공산주의 자유화 때 체코인들의 총애를 받았던 인사들 중 하나였다. 그러나 러시아군 침공으로 그 공산주의 자유화는 끝났다. 침공이 있는 직후 모든 신문들은 그를 반대하는 선동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신문들이 그런 선동을 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더욱더 그를 좋아했다. 이런 이유에서 방송국은(1970년) 프록사스카가 이보다 2년 전에(1968년 봄) 어느 대학 교수와 가졌던 사적인 대화를 연속해서 방송하기 시작했다. 그때 이 두 사람들 중 누구도 교수의 집안에 도청장치가 마련되어 있었고, 그들을 이미 철저히 감시하고 있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프록사스카는 그의 친구들을 언제나 과장과 어처구니없는 말로 즐겁게 했다. 그런데 이제 @p 164 이 어처구니없는 말들을 방송해서 연속으로 들을 수 있게 된 것이었다. 이 프로그램을 편집했던 비밀경찰은 이 작가가 자기 친구들, 예컨대 두브체크를 웃음거리로 만드는 대목을 고의적으로 강조했다. 모든 세상사람들이 어떤 기회에서 나 친구를 헐뜯는다고 하지만 사람들은 그들이 미워한 비밀경찰에 대해서보다 그들이 좋아했던 프록사스카에 대해 더 격분했다. 토마스는 라디오를 끄고 말했다. “비밀경찰은 세상 어디에나 있지. 그러나 그들이 녹음한 녹음테이프를 라디오로 공개적으로 방송한다는 것. 그것은 오직 우리 체코에만 있지! 이건 정말 용서할 수 없어!” “아니, 그렇지 않아요”하고 테레사가 말했다. “내가 열네 살이었을 때 나는 몰래 일기를 썼어요. 나는 누가 그것을 읽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몸이 떨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천장 위에 감추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이것을 뒤져서 찾아냈어요. 어느날 점심때 가족 모두가 수프 쟁반 위에 머리를 숙이고 있는 데 어머니가 일기장을 호주머니에서 꺼내 말했어요. 모두들 잘 들으라고요. 그녀는 그것을 읽었고 문장이 끝날 때마다 배를 잡고 웃었어요. 다른 사람도 모두 함께 웃었고 전혀 식사를 할 수 없었어요” 3 그는 늘 테레사를 설득해서 자기 혼자 조반을 하게끔 하고 계속 잠자도록 하려 했다. 그러나 그녀는 전혀 말을 듣지 않았다. 토마스는 아침 7시에서 오후 4시까지 일했고 그녀는 오후 4시부터 자정까지 일했다. 그녀가 그와 함께 아침식사를 하지 않았다면 그들 @p 165 은 오직 일요일에만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을 것이다. 그 때문에 그녀는 그와 함께 잠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그가 일하러 가버리면 그녀는 다시 잠자리에 들어 계속 잠을 잤다. 그러나 이날 그녀는 다시 잠들까봐 걱정했다. 10시에 소피 섬에 있는 목욕탕 사우나에 가려 했기 때문이다. 이 사우나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많은데 자리는 적었다. 그래서 실은 오직 아는 연줄을 통해서만 입장할 수 있었다. 다행히도 출납계가 대학에서 쫓겨난 어느 교수의 부인이었다. 이 교수는 토마스의 옛날 환자의 친구였다. 토마스는 이 옛 환자에게 부탁했고, 이 환자는 교수에게 교수는 자기 부인에게 부탁한 것이다. 테레사는 일주일에 한 번 사우나에 들어갈 수 있었다. 그녀는 걸어서 갔다. 그녀는 언제나 만원인 전차를 싫어했다. 전차 속에서 승객들은 징그럽게 서로 껴안고 몸을 맞대어 밀치며, 서로 발을 밟고, 외투 단추를 떨어지게 하고, 서로 모욕적인 말을 얼굴에 대고 내뿜는다. 이슬비가 내렸다. 사람들은 발걸음을 재촉했고, 우산들을 펼쳤다. 그러나 갑자기 보도 위도 사람들로 혼잡을 이루었다. 펼친 우산이 서로 부딪쳤다. 남자들은 공손해서 그들의 우산을 높이 치켜 들어 테레사를 지나가게 했다. 그러나 여자들은 한치도 양보하지 않았다. 그들은 양보하지 않고 앞만 보고 있었다. 각자 다른 여자가 보다 약한 자로서 양보해 줄 것을 기대했다. 우산이 서로 마주치는 것은 누가 힘이 센가 겨르는 시험이었다. 처음에 테레사는 양보했다. 그러나 그녀의 공손함이 전혀 보답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는 그녀도 다른 여자들과 꼭 마찬가지로 그녀의 우산을 손에 꼭 쥐었다. 몇 번 그녀는 옆 우산에 심하게 부딪혔다. 하지만 아무도 「미안해요!」라고 말하지 않았다. 대부분의 경우 한마디 말도 없다. 두세 번 그녀는 「병신!」 「망할 년!」 하는 소리를 들었다. @p 166 우산으로 무장을 한 여자들 중에도 나이 든 여자들과 젊은 여자들이 있었다. 그러나 제일 격렬하게 싸움을 거는 여자들은 젊은 여자들 중에 있었다. 소련 침공 때를 되돌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미니스커트를 입은 젊은 처녀들이 국기를 단 깃대를 들고 돌아다녔다. 그것은 수년 동안 저속한 금욕생활을 해야 했던 러시아 군인들에 대한 성적 저격행위였다. 그들은 자신들이 마치 공상과학 작가가 창작해 낸 어떤 혹성 위에 와 있는 듯 행각되었음이 틀림없었다. 그곳은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우아한 여인들의 혹성으로, 이 여인들은 전러시아에서 오백년 육백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한 아름다운 긴 다리로 성큼성큼 걸어감으로 써 그들의 열시를 표현했었다. 그때 테레사는 탱크를 배경으로 한 이 젊은 여자들 사진을 많이 찍었다. 그녀는 얼마나 그들을 경탄했던가! 그런데 이제 똑같은 바로 그 여자들이 뻔뻔스럽고 악의에 찬 태도로 그녀를 대했다.

국기 대신 그들은 손에 우산을 들고 있었다. 그들은 그때와 똑같이
완강한 태도로 그들의 길을 가로막는 우산에 대해 마치 다른 나라
군대를 대하듯 투쟁할 각오를 하고 있었다. 제4장 그녀는 불규칙한
사각형으로 광장을 빙 둘러 건립한 바로크 양식의 집들과 엄격한 테인
교회가 있는 구시가지 구역에 다다랐다. 14세기에 건축물이었던 시청은
옛날에는 이 광장 끝까지 길게 차지했었으나, 이젠 이미 27년 동안이나
폐허로 놓여 있었다. 바르 @p 167 샤바, 드레스덴, 베를린, 쾰른,
부다페스트-- 이들 도시는 모두가 지난 세계대전 때 비참하게 파괴였다.
그러나 그곳에 사는 주민들은 이들 도시를 재건했다. 대부분의 경우
오래된 역사적 유적 지역은 세심한 신경을 써서 수리했다. 프라하
주민들은 이들 도시에 대해 열등감을 지니고 있었다. 전쟁이 파괴시킨
유일한 유명한 건물이 구시가지의 시청이었다. 주민들은 폴란드인이나
독일인들이 자기들이 충분한 고통을 겪지 않았다고 비난하지 않도록, 이
시청의 폐허를 경고의 표시로서 그대로 방치해 두기로 결의했다.
영원히 전쟁을 고발하도록 한 이 유명한 폐허더미 위에 금속 파이프로
조립한 연단이 세워졌다. 이것은 프라하 주민들의 성명 장소가 되었다.
공산당이 주민들을 박해했기 때문이었다. 내일 도 주민들은 박해를 받을
것이고 그들은 성명을 할 것이다. 테레사는 파괴된 시청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갑자기 어머니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자신의 불품없는 꼴을
보이려는, 절단된 자기 팔의 남은 등치를 노출 시켜 온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강제로 그것을 보도록 하는 이 변태욕구 때문이었다. 최근에는
모든 것이 그녀에게 어머니를 회상시켰다. 그녀에게는 마치 10년 전에
그녀가 탈출했던 어머니의 세계가 다시 되돌아와 그녀를 포위하여 사방으
로부터 차단하는 것처럼 생각되었다. 그 때문에 그녀는 그날 아침, 웃고
있는 가족 앞에서 어머니가 그녀의 일기장을 읽어주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 한 잔의 포도주를 마시면서 주고받은 사적인 대화가
공개적으로 라디오에서 방송된다면 그것은 세상이 강제노동수용소로 변해
버린 것과 다를 바가 무엇인가? 테레사는 그녀의 가족 속에서 삶이
그녀에게 어떻게 생각되었는가를 표현하기 위해 그녀가 젊었을 때부터
이미 이 단어를 사용했다. 강제노동수용소란 인간이 계속 가축처럼 우리
안에 가두어져 @p 168 밤이고 낮이고 살아야 하는 세계이다. 잔인함과
폭행은 다만 부차적인(절대 필연적인 것은 아니다) 특징에 불과하다.
강제노동수용소는 사적인 것의 제거를 의미한다. 한 잔의 포도주를
마시며 친밀하게 자기 친구와 환담조로 나눌 수 없는
프록사스카는(치명적인 착각이었던 것을 전혀 모르고)
강제노동수용소에서 살았던 것이다. 테레사가 어머니와 살았을 때,

그녀는 강제노동수용소에 살았던 것이다. 그 후 그녀는 강제노동수용소가 전혀 이상한 것이아니라는 것, 사람들이 놀라야 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것은 어떤 주어진 것이며 기초적인 것으로서 사람들은 그 속에 태어나게 되고 대단한 노력을 해야 그곳에서 탈출할 수가 있다. 제5장 @p 168 층계식으로 놓인 세 개의 장의자에 여자들이 서로 몸이 닿도록 뻗뻗이 앉아 있었다. 테레사 옆에 얼굴이 매우 예쁜, 30세쯤 돼 보이는 여자가 땀을 흘리고 있었다. 그녀의 어깨 사이에 믿기지 않을 정도로 큰 두 젖통이 달려 있었고 조금만 움직여도 출렁거렸다. 그 여자가 일어났다. 테레사는 그녀의 엉덩이가 두 개의 큰 배낭과 같아서 그녀의 예쁜 얼굴에 전혀 어울이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 여자 또한 종종 거울 앞에 서서 그녀의 육체를 바라보며, 테레사가 어릴 때부터 그랬던 것처럼 그녀의 육체를 관통해서 그녀의 영혼을 보려고 했는지 모른다. 틀림없이 그녀 또한 어리석게도 육체가 영혼의 간판이라고 믿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의 영혼이 네 개의 자루를 걸어놓은 옷걸이 같은 그녀의 육체와 같다면 얼마 @p 169 나 기형적인 영혼이었겠는가? 테레사는 일어나 샤워를 했다. 그리고서 그녀는 밖으로 나갔다. 아직도 이슬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좁은 관자다리 위에 섰다. 밑에는 몰다우강이 흐르고 있었다. 관자막이가 도시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이 여자들을 보호해 주었다. 그녀가 밑을 내려다보았을 때, 물 속으로 그녀가 방금 생각했었던 그 여자의 얼굴이 보였다. 그 여자는 테레사에게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코는 섬세했고 갈색의 큰 눈은 순진한 시선을 지니고 있었다. 그 여자는 계단을 올라갔다. 그 부드러운 얼굴 밑에 다시금 두 배낭이 나타났다. 두 배낭은 아래위로 흔들흔들거렸고 차가운 물방울을 튕겼다. 제6장 그녀는 옷을 입고 큰 거울 앞에 섰다. 아니, 그녀의 육체에는 기형적인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두 어깨 아래쪽에는 작은 두 젖이 있었지만 자루는 없었다. 그녀의 어머니는 그것을 돌려줬다. 그녀의 젖은 충분히 크지 못해 정상이 못되었기 때문이었다. 이것에 대해 그녀는 콤플렉스를 가졌었다. 토마스가 비로소 그녀를 이 콤플렉스로부터 해방시켜 주었다. 그녀는 지금 그녀의 작은 젖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지만, 적곡지 둘레의 너무나도 큰 그리고 너무나도 검은 마당이 그녀의 마음에 거슬렸다. 그녀가 스스로 자기의 육체를 설계할 수 있었다면 그녀는 눈에 띄지 않는 부드러운 젖꼭지를 가졌을 것이다. 아주 @p 170 살짝 젖통에서 떨어져 있고, 색깔도 잘 알아볼 수 있게 여타의 피부와 구분 안 되는 젖꼭지를 가졌을 것이다. 이렇게 크고 검붉은(젖꼭지 둘레의) 데는, 궁한 사람들을 위해 에로틱한 예술을 그리고자 한 어느 시골 화가가 붓질해 놓은 것처럼

그녀에게 생각되었다. 그녀는 자신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코가 매일 1밀리미터 길어진 것으로 그녀는 생각했다. 명 날이 지나면 그녀의 얼굴이 몰라보게 될 것인가? 만약 육체의 여러 부분들이 커지거나 작아지기 시작해서 그녀가 자신과 유사 성을 완전히 상실했다면, 그래도 그녀는 그녀 자신일까, 그녀는 여전히 테레사일 까? 물론이다. 테레사가 전혀 테레사와 같지 않게 될 때도 그녀의 내면에 있는 그녀의 영혼은 여전히 같은 영혼일 것이며, 다만 그녀의 육체에 일어났던 것을 아연실색해서 바라볼 뿐일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테레사와 그녀의 육체 간의 관계는 어떻게 나타날까? 그녀의 육체가 도대체 테레사라는 이름에 대한 요구권이 있을까? 만약 없다면, 그녀의 이름은 무엇과 관련될까? 비육체적인 것, 비물질적인 것과 관련될까? (이것은 테레사로 하여금 어릴 때부터 열중케 한 질문들이었다. 정말 진지한 질문은 오직 아이까지도 할 수 있는 질문들뿐이다. 오직 극히 순진한 질문들만이 정말 진지한 것이다. 답이 없는 질문은 넘어갈 수 없는 횡목이다. 달리 표현 하면, 대답이 없는 질문을 통해 인간의 가능성이 한계지워지며 인간 존재의 경계선이 그어진다.) 테레사는 마법에 걸린 듯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육체를, 마치 다른 사람의 것인 양 바라보고 있다. 낯설기는 하지만 마음에 드는 육체 같았다. 그녀는 토마스의 삶에서 유일한 육체가 될 수 있 @p 171 는 힘을 지니지 못한 이 육체에 대해 혐오감을 느낀다. 이 육체는 그녀를 실망시켰고 그녀를 배반했다. 밤새도록 그녀는 그의 머리에서 낯선 음부의 냄새를 들이마셔야만 했었다. 그녀에게는 갑자기 그녀의 육체를 마치 식모처럼 해고하고 싶은 욕구가 생긴다. 오직 영혼으로서만 토마스와 함께 있고, 육체를 바깥 세상으로 쫓아버려 그곳에서 다른 여자들의 육체가 남자들의 육체와 행동하는 것처럼 행동하도록 하는 것이다. 테레사의 육체가 토마스에게 유일무이한 육체가 되도록 하지 못했고 또 그녀의 삶에 있어 가장 큰 싸움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그것은 가야 한다. 이 육체는! 제7장 그녀는 집으로 돌아와 부엌에서 선 채로 먹고 싶지도 않은 점심을 먹었다. 3 시 반에 그녀는 카레닌을 줄에 매고 그녀가 일하고 있는 프라하 시외에 있는 호텔로 갔다(늘 그랬던 것처럼 도보로). 그녀는 주간지 잡지사에서 일하다 쫓겨난 뒤 바의 마담이 되었다. 그것은 그녀가 취리히에서 돌아온 몇 달 뒤였다. 그것은 그녀가 취리히에서 돌아온 몇 달 뒤였다. 그녀가 7일 동안 러시아군 탱크를 사적 찍었던 사실을 사람들은 용서할 수 없었다. 친구들의 소개로 그녀는 바에서 일자리를 찾았다. 같은 시기에 일자리를 잃었던 다른 사람들도 그곳에서 피난처를 구했다. 그곳에서 회계는 전직 신학 교수가 했고, 수납에는 전직 대사가 앉아 있었다. 그녀는 다시금

그녀의 다리 때문에 겁이 났다. 그녀가 옛날 작은 도시 식당에서 일했을 때, 그녀는 동료 여자들의 장단지에 숫 @p 172 은 정맥류를 아연실색해서 바라보곤 했다. 그것은 자신들의 삶을 두 팔에 무 겁게 든 채 걷고, 달리고, 서서 보내야 하는 여급들의 병이다. 지금의 그녀의 일은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때 지방에서보다는 편했다. 실은 근무 시작 전에 무거운 맥주 박스와 음료 박스를 끌어들여야만 했다. 그러나 나머지의 시간은 카운터 뒤에서 보내며 손님들에게 술을 따라 주었고, 중간중간에 판매대옆에 있는 작은 싱크대에서 잔들을 씻었다. 카레닌은 그녀가 일하는 시간 내내 참을성 있게 그녀의 발 언저리에 엮드려 있었다. 그녀가 계산을 끝내고 호텔 사장에게 돈을 가져다줄 때는 이미 자정이 훨씬 지난 후다. 그런 다음 그녀는 밤일을 하는 전직 대사와 작별을 했다. 길다란 수납 계산대 뒤에는 작은 방으로 문이 하나 나 있었고, 방에는 잠시 눈을 붙일 수 있는 좁다란 목제 간이침대 하나가 놓여 있었다. 침대 위쪽에는 틀에 넣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사진에는 번번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 대사의 모습이 보였는데, 이들은 사진기를 향해 미소지었고, 그와 악수하고 있었고, 혹은 그의 옆 책상에 앉아서 무엇인가를 서명하고 있었다. 몇몇 사진에는 사진사 친필의 증명사 인이 기재되어 있었다. 특별히 눈에 잘 띄는 곳에 걸려 있는 사진에는 대사의 머리 옆으로 미소짓고 있는 J.F.케네디의 얼굴이 보였다. 이날 밤엔 대사가 미국 대통령과 환담한 것이 아니고 알지 못하는 60대의 남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이 남자는 테레사를 보자 입을 다물었다. 「이분은 나와 친한 여자야」 하고 대사는 말했다. 「걱정 말고 계속 이야기해 도 돼」 그런 다음 그는 테레사를 향해 말했다. 「바로 오늘 그의 아들이 5년형을 선고받았어요」 그녀가 알지 못하는 이 남자의 아들은 친구들과 함께, 러시아 침공이 있던 처음 며칠 동안 러시아군 특수부대가 진을 쳤던 건물의 입구를 감시했었다. @P 173 이 건물에서 나오는 체코인들이 러시아 군부대에 근무하는 첩보원들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 그들은 이들을 추적하고 이들의 자동차 표지를 확인하여 이 정보를 체코 비밀방송국에 전해 주었다. 그러면 방송국은 주민들에게 이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경고하는 방송을 했다. 이들 중 한 사람을 그는 자기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구타했었다. 모르는 남자는 말했다. 「이 사진이 유일한 증거였소 그는 이 사진이 그의 앞에 제시되던 순간까지 모든 것을 부인했었소」 그는 웃웃 안주머니에서 오려낸 신문쪽지 하나를 끄집어내었다. 「이것은 1968년 가을 타임스지에 나왔었소」 사진에는 다른 사람의 멱살을 잡고 있는 한 젊은이를 볼 수 있었다. 사람들은 바라보고만 있었다. 사진 밑에는 <적에 협력한 자의

벌>을 읽을 수 있었다. 테레사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아니야. 사진은 그녀가 찍은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서 그녀는 카레닌과 함께 프라하의 밤거리를 통해 집으로 갔다. 그녀는 탱크를 사진 찍었던 그날들을 회상했다. 조국을 위해 자기들의 목숨을 건다고 믿었던 그들 모두는 얼마나 바보였던가! 그들은 부지불식간에 러시아 경찰을 위해 일했던 것이다. 그녀는 밤 1시 반에 집에 왔다. 토마스는 벌써 잠들어 있었다. 그의 머리털에 서는 여자의 음부 냄새가 났다. 제8장 교태란 무엇인가? 성적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을 다른 사람이 이 @P 174 해하게끔 해주지만, 그 강성이 확실한 것으로 나타나게끔 하지 않는 태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태란 성교의 약속이다. 보장 없는 약속이다. 테레사는 스탠드바 뒤에 서 있다. 그녀가 술을 따라 주는 손님들은 그녀에게 접근을 시도한다. 비위 맞추는 말들, 이중적인 말들, 재담, 갖가지 신청들, 미소, 시선들의 무한한 이 홍수가 그녀에게 불쾌한가? 그녀는 자기의 육체(그녀가 세상 밖으로 내쫓고자 했던 그녀의 낯선 육체)를 해안의 부서지는 파도에 내맡기고 싶은, 억제할 수 없는 욕구를 느낀다. 토마스는 사랑과 성행위는 상이한 별개의 것이라고 그녀에게 확신시키려 번번이 애썼다. 그녀는 그것을 이해하려 들지 않았다. 이제 그녀는 자신이 조금도 호감을 갖지 않는 남자들에 둘러싸여 있다. 이들과 동침하면 어떨까? 그녀는 그것을 시도해 보려 한다. 적어도 교태라고 일컫는, 보장 없는 약속의 형태로 시도해 보려 한다.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말해 둔다. 그녀가 토마스에게 다소라도 보복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미로에서의 출구를 찾으려는 것이다. 그녀는 자기가 토마스를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녀는 일을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며 모든 것이 비극이 되게 한다. 그녀는 육체적 사랑의 가벼움을, 책임을 지우지 않는 육체적 사랑의 오락성을 이해할 수가 없다. 이 가벼움을 그녀는 배우고 싶어한다! 누군가 그녀에게 더 이상 시대착오적이 되지 않도록 가르쳐주기를 그녀는 원한다! 교태가 다른 여자들에게는 제2의 천성, 내용 없는 숙련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테레사에게는 하나의 중요한 연구 분야가 되었다. 여기서 자기가 무엇에 능력이 있는가를 찾아내려고 한다. 그러나 교태가 그녀에게는 그토록 중요하고 진지하다는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것이 모든 가벼움을 상실했다. 그것은 부자연 @p 175 스텝고, 과장되고 의도적으로 나타난다. 약속과 결여된 보장 간의 균형(바로 이 균형에 교태의 참된 노련성이 근거한다!)이 파괴되어 있다. 그녀는 약속의 보장이 없다는 것을 충분히, 명백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너무나 열심히 약속한다. 다른 말로 하면, 그녀는 누구에게나 너무나도 사귀기가 쉬운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남자들이 자기들에게 소위 약속되었던 바를 이행해 줄 것을 그녀에게 요구 하면 그들은 그녀의 심한 반발에 부딪치게 된다. 그들은 테레사가 약고 심술궂 음에 틀림없다는 것 외에는 달리 그러한 반발을 해석할 수가 없다. 제9장 열여섯 살쯤 돼 보이는 젊은이가 스탠드바 앞의 의자에 앉았다. 그는 몇 마디 도전적인 문장을 말했다. 이것들은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 멈추어 서버린 격이었다. 그것은 마치 그림 그릴 때 잘못된 선과 같은 것으로, 이 선을 살릴 수도 지울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당신은 멋진 다리를 가졌어요」 하고 그는 말했다. 그녀는 그의 말을 가로챘다. 「이 목조벽을 뚫어볼 수 있더라도 한 것처럼 말 하는군!」 「나는 당신을 알아요. 당신을 자주 길에서 보거든요」 하고 그는 해명했다. 그러나 그녀는 이미 그로부터 몸을 돌려 다른 손님을 보살폈다. 소년은 꼬냑 한 잔을 주문했다. 그녀는 그것을 못 주겠다고 했다. 「난 이미 얼어붙어요」 하고 그는 항의했다. 「그러면 내게 신분증을 보여주겠소?」 @p 176 「그렇게는 못해요」 「그렇다면 레몬수나 마셔요」 이 젊은이는 말없이 스탠드바 의자에서 일어나 사라졌다. 반시간이 지난 뒤 그는 되돌아와 다시금 훌쩍 스탠드바에 앉았다. 그는 3미터 거리에서도 알콜 냄새를 풍겼다. 「레몬수 한 컵!」 하고 그는 명령했다. 「당신은 취했어요!」 하고 테레사가 말했다. 젊은이는 테레사 뒤쪽 벽에 붙은 인쇄된 지시문을 가리킨다. <18세 이하의 청소년들에게 알콜 음료를 파는 것은 금지되어 있음.> 「당신은 내게 알콜을 팔 수 없어요」 하고 그는 말했다. 그리고는 위협적인 동작으로 테레사를 가리켰다. 「그러나 내가 술취해서는 안 된다는 말은 아무 데도 써어 있지 않아요!」 「어디에서 그렇게 술을 마셨소?」 하고 테레사가 물었다. 「건너편 술집에서요」 하고 그는 웃고 다시 한번 레몬수를 요구했다. 「그런데 왜 거기 머물지 않았나요?」 「당신을 보려고요」 하고 젊은이는 말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이 말을 할 때 그의 얼굴은 이상하게 일그러졌었다. 테레사는 알 수가 없었다. 그는 익살을 부렸던가? 교태를 부렸던가? 농담을 했던가? 아니면 그는 술이 취했기 때문에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했던가? 그녀는 레몬수 한 잔을 그의 앞에 놓았다. 그리고는 다시 다른 손님들을 보살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라는 문장은 젊은이의 힘을 고갈시킨 것같이 보였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말없이 카운터에 돈을 놓고는 사라졌다. 테레사는 그가 사 @p 177 라지는 것도 보지 못했다. 그가 떠나자마자 곧 땅딸막한 대머리 남자 한 사람이 그녀에게 말했다. 「마담,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당신은 알고 있겠죠」 그는 이미 앞서 세 잔의 보드카를 마셨었다. 「그에게 술을 주지

않았소! 레몬수를 주었는데요!」「난 당신이 그의 레몬수에 무엇을 흔들어 넣었는지를 정확히 보았소!」「정말 어처구니없는 말씀을 하는구려!」하고 테레사는 외쳤다. 「보드카 한 잔 더!」하고 대머리는 명령하고 덧붙여 말했다. 「나는 벌써 상 당히 오래전부터 당신을 관찰하고 있소!」「그렇다면 당신이 미녀를 바라볼 수 있다는 데 만족하고 입 좀 다무시오!」하고 얼마 전 바 카운터에 서서 이 장면을 모두 지켜 보았던 키 큰 남자의 목소 리가 울렸다. 「참견 마시오! 당산과는 상관없는 일이오!」하고 대머리는 소리쳤다. 「그렇다면 이것이 당신과는 어떤 상관이 있는지 내게 설명해 줄 수 있겠소?」하고 키 큰 남자가 물었다. 테레사는 대머리에게 그가 주문한 보드카를 따라 주었다. 그는 그것을 단숨 에 들이켜고는 돈을 놓고 나가버렸다. 「손님, 감사해요」하고 테레사는 키 큰 남자에게 말했다. 「천만예요」하고 그는 대답하고 역시 가버렸다. 제10장 며칠 뒤 그가 다시 스탠드바에 나타났다. 그를 보자 그녀는 마 @p 178 처 애인을 대하듯 다정한 미소를 지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어요. 그 대 머리는 종종 나타나요. 몹시 불쾌한 타입이지요」 「그를 잊으시오」 「왜 그가 나를 공격했지요?」 「그자는 술주정뱅이일 뿐이오. 그런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마담께 다시 한번 부탁하겠소. 그를 잊으시오」 「손님께서 그렇게 부탁하시니, 그를 기꺼이 잊겠어요」 키 큰 이 남자는 그녀의 눈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내게 약속해 주어야겠소!」 「약속드리죠!」 「마담이 내게 무엇을 약속하는 것을 마담 입을 통해 직접 듣는다니 아주 기 분 좋은데요」하고 이 남자는 말하고 여전히 그녀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거기에는 교태가 들어 있었다. 성적 접근이 가능하지만 동시에 이 가능성은 보장된 것이 아니며 순전히 이론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태도가 거기에 있었다. 「프라하 시의 모든 구역 중에서 제일 형편없는 구역에서 당신과 같은 여자를 만나다니 놀라운 일이오」 「그런데 당신은요? 프라하 시의 제일 형편없는 이 구역에서 당신은 무엇을 하죠?」 그는 그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살고 있으며, 직업은 엔지니어이고, 최근 아주 우연히 직장에서 집으로 돌아가던 중 이곳을 들러 보았노라고 그녀에게 말했다. @P 179 제11장 그녀는 토마스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녀의 시선은 그의 눈을 향해 있지 않 고 눈보다 10센티미터 위쪽, 그의 머리를 향하고 있었다. 낮선 여자의 음부 냄새 가 났던 머리털이었다. 그녀는 말했다. 「토마스, 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요. 난 불평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당신이 나 때문에 프라하로 돌아 온 이후 나는 질투를 나 자신에게 금했어요. 더 이상 질투를 안하려고해요. 하지만 질투심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만큼 나는 강하지 못해요. 제발, 나를 도와줘요!」 그는 그녀의 팔을 잡고 수년 전 그들이 자주 산책했던 공원으로 그녀를 데려 갔다. 거기에는 벤치들이 있었다. 푸른, 노란, 붉은 벤치들이. 그들은 벤치에 앉았고 토마스는 말했다. 「당신이 아주 위쪽까지 올라가면 모든 것을 이해할 거요」 그녀는 도대체 올라갈 생각이 전혀 없었다. 그녀의 육체는 너무나도 허약해져 벤치에서 일어날 수조차 없었다. 그러나 그녀는 토마스의 말을 듣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는 애써 겨우 일어났다. 그녀는 뒤돌아보았다. 그는 여전히 벤치 위에 앉아 있었고 몹시 기쁜 듯 그녀에게 미소지었다. 그는 손을 흔들었는데 그 동작이 마치 떠나가는 그녀를 격려라도 하는 것 같았다. @P 180 제12장 그녀가 라우렌치산 기슭에, 프라하 한복판에 있는 이 푸른 산의 기슭에 이르렀을 때 그녀는 그곳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다. 이상한 일이었다. 왜냐하면 보통은 프라하 시민들이 무리를 지어 이 가로수 도로를 산책했기 때문이었다. 그녀의 마음엔 불안이 솟았다. 그러나 산은 무척 조용했고, 이 정적은 그토록 마음을 진정시켜 주었으므로 그녀는 더 이상 거부감을 갖지 않고 이 산의 포옹에 몸을 맡겼다. 그녀는 산을 올라갔다. 때때로 발을 멈추고 뒤돌아 보았다. 그녀의 아래쪽에는 수많은 탐들과 다리들이 놓여 있었다. 성인상들이 굳은 돌 눈을 구름으로 향하고, 주먹으로 위협하고 있었다. 그것은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도시였다. 그녀는 정상에 도착했다. 아이스크림, 그림엽서, 과자를 파는 가게들(이곳에는 한 사람의 판매원도 보이지 않았다) 뒤쪽에는 한없이 넓은 잔디밭이 펼쳐져 있었다. 잔디밭에는 드문드문 몇 그루의 나무들이 서 있었다. 그녀는 그곳에 몇몇 남자들이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가 그들에게로 가까이 다가가면 갈수록 그녀의 발걸음은 더욱더 느려졌다. 여섯 사람의 남자들이었다. 그들은 단순히 그곳에서 있거나 천천히 돌아다녔다. 그들은 마치 골프장에서 지형을 탐색하고, 손에 든 골프채를 흔들어보고 공을 치기 직전에 정신집중을 하는 골프 경기자 같았다. 그녀는 그들에게로 아주 가까이 다가갔다. 여섯 명 중에서 세 사람은 여기에서 그녀 자신과 동일한 역을 해야 하는 자들임을 그녀는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었다. 이들 셋은 불안정했고, 마치 많은 질문을 하려는 듯 보였다. 그러나 귀찮게 할까봐 겁이 나 그들 @p 181 은 차라리 입을 다물었고, 다만 묻고 싶어하는 시선들을 주위에 던졌다. 다른 세 남자는 의젓한 친절함을 풍겼다. 그들 중 한 사람은 손에 총을 쥐고 있었다. 그는 테레사를 보자 테레사에게 미소를 보내면서 손짓했다. “그래요, 당신은 여기 올바르게 왔어요.” 그녀는 인사조로 머리를 끄덕였다. 그녀는 겁이 나 마음이 조마조마했다. 그러자 이 남자는 말을

덧붙였다.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요. 이것은 당신의 소망에 따른 것이지요?” ‘아니오, 아니오, 이젠 제 소망이 아니에요!’하고 말하는 것이 훨씬 편했을 것이다. 그러나 토마스를 실망시키는 것은 그녀에겐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다. 만약 그녀가 집으로 돌아간다면 무슨 핑계로 그에게 용서받을 수가 있겠는가? 그 때문에 그녀는 말했다. “네, 그럼요, 제 소망에 따른 것이예요” 총을 든 남자는 말을 계속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묻는가를 당신이 이해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요. 우리는 우리에게로 오는 사람들이 스스로 죽기를 원 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질 때만 일을 집행하오. 우리는 그들에게 다만 봉사를 할 따름이요” 그는 탐색하는 눈초리로 테레사를 살펴보았다. 그래서 테레사는 그에게 다시 한번 확인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당신은 의구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이것은 저의 소망이에요” “당신은 첫번째 차례가 되기를 원하오?”하고 그가 물었다. 그녀는 처형을 적어도 조금은 연장하고자 했다. 그래서 말했다. “아니오, 그렇게 하지 말아줘요. 가능하다면 마지막 차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뜻대로 하시오”하고 그는 말하고서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로 되돌아갔다. 그의 두 조수는 무기를 들고 있지 않았다. 그들은 죽 @p 182 으러 온 사람들을 시중들기 위해 있을 뿐이었다. 그들은 이들의 팔을 잡고 잔디밭으로 나갔다. 풀 덮인 초지가 눈 닿는 한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죽음의 후보들은 자기들의 나무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었다. 그들은 서서 사방을 둘러 보았고, 오랫동안 결정을 할 수가 없었다. 그들 중 두사람은 결국 플라타너스 나무를 선택했으나 세번째 사람은 계속 더 걸어갔다. 어떤 나무도 그의 죽음을 위해 적절하지 못한 듯 보였다. 그의 팔을 살짝 잡은 조수는 참을성 있게 그를 동반했다. 결국 그 남자는 계속 갈 용기를 잃고 넓게 퍼진 단풍나무 앞에 서고 말았다. 그러자 조수들은 수건으로 세사람 모두의 눈을 동여매었다. 그래서 이 무한한 잔디밭에는 세 남자가 세 그루의 나무에 기대어 서 있었다. 각자 수건으로 눈을 가린 채 머리는 하늘을 향해 있었다. 총 든 남자가 조준을 하고 발포했다. 새들의 노랫소리 외에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총은 소음 장치가 되어 있었다. 오직 단풍나무에 기대어 있던 남자가 꼬꾸라지는 것을 볼 수 있을 뿐이었다. 있던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총을 든 남자는 다른 방향으로 몸을 돌렸다. 그러자 플라타너스 나무에 기대어 있던 남자도 꼭 마찬가지로 더없이 조용히 꼬꾸라졌다. 잠시 후 (총 든 남자가 다시 한번 방향을 좀 바꾸었다) 세번째로 처 형된 사람이 잔디밭에 쓰러졌다. @p 183 13 조수 중 한 사람이 말없이 테레사에게 다가왔다. 그는 손에 진 청색 수건을 들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자기 눈을 가려 뚫으려고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머리를 젓고 말했다. “뭉지 말아요. 나는 모든 것을 보겠어요” 그러나 그 말은 그녀가 뭉기를 거부한 본래의 이유가 아니었다. 사실 명령을 의연한 태도로 직시하리라 확고하게 결심한 여장부다운 면이 그녀에겐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는 다만 죽음을 연장하려 했을 뿐이다. 그녀에겐 눈을 가림으로써 이미 더 이상 삶으로 되돌아갈 수 없는 죽음의 대합실에 들어와 있는 듯 여겨졌다. 그 남자는 그녀를 독촉하려 하지 않고 그녀의 팔을 잡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넓은 잔디밭을 걸어갔다. 테레사는 나무를 결정할 수 없었다. 아무도 그녀를 재촉하지 않았다. 그러나 빠져나갈 수 없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꽃이 활짝 피고 있는 밤나무를 눈앞에서 보자, 그녀는 발을 멈추었다. 그녀는 등을 나무둥치에 기대어 위쪽을 쳐다보았다. 그녀는 햇빛을 담뿍 머금은 초록을 보았고, 멀리에서 마치 수천의 바이올린 소리가 울리는 듯한 도시의 소음소리가 부드럽고 감미롭게 들려왔다. 남자는 총을 어깨에 대고 조준했다. 테레사는 용기가 그녀에게서 떠나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허약함에 절망했다. 그러나 이 허약함을 극복할 수가 없어 말했다. “하지만 이것은 나의 소망이 아니에요” 그 순간 그 남자는 총신을 내리고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p 184 “이것이 당신의 소망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할 권리가 우리에게 없어요” 그의 목소리는 친절했다. 마치 그녀 자신이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를 사살할 수 없었던 것에 대해 그가 그녀에게 용서라도 빌거나 하려는 듯 친절했다. 이 친절은 그녀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그녀는 얼굴을 나무껍질 쪽으로 돌려 울기 시작했다. 14 그녀의 온몸이 울음으로 인해 떨렸다. 그녀는 나무둥치를 껴안았다. 마치 그 것이 나무가 아니라 그녀가 상실한 아버지인 듯, 그녀가 전혀 알지 못한 할아버지인 듯, 아니면 선조인 듯, 선조의 선조인 듯, 아니 거친 나무껍질의 모습으로 그녀에게 자신의 얼굴을 향하기 위해 멀고 먼 시간의 심연에서 온 무한히 늙은 어떤 사람인 듯. 그런 다음 그녀는 몸을 돌렸다. 세 남자는 이미 멀리 떠나가 있었다. 그들은 골프 경기자들처럼 잔디밭 위를 성큼성큼 걸어서 돌아다녔다. 한 남자의 손에 쥐어진 총은 실제 골프채처럼 보였다. 그녀는 라우렌치산을 내려갔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그녀를 쏘아 죽였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한 그 남자에 대한 애수에 찬 동경이 자리잡고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가까이 있기를 바랐다. 누구든 그녀를 도울 수 있어야만 했기 때문이다! 토마스는 그녀를 돕지 않았다. 토마스는 그녀를 죽음 속으로 보냈다. 다른 어떤 사람만이 그녀를 도울 수 있었다. 도시에

가까이 오면 올수록 그 남자에 대한 그녀의 동경은 더욱 @p 185 더 강해졌고 토마스에 대한 그녀의 두려움은 더욱더 커졌다. 그녀가 약속을 지키지 아니한 것을 토마스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가 충분히 용감하지 못해 그를 배반한 것을 그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벌써 그들이 살고 있는 거리에 왔다. 다음 순간 곧 그를 보게 될 것임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 것에 그녀는 그토록 겁이 나 속이 메스꺼워졌다. 그녀는 토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믿었다. 15 엔지니어 남자는 테레사를 자기 집으로 초청했었다. 그녀는 두 번이나 그의 초청을 거절했다. 이제 그녀는 수락했다. 언제나와 마찬가지로 그녀는 서서 점심식사를 했다. 그리고는 집을 나갔다. 아직 1시가 못 되었다. 그녀는 그가 살고 있는 집에 가까이 왔다. 그러자 그녀는 발걸음이 그녀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저절로 느려지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그녀를 그에게로 보낸 사람은 근본적으로는 토마스라는 것을 그녀는 숙고했다. 아닌게아니라 사랑과 섹스는 별개의 것이 라고 그녀에게 누차 해명 한 것은 토마스였다. 그녀는 그의 말이 맞는가의 여부를 보려고 할 뿐이었다. 그녀는 그의 목소리를 들었다. 당신을 이해해. 난 당신이 무엇을 바라는가를 알고 있어. 그래서 모든 준비를 해두었소. 당신, 지금위에까지 올라가요. 그러면 당신은 모든 것을 이해할 거 요. 그렇다. 그녀는 토마스의 명령 수행 이외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p 186 그녀는 잠시 동안만 엔지니어 남자에게서 머물고자 했을 뿐이다. 부정의 경 계에까지 간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가를 알수 있도록, 그녀는 커피 한 잔 마실 시간만 그에게 머물고자 했을 뿐이다. 그녀는 자신의 육체를 이 경계에 닿도록 해서, 마치 항쇄하여 기둥에 매놓은 듯 그곳에 한동안 세워두고자 했다. 그런 다음 그 기사가 그녀를 포옹하려 할 뻔 그녀는 라우렌치산의 총 든 사나이에게 말했듯 그에게 말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내 소망이 아니예요” 그러면 그 남자는 총신을 내릴 것이고 천절한 목소리로 말할 것이다. “이것 이 당신의 소망이 아니라면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할 권리가 내겐 없어요’ 그녀는 나무동치로 몸을 돌려 올기 시작할 것이다.

16 프라하 교외 노동자들이 사는 곳에 있는, 세기 전환기에 지은 임대연립주택이 었다. 그녀는 건물 현관에 들어섰다. 현관 벽들은 회칠을 했고 더럽혀져 있었다. 철제 난간이 달린, 닳아서 패인 돌계단이 이층으로 나 있었다. 그녀는 이 층 왼쪽으로 향해 두번째 문 앞에 섰다. 이름패도 초인종도 없었다. 그녀는 노 크했다. 그가 문을

열었다. 그가 사는 집은 단칸방으로 되어 있었다. 현관문 뒤로 1미터 거리에 커튼을 쳐 이 방은 양분되었다. 이로 인해 이 집에 없는 대기실을 위한 일종의 대기 공간이 마련되었다. 여기에는 취사용 전열기를 올려놓은 탁자 하나와 냉장고가 놓여 있었다. 더 들어가자 @p 187 그녀는 좁고 길게 뻗은 방의 끝에 수직 장방형의 창문을 보았고, 다른 쪽에는 책 꽂 이가 세워져 있었다. 그리고 또 다른 벽 쪽에는 취침용 소파 하나와 안 락의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내 집은 너무나 초라해요”하고 기사는 말했다. “당신에게 아무렇지 않기를 바라오” “괜찮아요, 전혀 아무렇지 않아요”하고 테레사는 전체가 서가로 덮여 있는 벽을 바라보았다. 이 남자는 제대로 된 책상 하나도 없었으나 수백 권의 책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것은 테레사의 마음에 들었다. 그녀가 여기 올 때 지녔던 조바심이 좀 가라앉았다. 어린 시절부터 그녀는 책을 내밀의 형제관계를 위한 표지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그와 같은 서재를 지닌 사람이라면 그녀에게 나쁜 짓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는 무엇을 대접할까 하고 그녀에게 물었다. 포도주를? 아니, 아니, 포도주는 마시고자 하지 않았다. 도대체 무엇을 마셔야 한다면 커피를 마시겠노라고 했다. 그는 커튼 뒤로 사라졌다. 그녀는 서가 앞으로 다가갔다. 한 권의 책이 즉시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왕 번역이었다. 이 책이 여기 꽂혀 있다니 얼마나 이상한가! 여러 해 전에 토마스는 그녀에게 이 책을 읽도록 간청하면서 선물했었다. 그때 그는 오랫동안 이 책에 대해 이야기했었다. 그는 자기의 생각을 어느 신문을 위해 기록했었다. 그런데 바로 이 기사가 그들 둘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놓고 말았던 것이다. 그녀는 책 뒷면을 보았다. 그러자 그녀는 마음이 진정되었다. 마치 토마스가 여기에 고의적으로 흔적을, 메시지 지를 남겨놓은 듯했다. 즉, 그가 모든 것을 준비해 두었음을 말하는 메시지였다. 그녀는 이 책을 뽑아서 펼쳤다. 그 키 큰 남자가 돌아오면 그녀는 무엇 때 문에 그가 이 책을 가지고 있는지, 그가 그것을 읽었는지, 그가 그 책을 어떻게 생 @p 188 각하는가를 그에게 묻게 될 것이다. 그녀는 이 술책을 통해 대화를 낫선 남 자 집의 위험한 영역에서부터 토마스의 사고의 친숙한 세계 속으로 이끌어갈 것이다. 그녀는 어깨에 한 손이 없히는 것을 느꼈다. 그 남자는 그녀의 손에서 책을 빼앗아 말없이 그것을 서가에 도로 꽂았다. 그리고는 그녀를 소파로 데려갔다. 다시금 그녀가 라우렌치산에서 그 형리에게 말했던 문장이 그녀의 마음속에 떠올랐다. 그녀는 이제 이문장을 소리높여 말한다. “그러나 이것은 내 소망이 아니에요” 그녀는 상황을 순간적으로 변화시키게 될 마법의 주문이 이

문장에 들어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그 방에서 이 말들은 마력을 상실했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말이 남자를 더욱 강한 결단을 하도록 자극시켰다고 내겐 생각된다. 그는 테레사를 꼭 껴안고 한손을 그녀의 가슴에 얹었다. 이상한 일이었다. 이 접촉이 갑자기 그녀를 그녀의 조바심에서 해방시켰다. 기사 남자는 이 접촉을 통해 그녀의 육체에 주의를 환기시켰다. 여기서 그녀가 (그녀의 영혼이) 문제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녀의 육체가 문제되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의식하게 되었다. 그녀를 배반했던 이 육체가, 그녀가 바깥 세상으로 추방해 다른 육체들에게로 가게 한 이 육체가 문제된다고 의식했다. 17 그는 그녀의 블라우스 단추를 끄르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그녀 스스로 계속 해 줄 것을 암시했다. 그러나 그녀는 이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녀의 육체를 바깥 세상으로 추방해 버렸다. @p 189 그러나 육체에 대한 책임을 지려 하지 않았다. 그녀는 반항하지 않았고 그를 도우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영혼은 이러한 방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에 동의하고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립적인 태도를 취할 것을 결심했다는 것을 이해하게끔 하려 했다. 그는 그녀의 옷을 벗겼다. 그때 그녀는 거의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 그가 그녀에게 키스했을 때 그녀의 입술은 그가 누르는 입술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그녀는 갑자기 그녀의 음부가 축축해짐을 느끼고는 깜짝 놀랐다. 그녀는 흥분을 느꼈다. 그것은 그녀의 의지에 반해 나타난 것이었기에 더욱 더 강했다. 그녀의 영혼은 모름지기 이미 일어난 모든 것에 동의했다. 그녀는 강한 이 흥분이 지속되게 하자면 이 동의가 명백히 표명되지 않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만약 그녀가 그녀의 동의를 소리 높여 말하고 사랑의 장면을 자발적으로 함께 연기한다면 흥분은 가라앉을 것이다. 왜냐하면 육체가 자신의 의지에 반해 행동했던 탓으로, 또 육체가 영혼을 배반했고 영혼이 이 배반을 바라보았던 탓으로 영혼이 흥분했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 그는 그녀의 팬츠를 벗겼다. 그녀는 이제 알몸이었다. 그녀의 영혼은 낯선 남자의 포옹 속에 놓인 벌거벗은 육체를 보았다. 그러자 그녀의 영혼에겐 마치 가까이에서 유성인 화성을 바라보는 듯 믿기지 않게 생각되었다. 이렇게 믿기지 않는 상태의 조명 아래에서 그녀의 육체는 처음으로 그것의 평범성을 상실했다.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의 육체를 마법에 홀린 듯 바라보았다. 이 육체에서 유일무이하고 도저히 모방할 수 없는 모든 것이 전면으로 나타났 다. 그것은 더 이상 모든 육체들 중 가장 보편적인 것(지금까지 그녀가 보아왔 던)이 아니라 가장 비상한 육체였다. 영혼은 그 @p 190 것의 시선을 이 둥근 갈색 점, 음모 바로 위쪽에 있는

모반으로부터 뺄 수가 없었다. 영혼에게는 마치 이 모반이 영혼이 육체에 찍어준 봉인인 것처럼 여겨 졌고 또한 낯선 음경이 그토록 치욕스럽게 이 성스런 봉인 가까이에서 움직이고 있는 듯 여겨졌다. 그녀가 그의 얼굴을 보았을 때 그녀는 다시금, 영혼의 서명을 담은 육체가 그 녀가 알지 못했고 알고 싶지도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의식을 잃게 하는 중오가 그녀를 사로잡았다. 그녀는 침을 모아 그것을 낯선 그 남자의 얼굴에 뺨고자 했다. 그들은 서로 상대를 동일한 욕구를 가지고 바라보았다. 그는 그 녀의 분노를 눈치챘다. 그녀 육체 위에서의 그의 동작은 더욱 빨라졌다. 테레 사는 멀리에서 쾌감이 그녀에게로 다가옴을 느꼈다. 그녀는 소리 지르기 시작 했다. “안 돼, 안 돼, 안 돼!” 그녀는 일어나고 있는 쾌감을 저항했다. 그리고 그녀가 이렇게 저항했기 때문에 막혀진 쾌감은 출구없는 그녀의 온몸 속으로 흘러들어갔다. 쾌감은 그녀의 몸 속에서 마치 혈관 속의 모르핀처럼 사방으로 번졌다. 테레사는 남자의 팔에 안겨 미친 듯 날뛰었고 닥치는 대로 그의 얼굴 에 침을 뺨었다. 18 현대식 욕실에는 변기가 마치 수련의 흰 꽃처럼 바닥에서 자라나 있는 듯 보 인다. 건축가는 육체로 하여금 자신의 비참을 잊도록 하기 위해 모든 것을 다 한다. 물이 저수통에서 쉼 하며 변기통에 쏟아져 들어오면 냉장에서 쏟아놓은 오물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모른다. 하수관이 축수를 가지고 우리들이 사는 집안에 @p 191 까지 들어와 있는데도, 세심한 배려로 우리들의 시야에 보이지 않게 숨겨져 있다. 그래서 우리는 똥의 베니스를 볼 수 없으며 이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 른다. 바로 이 보이지 않는 베니스 위에 우리의 욕실이, 우리의 침실이, 우리의 무도장이, 우리의 국회의사당이 설립되어 있음에도. 프라하 교외 노동자 주거구역에 있는 낡은 건물의 화장실은 보다 덜 영클했 다. 화장실 바닥은 회색 타일로 깔려 있었고 그 위에 변기통이 버림받은 듯 가 없게 돌아나 있었다. 변기의 형은 수련을 연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의 실재적 존재인 것으로 보였다. 즉, 관의 확장된 끝으로 보였다. 앉는 나무테까지도 없었다. 테레사는 에나멜 칠을 한 차가운 변기에 앉아야 했다. 그것은 그녀의 몸을 오싹하게 했다. 그녀는 변기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녀에게 갑자기 발생한, 그녀 내장에 든 것을 쏟아버리고 싶은 이 소망은 품위 저하의 마지막까지 가려는 소망이며, 가능한 한 강하게, 가능한 한 완전히 오로지 육체이고자 하는 소망이었다. 이 육 체에 대해 그녀의 어머니는 말했다. 육체란 소화하고 배설하기 위해 있을 뿐이 라고. 테레사는 무한한 서글픔과 외로움의 느낌을 갖고 그녀의 내장을 비웠다. 이렇게 하수관의 확장된

끝에 앉은 그녀의 벌거벗은 육체보다 더 비참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의 영혼은 관객의 호기심을, 심술과 자만을 상실했다. 그것은 다시 육체 속 깊숙이 내장의 제일 뒤쪽 구석으로 되돌아갔다. 그것은 누가 자기를 불러주지 않을까 하며 절망적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p 192 19

그녀는 변기에서 일어나 수세식 밸브의 끈을 당겼다. 그리고는 현관 대기실로 나왔다. 그녀의 영혼은 벌거벗고 버림받은 육체의 속에서 떨고 있었다. 그녀는 아직도 뒤를 닦았던 종이가 뒤에 닿는 것을 느꼈다. 그런데 그때 그녀가 결코 잊지 못할 일이 일어났다. 그가 있는 방으로 되돌아가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그의 목소리를 듣고 싶은 충동이 그녀에게 일어났다. 그가 침착하고 저음의 목소리로 그녀에게 말을 건넸던들 그녀의 영혼은 육체의 표면으로 다시금 나오는 것을 감행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울기 시작했을 것이다. 그녀는 꿈에 밤나무의 굽직한 등치를 꺼안았듯이 그를 포옹했을 것이다. 그녀는 대기실에 서서 그의 앞에서 눈물을 쏟고 싶은 무한한 충동을 억제하려 싸우고 있었다. 그녀가 이렇게 싸우지 않았던들 자기가 원하지도 않았던 무슨 일이 일어날 것임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즉, 그녀는 그에게 반했을 것이다. 이 순간 그의 목소리가 안쪽에 있는 방에서 들려왔다. 이 목소리를 듣고(훗날 하게 키 큰 이 엔지니어 남자의 모습을 동시에 직접 보지 않고) 그녀의 자못 놀랐다. 그 목소리는 가는 고음이었다. 어떻게 그녀가 이런 목소리를 알아보지 못할 수가 있었는가? 그녀가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던 것은 어쩌면 바로 이 예기치 않게 불쾌하게 들린 그의 목소리 인상 덕분인지 모른다. 그녀는 그가 있는 방으로 돌아와 바닥에 널려 있는 옷을 집어 재빨리 입고 나갔다. @p 193 20

그녀는 입에 크라상 과자를 문 카레닌과 함께 시장을 보고 돌아왔다. 서리까지 약간 내린 차가운 아침이었다. 그녀는 집건물 사이에 있는 넓은 공지를 작은 정원으로 바꾸어 놓은, 주민들이 사는 주거지역을 막 지나고 있었다. 갑자기 카레닌이 멈추어 서서 한 방향만 계속 노려보고 있었다. 그녀 또한 그곳을 바라보았지만 별다른 것을 보지 못했다. 카레닌이 줄을 당겼다. 그녀는 당기는 대로 따라갔다. 결국 그녀는 아무것도 심지 아니한 화단의 얼어붙은 흙 위에서 큰 부리를 한 검은 까마귀의 머리를 보았다. 육체 없는 이 작은 머리는 가볍게 움직였고 부리는 이따금 목쉰 소리를 슬프게 질렀다. 카레닌은 아주 흥분하여 물고 있던 크라상을 떨어뜨렸다. 테레사는 개를 나무에 꼭 매어 까마귀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런 다음 그녀는 무릎을 꿇고 산 채로 묻힌 이 새의 몸 주위의 다져진 흙을 파헤치려고 애썼다. 그것은 단순하지 않았다. 그녀는 손톱을 부러뜨렸고 피가 났다. 이 순간 그녀가

있는 데서 멀지 않은 곳에 돌 하나가 땅에 떨어졌다. 그녀는 사방을 돌아보았다. 겨우 열 살 될까 하는 두 사내아이가 집 모퉁이 뒤에 있는 것을 그녀는 보았다. 그녀는 일어났다. 사내들은 그녀의 반응과 나무에 묶인 개를 보자 달아났다. 그녀는 다시 무릎을 꿇고 땅을 파헤쳤다. 결국 그녀는 까마귀를 무덤에서 해방시켰다. 그러나 새는 이미 마비되어 걸을 수도 날수도 없었다. 그녀는 이 새를 목에 감고 있었던 그녀의 붉은 솔로 싸서 왼손으로 몸에 짝 붙여 안았고, 오른손으로는 카레닌을 나무 @p 194 에서 풀었다. 그녀는 개를 제압하여 발 옆에 붙들어두기 위해 온 힘을 다해야 했다. 열쇠를 호주머니 속에서 찾을 빈 손이 없기 때문에 그녀는 초인종을 울렸다. 토마스가 그녀에게 문을 열어주었다. 그녀는 그에게 카레닌의 줄을 내밀었다. "개를 꼭 잡고 있어요!"하고 그녀는 명령하고 까마귀를 욕실로 가져갔다. 새를 세면대 밑바닥에 내려놓았다. 까마귀는 경련을 했다. 하지만 움직일 수가 없었다. 진한 누런 액이 몸에서 흘러내렸다. 테레사는 세면대 밑에 낡은 헌옷으로 동우리를 만들어주어, 석판 바닥이 새에게 너무 차지 않도록 했다. 번번이 새는 마비된 나래를 움직이려 했다. 그의 부리는 마치 비탄을 하듯 허공으로 향해 있었다. 21 그녀는 욕조의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고, 죽어가는 까마귀로부터 눈을 돌릴 수가 없었다. 새의 버림받은 고독에서 그녀는 자신의 운명상을 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줄곧 말했다. 온통 넓은 세상에서 내겐 토마스 외엔 아무도 없어. 기사 남자와의 일이 사랑의 모험은 사랑과 아무런 관계도 없다는 것을 그녀에게 가르쳐주었던가? 사랑의 모험이란 가볍고 아무런 무게도 없다는 것을 가르쳤던가? 그녀는 보다 조용하게 되었던가? 천만에. 한 장면이 그녀에게 전혀 마음의 안정을 주지 못했다. 즉, 그녀가 화장실에서 나왔고 그녀의 육체가 대기실에서 벌거벗고 버림받아서 있던 장면이다. 깜짝 놀란 그녀의 영혼이 내장 깊숙이에서 @p 195 떨고 있었다. 방에 있던 그 남자가 그 순간 그녀의 영혼에 말을 걸었던들 그녀는 눈물을 쏟고 그의 팔에 안겼을 것이다. 그녀는 자기 대신에 토마스의 여자친구들 중 한 여자가 화장실 옆 대기실 마루 위에서 있었다면 하고 상상해 보았다. 그는 그 여자에게 단 한마디 말만 했다면 틀림없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면 그 여자는 울면서 그를 포옹했을 것이다. 테레사는 사랑이 탄생되는 순간이란 다음과 같은 상황임을 알고 있다. 여자는 자기의 놀란 영혼을 표면으로 불러내는 목소리에 반항할 수 없다. 남자는 여자의 영혼이 그의 목소리를 요구할 때, 이 여자에게 반항할 수 없다. 토마스는 사랑의 함정 앞에 전혀 안전하지 못하다. 그래서 테레사는 매시간, 매순간 그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녀가 무기로서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녀의 정절 외에 아무것도 없다. 처음 시작에서 즉시 그녀는 그에게 자신의 정절을 바쳤다. 첫날 즉시 그랬다. 마치 그녀가 그에게 바칠 것이라고는 다른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의식했기라도 한 것처럼 말이다. 그녀의 사랑은 독특하게도 불균형의 건축구조를 지니고 있다. 그것은 마치 거대한 궁전이 유일한 원주에 기초를 두고 있듯 테레사의 확고한 정절의 발판에 근거한다. 까마귀는 나래까지도 거의 움직이지 못했다. 다만 이따금 다치고 부러진 발만을 경련하며 움직였다. 테레사는 마치 죽어가는 여동생의 임종 병상을 지켜 보듯 부엌으로 들어가 서둘러 저녁식사를 했다. 그녀가 다시 돌아왔을 때 까마귀는 이미 죽어 있었다. @p 196 22

그들 사랑의 첫해에 테레사는 토마스와의 사랑의 동침을 할 때 소리를 질렀다. 이 외침은 말했다시피 그녀의 감각을 눈멀고 귀먹게 하는 것이었다. 그 후 그녀는 아주 드물게 소리질렀다. 그러나 그녀의 영혼은 여전히 사랑에 눈이 멀었고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그녀가 기사 남자와 동침한 후에야 비로소 사랑의 결여가 그녀의 영혼으로 하여금 보도록 만들었다. 그녀는 다시금 사우나에 갔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보며 그 엔지니어 남자의 집에서 있었던 사랑의 장면을 눈앞에 떠올려보았다. 그녀가 그것에서 기억에 간직했던 것은 그녀의 정부였던 그 남자가 아니었다. 솔직히 말해서 그녀는 그를 묘사할 수조차 없었을 것이다. 어쩌면 그녀가 그가 발거벗은 모습을 보지조차 않았을 것이다. 그녀가 기억하는 것은(그리고 지금 흥분해서 그녀가 거울 속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은) 그녀 자신의 육체였다. 그녀의 국부와 바로 그 위에 있는 둥근 반점이었다. 그때까지 흔히 있는 미용상의 결함 외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겼던 이 반점이 그녀의 생각에 깊이 아로새겨졌다. 그녀는 그것을 계속 반복해서 낯선 남자의 성기와 믿기지 않을 정도로 가까운 곳에서 보고자 했다. 나는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그녀는 낯선 남자의 성기를 보고자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녀 자신의 음부를 낯선 남근과 근접한 위치에서 보고자 했다. 그녀는 정부의 육체를 갈구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녀 자신의 육체, 갑자기 발견한 그녀 자신의 육체를, 모든 육체 중에서 그녀에게 가장 가까이에 놓여 있는 가장 @p 197 낯선, 가장 자극적인 이 육체를 욕구했다. 그녀는 자신의 육체가 샤워를 한 탕으로 아직 피부에 묻어 있는 섬세한 물방울들로 덮여 있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그 기사 남자가 가까운 시일 안에 다시금 바에 들릴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가 와서 자기를 그에게 초청해 주기를 바랐다! 그리고 그녀는 그것을 얼마나 소망했던가! 23 나날이 그녀는 그 엔지니어가 바에 나타나면

자신이 그의 초청을 거절하지 못 하지 않을까하고 걱정했다. 여러 날이 지나갔다. 그가 오지 않을까 하는 염려는 그가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으로 바뀌었다. 한 달이 지났다. 그런데도 그 엔지니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것은 테레사에게 납득이 가지 않았다. 실망한 욕구는 뒷전으로 물러나고 불안이 물려왔다. 무슨 이유로 그가 오지 않았는가? 그녀는 손님들에게 시중을 들었다. 미성년자에게 알콜을 팔았다고 그때 그녀를 비난했던 대머리 남자는 다시 왔었다. 그는 재미있는 음담을 소리 높여 이야 기해 주었다. 그런 음담을 그녀는 작은 도시의 식당에서 손님들에게 맥주를 날 라다 줄 때 술취한 사람들로 부터 이미 수없이 들었었다. 다시금 그녀 어머니의 세계가 그녀에게 되돌아온 것 같았다. 그 때문에 그녀는 이 대머리의 이야기를 통명스럽게 중단시켰다. 그 남자는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했다. 「당신은 내게 아무것도 명령 못해요. 우리가 이렇게 바 스탠드 뒤에서 당신이 일하도록 @p 198 하고 있는데 당신이 기뻐해야 할 거요」 「우리가 누구란 말예요? 그것이 누구요. 우리라는 자가?」 「우리지」 하고 그 남자는 말하고 보드카 한 잔을 더 주문했다. 「당신이 나 를 모욕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시오!」 그런 다음 그는 값싼 진주목걸이를 하고 있는 테레사의 목을 가리켰다. 「도 대체 당신의 이 목걸이는 어디에서 났소? 우리창 청소부인 당신 남편으로부터 그것을 받은 것은 틀림없이 아닐 거요! 당신 남편은 당신을 위해 그와 같은 선 물을 지불할 수 없을 테니까! 손님들로부터 받았나요? 그렇지만 무슨 대가로?」 「즉시 주둥이 닦쳐요!」 하고 테레사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쏘아 붙였다. 남자는 목걸이를 손가락 사이에 넣어 잡으려고 했다. 「잘 들으시오. 우리 있는 데서는 매춘이 금지되어 있소!」 카레니가 일어나 앞발을 바 스탠드에 올려놓았다. 그리고는 으르렁거리기 시 작했다. 24 대사는 말했다. 「그자는 형사였소」 「형사라면 그토록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는 행동을 하지 않을거예요」 하고 테레사는 다시 한번 숙고하도록 했다. 「비밀을 포기해 버린 경찰이 무슨 비밀 경찰이죠?」 대사는 양반다리를 하고 나무침대에 앉았다. 그는 이것을 요가 할 때 배웠었다. 그의 머리 위쪽에서는 케네디가 미소짓고 있었다. 이것은 그의 말에 각별한 위엄을 주었다. @p 199 「테레사 부인」 하고 그는 아버지 같은 태도로 말했다. 「형사들은 여러 가지 기능을 갖고 있어요. 첫째 기능은 고전적인 것이요. 사람들이 서로 나누는 이야기를 함께 엿듣고 그것을 상관에게 보고하는 것이요. 둘째 기능은 겁주는 것 이요. 그들은 자기들이 그 상대를 지배하는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 시 켜 주지요. 그들은 상대에게 겁을 불어넣어 주려고 하지요. 바로 이것을 당신의 그 대머리는 시도했던 것이요. 첫째 기능은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게 하는 상황의 연출에 있어요. 오늘날엔 우리에게 아무도 반국가적 행위의 죄를 뒤집어씌우는 데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더욱더 사람들의 동감을 사도록 해 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차라리 우리들의 호주머니에서 마약을 찾아내려고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열두 살 소녀를 강간했다는 것을 증명하려 할 것이요. 그렇게 증언할 소녀는 언제나 있으니까 말이요」

다시금 그 엔지니어가 그녀의 마음에 떠올랐다. 무엇 때문에 그가 더 이상 오지 않았던가? 대사는 말을 계속했다. 「그들은 사람들을 자기들을 위해 일하도록 끌어들이, 이들의 도움을 빌려 다시금 다른 사람들에게 함정을 파놓으려고 사람들을 함정으로 유인하지 않으면 안 되지요. 그런식으로 그들은 점차 온 국민을 형사의 통 일체계가 되도록 만들지요」 테레사는 그 엔지니어가 경찰에 의해 자기에게 붙여졌다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 우스꽝스런 젊은 이는 누구였던가? 건너편 술집에서 술이 취해 그녀에게 사랑의 고백을 했던 그 젊은이는? 그 젊은이 때문에 대머리의 그 형사는 그녀를 공격했고 그 엔지니어는 그녀를 방어했었다. 세 사람 모두 공모한 연극에서 각기 그들의 역을 했던 것이다. 이 연극의 목적은 그녀를 유혹하는 과제를 맡았던 그 남자에 대해 그녀의 애정을 일깨우는 것이었다. 어째서 이것이 앞서 그녀의 생각에 들지 않았던가? 그 집은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었다. 그것은 도대체가 그 엔지니어 남자에게 어울리지 않았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멋진 옷차림을 한 엔지니어가 그토록 초라한 집에 살아야 한단 말인가? 도대체 그가 엔지니어였던가? 그럴 경우 어떻게 그가 오후 2시경에 시냇이 있었을까? 그리고 언제부터 엔지니어들이 소포클레스의 작품을 읽었던 말인가? 아니다. 그것은 엔지니어의 서재가 아니었다! 그 방은 오히려 체포된, 돈 없는 인텔리의 차압당한 집처럼 보였다. 그녀가 열 살이었고 그녀의 아버지가 체포되었을 때도 꼭 마찬가지로 집이 전 서재와 함께 차압당했었다. 무슨 목적에 그때 그 집이 쓰여졌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제 무엇 때문에 그 엔지니어가 다시금 오지 않았던가 하는 것은 역시 명백하다. 그는 자기의 사명을 완수했다. 어떤 사명? 술취한 그 형사는 그가 다음과 같이 말했을 때, 그의 뜻에 반해서 그녀에게 그것을 폭로시키고 말았던 거시다. 「잘 들으시오. 우리 있는데서는 매춘이 금지되어 있소!」 소위 그 엔지니어는 그녀가 자기와 동침하고 그 대가로 돈을 요구했노라고 진술할 것이다! 그는 그녀에게 스캔들을 일으키겠다고 협박하여 그녀의 바에서 술취하는 사람들을 밀고 하도록 강요할 것이다. 「당신의 그 일은 조금도 위험하지 않아요」 하고 대사는 그녀를 안심시키려 했다. 「그럴

수 있겠죠」 하고 그녀는 목소리를 낮추어 대답하고 카레닌과 함께 프
라하 시의 밤거리로 나갔다. @p 201 25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통을 피하기
위해 미래로 도피한다. 그들은 시간의 진로 에는 하나의 선이 있어, 이
선을 넘으면 현재의 고통이 중단된다고 생각한다. 그 러나 테레사는 자기
앞에 그러한 선을 보지 못했다. 오직 뒤돌아보는 것만이 그 녀에게
위로를 줄 수 있었다. 다시 일요일이 찾아왔다. 그들은 프라하에서 벗어
나기 위해 자동차에 몸을 실었다. 토마스가 운전석에 앉았고, 옆에
테레사가 그리고 뒷자리에 카레닌이 탔다. 카 레닌은 때때로 머리를
앞으로 내밀어 그들의 귀를 핥았다. 두 시간을 타고 간 뒤 그들은 어떤
작은 요양지에 도착했다. 여기서 그들은 약 6년 전에 함께 며칠 을 보낸
적이 있었다. 그들은 그곳에서 숙박하려 했다. 그들은 시장 광장에
주차하고 차에서 내렸다.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맞 은편에 그때
그들이 묵었던 호텔이 있었고, 그 앞에는 여전히 고목의 보리수가 서
있었다. 그 왼쪽으로 목조주랑이 쪽 뻗어 있었고, 그 끝에는 대리석
수조에서 우물물이 솟고 있었다. 그때나 오늘이나 손에 물컵을 든
사람들이 우물물에 몸을 굽히고 있었다. 토마스는 호텔을 가리켰다.
무엇인가 그래도 좀 달라졌다. 전에는 이 호텔이 <그랜드 호텔>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팻말에 새겨진 글자에 의하면 <바이칼>이 라고 되어
있었다. 그들은 건물 모퉁이에 붙은 간판을 바라보았다. 모스크바 거
나○장. 그들은 그들이 알았던 모든 거리를 다 돌아다녔다(카레닌은
끈도 매지 않고 혼자 따라다녔다). 그리고 그들은 거리 이름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다. @p 202

스탈린그라드가,레닌그라드가,로스토프가,노보시비르가,키예브가,오랫사가
가 있 었고, 또 차이코프스키 요양소, 톨스토이 요양소,
림스키코르사코브 요양소가 있 는가 하면 수보로브 호텔, 고리키 영화관,
푸시킨 다방도 있었다. 모든 이름이 러시아의 지리와 역사에서 따왔다.
테레사는 러시아 침공의 처음 날들을 회상했다. 모든 도시에서 사람들은
거리 이름을 적은 간판 및 도로표시판들을 떼어버렸다. 밤 사이에 온
나라가 이름 없 이 되어버렸다. 7일 동안을 러시아군은 그들이 어디에 와
있는가를 알지 못하고 사방을 헤매었다. 장교들은 신문편집실, 방송국,
텔레비전 방영 건물을 점령하려 고 찾았다. 하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물어 보았으나 이들은 다만 어깨만
으쓱하며 모른다는 제스처를 하거나 아니면 틀리 는 이름이나 그 반대
방향을 말해 주었다. 수년 뒤 이러한 익명성이 나라 자체를 위해서
위험한 것처럼 생각되었다. 거 리와 건물들은 그것들의 원래 이름을
다시금 가질 수 없게 했다. 그래서 보헤미 아 지방의 한 요양지가 하루

사이에 작은 환상적인 러시아가 되어 버렸다. 그들의 과거 발자취를 따라 이곳으로 왔던 테레사는 그들의 이 과거가 차압당하고 말았음을 확인했다. 그들은 그곳에서 도저히 밤을 지낼 수가 없었다. 26 말없이 그들은 차로 되돌아왔다. 모든 사물과 모든 인간들이 변장을 하고 나타났다고 그녀는 생각했다. 보헤미아의 오래된 도시가 러시아의 이름들로 자신을 덮은 것이었다. 러시아 침공 때 사 @p 203 진을 찍었던 체코 사람들은 실제로는 러시아 비밀경찰을 위해 일한 꼴이었다. 그녀를 죽음으로 보냈던 사람은 얼굴에 토마스의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경찰은 자신을 엔지니어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 엔지니어는 라우렌치산의 그 남자 역을 하려 했다. 그의 집에 있었던 그 책의 표지는 잘못된 것이었다. 그것은 그녀를 잘못된 길로 유인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었다. 지금 그녀가 그때 그곳에서 손에 들었던 그 책을 생각하자 갑자기 그녀의 얼굴을 붉히게 한 무엇이 생각났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 엔지니어는 커피를 끊으러 간다고 말했었다. 그녀는 그때 서재로 가 소포클레스의 『오 이디푸스』를 서가에서 빼 손에 들었다. 그런 다음 그 엔지니어는 돌아왔다. 그러나 커피는 가지고 오지 않았다! 그녀는 생각을 계속 되풀이해서 이 상황으로 되돌아왔다. 그가 커피를 끊으러 갔을 때 그는 얼마 동안 나가 있었는가? 적어도 1분, 어쩌면 2분, 아니면 3분 동안, 이 시간 동안에 그는 그 자그마한 대기실에서 무엇을 했던가? 화장실에 갔었는가? 테레사는 자기가 화장실 문을 닫는 소리를 들었는지, 혹은 화장실 물 내려가는 소리를 들었는지 기억하려 했다. 아니다. 그녀는 기억할 수 있을 것이다. 문소리를 듣지 못했다는 것도 거의 확실했다. 그렇다면 대기실에서 그는 무엇을 했던가? 갑자기 그녀에게 모든 것이 너무나도 명백한 것처럼 생각되었다. 그녀를 함정에 빠뜨려 잡고자 했다면 기사 한 사람의 진술로는 충분하지가 않았던 것이다.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필요로 했다. 의심스럽도록 긴, 그가 떠나 있던 시간 동안 그는 대기실에 카메라를 설치했었다. 아니면 보다 더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서, 그는 어떤 사람을 사진기를 가지고 들어오게 하여 커튼 뒤에 숨어서 @p 204 사진을 찍도록 했을 것이다. 몇 주 전에만 해도 그녀는 프록사스카가 사적인 영역이 전혀 없는 일종의 강제노동수용소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자신이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를 야유 했었다. 그런데 그녀는? 그녀가 어머니의 집을 떠났을 때 그녀는 어리석게도 자신이 이전 단연코 사적인 삶의 안주인이 되었노라고 믿었었다. 그러나 어머니의 제국은 온 세상에 걸쳐 있었고 어디에서나 그녀에게 손을 뻗었다. 그 어떤 곳에 서도 테레사는 어머니의 제국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을 것이다. 정원들 사이 계단을 내려가 그들은 시장

광장으로 갔다. 그곳에 차를 주차시켜 놓았기 때문이다. 「당신 무슨 일이 있소?」 하고 토마스가 물었다. 그녀가 대답하기 전에 누가 토마스에게 인사했다. 27 그것은 50대의 남자였다. 그는 비바람과 햇살에 거칠어진 얼굴을 하고 있었는데 토마스가 에스날에 수술했던 시골 남자였다. 그때 수술한 뒤 그는 매년 요양을 위해 온천장으로 보내졌다. 그는 토마스와 테레사에게 포도주를 한 잔 대접하겠다고 초대했다. 개를 술집에 데려가는 것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테레사는 카레닌을 자동차 속에 넣어두려 했다. 두 남자는 앞서 다방으로 들어갔다. 테레사가 그들에게로 돌아오자 시골 남자는 말해쌌다. 「우리가 있는 곳은 안정이 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나는 2년 전 협동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출되었어요」 @p 205 「축하해요」 하고 토마스가 말했다. 「시골은 그런 곳입니다. 아시겠어요. 사람들이 떠나버려요. 저 위에 있는 양 반들은 도대체가 아직까지 누가 남아 있다는 데 기뻐해야 할 거요. 그들은 우리를 해고할 수가 없어요」 「그런 곳은 우리에게 이상적인 곳이겠어요」 하고 테레사가 말했다. 「부인, 당신같이 젊으신 분은 그런 곳에서는 지루해 견디기 힘들 것입니다.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전혀 아무것도요」 테레사는 비바람과 햇살에 거칠어진 농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에게 아주 호감이 가는 사람이었다. 그토록 오래간만에 드디어 그녀에게 호감이 가는 사람이 나타났다! 그녀의 눈앞에는 시골의 목가적 풍경이 떠올라쌌다. 교회 의 탑이 있는 마을, 들판, 숲들, 밭고랑을 통해 깡충깡충 뛰어가는 토끼, 초록의 펠트 모자를 쓴 사냥꾼, 그녀는 한 번도 시골에 살지 않았다. 이러한 목가적 상을 그녀는 다만 소설에서 알고 있을 뿐이다. 아니면 책을 통해. 아니면 그러한 상을 그녀의 무의식에 आरोसे겨 주었던 것은 먼 에스날의 선조였는지 모른다. 여하튼 그러한 상은 가족 앨범 속의 선조 할머니의 사진처럼, 오래된 관화처럼 그녀의 마음속에 선명하고 명백했다. 「아직도 불편하시나요?」 하고 토마스가 물었다. 농부는 두개골과 척추가 서로 맞닿고 있는 목 지점을 가리켰다. 「여기가 아직도 이따금 아파요」 일어나지 않은 채 토마스는 그곳을 손가락으로 만져보고 그의 옛날 환자에게 몇 가지 질문을 했다. 그런 다음 그는 말했다. 「내겐 더 이상 처방할 권리가 없어요. 그러나 집에 가서 당신의 의사에게 당신이 나와 이야기를 했고 내가 이것을 추천하더라고 말해요」 그는 안쪽 호주머니에서 메모 노트를 꺼내 한 장을 찢었다. 대문자로 그는 약의 이름을 기재했다. @p 206 28 그들은 프라하로 돌아가쌌다. 테레사는 그녀의 나체가 그 기사의 품안에 놓여 있는 사진을 생각했다. 그녀는 자위하려 애써쌌다. 그러한 사진이 실제 있다고

가정해도 그것을 토마스는 결코 보게 되지 못할 거야. 그 사진은
그자들에게는 그것을 수단으로 그녀를 험 박 탈취할 수 있기 때문에 오직
관심의 대상이 되는 거야. 그들이 그것을 토마스에게 송부하는 순간
그것은 그러한 가치를 즉시 상실하고 말 거야. 그런데 만약 경찰이
테레사가 자기들에게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결정을 내린다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 그 사진은 순전히 장난의 대상이 될 것이다. 누군가
아마도 한낱 장난으로 그것을 봉투에 넣어 토마스의 주소를 적어 송부하는
것을 아무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토마스가 그와 같은 사진을 받을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녀를 쫓아 내 버릴 것인가? 어쩌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아마도 거의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그러나
파괴되기 쉬운 그들 사랑의 구조물은 완전히 무너지고 말 것이다.
왜냐하면 이 구조물은 오직 그녀의 정절의 유일한 기둥에 기초하고,
사랑의 역사는 제국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사랑의 역사의
기반이 되고 있는 사상이 몰락하면 이 사상과 함께 사랑의 역사 또한
몰락한다. 그녀의 눈앞에는 목가적 상이 어른거렸다. 밧고랑에서
깡충깡충 뛰고 있는 토끼, 초록의 펠트 모자를 쓴 사냥꾼, 숲 위로
솟아오른 교회의 탑. @p 207 그녀는 토마스에게 함께 프라하로부터
이사가자고 말하려 했다. 살아있는 까마귀를 생매장하는 아이들로부터,
형사들로부터, 우산으로 무장한 처녀들로부터 떠나고 싶었다. 시골로
이사가자고 토마스에게 말하려 했다. 이것만이 구제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하려 했다. 그녀는 그에게로 머리를 돌렸다. 그러나
토마스는 말없이 계속 길만 내려보고 있었다. 그녀는 그들 사이에 조성된
침묵의 벽을 허물 수가 없었다. 그녀는 말할 용기를 잃었다. 그녀가
라우렌치산을 내려왔었던 그때처럼 그녀의 마음은 이상했다. 그녀는
속이 나빠지는 것을 느꼈다. 토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여겼다.
그녀는 토마스가 무서웠다. 그는 그녀에게 너무 강했다. 그녀는 너무
약했다. 그는 그녀에게 이해 못할 명령을 했다. 그녀는 명령을 이행하려
했다. 그러나 그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그녀는 라우렌치산으로
되돌아가 총을 가진 그 남자에게 간청하려 했다. 자기의 눈을 가려
매어주고, 자기가 밤나무 등치에 기대어 설 수 있게 해달라고 그에게
간청하려 했다. 그녀는 죽으려 했다. 29 그녀는 잠이 깨었다. 자기 혼자
집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밖으로 나가 강이 있는 아래쪽으로
산보했다. 그녀는 물다우강을 보고 강변에 서서 오랫동안 물살을
바라보려 했다. 흐르는 물을 바라보면 마음을 안정시켜 주고 피로움을
잡게 해주기 때문이다. 강물은 수백 년을 흘러간다. 사람들의 운명이 이
강변에 @p 208 서 펼쳐진다. 그것은 내일이면 벌써 망각되기 위해

펼쳐진다. 반면 강물은 내 일도 계속 흐른다. 그녀는 난간에 기대고 밑을 내려다보았다. 그곳은 프라하 시의 변두리 지역이 었다. 몰다우강은 이미 프라하 시를 관통했고 흐라쾰 성과 교회들의 찬란한 모습 뒤에서 있었다. 몰다우강은 공연후의 여배우처럼 지치고 시름에 잠겼다. 그것은 더러운 강둑 사이를 흘렀다. 그곳 울타리와 담벼락 뒤에는 공장들과 버려진 운동장들이 놓여 있었다. 여기에서 오랫동안 그녀는 더욱더 황량하고 검게 나타난 강물속을 바라보았다. 갑자기 그녀는 강물 위에서 무엇인가 붉은 것을 보았다. 그것은 벤치였다. 프라하의 공원에 많이 있는 벤치였다. 느긋한 모습으로 그것은 몰다우강 한가운 데서 동동 떠내려왔다. 그 뒤에 또 하나의 벤치가, 그리고 또 하나의 다른 벤치가 보였다/ 이제서야 비로소 테레사는 프라하 시의 공원에 놓은 벤치들이 물에 떠내려왔다는 것을 알았다. 많은 의자들이었다. 계속 더 많은 의자가 있었다. 그것들은 마치 숲에서 강으로 떠내려온 가을 단풍잎처럼 물 속에 동동 떠내려왔다. 그녀는 그것이 어떻게 된 셈이냐고 누구에게 묻기라도 하려는 것처럼 주위를 돌아보았다. 무엇 때문에 프라하의 공원에 있는 의자들이 떠내려왔던가? 그러나 사람들은 모두 무관심하게 그녀를 지나쳐갔다. 강이 이미 수백 년 동안 그들의 무상한 도시를 통해 흐른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관심 밖이었다. 그녀는 다시금 물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자기가 본 것이 하나의 작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한없이 슬펐다. 거의 모든 의자들이 그녀의 시야에서 사라 졌다. 다만 아직도 뒤늦게 떠내려오는 몇몇 의자들만이 물에 떠올랐다. 노란 의자 또 하나의 의자, 파란 의자, 마지막 의자가. @p 209 제 5부 가벼운 것과 무거운 것 @p 211 1 예기치 않게 테레사가 토마스를 찾아 프라하로 왔을 때 그는 그녀를, 내가 제 1부에서 이미 서술했듯이, 바로 그날, 바로 그 시각에 사랑했다. 그러나 곧 이어 그녀의 몸에서는 열이 났다. 그녀는 그의 침대에 누워 있었고, 그는 서서 그녀를 굽어보고 있었다. 그에게는 그녀가 누군가 광주리에 담아 자기에게로 보내기 위해 물에 띄워 버린 아이라는 느낌을 뿌리칠 수가 없었다. 그 후로 그는 버린 아이의 이미지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졌다. 그래서 그는 그것이 나오는 옛 신화를 종종 생각했다. 이것이 아마도 어느 날 그가 무엇 때문에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 번역을 입수했는가 하는 숨은 이유였을 것이다. 오이디푸스의 이야기는 잘 알려져 있다. 한 목동이 버려진 젖먹이 사내아이를 발견하고 이 아이를 그의 왕 폴리보스에게로 갖다주었고 왕은 아이를 키웠다. 청년이 되어 오이디푸스는 산 속을 지나는 여행길에서 모르는 구인이 타고 있는 마차와 마주친다. 싸움이 벌어져 결국 오이디푸스는 이 귀인을 죽였다. 그 후 그는 여왕 이오키스테와

결혼하여 테베 왕국의 통치자가 되었다. 그는 자기가 언젠가 산 속에서 죽었던 그 남자가 자기 아버지였고, 그가 동침한 부인이 자기 어머니였음을 전혀 몰랐다. 운명은 그의 신하들에게 모반을 일으켜 그들에게 질병의 재앙이 오게 했다. 오이디푸스는 자기 자신이 그들의 고통에 대해 죄가 있음을 알고 바늘로 자기 눈알을 찢어 파냈다. 그리고 장님으로서 그는 테베 왕국을 떠났다. 2 중앙유럽에서 공산주의 정권들을 전적으로 범죄자들의 기구라고 믿는 사람은 기본적인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 즉 범죄자 정권들은 범죄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지상천국을 만드는 유일한 방법을 찾았다고 확신하는 광신자들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사실이다. 이 방법을 그들은 격렬하게 옹호하여 그 대가로 수많은 사람을 죽였다. 그런데 그 후 지상천국이란 없으며, 결국 광신자들은 살 인자로 드러났다. 이 시점에 이르러 모든 사람들은 공산주의자들을 욕하기 시작했다. 너희들은 나라의 불행(나라는 빈곤하게 되었고 엉망이 되었다)과 나라의 자주성 상실(나라는 러시아에 예속되게 되었다)에 대한, 죄없는 사람들을 사형에 처한 데 대한 책임이 있다고 외쳤다. 고발된 자들은 대답했다.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했소. 우리는 기만당했었소! 우리는 믿었던 것이오! 우리들 마음 밑바닥은 결백했소! @p 212

왕 이오카스테와 결혼하여 테베 왕국의 통치자가 되었다. 그는 자기가 언젠가 산 속에서 죽었던 그 남자가 자기 아버지였고, 그가 동침한 부인이 자기 어머니였음을 전혀 몰랐다. 운명은 그의 신하들에게 모반을 일으켜 그들에게 질병의 재앙이 오게 했다. 오이디푸스는 자기 자신이 그들의 고통에 대해 죄가 있음을 알고 바늘로 자기 눈알을 찢어 파냈다. 그리고 장님으로서 그는 테베 왕국을 떠났다. 2 중앙유럽에서 공산주의 정권들을 전적으로 범죄자들의 기구라고 믿는 사람은 기본적인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 즉 범죄자 정권들은 범죄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지상천국을 만드는 유일한 방법을 찾았다고 확신하는 광신자들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사실이다. 이 방법을 그들은 격렬하게 옹호하여 그 대가로 수많은 사람을 죽였다. 그런데 그 후 지상천국이란 없으며, 결국 광신자들은 살 인자로 드러났다. 이 시점에 이르러 모든 사람들은 공산주의자들을 욕하기 시작했다. 너희들은 나라의 불행(나라는 빈곤하게 되었고 엉망이 되었다)과 나라의 자주성 상실(나라는 러시아에 예속되게 되었다)에 대한, 죄없는 사람들을 사형에 처한 데 대한 책임이 있다고 외쳤다. 고발된 자들은 대답했다.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했소. 우리는 기만당했었소! 우리는 믿었던 것이오! 우리들 마음 밑바닥은 결백했소! @p 213

논쟁은 따라서 다음 물음에 국한되었다. 그들은 그것을 정말 몰랐던가? 아니면 다만 그들이 그것을

몰랐던 것처럼 했던가? 토마스는 이 논쟁을(1천만 전 체코 국민처럼) 추적하고는 공산주의자들 중에 서는 그토록 전혀 모르지 아니한 사람들이 확실히 있었다고 자신에게 말했다(그 들은 혁명 후의 러시아에서도 계속 자행되었던 만행들에 대해 알고 있었음에 틀림없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정말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기본적인 물음은 <그들이 그것을 알았는가 아니면 알지 못했는가?> 가 아니고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죄가 없는가? 왕좌에 앉은 바보는 바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책임에서 면제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다. 50년대 초 죄없는 사람에게 사형을 요구한 체코의 검사 한 분이 러시아 비밀 경찰에게, 그리고 자기 나라 정부에게 기만당했다고 가정해 보자. 당시의 고발이 어처구니없는 것이었고 처형된 사람들이 죄가 없었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는 오늘날, 바로 그 검사가 자기 영혼의 순수함을 변호하며 <내 양심은 깨끗해요, 난 아무것도 알지 못했소, 난 믿었을 뿐이오!> 하고 자기 가슴을 치는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가! 씻을 수 없는 그의 죄는 바로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어 요, 나는 믿었을 뿐이오!> 라고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닐까? 그때 토마스의 마음속에 오이디푸스의 이야기가 떠올랐다. 오이디푸스는 자신 이 자기 어머니와 동침한 것을 알지 못했다. 그런데 무슨일을 자기가 저질렀는가 하는 것이 그에게 명백하게 되었을 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죄가 없다고 느끼지 않았다. 그는 자기가 알지 못하고 야기시킨 불행을 차마 볼 수 없어 자신의 눈알을 찢어 파내고 장님으로서 테베 왕국을 떠났다. 토마스는 자신들의 내면적 순수성을 변호하는 공산주의자들의 @p 214 외치는 소리를 듣고 자신에게 말했다. 너희들이 알지 못했다는 무지에 이 나 라가 어찌면 수백 년 동안 자유를 상실하고 만 데 대한 죄가 있다. 그런데도 너 희들은 결백하게 느낀다고 외쳐? 어떻게 너희들이 그것을 함께 볼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너희들이 놀라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너희들이 도대체가 볼 수 있 단 말인가? 너희들에게 눈이 있다면 너희들은 그 눈을 파내고 테베 왕국을 떠나 야 할 거야! 이러한 비교는 꽤 토마스의 마음에 들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친구들과의 담화에서 자주 언급했다. 그럴 때마다 점차 보다 더 정확하고 세련된 표현이 그 의 생각에 떠올랐다. 모든 지성인들과 마찬가지로 그도 이 시기에 체코 작가연맹이 펴내는 주간지 를 구독했다. 이 주간지는 30만 부의 발행부수를 갖고 있었고 당시 정권에서 상 당한 자율권을 쟁취했었다. 이 신문은 다른 신문들이 감히 공개적으로 언급할 수 없는 것들을 실었다. 작가들이 펴내는 이 신문에서는 공산주의 집권의 초기 정치재판 기간 동안 누가 어느 정도로 죄없는 사람들의

처형에 죄가 있었는가 하는 기사까지도 실었다. 이 모든 논쟁에서 계속 반복해서 제기되는 문제는 <그들이 그것을 알았든가, 아니면 알지 못했든가?> 하는 것이었다. 이 문제는 토마스에게 부차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그는 어느 날 오이디푸스에 대한 자기 생각을 집필해서 그것을 이 신문의 편집부로 보냈다. 1개월이 지나서 그는 회답을 받았다. 편집부로부터 들러달라는 부탁을 그에게 했다. 그래서 그가 편집부에 들어서자 땅딸막한 편집부 직원 한 사람이 인사했다. 이 직원이 뺨뺨이 서서 그에게 한 문장에서 단어의 위치를 바꾸는 제의를 했다. 그런 다음 실제 이 글은 마지막 앞면 독자란에 실렸다. 토마스는 이것에 대해 전혀 반가워하지 않았다. 앞서 신문사측 @p 215 은 문장구조의 변경을 위해 그의 허락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를 편집부로 와달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었다. 그리고는 그가 쓴 글을 그에게 묻지도 않고 심하게 줄여서, 그의 생각들이(다소 너무나도 도식적이고 공격적인) 기본명제로 요약되어 그의 마음에 들지 않게 되었다. 그것은 1968년 봄이었다. 알렉산드르 두브체크에게는, 당시 자신들이 죄가 있다고 느끼는 이 죄를 속죄하려고 생각했던 공산주의자들과 함께 세력이 있었다. 그러나 자기들은 죄가 없다고 외쳐댔던 다른 공산주의자들은 흥분한 국민이 자기들을 법정으로 끌고가지나 않을까 하고 겁먹고 있었다. 이들은 매일 러시아 대사에게로 가 불만을 토로했고 지원요청을 했다. 토마스의 글이 발표되었을 때 그들은 외쳤다. 이 정도에까지 왔군! 우리들의 눈알을 파내야 한다고 이미 공공 연히 글을 쓰고 있어! 2, 3개월 뒤에 러시아인들은 그들의 행정구역 안에서는 자유로운 토론을 용납 않는다는 결의를 했다. 그리고 그들은 군대로 단 하루밤 사이에 토마스의 고국을 점령했다. 3 쿨리히에서 프라하로 돌아온 뒤 토마스는 다시 그가 있던 병원에서 일했다. 그러나 곧 그의 과장은 그를 자기에게 오도록 했다. 「동료, 보게나. 결국 자네는 작가도, 기자도, 국민의 구원자도 아니고 의사이며 학자일 뿐이야. 난 자네를 놓치기 싫네. 자네를 여기 붙들어두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네. 그러나 자네는 자네가 쓴 오이디푸스 기사를 철회해야 하네. 그 기사 가 자네에게 그토록 소 @p 216 중한가?」 하고 그는 토마스에게 말했다. 「과장님」 하고 토마스는 말하고, 신문사측에서 그의 글을 3분의 1 가량을 절 단해 버렸다는 것을 생각했다. 「그것보다 덜 소중한 것은 내겐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슨 문제인지 자네는 알고 있겠지」 하고 과장 의사는 말했다. 물론 그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두 가지 것이 저울의 양쪽에 놓여 있었다. 한 쪽에는 그의 명예가(그가 일단 썼던 것은 아무것도 철회하지 말라고 이 명예는 요구했다), 다른 쪽에는 그가 통상적으로 삶의 의미로서 간주했던

것(학자와 의 사로서의 그의 일)이 놓여 있었다. 과장 의사는 말을 계속했다. 「전에 일단 말했던 것을 공개적으로 철회할 것 을 바라는 요구는 아주 중세적인 것이야. 도대체 <철회한다> 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현대에서는 생각을 논박할 수 있을 뿐이지 철회란 있을 수가 없지. 동료, 보게나, 어떤 생각을 철회한다는 것은 그리고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며, 순전히 언어적이고, 형식적이고 마술적인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들이 자네에 게 요구하고 있는 것을 자네가 못할 이유를 나는 모르겠네. 테러에 의해 통치되 고 있는 사회에서 갖가지 선언, 성명들은 강요된 것이기 때문에 구속력이 없는 것이야. 그러한 성명들을 알려고 하지 않는 것, 아예 듣지 않는 것이 모든 정직 한 사람의 의무야. 동료, 자네에게 말해 두겠네. 자네가 자네의 일을 여기서 지 속할 수 있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며 자네 환자를 위한 것일세」 「과장님의 말이 확실히 옳습니다」 하고 토마스는 불행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런데?」 하고 과장 의사는 토마스의 생각을 알아내려 했다. 「부끄러울까 걱정됩니다」 「누구 앞에서 말인가? 자네는 자네 주위의 사람들이 자네에 대 @p 217 해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것이 소중한다고 여길 만큼 그들에 대해 그토록 고 상한 견해를 지니고 있는가?」 「아닙니다. 그들에 대해 고상한 견해를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하고 토마스 는 말했다. 「뿐만 아니라」 하고 과장 의사는 보충해서 말했다. 「공개적인 선언이 문제 되는 게 아니라고 내게 확실하게 말해 주었네. 그들은 관료주의자들이야. 자네가 반정부 인사가 아니라는 증거를 그들은 그들의 서류에 필요로 하는 거야. 그것 은 자기들이 자네에게 이 직장을 그대로 갖도록 했다고 비난을 받을 경우 증거 로 대비하기 위한 것이네. 자네의 선언은 우리들만 아는 것으로 해두고 그것을 공표할 의도를 갖고 있지 않다고 내게 약속했네」 「제게 일주일 생각할 시간을 주십시오」 하고 토마스는 이 대화를 끝냈다. 4 토마스는 그 병원의 제일 유능한 의사로 통했다. 정년퇴임을 바라보고 있는 과장 의사가 곧 그에게 자기의 자리를 물려줄 것이라는 말을 벌써 사람들은 수 군거렸다. 상부기관이 토마스로부터 자기 비관을 요구했음이 알려졌을 때 그가 순종하게 될 것임을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다. 그것은 그를 깜짝 놀라게 한 최초의 것이었다. 그가 자아비관을 쓸 동기를 여 지껏 조금도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의 성실성보다는 그의 불명에 두려움을 믿었다. 그를 깜짝 놀라게 한 두번째 것은 예견할 수 있었던 그의 태도 @p 218 에 대한 동료들의 반응이었다. 나는 이 반응을 두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다. 첫번째 반응 유형을 보인 것은 (자기들 스스로가 아니면, 자기들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철회했었고 점령군 정부에 동의한다는

것을 선언하 도록 강요받았거나, 아니면 그렇게 할 마음을 가졌던(비록 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런 것을 기꺼이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그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이상한 미소를 띄우고 그를 대했다. 그것은 내일의 공범자적 수줍음을 띤 미소였다. 그것은 우연히 창가에서 만나는 두 남자의 미소다. 그들은 약간 수줍어한다. 동시에 그들은 이 수줍음이 서로에게 있다는 데 기뻐한다. 그들간에는 우애의 유대가 생겨난다. 그들은 그가 타협주의자라는 평판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에게 더욱더 만족해서 미소지었다. 과장 의사의 제의에 대한 그의 전제된 동의는 비 굴이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태도의 규범으로 되어 곧 더 이상 비굴 본래의 것으로 감지되지 않는다는 증거가 되었다. 이들은 그의 친구로 여긴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가 이 자아비판 선언을 할 경우 그들은 그를 자기 집으로 초대하여 그와 좋은 친구가 되고자 한다는 것이 그에게 명백해지자 그는 깜짝 놀랐다. 두번째 반응 유형은 (자기들 자신이, 아니면 자기들과 가까운 사람들이) 박해 받아 점령군과의 어떠한 타협에도 응하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서나, 혹은 어떤 타협이나 어떤 선언을 할 것이라고는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로써(예컨대 너무 젊어 아직 아무 일에도 말려들 수 없었기 때문이다) 절대 그와 같은 것에는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관찰할 수 있었다. @p 219

그들 중 한 사람은 매우 재능 있는 젊은 의사 S로서, 그는 토마스에게 물었다. 「그래서요, 당신은 그들에게 그것을 주었나요?」 「도대체 당신은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거요?」 하고 토마스가 물었다. 「당신 자아비판 말이오」 하고 S가 말했다. 그는 악의를 담고 말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미소까지 지었다. 그런데 그것은 미소의 풍부한 표본실에서 나온 전혀 다른 미소였다. 그것은 자족적인 도덕적 우위의 미소였다. 토마스는 말했다. 「이봐요, 도대체 당신은 내 자아비판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던 말이오. 그것을 읽기라도 했나요?」 「아니오」 하고 S는 대답했다. 「그렇다면 무슨 소리를 떠벌리고 있는 거요?」 하고 토마스는 말했다. S는 여전히 자족적인 미소를 지었다. 「이봐요, 그것이 어떻게 될지는 뻔한 일이오. 그와 같은 선언은 원장, 장관, 아니면 어느 누구에게 보내는 편지형식으로 씌어지게 되죠. 그러면 이들은 편지 쓴 사람이 비굴하게 느끼지 않도록 편지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죠. 그렇지 않은가요?」 토마스는 어깨를 으쓱하고 계속 들었다. 「그러면 그 성명은 책상서랍에 잘 넣어두죠. 그리고 그것을 쓴 사람은 그것이 언제고 공개될 수 있다는 것을 알죠. 이러한 전제 아래 그는 어떤 것도 말할 수 있게 되지 않죠, 더 이상 아무것도 비판할 수도,

항의할 수도 없게 되죠. 왜냐하면 그럴 경우 그 선언이 공개될 것이며 그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품위를 떨어뜨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볼 때 그것은 선수치는 멋진 방법 이죠. 그보다 더 나쁜 것을 감수해야 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죠. 「선수치는 방법이리지, 틀림없어요」 하고 토마스는 말했다. 「내가 @p 220 그와 같은 것에 응했다고 누가 당신에게 말했는지 궁금할 뿐이오」 그 동료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의 미소는 여전히 그의 얼굴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토마스는 이상한 것을 눈치챘다. 말하자면 모두가 그에게 미소지었다. 모두가 그가 철회성명을 쓰기를 바랐다. 그렇게 한다면 그는 모두에게 일종의 기쁨을 마련해 주었을 것이다. 한쪽 사람들은 비굴의 인플레이션이 그들 자신의 행동을 대수롭지 않게 만들어 그들에게 잃어버린 명예를 되돌려주기 때문에 기뻐했을 것이다. 다른 쪽 사람들은 자신들의 명예를 그들이 포기하려 하지 않는 각별한 특권으로 간주하는데 익숙해 있었다. 그 때문에 그들은 비굴한 사람들에 대한 은밀한 애정을 품고 있었다. 이들 비굴한 자들이 없이는 그들 자신의 확고한 태도는 일상적인, 소용없는, 아무도 경탄해 주지 않는 노력이 되고 말 것이다. 토마스는 이 미소를 참을 수 없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어디에서나, 하물며 길에 있는 모르는 사람들의 얼굴에서도 본다고 믿었다. 그는 더 이상 참을 잘 수 없었다. 어떻게 그것이 있을 수 있는가? 그가 이들에게 그와 같은 비중을 두고 있는가? 아니다. 그는 그들에 대해 전혀 좋게 생각하지 않으며 자기 자신에 대해 화를 내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그들의 시선에 그토록 혼란되고 있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논리라곤 없다. 그런데 주위 사람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는 자가 이들의 견해에 그토록 얽매어 있다는 것은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가? 사람들에 대한 그의 깊은 불신(자기에 대해 결정하고 판단할 권리가 과연 그들에게 있는가 하는 그의 회의)은 이미 그의 직업선택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이를 통해 그는 사회대중의 시선에 내맡겨지는 것을 제외시켰던 것이다. 예컨대 정치적인 직업을 갖겠다고 결정하는 사람은 대중을 자발적으로 자신의 법관으로 삼는 @p 221 다. 그는 자기가 이 대중의 호의를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순진하고도 솔직하게 믿는다. 또한 있을 수 있는 대중과의 견해차는 그가 더욱더 큰 업적을 이루도록 그를 채찍질해 준다. 이것은 마치 토마스가 복잡한 진단에서 어떤 자극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다. 정치가나 배우와는 반대로 의사는 자기의 환자 및 가장 가까이에 있는 동료들에 의해, 말하자면 네 벽 사이에서 인간 대 인간으로 판단받는다. 자기를 판단하는 사람들의 시선에 대해 그는 바로 그 순간 자기 자신의 시선으로 응답할 수 있고,

무엇을 해명하거나 자신을 방어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토마스는 (자기 평생 처음으로) 자기가 감지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시선들이 자기에게 향하고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그는 자기 자신의 시선으로도, 자기 자신의 말로도 그것들에 응답할 수 없었다. 그는 그 시선들에 내맡겨진 셈이었다. 병원 안에서, 병원 밖에서 그에 대해 언급되었다(그 당시 불안한 프라하에는 누가 체념적이 되었고, 누가 밀고했고, 누가 동조했는가 하는 소식이 마치 아프리카 사람들이 북을 치듯 빠른 속력으로 번졌다). 토마스는 그러한 상황을 알았지만 그것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가 없었다. 그것이 그에게 얼마나 참아내기 힘든가, 그것이 그를 얼마나 큰 공포 속으로 빠져들게 하는가를 알고는 그 자신 몹시 놀랐다. 자기 인물에 대한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그의 마음에 몹시 놀랐다. 자기 인물에 대한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그의 마음에 몹시 거슬렸다. 그것은 마치 서로 밀치는 군중, 혹은 악몽에서 우리들 몸에서 옷을 잡아채는 인간들과의 접촉과 같았다. 그는 과장 의사에게 자기는 아무것도 사인하지 않겠다고 털어놓았다. 과장 의사는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그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이 결단을 이미 예견했노라고. 토마스는 말했다. 「과장님, 어쩌면 이 성명을 제가 하지 않고도 @p 222 저를 여기 잡아놓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는 이 말로써, 자기가 해고될 경우 자기의 모든 동료들이 사퇴하겠다고 위협하면 그것으로 충분할 것임을 암시하려 했다. 그러나 직장을 사퇴하겠다고 위협할 생각이 아무에게도 들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토마스는 얼마 뒤 병원에서의 자기 일자리를 포기해야만 했다(과장 의사는 그의 손을 더욱더 힘있게 잡아 그의 손에는 푸른 반점들이 자국으로 남았다). 5 우선 그는 어떤 지방병원에서 일하게 되었다. 프라하에서 약 80킬로미터 떨어진 곳이었다. 매일 그는 기차로 그곳으로 갔고 기진맥진해서 돌아왔다. 1년이 지난 뒤 그는 가까운 종합병원에서 보다 편안한 직장을 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직장은 그에게 좌천을 의미했다. 그는 더 이상 외과의로서 일할 수 없었고 단순한 의사로서 일할 수 있을 뿐이었다. 대합실은 계속 만원이었다. 그는 환자 한 명에게 거의 5분도 시간을 할애할 수 없었다. 그는 환자들에게 아스피린을 처방하고, 작업불능증서의 기재란에 기록하고, 환자를 전문진찰을 받도록 보내는 것이었다. 그는 자신을 더 이상 의사로 보지 않고 다만 서기로서 보았다. 어느 날 그는 면담시간이 끝난 뒤 약 50세 가량의 남자로부터 방문을 받았다. 이 남자의 풍만한 모습이 그에게 어떤 위엄을 부여했다. 그는 자신을 내무부 과장으로 소개했고 토마스를 맞은편에 있는 식당으로 초청했다. 그는 포도주 한 병을 주문했다. 토마스는 항의했다. 「나는

자동차 @p 223 차를 타고 왔는데요. 경찰에 걸릴 경우 나는 면허증을 빼앗겨요」 내무부의 이 직원은 웃었다. 「무슨 일이 생기면 나를 대신요」 그리고서 그는 토마스에게 명함을 건네주었다. 명함에는 그의(틀림없이 거짓) 이름과 내무부의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다. 그리고서 그는 자기가 토마스를 얼마나 높이 평가하고 있는가에 대해 오랫동안 이야기했다. 토마스과 같은 훌륭한 외과외과가 교외의 종합병원에서 아스피린을 처방해야 한다는 것을 내무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전문가들을 그들 직장에서부터 축출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과격한 조치에 경찰이 도와주고 있지 않다는 것을 그는 토마스에게 간접적으로 이해하도록 해 주었다. 물론 이 사실을 경찰은 소리 높여 말할 수는 없다고 했다. 토마스가 벌써 오랫동안 아무에게서도 칭찬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이 뚱뚱한 남자의 말에 귀가 솔깃했다. 그리고 그는 이 남자가 자기의 직업 성과에 대해 너무나도 정확히 세부적으로 알고 있는 데 대해 아찔했다. 하지만 아침하는 말에 우리는 얼마나 맥을 못 쓰는가! 토마스는 내무부의 이 남자가 말하는 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도 실은 허영에서뿐만 아니라 오히려 경험부족 탓이었다. 친절하고 존경심을 보이고, 정중한 사람과 마주앉아 있을 때 그가 말하는 모든 것이 아무것도 참되지 않으며, 또 아무것도 정직하게 말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늘상 명백히 한다는 것이 우리에게겐 몹시 어렵다. 그것을 (항시, 체계적으로, 어떠한 의심도 없이) 믿지 않기 위해서는 무지무지한 힘이 들며, 그 외에도 연습, 다시 말하면 자주 경찰신문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바로 이러한 연습이 토마스에게는 없었다. 내무부의 이 남자는 말을 계속했다. 「의사 선생, 당신이 췌리히에서 아주 좋은 직책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소. @p 224 우리는 당신이 우리나라로 돌아온 것을 아주 높이 평가하오. 그것은 당신이 아주 잘한 일이오. 당신은 어디가 당신이 있을 곳인가를 알았던 것이오」 그리고서 그는 토마스에게 무엇을 비난하려는듯 덧붙여 말했다. 「그러나 당신이 있을 곳은 수술대요!」 「그 점에 대해서는 나도 당신의 견해와 같소」 하고 토마스는 말했다. 잠시 서로가 말이 없었다. 그런 다음 내무부의 그 남자는 걱정스런 목소리로 말했다. 「그런데 의사 선생, 말해 주시오. 정말 당신은 공산주의자들의 눈을 찌러 파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그토록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을 회복시켜 준 당신 같은 사람이 그와 같은 것을 말한다는 것이 이상하게 생각되지 않소?」 「그것은 하지만 완전히 넌센스요」 하고 토마스는 변호하려 했다. 「내가 무엇을 썼는가를 한번 정확히 읽어보시오!」 「나는 당신의 글을 읽었어요」 하고 내무부의 이 남자는 말했다. 그런데 그의

어조는 암담한 듯 들렸다. 「그런데 거기에 공산주의자들의 눈을 찢어 파내야 한다고 적혀 있던가요?」 「모두 그렇게 이해했는데요」 하고 내무부의 남자는 말했다. 그런데 그의 목 소리는 더욱더 근심스런 어조를 띠었다. 「당신이 내가 썼던 글 모두를 읽었던들 당신은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지 않았을 거요. 그 글은 삭제되어 실렸어요」

「무어라고요?」 하고 그 남자는 말하고 귀를 쫑긋 세웠다. 「그렇다면 당신의 글이 당신이 썼던 대로 활자화되지 않았나요?」 「그것이 삭제되었어요」 「많이요?」 「약 3분의 1 가량」 내무부의 이 남자는 솔직히 화가 난 듯 보였다. 「그것은 그런데 @p 225 다른 편에서 정직하게 기획했다고 볼 수 없는데요」 토마스는 어깨를 으쓱했다. 「당신은 그것에 항의했어야죠! 즉각적인 정정을 요구했어야죠!」 「그 뒤 곧 러시아군이 침공했는데요! 그때 우리에게 다른 걱정거리가 있었소」 하고 토마스는 말했다. 「그런데 당신이 의사로서 어떤 사람들의 시력을 빼앗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고 사람들이 믿게끔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요?」

「하지만, 이봐요, 이 기사는 신문 뒤쪽 어디엔가 독자 서신들 사이에 실렸었어요. 아무도 그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소. 러시아 대사관 외에는요. 그 기사가 러시아 대사관에는 중요하게 생각되었기 때문이요」

「그렇게 말하지 마시오, 의사 선생! 나는 당신의 그 기사에 대해서 토론한 많은 사람들과 직접 이야기해 보았어요. 그들은 당신이 그와 같은 기사를 쓸 수 있었다는 데 대해 놀라게 여기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그 기사가 당신이 썼던 그대로 게재되지 않았다고 당신이 내게 말해 주었기 때문에 많은 것이 내게 보다 명백하게 되었소. 당신은 그 기사의 기고를 부탁받았던가요?」 「아니오」 하고 토마스는 말했다. 「나 자신의 동기에서 그것을 신문사에 보냈소」 「그 사람들을 알고 있나요?」 「어떤 사람들 말이오?」 「당신의 기사를 실었던 사람들 말이오」 「모르는데요」 「그들과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나요?」 「단 한 번요. 편집실에 들러야 했었죠」 「무엇 때문이죠?」 「그 기사 때문이죠」 @p 226 「그렇다면 누구와 면담했나요?」 「편집실 직원과요」 「그의 이름이 무엇이었죠?」 이제서야 비로소 토마스는 자기가 심문받고 있다는 것을 명백히 알았다. 그는 갑자기 자기가 한 하나하나의 말이 다른 사람을 위협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 직원의 이름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거부했다. 「모르겠는데요」 「하지만 이봐요, 의사 선생」 하고 그 남자는 토마스가 솔직하지 못한 데 대해 화가 나서 말했다. 「하지만 그는 틀림없이 자기 소개를 했을 것이 아니오!」 우리들의 훌륭한 교육이 경찰의 동맹자가 되었다는 것은 희비극적인 것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거짓말을 할 줄 모른다. 우리에게

어머니와 아버지가 주입시 킨 <진실을 말하라!> 라고 하는 명령은 우리가 우리를 심문하는 경찰관 앞에서 까지도 거짓말하는 것을 자기도 모르게 부끄러워하는 결과를 빚는다. 경찰과 다 두고 그를 모욕하는 것이(이것은 완전히 무의미한 짓이다), 그와 얼굴을 맞대고 거짓말하는 것(이것이 유일하게 올바른 처사일 것이다)보다 우리에게 훨씬 쉽다. 내무부의 남자가 토마스가 솔직하지 못한 것을 비난하자 토마스는 자신이 거의 죄를 지은 듯 생각되었다. 그는 계속 자기의 거짓말을 옳은 것으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도덕적인 장애물을 돌파해야 했다. 「아마 그는 자신을 소개했겠죠. 하지만 그의 이름은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나는 그의 이름을 잊었소」 하고 그는 말했다. 「그의 외모는 어떠했던가요?」 그가 그때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던 편집부 직원은 키가 작았고 금발의 스포츠 머리를 하고 있었다. @p 227 토마스는 그와는 정반대로 진술을 하려 애썼다. 「그는 키가 컸고, 길고 검은 머리를 하고 있었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그의 턱이 크죠」 하고 내무부의 이 남자는 말했다. 「바로 그래요」 하고 토마스가 말했다. 「몸이 앞으로 좀 굽어 있죠」 「그래요」 하고 토마스는 그의 말에 찬성했다. 그리고는 그 순간 내무부의 그 남자가 자기에겐 문제되고 있는 편집부의 그 사람을 틀림없다고 확인했다는 것을 토마스는 알았다. 그것을 넘어서서 그의 밑고는 더구나 거짓이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가 당신을 편집부로 초청했나요? 무엇에 대해 당신은 말했던가요?」 「문장 구조변경이 문제되었죠」 이 말은 어처구니없는 핑계처럼 들렸다. 내 무부의 그 사람은 토마스가 자기에겐 사실을 말해 주지 않으려고 하는 데 다시 금화가 났다. 「하지만 의사 선생님! 방금 당신은 당신의 글이 3분의 1 삭제되었 다고 내게 확인했어요. 그런데 이제 당신은 문장 구조변경에 대해 토의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논리적이 못 돼요!」 토마스는 이제는 보다 쉽게 대답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그가 말한 것은 사실 과 일치했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논리적이 못 되지만 사실이 그래요」 하고 그는 웃었다. 「편집부에서는 문장 어순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줄 것을 내 게 부탁했어요. 그런 다음 한 마디 말도 없이 3분의 1을 삭제했던 거죠」 내무부의 그 남자는 그와 같은 비도덕적 행동을 납득할 수 없다는 듯 다시금 머리를 젖고 말했다. 「당신에 대한 그들의 짓거리는 아주 올바르지 못했어요」 @p 228 그는 잔을 비우고 면담을 마무리했다. 「의사 선생님, 당신은 조작의 희생이 되 었던 거요. 당신과 당신의 환자들이 그 대가를 치르지 않을 수 없다면 정말 유 감스런 일이요. 의사 선생님, 우리는 당신이 어떤 성분을 지니고 있는가를 살펴보 겠습니다」 그는 토마스에게 손을 내밀어 다정하게 악수했다. 그들은 식당을 떠났다.

그리고 각자 자기 자동차로 갔다. 6이 면담 후 토마스는 말할 수 없이 나쁜 기분에 빠졌다. 그는 그 대담의 호의적인 어조에 말려들었던 자신을 비난했다. 경찰관과의 면담을 그가 거절을 할 수는 없었지만(그는 그러한 상황에 전혀 대비하지 못했고 그럴 때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랐다) 마치 친구처럼 그와 함께 음식점에 들어가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적어도 거절했어야 되었을 것이다! 이런 형사 유형을 알고 있는 어느 누가 토마스를 보았다면? 그는 토마스가 경찰의 앞잡이라고 결론지었음에 틀림 없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는 자기의 글이 삭제되었다고 그에게 말했는가? 무엇 때문에 그는 전혀 불필요한 이 정보를 그에게 주었는가? 그는 자기 자신에게 아주 불만스러웠다. 2주 후 내무부의 그 남자가 다시 왔다. 그는 다시 건너편에 있는 식당으로 가 고자 했다. 하지만 토마스는 자기 면담실에 있어 줄 것을 그에게 부탁했다. 「의사 선생, 당신을 이해하겠소」 하고 그는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다. @p 229 이 문장은 토마스로 하여금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도록 했다. 내무부의 그 남자는 마치 상대방에게 앞서 둔 장기말이 실수있음을 확인시켜 주는 장기놀이하는 사람처럼 말했다. 그들은 서로 마주보고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들 사이에는 토마스의 책상이 놓여 있었다. 약 10분간 그들은 만연하고 있던 독감 유행병에 대해 담화를 했다. 그런 다음 그 남자는 말했다. 「의사 선생, 우리는 당신 케이스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았소. 그것이 우리 문제로 국한된다면 일은 간단할 것이오. 그러나 우리는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소. 당신이 바랐든 바라지 않았든 간에 당신은 당신이 쓴 기사로 반공적 히스테리를 부채질했소. 그 때문에 당국은 당신을 당신의 기사 건으로 기소할 것을 제의까지 했다는 사실을 나는 당신에게 숨기지 않겠소. 그렇게 하기 위한 법 조항이 있소. 공공연한 폭력 교사요」 내부부의 그 남자는 침묵하고 토마스의 눈을 노려보았다. 토마스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 남자는 무마하는 어조로 말했다. 「우리는 이 제의를 거절했소. 당신의 죄가 어떠한 간에 당신의 능력이 가장 효과적으로 투입될 수 있는 곳에서 당신이 일하는 것은 이 사회를 위한 것이오. 당신의 과장 의사는 당신을 높이 평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또한 당신의 환자들로부터의 보고도 입수하고 있소. 의사 선생, 당신은 훌륭한 전문의요! 의사가 정치에 통달하고 있을 것을 아무도 요구할 수 없소. 당신은 속임수에 결려들었던 것이오. 이 일을 깨끗이 청산해야 하오. 그 때문에 우리는 당신에게 해명의 글을 제의하고자 하오.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 글을 당신이 신문사에 맡겨 처리하도록 해야 할 것 같소. 우리는 당신의 해명서가 적절한 시점에 게재되도록 주선하겠소」 그리고서

그는 토마스에게 종이 한 장을 건네주었다. 토마스는 거기에 써 있는 것을 읽고 너무나도 놀란 나머지 꼼짝 @p 230 하지 못했다. 그 글은 2년 전 그의 과장 의사가 그로부터 요구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했다. 그것은 단순히 그의 오이디푸스 기사를 철회하는 정도가 아니었다. 거기에는 소비에트 연방에 대한 사랑, 공산당에 대한 충성에 관한 문장들이 있었다. 나라를 소위 시민전쟁으로 유도하려고 했던 지식인들을 비난하는 글이 문제되었다. 무엇보다도 그 해명서에는 작가들이 주간지 편집인들을 밀고하는 문장이 들어 있었다. 그리고 이 문장에는 그 키 크고 몸이 앞으로 굽은 편집인 이 그의 이름과 함께 언급되었다(토마스는 그를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하지만 그의 이름과 사진을 통해 그를 알고 있었다) 이들 편집인들은 그가 기고한 글을 반혁명적 호소문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그것에 다른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그것을 의식적으로 오용했노라고 했다. 또한 그들은, 그러한 기사를 스스로 작성 하기에는 너무나도 비굴하여 순진한 의사의 뒤에 숨었노라고 했다. 내무부의 그 남자는 토마스의 눈에서 아연실색하는 놀라움을 읽었다. 그는 앞으로 몸을 굽혀 책상 밑 토마스의 무릎을 동료 같은 태도로 툭툭 쳤다.

「의사 선생, 이것은 제의에 불과하오! 숙고해 주기 바라오. 그리고서 만약 당신이 어떤 표현을 변경하고 싶으면, 물론 우리는 그것에 대해 합의를 볼 수 있을 것이요. 결국 그것은 당신의 해명서이니깐요」

토마스는 그 종이를 단 1분이라도 더 오래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두려워하듯 그것을 형사에게 돌려주었다. 그는 누가 그것에서 자기의 지문이라도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믿는 것처럼 그것을 거의 떨어뜨릴 뻔했다. 그 종이를 받는 대신 내무부의 그 남자는 꾸민 태도로 이상하다는 듯 두 팔을 폈다(그것은 교황이 발코니에서 밑에 있는 군주들을 축복하는 제스처와 똑같은 동작이었다). 「아니, 의사 선생, 무 @p 231 엇 때문에 그것을 내게 되돌려주려는 거지요? 안심하고 그것을 가져요. 집에 가서 조용히 그것을 숙고해 보기 바라오」 토마스는 머리를 저었고 그 종이를 받아달라고 완강히 쪽 뺀 손에 잡고 있었다. 내무부의 남자는 축복하는 교황 흉내를 그만두었다. 그는 그 종이를 도로 받지 않을 수 없었다.

토마스는 자기는 절대 무엇을 쓰거나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에게 강력히 말하려 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 그는 이 어조를 바꾸었다.

「나는 문맹자가 아니요. 무엇 때문에 내가 나 자신이 쓰지도 아니한 글에 서명을 해야 하나요?」 「좋아요, 좋아요. 의사 선생, 우린 달리 할 수도 있어요. 우선 당신 스스로가 그 글을 쓰시오. 그런 다음 함께 그것을 보기로 합시다. 당신이 방금 읽은 것은 하지만 적어도 당신에게 참고는 될 수 있을 거요」 왜 토마스는 이 형사의 제의를 단호히 거절하지

않았는가? 다음 생각들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갔다. 이런 종류의 해명서들은 온 국민의 도덕률을 문란시킨다는 사실(바로 이 점이 러시아인들의 작전이 노린 것임은 분 명하다)을 도외시한다고 해도, 그의 경우 경찰은 아마도 구체적인 목적을 추구했 을 것이다. 즉, 토마스의 글이 실렸던 신문의 편집인들에 대한 재판이 준비되고 있었을 것이다. 그것이 사실일 경우 그들은 심리를 위한 증거물로서, 그리고 이 들 편집인들에 반해서 전개될 언론 캠페인의 부분으로서 토마스의 해명서를 필요로 했을 것이다. 만약 그가 이 순간 확정적으로, 강력히 거절한다면 경찰이 준 비한 그 해명서에 자기의 위조 서명을 해서 발표하는 위협에 자신을 내맡기는 결과를 빚을 것이다. 어떤 신문도 자기의 서명이 아니라고 부정하는 글을 실어 주지 않을 것이다.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자기가 그 해명서를 쓰지 않았고, 서명 도 하지 않았음을 믿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은 @p 232 른 사람들의 도덕적인 비굴에 대해 훨씬 더 즐거워하지, 어떤 해명을 통해 이 즐거움을 깨고자 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이미 오래전에 깨달았다. 그는 이 형사에게 그 성명을 자신이 쓰려 한다는 희망을 줌으로써 시간의 여 유를 가졌다. 바로 그 이튿날 그는 서면으로 직장에 사표를 제출했다. 그가 자발 적으로 사회계층의 제일 밑바닥으로 내려가면(그 말고도 당시 다른 분야에서 일 하던 많은 지식인들이 그곳으로 내려갔었다) 경찰을 곧 그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며 그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게 될 것임을 그는 전제했다(이것은 옳았다). 그러한 상황 아래에서 그들은 소위 그가 서명한 것으로 되어 있는 해명 서를 신문에 게재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내용이 전부 믿기지 않을 것이 기 때문이다. 치욕적인 공개해명들은 언제나 서명자의 승진과 연관되었지 그의 하강과 결부되지 않았다. 토마스의 나라에서는 의사들은 국가가 임용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국가는 그들을 해직할 수 없고, 해직해서도 안 된다. 토마스와 사표수리에 대해서 교 섭한 관리는 토마스의 좋은 평판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토마스를 높이 평가했 다. 그래서 그는 토마스가 자기 직장을 그만두지 않도록 설득하려 했다. 토마스는 갑자기 자기가 올바른 결단을 했는지의 여부가 확실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 다. 그러나 그는 자기 결단에 대한 일종의 성실한 약속으로 인해 책임감을 느껴 자기 결단을 고집했다. 그래서 그는 창문 청소부가 되었다. @p 233 7 토마스가 여러 해 전 쿼리히에서 프라하로 돌아올 때 그는 몰래 자신에게 말 했다. 「그렇게 할 수밖에!» 그때 그는 테레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생각했다. 국경을 넘어온 직후 그는 정말로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었던가를 의심하기 시 작했다. 그는 오직 사슬처럼 연결된 일련의

미소짓는 우연들이 그를 테레사에게 이끌어갔던 것을 눈앞에 생생히
그려보았다. 7년 전에 일어났던 우연들로서(그리고 이들 우연의
시작에는 그의 과장 의사의 좌골 신경통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제 그를
빠져나올 수가 전혀 없을 우리 속으로 도로 가두고 말았다. 그의 삶에
있어 〈그렇게 할 수밖에〉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인 필연성이 전혀
없다는 것을 뜻하는가? 이 필연성은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현존한다고
나는 믿는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직업이었다. 그로 하여금
의학공부를 하게끔 한 것은 우연도, 타산도 아닌 깊은 내면적인 욕구였다.
인간을 카테고리별로 분류하는 것이 도대체 가능하다면 우리는 우선
틀림없이 인간을 이 생활활동, 혹은 저 생활활동에 종사하게끔
이끌어가는 그들의 실존적 욕구에 따라 그렇게 할 수 있다. 프랑스
사람은 각각 다르다. 하지만 이 세상의 배우들은 파리에 살든, 프라하에
살든, 혹은 제일 작은 지방극장에서 활동하든 모두 같다. 어릴 때부터
자기 평생을 익명의 관중에게 바치는 데 동의하고 있는 사람이 배우다.
탈런트의 재능과는 무관한, 이 재능보다 더 깊은 무엇인, 그러한
근본적인 동의가 없이는 배우가 되지 못한다. 이와 비슷하게 평생 동안
시종일 관 인간 육체에 종사할 @p 234 것에 동의하는 사람은 의사다.
이러한 근본적 동의가(재능도 숙달성도 전혀 아니다) 그로 하여금
대학공부의 첫해에 해부실에 들어가게 할 수 있고 또 6년 뒤 의사가
되도록 할 수 있다. 외과의술은 의사 직업의 근본적 명령을 인간적인 것과
신적인 것이 서로 접하는 극단적 한계에 이르기까지 수행했다. 온 힘을
다해 방망이로 어느 누구의 머리를 내려치면 그는 실신하고 영원히
숨쉬기를 중단한다. 그러나 언젠가는 그는 그렇지 않아도 숨쉬기를
중단할 것이다. 그와 같은 살인은 하나님 자신이 좀 뒤에 가서 했을
것을 선취한 데 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그 살인을
계산하고 있었지, 외과의술은 계산하고 있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나님이 생각해 내고 정성스럽게 피부 속에 집어넣고 봉해서 인간의
눈으로는 보지 못했던 인간 육체 조직의 내면에 감히 손을 집어넣을
것이라고는 하나님은 추측조차 할 수 없었다. 토마스가 마취되어 누워
있는 남자의 피부에 처음으로 해부도를 갖다대고, 단호한 태도로 정확히
절단하여 이 피부를 절개하려 했을 때(마치 이 피부가 생명 없는 옷감,
외투, 옷웃, 혹은 커튼인 양), 그는 잠시 동안이나마 신성모독의 죄를
범했다는 느낌을 절실하게 가졌었다. 그러나 또한 바로 그것이 그를
매료시켰던 것이었다. 그것이 바로 그의 내면 깊숙이 뿌리박고 있었던
〈그렇게 할 수밖에!〉였다. 그리고 이것으로 그를 이끌어갔던 것은 어떠
한 우연도, 과장 의사의 좌골신경통도 아니요, 어떤 외적인 것도

아니었다. 그런데 그토록 그에게 속했던 것을, 그가 그토록 재빨리, 단호히 그리고 쉽게 포기할 수 있었던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는 우리에게 대답할 것이다. 경찰이 자기를 오염할 수 없도록 그렇게 했노라고. 그것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실제 그러한 경우들이 있었다), 솔직히 말해서 경찰이 거짓해명서에 자기 @p 235 의 서명을 만들어서 발표했으리라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물론 개연성이 희박한 위험까지도 두려워할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다. 또한 토 마스가 자기 자신에게 자기의 미숙한 행동에 화가 났었다고, 그리고 그의 무력 감을 더욱더 강하게 했들 뿐인 경찰과의 접촉을 그가 피하려 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다. 그 외에도 그가 자기의 직업을, 그렇지 않아도 이미 상실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 왜냐면 그가 아스피린을 처방하는 종합 병원에서의 이 기계적인 작업은 의사 직업에 대한 그의 생각과 더이상 아무런 공통점을 갖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런 그의 결단은 내겐 이상하게 여겨진다. 그 이면에 어떤 다른 것이, 그의 속고에 들어오지 않았던 어떤 보다 깊은 것이 놓여 있지는 않은가? 8 비록 토마스는 테레사 때문에 베토벤을 좋아하기 시작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음악에 대해 많이 이해하지는 못했다. 그래서 나는 과연 그가 베토벤의 유명한 모티브인 〈그렇게 해야 하나요? 그렇게 할 수밖에!〉의 참된 내력을 알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그 내력은 다음과 같다. 어떤 템프셔라는 사람이 베토벤에게 50굴덴의 빚을 졌다. 돈이 없어 줄곧 궁한 처지에 있던 이 작곡가는 그에게 빚진 것을 상기시켰다. 「그렇게 해야 하나요?」(역주: 「돈을 갚아야 하나요?」)하고 템프셔는 불행한 표정으로 한숨을 지었다. 그러자 베토벤은 쾌활하게 웃었다. 「그렇게 할 수밖에」하고,, 그는 이 말을 즉각 그의 악보책에 기록하고, 사실적인 이 모티브에 @p 236 맞추어 네 목소리를 위한 짧은 음악작품을 작곡했다. 세 목소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그렇게 할 수밖에, 그래요, 그래, 그래〉를 노래 불렀고, 제4의 목소리는 그것에 첨부해서 노래한다. 〈돈주머니를 꺼내!〉하고. 1년 뒤 바로 이 모티브는 베토벤의 최후의 4중주곡, 작품 번호 135의 제4악장의 기본 테마가 되었다. 그때 베토벤은 더 이상 템프셔의 돈주머니를 생각하지 않았다. 〈그렇게 할 수밖에!〉는 그에게 마치 운명 자신이 이 말을 하듯 점점 더 엄숙한 음조를 띠게 되었다. 적절히 강조된 〈안녕하시오〉하는 말까지도 칸트의 언어에서는 형이상학적인 논제가 될 수 있다. 독일말은 무거운 단어들로 된 언어다. 〈그렇게 할 수밖에!〉는 전혀 농담이 아니었다. 〈힘겹게 내린 결단〉은 더욱더 농담이 아니었다. 베토벤은 말하자면 농담조의 착상을 진지한 4중주곡으로 변화시켰다. 농담을

형이상학적 진실로 변화시켰던 것이다. 이것은 가벼운 것에서 무거운 것으로 넘어가는(혹은 파르메니데스의 말을 빌리면: 긍정적인 것에서 부정적인 것으로 넘어가는)것을 위한 재미있는 본보기다. 다른 한편으로는 만약 베토벤이 그의 4중 주곡의 진지성을 템프서의 돈주머니에 대해 4성부의 카논이 펼치는 가벼운 농담으로 변화시켰다면 우리는 몹시 화를 낼 것이다. 그렇게 할 때 그는 완전히 파르메니데스의 정신에 입각해서 행동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는 무거운 것을 가벼운 것으로, 부정적인 것을 긍정적인 것으로 변화시켰을 것이다! 처음에 (완성되지 아니한 초안으로서)형이상학적인 큰 진실이 나타났을 것이고, 마지막엔 (완성된 작품으로서)깃털처럼 가벼운 농담이 나타났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젠 파르메니데스처럼 생각할 수 없다. 공격적이고 엄숙하도록 엄한 이 〈그렇게 할 수밖에!〉는 토마스 @p 237 를 모름지기 이미 오랫동안 현혹시켰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래서 그의 내면에는 파르메니데스의 정신에 입각해서 무거운 것을 가벼운 것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깊은 동경이 자리잡고 있었다. 그가 단 1분 동안에 그의 첫 부인도, 그의 아들도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결심을 내렸으며, 그의 양친이 그와 절교했다는 통보를 그가 얼마나 쉽게 받아들였는가 하는 것을 돌이켜 생각해 보자. 그것은 오성의 지배를 벗어난 격렬한 제스처가 아니고 무엇이였겠는가? 그는 바로 그 제스처로 그의 머릿속에 무거운 의무로서, 〈그렇게 할 수밖에!〉로서 강제로 주입되었던 것을 떨쳐버렸다. 그때 그것은 어쨌든 외적인 사회적 인습에 근거한 〈그렇게 할 수밖에!〉였다. 반면 의학에 대한 그의 사랑의 〈그렇게 할 수밖에!〉는 그의 내면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 때문에 더욱더 나뻐다. 내면의 명령은 더욱더 강해 더욱더 저항하도록 채찍질한다. 외과위가 된다는 것은 사물의 표면을 절개하여 그 내면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가를 보는 것을 뜻한다. 어쩌면 바로 이 소망이 토마스 하여금 이 〈그렇게 할 수밖에!〉의 다른 편에 무엇이 있는가를 알려고 하게끔 했을지 모른다. 달리 말하면 지금까지 자기의 소명으로 간주했던 것로부터 해방될 때, 삶에서 남는 것이 무엇인가를 토마스 하여금 알고자 하게끔 했다는 것이다. 그가 프라하에 있는 유리진열장 및 유리창 청소회사의 마음 좋게 생긴 여자 지배인에게 자기 소개를 했을때, 그는 갑자기 자기 결단의 결과를 아주 명백하게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것으로 눈앞에서 보았다. 그는 무척이나 놀랐다. 이러 한 놀라움으로 그는 그의 새로운 직업의 처음 며칠을 보냈다. 그러나 (약 일주일 후)그가 새로운 삶의 놀라움도 낯선 상황을 극복하고 난 뒤, 갑자기 그는 자기에게 긴 휴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기에게 도대체가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했다. 그리고 그 @p 238 는 그런 일을 즐겼다.

내면적인 〈그렇게 할 수밖에!〉에 의해 강요받지 않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그는 이들을 지금까지 동정했었다)의 행복을 그는 갑자기 알게 되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일자리를 떠나는 순간 자신들의 직업을 잊을 수 있다. 이같이 복된 무관심을 그는 아직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다.

종종 수술대에서 무엇인가 그가 바랐던 대로 성공되지 않을 때에는 그는 실망했고 잠을 잘 수 없었다. 뿐만 아니라 때때로 그는 여자에 대한 욕구까지도 잃었었다. 그의 직업이 갖는 〈그렇게 할 수밖에!〉는 그에게서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와 같은 것이었다. 이제 그는 창문 닫는 막대기를 손에 들고 프라하 시를 돌아다녔다. 놀랍게도 그는 자신이 열살이나 젊어진 느낌임을 확인했다. 백화점의 여자 점원들이 「의사 선생님」하고 그에게 말을 건넸고(프라하의 북들은 완전물결하게 작동했었다(역주: 토마스가 의사로서 널리 알려져 있었다는 뜻)), 감기, 배통, 불규칙한 멘스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 그들은 그가 창유리에 물을 붓고 술을 막대기에 콧아 창유리를 닦기 시작할 때면 거의 부끄러운 듯 그를 바라보았다. 그들이 고객들을 상점에서 있게 할 수 있었다면 그들은 틀림없이 그의 손에서 막대기를 빼앗아 유리진열장을 스스로 닦았을 것이다. 토마스는 주로 백화점에서 일했다. 그러나 이따금 그의 회사는 그를 개인에게 보내기도 했다. 사람들은 당시까지만 해도 체코 지식인들의 대량박해를 일종의 광적인 공동의식에서 체험했다. 토마스의 환자들은 토마스가 창문 청소를 한다는 소식을 듣자, 그의 회사에 전화를 해 그를 자기들 집에 오도록 주문했다. 그리고 그의 작업보고장부에 열세 개의 창문을 닦았다고 기재하고 두 시간 동안 그와 환담했고, 그의 건강을 위해 축배를 들었다. 토마스는 더할 @p 239 나위 없이 좋은 기분으로 다음 집, 다음 상점으로 갔다. 러시아 장교들의 가족은 체코에 정주했다. 라디오에서는 추방당한 편집인들 자리에 들어앉은 내무부 관리들의 협박연설이 들려왔다. 그는 술이 취해 비틀거리며 프라하 시의 거리를 걸었다. 그에게는 마치 자기가 한 축제에서 다른 축제로 가는 듯 여겨졌다. 그것은 그의 대휴가였다. 그는 그의 독신 시절로 되돌아왔다. 그는 말하자면 갑자기 테레사 없는 상태가 되었다. 그는 밤에만 그녀를 보았다. 그것도 그녀가 바에서 돌아오고 그가 잠시 그의 첫잠에서 깰 때면 그녀를 보았다. 그런 다음에는 그녀가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고 그는 벌써 서둘러 일하러 가야 하는 새벽에 다시 그녀를 볼 뿐이었다. 그는 자기 혼자만의 시간을 하루에 16시간이나 가졌다. 이것은 그에게 예기치 않게 활짝 열린 자유로운 공간이었다. 자유로운 공간이란 그에게는 청년 초기 때부터 여자를 의미했다.

9 그는 평생에 몇 여자를 소유했었느냐고 친구들이 그에게 물었을 때
대답을 회 피했다. 그래도 친구들이 그의 대답을 고집하면 그는 말했다.
「아마 2백 명쯤 될까」 그를 부러워하는 몇몇 친구들은 그가 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 그는 항의 했다. 「그것은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야, 스물다섯 살경부터 나는 여자와 관계했어. 한번 2백을 25로
나누어 보렴. 그러면 1년에 약 8명의 여 자가 돼. 이것은 많은 것이
아니야」 그가 테레사와 함께 산 뒤에는 그의 성적 활동은 시간배정상의
@p 240 어려움에 봉착했다. 그는 이 활동에(수술대와 집 사이의) 좁다란
시간만을 할 애할 수 있었다. 물론 그는 이 시간을 철저히 활용했다(마치
고산지대의 농부가 그의 좁다란 밭을 철저히 갈아 이용하듯). 그러나 그
좁다란 시간은 그가 갑자기 선사받은 16시간의 시간적 공간과는 도저히
비교될 수 없었다(내가 16시간이라고 하는 이유는 여덟 시간의 창문
닫는 일 또한 새로운 여자 점원들, 새로운 여 비서들, 새로운 주부들과
사귀어서 이들과 데이트 약속을 할 수 있는 데 이용되 었기 때문이다).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구했던가? 무엇이 그를 그들에게로 이끌리게
했던가? 도대체 육체적 사랑이란 동일한 것의 끝없는 반복이 아닌가?
아니다 언제나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이, 비록 근소하지만 얼마간의
퍼센트가 있다. 그가 옷을 입고 있는 여자를 볼 때 그 여자가
벌거벗으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가를 그는 생각할 수는
있었다(여기에는 의사로서의 경험이 연인으 로서의 경험을 보완해
주었다). 하지만 표상의 대략성과 현실의 정확성 간에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위한 작은 공간의 여지가 있다. 바로 이것이 그에게
마음의 안정을 주지 못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좇는
사 냥은, 예컨대 나체의 발견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그 이상을
바란다. 그가 여체의 옷을 벗길 때 그녀는 무슨 말을 할 것인가? 그녀의
한숨은 어떻게 울릴 것인가? 쾌감의 순간에 그녀의 얼굴에 어떤 일그러진
표정이 나타날 것인가? 인간 자아의 유일무이성은 그 자아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것, 바로 그 속 에 숨겨져 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인간에게 있어서 동일한 것, 보편적인 것뿐이다. 자아에서
개체적인 것은 보편적인 것과 구분되는 것이며, 처 음부터 평가될 수도,
추정될 수도 없는 것, 다른 사람에게서 비로소 들추어내고 찾아내 @p 241
고 정복해야만 하는 것이다. 의사로서활동한 지난 수십 년 동안 오로지
인간의 두뇌에 전념했던 토마스는 <자아>보다 파악하기 더 힘든 것은
없다는 것을 알았다. 히틀러와 아인슈타인 간에는, 브레즈네프와

술제니친 간에는 차이보다는 훨씬 많은 유사성이 있다. 이 것을 수치로 표현한다면 그들간에는 백만분의 일의 유사하지 않은 점과 백만분의 구십구만구천구백구십구의 동인한 점이 있다. 토마스는 바로 이 백만분의 일을 지배하려는 소망에 사로잡혔다. 바로 이 점에 그가 여자들에게 미치고 있는 의미가 있다. 그는 여자들에게 미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서 생각 할 수 없는 것에 미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는 한 여자를 다른 여자들과 구분짓고 있는, 이 유사하지 않은 백만분의 일에 미치고 있는 것이다. (아마도 바로 이점에서 외과의의 정력과 난봉꾼의 정력이 서로 만난 셈이다. 그는 자기의 연인들과 함께 있을 때도 상상의 해부도를 손에서 놓지 않는다. 그들의 내면에 깊이 숨겨져 있는 것을 정복하기를 갈구한다. 바로 그것 때문에 그는 그들의 표면을 절개해야만 한다.) 그렇다면 그가 이 백만분의 일의 유사하지 않은 점을 하필이면 섹스에서 찾아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이냐고 우리는 당연히 자문할 수 있다. 그가 그것을 여자 의 걸음걸이에서, 음식의 기호에서 혹은 그들의 예술적 관심에서 찾을 수 있지 않았는가? 틀림없는 말이다. 백만분의 일의 유사하지 않은 점은 인간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그것이 숨겨져 있지 않다는 것뿐이다. 그래서 우선 찾아낼 필요가 없다. 해부도가 필요없다는 말이다. 어떤 여자가 디저트로서 단 것 보다는 치즈를 더 좋아한다면, 혹은 또 다른 여자는 꽃양배추를 싫어한다면 그 것은 @p 242 실은 특이성의 표지가 된다. 하지만 이러한 유형의 특이성이란 전혀 무의미하고 불필요하다는 것을, 그러한 것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것에서 어떤 가치를 찾는다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즉시 알게 된다. 오직 성에 있어서만 이 백만분의 일의 유사하지 않은 점이 어떤 값진 것으로 나타난다. 왜냐면 그것은 공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우리가 그것을 정복해야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반세기 전까지만 해도 그와 같은 정복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때로는 수주일, 경우에 따라서는 수개월까지도)바쳐야 했다. 그래서 정복을 위해 바친 시간이 정복된 것이 갖는 가치척도가 되었다. 이러한 정복의 시간이 믿 기지 않을 정도로 단축된 오늘날에 있어서도 성은 여전히 여성 자아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금고로 나타난다. 때문에 토마스로 하여금 여자사냥을 하게끔 한 동기는 결코 관능적 쾌락에 대한 소망(이 쾌락은 뒤에 일종의 프리미엄으로서 나타난다)이 아니라 세상을 정 복하려는(해부도로 누워 있는 육체를 절개하려는) 소망이었다. 10 많은 여자들을 쫓아다니며 사냥하는 남자들은 두 범주로 쉽게 이분될 수 있다. 한 카테고리의 남자들은 모든 여자들에서 여자에 대한 그들 자신의 주관적이며 언제나 동일한 꿈을 찾는다. 다른 카테고리의 남자들은

객관적인 여자 세계의 무한한 다양성을 지배하려는 욕구에 의해 움직인다. 여자에 미친 한쪽 남자들의 상태는 <서정적>이다. 그들은 여자 @p 243 들에게 그들 자신을, 그들의 이상을 찾는다. 그래서 그들은 언제나 번번이 실망한다. 왜냐하면 이상이란, 잘 알려진 바대로 우리가 결코 찾아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을 한 여자로부터 다른 여자로 가게끔 충동하는 실망은 그들의 불안정을 너그럽게 용서할 수 있게끔 하는 낭만적인 성격을 띠게 한다. 그래서 감상적인 많은 여인들이 그들의 집요한 일부다처적인 구애행각을 감동적인 것으로 생각한다. 여자에 미친 다른 쪽 남자들의 상황은 <서사적>이다. 그러한 그들의 상태에서 여자들은 감동적인 것을 아무것도 보지 않는다. 남자는 어떤 주관적인 이상을 여자들에게 투영하지 않는다. 그 때문에 모든 것이 그의 관심을 끌며 아무것도 그를 실망시킬 수 없다. 실망될 수 없다는 바로 이 무능력은 자체 어울리지 않는 면을 지닌다. 여자에 미친 서사적인 난봉꾼의 상태는 우리에게 값싼 것으로 여겨진다. 왜냐하면 그것은 실망을 통해서 사들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서정적인 난봉꾼은 항상 동일한 여자형을 추적하기 때문에 그가 애인을 교체하는 것은 아무의 눈에도 띄지 않는다. 그의 친구들은 계속 오해를 유발시킨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의 애인들을 구분할 수가 없어, 이들 모두에게 같은 이름으로 말을 걸기 때문이다. 서사적 난봉꾼들은(토마스는 말할 필요도 없이 이 카테고리에 속한다) 여자에 대한 인식 추구과정에서 인습적인 여성미의 이상으로부터 점점 멀어져간다. 그러한 여성미의 이상에 그들은 잠시만 지나면 싫증을 느끼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진기한 것을 수집하는 수집가로서 끝난다. 그들은 이 사실을 의식하고 약간 부끄러워한다. 그들은 모임에서 자기들의 친구들을 당황하게 하지 않기 위해 자신들의 애인들을 데리고 나타나지 않는다. 토마스는 이미 2년이 가깝도록 창문담이로 일해 왔다. 그때 @p 244 편 새로운 여자고객이 그를 자기에게 와달라고 주문했다. 그가 처음으로 그 여자가 문에서 있는 것을 본 순간, 그녀의 특이성이 그를 사로잡았다. 그 여자에게서 특이한 점이란 유별난 것이 아니어서 별로 눈에 띄지 않았다. 그것은 보기에 기분 좋은 평범함의 한계를 넘어서지 않는 것이었다(진기한 것을 선호하는 토마스의 취미는 괴물을 선호하는 펠리니(역주: 이탈리아의 영화감독이름)의 취미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 그 여자는 유별나게 키가 컸다. 토마스보다 더 컸다. 그녀의 코는 섬세했고 아주 길었다. 그리고 그녀의 얼굴은 아주 이상해서 비록 그녀가(적어도 토마스의 말에 따르면) 예쁘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녀가 예뻐다고 말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예뻐다고 말한다면 누구나

이의를 제기했 을 것이다!). 그녀는 바지에다 흰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고 마치 나긋나긋한 소년 과, 기린과 황새 간의 기이한 잡종처럼 보였다. 그녀는 오랫동안 그를 주의 깊은 시선으로 훑어보았다. 그녀의 시선에는 인텔 리적인 아이러니의 기미가 없지 않았다. 「의사 선생, 들어와요」 하고 그녀는 말했다. 분명히 그는 그가 누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이점에 전혀 관심 이 없었다. 그래서 그는 물었다. 「어디에서 물을 떠 올 수 있을까요?」 그녀는 욕실문을 열어주었다. 그는 세면대, 목욕통, 변기를 그속에서 보았다. 변기 앞에는 작은 분홍색 양탄자가 하나 깔려 있었다. 황새같이 생긴 이 기린 여자는 미소를 짓고 눈을 깜박거렸다. 그래서 그녀가 말하는 것은 모두 내밀한 의미, 아니면 내밀한 아이러니에 차 있었다. 「이 욕실을 마음대로 이용해요, 의사 선생. 그 속에서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무엇이든 하세요」 하고 그녀는 말했다. @p 245 「목욕도 해도 되나요?」 하고 토마스는 물었다. 「목욕하시는 것을 좋아하나요?」 하고 그녀는 물었다. 그는 자기가 가져온 물통에 물을 채워 응접실로 돌아갔다. 「어디서부터 시작 할까요?」 「전부 당신 마음대로 해요」 하고 그녀는 어깨를 으쓱하면서 말했다. 「다른 방 창문을 볼 수 있을까요?」 「내 집 구경을 하고 싶은가요?」 하고 마치 창문 닦는 것이 그의 변덕 중 하 나이고, 이것에 그녀는 관심이 없다는 듯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그는 옆방으로 들어갔다. 큰 창문이 달린 넓은 방이었다. 한테 붙여놓은 침대 두 개가 놓여 있었고, 자작나무와 일몰의 가을풍경을 그린 그림이 하나 걸려 있 었다. 그가 돌아오자 응접실 탁자에는 파놓은 포도주 한 병과 잔이 두개 놓여 있었 다. 「힘든 일에 앞서 힘 좀 보강하지 않겠어요?」 「좋지요」 하고 토마스는 말했다. 「그토록 많은 살림살이를 접해 알게 되니 당신에게는 재미있는 경험임에 틀 림없겠어요」 하고 그녀는 말했다. 「나쁘지는 않아요」 하고 토마스는 말했다. 「남편이 일하러 가고 없는 부인들이 사방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지요」 「할머니와 시어머니들이 기다리고 있는 경우가 훨씬 많지요」 「그런데 당신의 이전 직업을 갖지 못해 안됐군요?」 「당신이 내 직업을 어떻게 알았는지 말해 주면 좋겠는데요」 「당신의 회사는 당신을 극찬하고 있어요」 하고 황새부인은 말했다 「아직도 여전히 그래요?」 하고 토마스는 놀라 말했다. @p 246 「내게 창문 청소부 한 명을 보내달라고 당신 회사에 전화했을때 당신을 보내 도 좋으냐고 내게 물었어요. 당신은 유명한 외과의사라고 했고, 당국이 당신을 병원에서 내쫓았다고 말했어요. 이 사실을 물론 나의 관심을 끌었어요」 「당신은 매우 호기심이 많군요」 「내가 그렇게 보여요?」 「물론이죠. 당신의 시선을 보면 그래요」 「내 시선이 어떻다는 거죠?」

「당신은 눈을 깜박거려요. 그리고 계속 질문을 하죠」 「당신은 대답하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말인가요?」 이 환담이 처음부터 일종의 교태적인 자극을 띠었던 것은 그녀 때문이었다. 그녀가 말했던 것은 주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모든 것은 직접 두 사람에게 관련되었다. 대화가 처음부터 그와 그녀를 주제로 선정했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서로의 접촉을 통해 보완하는 것보다 더 간단한 것은 없었다. 그래서 토마스가 그녀의 깜박거리는 눈에 대해 이야기하는 동안 그는 그녀를 쓰다듬었다. 그녀는 그의 접촉 하나하나에 모두 응답했다. 그러나 그녀의 응답은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의도적이었고 체계적이었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게 하듯 나도 네게>라는 놀이를 하듯 했다. 그런 식으로 그들은 마주 대하고 앉아 있었다. 각자 다른 편의 육체에 손을 대고 있었다. 토마스가 그녀의 국부를 만지려고 했을 때야 비로소 그녀는 저항했다. 그는 그녀의 저항이 어느 정도로 진지한 것이었는지를 평가할 수 없었다. 여하튼 많은 시간이 흘렀다. 그는 10분 뒤에 다음 손님 집에 가야 했다. 그는 일어나, 이제 가야겠다고 그녀에게 말했다. 그녀의 두 뺨은 상기되어 있었다. @P 247 가벼운 것과 무거운 것 「나는 당신의 작업보고에 서명해야 해요」 하고 그녀는 말했다. 「하지만 나는 전혀 일하지 않았소」 하고 그는 거부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것은 내 탓이죠」 하고 그녀는 말했다. 그리고는 그녀는 조용하고 순진한 목소리로 덧붙였다. 「당신을 다시 한번 도록 해야 하겠어요. 나 때문에 당신이 시작할 수 없었던 것을 끝내도록 말이죠」 토마스가 그녀에게 작업보고를 주지 않으려고 하자, 그녀는 그에게 어떤 호의라도 간청하려는 듯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제발, 그걸 내게 주세요」 그리고 그는 눈을 깜박이면서 덧붙여 말했다. 「이것은 내가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내 남편이 지불해요. 그리고 지불받는 것은 당신이 아니라 국영업체요. 이 거래는 우리 두 사람과는 도대체가 관계가 없어요」 11 기린같이 생긴 이 황새본인의 균형 잡히지 아니한 독특한 특성은 생각만 해도 그를 흥분시켰다. 서투름과 결합된 교태, 빈정대는 듯한 미소로 보완된 명백한 성적 관심, 그녀가 사는 집에서 풍기는 천박스럽고 인습적인 면과 이 집의 소유 주인 그녀의 비인습적인 면 등. 그들이 동침을 한다면 그녀의 태도는 어떠할까? 그는 이것을 머릿속에 그려보려고 애썼다. 하지만 그것은 다녔느 하지 않았다. 여러 날 그는 그것 때문에 다른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었다. 그녀가 그를 두번째 불렀을 때 포두주와 잔 두 개가 벌써 탁자위에 놓여 있었다. 이번에는 모든 것이 재빨리 진행되었다. 곧 그 @p 248 들은 이미 침실에서 서로 마주서서(자작나무들을 그린 그림에서 태양이 지고 있었다) 키스했다.

그는 그녀에게 그의 관습적인 명령을 했다. 「옷을 벗어요!」 하 지만 순종하는 대신 그녀는 그에게 요구했다. 「아니요, 당신이 먼저!」 이런 반응에 그는 익숙해 있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좀 당황했다. 그녀는 그의 바지 단추를 끄르기 시작했다. 그는 다시금 몇 차례 명령했다(우스꽝스럽게도 아무 성과가 없었다). 「옷을 벗어요!」 하고. 그러나 그에게는 어떤 타협을 하는 수 밖에는 다른 아무 방법이 없었다. 그녀가 그에게 처음 만났을 때 강요했던 놀이 규칙(네가 내게 하듯 나도 너에게!)에 따라 그녀는 그의 바지를 벗겼고 그는 그녀의 치마를 벗겼다. 그런 다음 그녀는 그의 내의를, 그리고 그는 그녀의 블라우스를 벗겼고 결국 두 사람은 알몸으로 서로 마주보고 서 있게 되었다. 그는 손가락을 그녀의 축축한 국부로 가져가 항문으로 미끄러져 내려가게 했다. 이곳은 그가 모든 여체들에서 가장 좋아했던 곳이었다. 그녀의 항문은 유별나게 불쑥 나와 있었다. 그래서 그것은 그에게 긴 소화관의 이미지를 불러일으켰다. 이 소화관이 여기에서 약간 튀어나와 끝났던 것이다. 그는 손가락 반지들 중 가장 아름다운 반지, 의학용어로는 팔약근(括約筋)이라고 부르는 딱딱하고 건전한 이 반지를 만지작거렸다. 그러나 갑자기 그는 그 자신의 엉덩이 바로 같은 지점에 그녀가 손가락이 와닿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그의 일거일동을 거울에서처럼 정확히 반복했다. 비록 그가 이미 내가 말했듯이 약 이백 명의 여자와 관계했지만(그가 참문답 이가 된 후에는 이보다 훨씬 많은 수다) 자기보다 더 큰 여자가 자기 앞에 서서 눈을 깜박이며 그의 엉덩이 항문을 만지작거렸던 일은 한 번도 없었다. 그는 당혹스러움을 극복하기 위해 그녀를 침대에 동태이쳤다. @p 249 가벼운 것과 무거운 것 그의 동작은 너무나도 갑작스러웠기 때문에 그는 그녀를 기습했던 것이다. 그녀의 키 큰 몸매가 뒤로 나자빠졌다. 얼굴은 붉은 반점으로 덮였다. 거기에는 균형을 잃은 인간의 놀란 표정이 담겨 있었다. 그가 그런 상황에서 그녀 앞에 서자 그는 그녀의 무릎 아래를 잡고 약간 벌려진 그녀의 두 발을 높이 들어올렸다. 그러자 그녀의 두 발은 갑자기 마치 빠든 칼 앞에 놀라 항복하는 군인의 높이 치켜든 두 팔처럼 보였다. 정력과 결합된 서투른 미숙성, 서투른 미숙성과 결합된 정력은 토마스를 더할 나위 없이 흥분시켰다. 그들은 매우 오랫동안 동침을 즐겼다. 동시에 그는 붉은 반점으로 덮인 그녀의 얼굴을 유심히 관찰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누군가가 발을 걸어 쓰러기제한 여자의 놀란 표정을 발견했다.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이 표정은 그를 흥분시켜 피를 머리끝까지 치솟게 했다. 그런 다음 그는 몸을 씻으러 욕실로 들어갔다. 그녀는 그를 동반하여 어디에 비누가 있고 어디에 수건이 있으며, 더운

물을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수도꼭지를 틀어야 하는가를 그에게
장황하게 설명해 주었다. 그녀가 이렇게 단순한 것들을 그토록 상세하게
설명해 준 것이 그에게는 기이하게 생각되었다. 결국 그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이해했노라고 말하고 자기가 욕실에 혼자 있고 싶다는 것을
그녀에게 깨닫도록 했다. 그녀는 구걸하는 듯한 어조로 말했다. 「당신이
화장하는 데 조수노릇 좀 하면 안 되겠어요?」 겨우 그는 그녀를 밖으로
밀어낼 수 있었다. 그는 몸을 씻고 세면대에 오줌을 누었다(이것은 체코
의사들의 습관으로서 널리 번져 있다). 그에게는 마치 그녀가 밖에서
초조하게 왔다갔다 서성거리며 욕실로 들어오려는 핑계를 찾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가 수도꼭지를 잠갔고 집안이 아주 조용해지자 그에게는
그녀가 자기를 @250 관찰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는 그녀가
욕실문에 구멍을 뚫어놓아 그녀의 깜박이는 아름다운 눈을 그 위에
갓다대고 있다는 것을 거의 확신했다. 그는 썩 기분 좋게 그녀로부터
떠났다. 그는 본질적인 것을 다시 한번 눈앞에 떠올려보고 그것을 기억
속에서 추상화하여 화학적인 공식으로 집약함으로써, 그녀의 독특한
유일성을(어느 누구와도 유사하지 아니한 그녀의 일백만분의 일)을
정의하려 했다. 결국 그는 세 가지 점으로 집약되는 다음 공식에 이르게
되었다. 1.정력과 결합된 서투른 미숙성, 2.몸의 균형을 잃고 넘어지는
사람의 놀란 얼굴, 3.번쩍 빠든 칼 앞에 항복하는 군인의 팔처럼 높이 든
두 발. 이것을 머릿속에서 반복하자 그에게는 다시금 한 조각의 세계를
정복했다는, 그의 상상의 해부로서 우주의 무한한 캔버스에서 좁다란
천을 다시금 잘라냈다는 행복감이 들었다. 12 이와 엇비슷할 무렵 다음
일이 있었다. 그는 그의 오래된 친구 한 사람이 매 일 밤 12시까지 그가
마음대로 이용하도록 해준 집에서 어떤 젊은 처녀와 몇 차례 만났다.
한두 달이 지난 뒤 그녀는 그로 하여금 언제가의 그들 만남을 회상 시켜
주었다. 밖에서는 번개와 천둥이 치고 있는 동안 창 밑 양탄자 위에서
그들은 동침을 했었노라고 했다. 뇌우(雷雨)가 밖에서 계속되는 동안
그들은 동침을 했었고, 그것은 도저히 잊을 수 없는 것이었다고 했다.
토마스는 깜짝 놀랐다. 그는 그녀와 양탄자 위에서 동침했던 일 @p 251
가벼운 것과 무거운 것 을 확실히 기억하고 있었다(집을 이용하게 해준
그의 친구는 집안에 다만 좁다란 소파 하나밖에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곳에서는 동침하기가 그에게 불편했다). 그러나 뇌우를 그는
잊었다! 이상한 일이었다. 그는 그녀와 몇 번 만난 것을 기억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그들이 어떻게 동침했는가 하는 방법 및
태도까지도 기억했었다(그녀는 자기 뒤에서 그가 성교하는 것을
거부했다). 그는 성교할 때 그녀의 몇몇 요구도 기억했다(그녀는 언제나

그가 자기의 허리를 꼭 껴안아주기를 요청했고, 성교할 때 그가 그녀를 바라볼 때면 이에 항의했다. 그는 또한 그녀의 속옷의 재단 모양까지도 기억했다. 하지만 뇌우에 대해서 그는 전혀 기억할 수가 없었다. 그의 기억은 그의 모든 정사 중에서 오직 성적 정복의 험난하고 좁다란 길만을 체크했다. 말하자면, 최초의 구술(口述)적 공격, 최초의 육체적 접촉, 그들이 서로 주고받은 최초의 음란한 말들, 그리고 모든 약간의 성도착적 행동들을 그의 기억은 체크했다. 그녀가 이러한 성도착적 행동들을 하도록 그는 그녀의 마음을 점차 चु직일 수 있었지만, 몇몇 그러한 행동의 경우 그녀는 단호히 거부했었다. 그 나머지는 (어떤 의미에서 응졸하게) 그의 기억에서 축출시켰다. 그는 어떠한 여자를 처음으로 만났던 곳이 어디인가도 잊었다. 왜냐하면 이 순간은 본래적인 성적 공격 이전에 놓여 있기 때문이었다. 이 처녀는 뇌우에 대해 이야기했고 그때의 환상에 잠겨 미소지었다. 그는 그녀를 이상하게, 그리고 거의 부끄러운 태도로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가 함께 체험하지 못했던 아름다운 것을 체험했던 것이다. 그녀의 기억과 그의 기억이 그날 저녁의 뇌우에 반응한 방식에는 사랑과 비사랑 간의 크나큰 차이가 있었다. 비사랑이란 말로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가 그 처녀에 대해 @p 252 마치 냉소하는 사람 같은 태도를 취했다거나, 그녀에게서 흔히 말하듯 성적 대상만을 보았다는 것이 아니다. 그와는 반대로 그는 그녀를 여자친구로서 원했고, 그녀의 성격, 그녀의 지성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그녀가 도움을 필요로 할 때에는 언제든지 그녀를 도울 각오를 하고 있었다. 그녀를 그와는 무관하게 사랑의 영역에서 제외시켰던 것은 그의 기억이었다. 아마도 두뇌 속에는 <시적 기억>이라고 일컬을 수 있을 아주 전문분야가 있어서 우리들의 삶을 아름답게 하는 것을 기록해 두는 모양이다. 그가 테레사를 안 이래 어떠한 다른 여자도 두뇌의 바로 이 부분에 극히 희미한 흔적조차 남길 권리가 더 이상 없었다. 테레사는 그의 시적 기억을 전체적으로 점령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그 속에 다른 여자들의 흔적을 모두 지워버렸다. 그것은 공정하지 못한 것이었다. 예컨대 그가 뇌우가 있던 동안 양자자 위에서 정사를 벌였던 그 처녀는 테레사에 못지않게 시(詩)에 대한 자격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에게 외쳤다. 「 눈을 감아요! 내 허리를 잡고 나를 꼭 껴안아요!」 그녀는 토마스가 정사를 할 때 정신집중을 하고 관찰하면서 눈을 뜨고 있고, 약간 그녀로부터 자기의 육체를 울려 떠 있게 함으로써 그녀의 피부에 닿지 않게 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다. 그녀는 연구의 대상이 되고자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황홀의 물결 속으로 휩싸여들게 하려 했다. 그렇게 자신을 내맡기자면 눈을 감아야만 가능하다. 이러한

근거에서 그녀는 무릎을 꿇고 엎드리기 거부했다. 왜냐하면 이 자세에서 정사를 할 때 그들의 육체는 서로 닿지가 않았으며 그는 이때 0.5미터의 간격을 두고 그녀를 관찰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이 간격을 싫어했다. 그녀는 그의 속에 녹아 흐르고자 했다. 그래서 그녀는 끈질기게 주장했다. 그럴 때 그녀는, 양탄자가 @p 253 가벼운 것과 무거운 것 모두 그녀의 오르가즘에 의해 축축하게 되었지만 쾌감을 느끼지 못했노라고, 「나는 쾌감을 갈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고 그녀는 말했다. 「나는 행복을 구해요. 그런데 행복 없는 쾌감이란 쾌감이 아니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녀는 그의 시적 기억의 문을 두드렸던 것이다. 그러나 이 문은 잠긴 채 열리지 않았다. 이 시적 기억 속에는 그녀를 위한 자리가 없었다. 그녀를 위한 자리는 오직 양탄자 위에만 있었다. 테레사와 가진 그의 사랑의 모험은 다른 여자들과의 이 모험이 중단되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되었다. 그로 하여금 다른 여자들 뒤로 쫓겨한 것은 명령의 다른 면과 관련된 것이었다. 테레사에게서 그가 들추어 찾아내고자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그녀의 비밀이 이미 완전히 드러난 상태에서 그녀를 얻었다. 그는 자기 앞에 놓인 세계의 육체를 절개하는 상상의 해부도를 손에 쥘 시간도 갖기 전에 이미 그녀와 잠을 잤다. 그녀가 정사하는 동안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를 자문할 시간도 갖기 전에 그는 그녀와 이미 사랑의 동침을 했다. 그녀의 사랑의 역사는 그 후에야 비로소 시작된다. 그녀는 열이 났었다. 그래서 그는 그녀를 다른 여자들처럼 집으로 보낼 수 없었다. 그는 그녀의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다. 그러나 누가 그녀를 광주리에 넣어 물에 띄워 보냈다는 생각이 그에게 들었다. 메타포란 위험한 것임을 나는 이미 말했다. 사랑은 메타포와 더불어 시작한다. 달리 말하면 사랑은 어떤 여자가 그녀의 첫마디로 우리들의 시적 기억 속에 자신을 아로새기는 순간 싹튼다. @p 254 13 바로 며칠 전에 그녀는 다시금 그의 생각 속에 자신을 아루새졌다. 언제나와 마찬가지로 그녀는 아침에 우유를 가지고 집으로 왔다. 그런데 그가 문을 열어 주자 그녀는 그녀의 빨간 솔에 까마귀 한 마리를 감싸 가슴에 꼭 껴안고 있었다. 집시여인들은 그들의 아이들을 그런 식으로 팔에 안고 다녔다. 그는 그것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그녀 얼굴 옆에 까마귀의 고발하고 있는 듯한 큰 부리를 그는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그녀는 이 새가 땅에 과묵히 있는 것을 보았던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언젠가 코사크인들은 자기들이 포로로 잡은 적들을 처리했었다. 「아이들이 그렇게 했어요」 하고 그녀는 말했다. 그런데 이 문장 속에는 확인하는 뜻뿐만 아니라 갑작스럽게 나타난 인간에 대한 혐오가 들어 있었다. 그녀가 최근 그에게 했던 말을 그는 기억했다.

「당신이 절대 아이를 가지려 하지 않는 데 대해 나는 당신에게 점차 감사하게 생각해요」 어제 그녀는 어떤 유형의 인간이 바에서 자기에게 귀찮게 굴었다고 불평했다. 그녀는 그녀의 싸구려 목걸이를 손으로 잡아 그녀가 매음으로 이 장신구를 갖게 되었음을 주장했다고 했다. 그녀는 이에 대해 필요 이상으로 흥분했다고 토마스는 생각했다. 갑자기 그는 지난 몇 년 동안 자기가 그녀를 본 것이 얼마나 적으며, 그녀의 두 손이 떨리지 않도록 자기의 손에 꼭 잡아주는 기회가 그에게 얼마나 드물었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깜짝 놀랐다.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그는 이른 아침 여직원이 청소원들에게 낯일을 배당하는 사무실로 갔다. 어떤 개인이 토마스가 자기 집 @p 255 가벼운 것과 무거운 것 창문을 닦아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었다. 그는 별로 가고 싶지 않았지만 이 집 주소를 찾아갔다. 다시 어떤 여자가 자기를 와달라고 하지 않았나 하고 걱정했다. 그의 생각은 테레사에게 가 있었고 사랑의 모험에는 전혀 흥미가 없었다. 문이 열렸을 때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앞에는 키가 크고 몸이 약간 앞으로 굽은 남자의 모습이 서 있었다. 그의 턱은 컸고 그로 하여금 어느 누군가를 기억나게 했다. 그는 미소를 지었다. 「들어오시오, 의사 선생님」 하고 그는 그를 방으로 안내했다. 그곳에는 젊은 남자 한 사람이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붉었고, 토마스를 유심히 바라보고 미소를 지으려 애썼다. 「당신들을 서로 소개할 필요가 없다고 믿는데요」 하고 키 큰 남자는 말했다. 「필요없어요」 하고 토마스는 미소도 짓지 않고 말했다. 그리고는 젊은이에게 손을 건넸다. 그것은 그의 아들이었다. 「당신이 나에게 어느 누구인가를 기억하게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고 토마스는 말했다. 「어떻게 모르겠어요! 물론 나는 당신을 알고 있어요. 이름으로 말이요」 그들은 나지막한 탁자를 사이에 두고 안락의자에 앉았다. 토마스는 자기 맞은 편에 있는 이 두 남자가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어떻게 자기의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생각했다. 이 아들을 만들도록 그의 첫째 부인이 그를 강요했었고, 키 큰 이 남자의 특징을 묘사하도록, 그때 자기를 심문하던 그 형사가 그를 강요했었다. 이러한 그의 생각들을 몰아내기 위해 그는 말했다. 「자, 어떤 창문부터 시작 할까요?」 두 남자는 활짝 웃었다. 분명했다. 여기서 문제된 것은 창문 닦는 일이 아니었다. 그는 @p 256 창문을 닦도록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었다. 그는 함정에 걸려든 것이었다. 그는 아직까지 한 번도 자기 자식과 이야기한 적이 없었다. 그는 그의 아들과 악수한 것은 이것이 난생 처음이었다. 그는 다만 봄으로써 알고 있었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는 아들을 다른 방법으로는 전혀 알려고 하지 않았다. 그는 그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기를 원하지

않았고, 자기 아들도 자기와 똑같이 자기에 대해 아무 것도 알기를 원치 않기를 바랐다. 「멋진 플래카드죠, 그렇지 않소?」하고 그 편집인이 말하며 토마스의 맞은편 벽에 걸려 있는 액자한 큰 스케치 그림을 가리켰다. 토마스는 이제서야 비로소 집안을 둘러보았다. 벽에는 그림들이, 많은 사진과 플래카드가 걸려 있었다. 편집인이 가리킨 스케치 그림은 1969년 러시아인들이 발행을 금지시키기 전 그가 퍼내던 주간지 마지막 호에 실렸었다. 그것은 1919년 러시아 시민전쟁 때 적군(赤軍)병력 공모를 위해 내걸었던 유명한 플래카드의 모방물이었다. 모자에 붉은 별을 달고 아주 엄한 시선을 한 군인 한 사람이 이 플래카드를 바라보는 사람의 눈을 바라보며 앞으로 쪽 내민 손의 집게손가락으로 위협하고 있었다. 원래의 러시아 플래카드의 문장은 다음과 같았다. <시민이여, 그대는 이미 붉은 군대에 등록했는가?> 이 문장은 체코의 문장으로 대체되었다. <시민이여, 그대 또한 이천 마디의 말에 서명했는가?> 하나의 멋진 위트였다! 이천 마디의 말이란 프라하의 봄의 유명한 최초 선언이었다. 이 선언문은 공산정권의 급진적 민주화를 고취한 글이었다. 수많은 지식인들이 서명했다. 일반 서민들도 가세하여 그것에 서명했다. 그래서 아무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서명이 수집되었다. 러시아의 붉은 군대가 체코에 진주하여 정치적 숙청이 시작되었을 때, 시민들의 직장에 제시된 질문들 중 하나 @p 257 가벼운 것과 무거운 것 나는 다음과 같다. <그대는 이천 마디의 말에 서명했는가?> 그렇다고 대답한 사람은 논평도 없이 해고되었다. 「멋진 그림이지요. 나는 이것을 기억하오」하고 토마스는 말했다. 편집인은 미소를 지었다. 「이 붉은 군대의 군인이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을 듣지 않기를 바라오」 그런 다음 그는 진지한 어조로 덧붙여 말했다. 「의사 선생, 당신에게 모든 것이 명백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오. 이 집은 내 집이 아니오. 이것은 한 친구의 집이오. 그 때문에 경찰이 이 순간에 우리의 말을 엿듣고 있는지는 확실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은 가능한 일이오. 내가 당신을 우리 집으로 초청했다라면 틀림없이 안전했을 거요」 그런 다음 그는 보다 가벼운 어조로 말을 계속했다. 「그러나 나는 우리가 아무 앞에서도 숨을 필요가 없다는 전체 아래 말을 하겠소. 뿐만 아니라, 미래의 사학자가 가지게 될 이점을 생각해 주기 바라오! 그들 사학자들은 경찰 자료실에서 모든 지식인들의 삶이 테이프에 녹음되어 있는 것을 찾아낼 것이오! 문예 학자가 볼테르, 발자크, 톨스토이와 같은 사람의 성적인 삶을 구체적으로 표상한 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드는가 하는 것을 아시나요? 체코 작가들의 경우 어떠한 의심도 나타나지 않을 것이오.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모든

한숨짓는 소리까지도 말이오」 그리고 그는 벽에 있다고 전제한 가상적 마이크로폰에 대고 더욱더 소리를 높여 말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계기가 있을 때마다 늘 그랬듯이 나는 당신들의 일에 격려를 보내고자 하며, 내 이름과 미래 사학자들의 이름으로 경찰 당신들에게 감사를 드리겠소!」 세 사람 모두 한참 동안 웃었다. 그리고는 편집인은 어떻게 그 @p 258 의 신문 발행이 금지되었으며, 이 재치 있는 풍자화를 생각해 냈던 스케치 화가가 지금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체코의 화가, 철학자, 작가들이 지금 무슨 일에 종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었다. 러시아 침공 후 그들은 한결같이 직장을 잃고 창문닦이, 공원지기, 야간 수위, 공공건물의 난방 화부가 되었고 기껏해야 택시운전사가 되었다. 그러나 택시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좋은 백이 꼭 필요했었다. 편집인이 말한 것은 재미 없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토마스는 그의 말에 정신을 집중할 수가 없었다. 그는 자기 아들을 생각했다. 그는 이미 몇 달 전부터 자주 자기 아들을 길에서 만났던 것을 회상했다. 아마도 거의 우연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가 이제 박해받은 이 편집인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토마스는 자못 놀랐다. 토마스의 첫부인은 정통과 공산주의자였다. 그래서 토마스는 기계적으로 그의 아들이 그녀의 영향 아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는 자식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그런데 지금 그는 어머니에 대한 아들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직접 아들에게 물어 볼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낯선 사람이 있는 데서 그렇게 물어 본다는 것은 어떤지 상황에 맞지 않은 듯 그에게 여겨졌다. 드디어 편집인은 용건의 핵심을 언급하기 시작했다. 자신의 견해를 대변했다는 이유만으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갇혀 있다고 그는 말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이야기를 다음 말로 끝맺음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말했어요. 그것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겠다는 것을 말이오」

「그런데 무슨 일을 하려는 것이죠?」 하고 토마스는 물었다. 이 순간 그의 아들이 말하기 시작했다. 아들이 말하는 것을 듣는 것은 토마스에게는 이것이 처음이었다. 그가 말을 더듬거리는 것을 확인하고 토마스는 깜짝 놀랐다. @p 259 가벼운 것과 무거운 것 「정치범들이 가혹하게 다뤄지고 있다는 정보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하고 그는 말했다. 「몇몇 사람은 아주 심각한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청원서를 작성해서 체코 지식인들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우리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아니, 그것은 더듬거리는 말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히려 약간 말이 막히는 현상으로서 그의 말의 흐름을 다소 저해하여 그가 하는 말 하나하나가 그의 의도와는 반대로 강조된 효력을 지녔다. 그 자신이

이것을 의식했음이 명백했다. 그래서 그의 얼굴은 지금에 와서야 비로소 정상적인 안색을 되찾아 다시금 붉어졌다. 「내 전문분야에서는 어느 누구에게 당신들이 가야 하는가에 대해 나로부터 자문을 구하는 것이오?」 하고 토마스는 물었다. 「아니오, 당신의 조언을 우리는 바라지 않아요. 우린 당신의 서명을 바라오!」 하고 편집인은 웃었다. 벌써 다시금 그는 우울해진 느낌이었다. 벌써 다시금 그는 자기가 외과의라는 것을 사람들이 아직도 잊지 않았다는 데 대해 기뻐했다! 다만 겸손한 태도를 보 이려고 그는 거부하는 제스처를 했다. 「들어오시오! 내가 쫓겨났다는 사실은 내가 저명한 의사라는 것을 전혀 증명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당신이 그때 우리 신문에 글썩던 것을 잊지 않았어요」 하고 편집인은 미소를 지으면서 토마스에게 말했다. 아마도 토마스가 눈치채지 못한 일종의 열광에서 그의 아들은 「그래요!」 하고 한숨지었다. 토마스는 말했다. 「청원에 서명한 내 이름이 정치범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소. 아직 당국의 노여움을 사지 아니해서, 권력을 준 사람들에게 적어도 최소한의 영향력을 보유한 사람들이 그것에 서명하는 것이 낫지 않겠소?」 다시 편집인은 웃었다. 「물론 그들이 서명해야죠!」 @p 260 토마스의 아들도 웃었다. 그것은 벌써 인생에서 많은 것을 깨달은 사람의 웃음이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절대 서명하지 않을 것이오」 편집인은 말을 계속했다. 「이 말은 우리가 그들을 찾아보지 않았다는 것을 일컫는 것이 아니오! 그들에게 그들이 당황하는 것을 들어주도록 우리가 그렇게 핑계를 들었어야만 했을 텐데. 한마디로 멋졌어요!」 하고 그는 웃었다. 아들은 동의하면서 웃었다. 편집인은 말을 계속했다. 「물론 모두는 자기들이 우리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지만 일을 달리, 즉 보다 요령 있게, 보다 현명하게, 보다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어요. 그들은 서명하기를 겁내고 있고 그리고 동시에 그들이 서명을 하지 않을 경우 우리가 그들에 대해 나쁘게 생각할까봐 두려워하고 있어요」 아들과 편집인은 다시 웃었다. 편집인은 토마스에게 간략한 글을 적은 종이 한 장을 건네주었다. 그것은 체코 공화국 대통령에게 비교적 정중한 어조로 정치범들을 사면해 줄 것을 요구하는 글이었다. 토마스는 재빨리 숙고하려 했다. 정치범들을 사면한다고? 현정권이 추방한 몇몇 인사들이(말하자면 잠재적인 정치범이라 할 수 있다) 대통령에게 청원한다는 이유로 그들을 사면해 줄 것인가? 그와 같은 청원은 오히려 바로 지금 우연히 정치범들을 당국이 사면하려 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들을 사면하지 않을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아들은 토마스의 생각을 중단시켰다. 「주된 문제는 이 나라에 아직도 두려워 하지 않는

많은 인사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데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누가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주는 데 있어요. 겨와 곡식알을 가르자는 것이지요」 @p 261 가벼운 것과 무거운 것 토마스는 생각했다. 그래, 그건 사실이야. 그런데 그것이 정치범과 무슨 관계가 있지? 그들이 사면되도록 하는 문제, 아니면 겨와 곡식알을 가르는 문제. 그 것은 전혀 다른 두 가지 일인데. 「의사 선생, 당신은 주저하오?」 하고 편집인이 물었다. 그렇다. 그는 주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것을 자인하는 것이 두려웠다. 그의 맞은 편 벽에는 군인의 그림이 걸려 있었다. 이 군인은 손가락으로 위협하며 말 하고 있었다. 「그대는 사면청원서에 서명하려 하지 않소?」 라고. 이 군인이 어떤 것을 말하고자 하든 간에 그는 위협하고 있었다. 편집인은 이미 앞서 정치범들이 사면되도록 하는 것에는 동의하고 있지만 청 원서에 서명을 하지 않기 위해 가지각색의 핑계를 찾는 자들에 대해 그가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말했었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그와 같은 속고는 비굴함을 감 추고 있는 한낱 핑계에 불과한 것이었다. 그러니 토마스가 무슨 말을 해야 할 것인가? 침묵이 흘렀다. 이젠 그도 갑자기 웃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벽에 걸린 그림 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기 저 자가 나를 위협하며 내가 서명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묻고 있소. 그가 보는 데서는 생각하기가 힘이 드요!」 세 사람 모두 웃었다. 토마스는 말했다. 「좋아요. 나는 생각해 보겠소. 가까운 시일에 언제 다시 만 날 수 있을까요?」 「당신을 만나는 것은 내겐 언제나 크나큰 기쁨이지요. 하지만 이 청원서를 위해서는 그렇게 되면 너무 늦게 되오. 우리는 내일 그것을 대통령에게 건네주 려 하고 있어요」 하고 편집인은 말했다. 「내일이오?」 하고 토마스는 말하고 그 뚱뚱한 형사를 회상했다. 그때 그 형 사는 미리 작성한 글을 적은 종이를 그에게 내밀어 서명하게 하여, 지금 바로 이 턱이 큰 키 큰 남자를 밀고해야 했었 @p 262 다. 모두가 토마스를 강요하여 그가 직접 쓰지 아니한 텍스트에 서명하도록 했 다. 아들은 말했다. 「여기에서는 생각해 볼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이 말은 공격적이었다. 그러나 어조는 거의 간청하는 듯했다. 부자는 서로 마주 바라보았다. 토마스는 자기 아들이 무엇에 정신을 쏟을 때는 윗입술이 약간 왼쪽으로 당겨지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얼굴이 일그러지는 모습을 그는 거 울을 열심히 들여다보고, 자기가 깨끗이 면도가 되었는지를 살필 때 자신의 얼굴에서 보았었다. 그는 바로 안면 경련현상을 지금 낫선 얼굴에서 발견하게 되 자 일종의 불쾌감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부모가 처음부터 자식들과 함께 살 때는 부모는 자기들에게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는 그와 같이 닮은 유사성에 익숙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그리 한 유사성이 눈에 띄는 때는 그들은 그러한 것을 재미있게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토마스에게는 자신이 아들과 이야기하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었다! 그는 자신의 비뚤어진 입술을 마주하고 앉아 있는 데 익숙해 있지 않았다! 누가 당신의 손을 절단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식했다고 상상해 보시오. 그리고 이 사람이 당신과 마주앉아 그 손으로 바로 당신 앞에서 손동작을 한다고 할 때, 당신은 그 손을 마치 유령처럼 응시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에게 더없이 친숙한 손이라고 하더라도 당신은 그 손이 당신에게 닿지나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깜짝 놀랄 것입니다! 아들은 말을 계속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박해받는 사람들 편에 있잖아요!」 그 동안 내내 토마스는 자기 아들이 자기에게 낯선 사람으로 말을 건넬 것인가, 아니면 아버지로서 말을 건넬 것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했었다. 지금까지는 그는 확정짓기 어렵도록 문장표현을 @p 263 구사했다. 이제 드디어 그는 결단을 했던 것이다. 그는 그에게 아버지로서 말을 건넸다. 그래서 토마스에게 갑자기 이 상황에서 문제되는 것은 정치법 사면이 아니라 그의 아들이라는 것이 확실해졌다. 그가 서명한다면 부자의 운명은 서로 가까워질 것이고, 토마스는 그와 친하게 되어야 하는 다소의 책임을 지게 도리 것이다. 그가 서명을 하지 않을 경우 그들의 관계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제로에 머물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자기 뜻 때문에서가 아니고 자기 아들의 의지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아버지의 비굴함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결별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패배를 면할 방법이 더 이상 없어 그 판을 포기해야만 하는 장기놀이하는 상황에 처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서명하든 아니든 간에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그것은 그의 운명에도 정치법들의 운명에도 아무런 변화를 주지 못하는 것이었다. 「그것을 쥐요」 하고 그는 말하고 그 종이를 받아들었다. 14 토마스의 결단을 보상이라도 하려는 듯 편집인은 말했다. 「오이디푸스에 대해 당신은 참 잘 썼어요.」 아들은 그에게 만년필을 건네주고 덧붙여 말했다. 「어떤 생각들은 암살기도 와도 같아요.」 편집인의 칭찬은 그를 기쁘게 했지만 그의 아들이 말한 메타포는 그에게 외람된 것 같았고 뿐만 아니라 잘못 사용된 것이었다. 그는 말했다. 「유감스럽게도 이 암살기도는 나에게만 피해를 입혔어. 바로 이 글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수술을 할 수 없게 되었지.」 @p 264 그의 말은 냉담했고 거의 적의를 담은 듯 들렸다. 분명히 이 작은 불화를 불식하기 위해 편집인은 말했다(그가 용서를 빌려는 듯). 「하지만 당신의 글은 많은 사람들을 도왔어요?」 <사람들을 돕다>라는 말에서 토마스는 어릴 때부터 오직 단 하나의 활동, 즉 의사로서의 활동만을

생각할 수 있었다. 그런데 어떤 기사의 글이 사람들을 도왔다고? 이 두 사람이 여기서 그에게 무엇을 설득하려는가? 그들은 그의 삶을 오이디푸스에 대한 보잘것 없는 생각에 축소시켰다. 뿐만 아니라 실은 그보다 더 하찮은 것, 다시 말하면 그가 현정권에 맞대고 노골적으로 내뱉은 단순한 <못하겠소!>에 그의 삶을 축소시켰던 것이다. 그는 말했다(그의 목소리는 비록 그가 그것을 거의 의식 못했지만 여전히 냉담했다). 「그 기사가 누구에게 도움을 주었다고 한 것은 내겐 알지 못한 일시오. 그러나 외과의사로서 나는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제했소.」

다시금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다. 이들이 이 침묵을 깼다. 「생각들도 사람들의 목숨을 구제할 수 있어요」 토마스는 자기 아들의 얼굴에서 자신의 입을 보며 생각했다. 자신의 입이 더 듣거리는 것을 보다니 기이하군. 「아버지의 글에는 경이로운 것이 들어 있었어요」 하고 아들은 말을 이었다. 그가 몹시 힘들여 말하는 것이 역력했다. 「비타협성이 그것이에요. 그러한 능력이 우리들에게서 점차 소멸해 가요. 선과 악을 선명히 구분할 줄 아는 감각 말 예요. 지금 사람들은 죄스럽게 느낀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모르고 있어요. 공산주의자들은 스탈린이 자기들을 기만했다고 변명하죠. 살인자는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아 좌절했노라고 말함으로써 자신의 죄를 변명하죠. 그런 데 아버지는 어떠한 변명도 있을 수 없다고 갑자기 말했어요. 자신의 내면이 오 이디푸스보다 더 순진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p 265 는 자신이 저지른 일을 알게 되자 자기 자신을 말했어요.」

토마스는 아들의 얼굴에 나타난 자기 입술로부터 억지로 시선을 떼고 편집인을 바라보려고 애썼다. 그는 다소 화가 나 반대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 말했다. 「모든 것이 오해라는 것을 알아야 해. 선과 악의 경계는 아주 불확실해. 누가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내게 도대체가 문제가 되지 않았어. 자기가 한 일을 모르는 사람을 말한다는 것은 야만적 행동이야. 오이디푸스 신화는 아주 아름다운 것이지만 그런 식으로 그것을 풀이한다는 것은……」 그는 더 이야기를 하려 했다. 그러나 그가 있는 집이 도청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에게는 다가 올 세기의 사학자들이 자기의 말을 인용해 주었으면 하는 야욕이 조금도 없었다. 오히려 경찰이 자기가 하는 말을 인용할 수도 있다는 염려가 훨씬 앞섰다. 자기가 썼던 기사에 대한 비판은 바로 당국이 그로부터 요구했었던 것이었다. 어제 경찰이 드디어 자기 입에서 직접 들을 수 있다는 생각은 그에게 아주 불쾌했다. 이 나라에서 말로 나타내는 모든 것은 어느 때나 방송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그는 그래서 입을 다물었다. 「무엇이 당신으로 하여금 그렇게 생각을

바꾸게끔 했나요?」 하고 편집인은 물었다. 「오히려 그 당시 무엇이 나로 하여금 그 기사를 쓰게끔 했던가를 물으시오...」 하고 토마스는 말했다. 그리고 이 순간 그에게는 다음 생각이 떠올랐다. 그 녀는 바구니에 달아서 물에 띄워 보낸 아이처럼 그의 침대가로 떠내려 왔었다. 그렇다. 바로 그 때문에 그는 그 책을 손에 들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 때문에 그는 로물루스, 모세, 오이디푸스의 이야기로 되돌아왔었다. 갑자기 그녀가 여기 그에게 와 있었다. 그녀가 빨간 솔에 감 @p 266 째 까마귀를 가슴에 꼭 껴안고 있는 모습을 그는 눈앞에 보고 있었다. 이 모습은 그에게 위안이 되었다. 테레사가 살아 있다는 것을 그녀가 이 순간 그가 있는 같은 도시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모든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그에게 말해 주기 위해 이 현상이 나타는 듯 여겨졌다. 편집인은 침묵을 깨고 말했다. 「의사 선생, 나는 당신을 이해해요. 벌한다는 것이 나의 마음에도 들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벌을 사면해 달라는 것이요.」 하고 그는 미소를 지었다. 「알고 있어요」 하고 토마스는 말했다. 그는 어쩌면 고결할 수는 있겠지만 확실히 소용 없는 행동(정치범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을, 그리고 그 개인에게 불쾌한 행동(그에게 강요된 상황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을 다음 순간 행할 각오를 하고 있었다. 아들이 말했다(거의 간청하는 어조로), 「서명하는 것은 아버지의 의무예요」 그의 의무라고? 그의 아들이 그로 하여금 그의 의무를 회상시켰다고? 그것이 야말로 누가 그에게 말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나쁜 것이었다. 다시금 그의 눈앞에는 테레사가 까마귀를 두 팔로 꼭 껴안고 있는 모습이 떠올랐다. 그는 테레사가 어제 바에서 어떤 형사 같은 녀석으로부터 시달림을 받았다는 것을 회상했다. 그녀의 두 손이 다시금 떨렸었다. 그녀는 늙었던 것이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그녀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여섯 가지의 우연에서 탄 생한 그녀, 과장 의사의 좌골신경통에서 피어난 꽃인 그녀, 모든 <그렇게 할 수 밖에!>의 피안에 있는 그녀, 그녀는 그에게 정말 중요한 유일한 존재다. 무엇 때문에 그는 자기가 서명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않을 것인가를 숙고하는가? 모든 @p 267 결단을 위한 기준은 오직 하나뿐이다. 즉, 그는 그녀에게 해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해서도 안 된다. 토마스는 정치범들을 구제할 수는 없으나 아마도 테레사를 행복하게 할 수는 있을 것이다. 아니다. 그는 이것까지도 할 수가 없다. 그가 청원서에 서명한다면 형사들이 그녀를 더욱더 자주 괴롭힐 것이고 그녀의 두 손은 더욱더 심하게 떨릴 것임은 확실하다. 그는 말했다. 「대통령에게 청원서를 보내는 것보다는 생매장된 까마귀를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오.」 이 문장이 납득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바로 이 때문에 이 문장은 더욱더 그의 마음에 들었다. 그는 갑자기 예기치 못한 어떤 도취를 느꼈다. 그것은 그가 자기 부인도, 자기 아들도 전혀 다시 보지 않겠다고 자기 부인에게 엄숙히 선언했던 그때와 똑같은 도취였다. 그것은 그가 영원히 의사 직업과 결별하던 그때, 그 편지를 편지통에 넣었을 때와 똑같은 도취였다. 그는 자기가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인지 전혀 확실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행동하고 싶은 대로 행동한다는 것을 확신했다. 그는 말했다. 「내게 화내지 마시오. 나는 서명을 하지 않을 것이오.」 15 며칠 뒤 그는 모든 신문에서 청원서에 대한 보도를 읽었다. 그러나 그것이 정치범들을 위한 정중한 청원으로써 이들의 석방을 요구한 것이라고 쓴 곳은 아무 데도 없었다. 짧은 청원서 글에서 한 문장이라도 직접 인용해 보도한 신문은 하나도 없었다. 그 대신에 모호 @p 268 한 협박조의 표현으로 장황하게 사회주의에 대한 새로운 투쟁의 기반이 되었을 반국가적 포고에 대해 언급되었다. 이 글에 서명한 사람들의 이름이 제시되었고, 비방적이고 공격적인 말들이 그들의 이름에 곁들여 있었다. 이 말들에 토마스는 등골이 오싹했다. 물론 그것은 예견할 수 있었던 것이었다. 당시 공산당이 주선하지 아니한 공적인 행동은 어떤 것이나(모든 집회, 청원, 길에서의 모임 등) 자동적으로 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참가자에게 하나의 위협을 뜻했다. 누구나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바로 그 때문에 토마스는 자기가 서명하지 아니한 데 대해 더욱더 화가 났다. 도대체 왜 서명하지 아니했던가? 그 자신 자기 결단의 동기를 그렇게 명확히 이해하지 못했다. 다시금 나는 이 소설의 시작에 그가 내게 나타났던 그의 모습을 눈앞에 본다. 그는 창가에 서서 안마당 너머 건너편 거주구역의 담벽을 바라보고 있다. 이 모습은 그를 탄생시킨 상이다. 이미 말했듯이 소설의 인물들은 실제의 인간처럼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핵심에 인간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어떤 상황, 어떤 문장, 어떤 메타포에서 탄생한다. 그리고 인간의 이 가능성은 아직 발견되지 아니했다거나, 혹은 이것에 대해서는 아직 본질적인 것이 아무것도 언급되지 아니했노라고 작가는 말했다. 아니면, 작가란 오직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 말할 수 있다는 것이 맞는 말인가? 그저 안마당 너머만 바라보고 어찌할 바를 모른다는 것, 사랑에 빠져 흥분한 순간 자기 뱃속에서 꾸르륵거리는 소리를 듣는다는 것, 배반과 배반으로 연결된 멋진 행로에서 계속 배반하고 이것을 멈출 수가 없는 것, <대장정>의 대열에서 주먹을 높이 치켜드는 것, 몰래 설치한 경찰의 마이크로폰 앞에 자신의 통찰을 과시하는 것모든 이러한 상황들을 나

@p 269 자신 알게 되었고 체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중 어느 상황안에서도 나 의 실제 삶에서 나 자신인 인물은 성장하지 않았다. 내 소설의 인물들은 현실화 되지 아니한 나 자신의 가능성들이다. 그 때문에 나는 그들 모두들 한결같이 좋아한다. 그 때문에 그들 모두는 내게 똑같이 불안을 준다. 그들은 누구나 나 자신은 물러나 피했던 경계선을 넘었다. 그들이 넘었던 바로 이 경계는(이 경계를 넘어서는 곳에 나의 자아는 끝난다) 나의 마음을 끈다. 이 경계의 이면에서 비로소 내 소설이 추구하는 큰 비밀이 시작된다. 소설이 작가의 참회가 아니라, 함정 이 되어버린 이 세상에서 인간의 삶은 무엇을 뜻하는가를 추구한다. 그런데 이 것은 이것으로 그만두고 우리들의 주인공 토마스에게로 돌아가자. 그는 혼자 집에 있다. 안마당 너머 건너편 거주구역의 더러운 담벽을 바라보고 있다. 그는 턱이 큰 그 키 큰 남자와 그의 친구들에 대한 일종의 동경을 느낀다. 물론 그는 이들 친구를 알지 못하며 이들에게 소속되어 있지도 않다. 그에 게는 마치 자기가 플랫폼에서 알지 못하는 미녀를 만났는데, 자기가 그녀에게 말도 걸기 전에 이미 그녀가 이스탄불이나 리스본으로 가는 기차의 침대칸으로 타버리고 만 듯 여겨졌다. 다시금 그는 자기가 어떻게 행동했더라면 올바른 것이었던가를 생각하겨 애썼 다. 그런데 그는 모든 감정을 제거하려 애썼지만(편집인에 대한 경탄, 자기 아들이 그에게 야기시킨 흥분 등), 여전히 그에게는 자기에게 제시되었던 그 청원서 에 서명을 했어야 하는 것인지 아닌지가 확실하지 않았다. 인간이 침묵의 강요를 받을 때 소리를 높이는 것이 옳은 것인가? 그렇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무엇 때문에 신문들이 이 청원서에 그토록 많은 지면을 할애했 @p 270 는가? (완전히 국가의 조종을 받는) 언론이 이 사건에 대해 완전히 입다물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면 아무도 이것에 대해 알지 못했을 텐데. 언론이 이것에 대해 보도를 했다면 이는 그 사건이 이 나라의 지배자들에게 때마침 좋은 것이었음을 뜻한다. 그것은 새로운 대박해를 정당화시키고 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하늘의 선물이었다. 그렇다면 그가 어떻게 했어야 올바르게 행동했던 것인가? 서명했어야 했는가, 아니면 서명하지 말았어야 했는가? 이 문제는 결국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겠다. 소리 높이 외쳐 자기 자신의 종말을 가속화시키는 것이 보다 좋은 것인가? 아니면, 입다물고 천천히 죽어가는 것을 감수하는 것이 더 나은가? 이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도대체 있는가? 그에게 다시금 어떤 생각이 떠올랐다. 이 생각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이 다. 인간의 삶은 단 한 번뿐이라는 것으로서, 바로 이 때문에 우리들 결단에서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나쁜가를 우리는 결코 확정지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어진 상황에서 단 한 번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내린 서로 다른 결단들을 서로 비교할 수 있도록 제2, 제3, 제4의 삶이 우리에게 선사된 경우는 없다. 역사의 경우도 개체의 삶에 있어서도 상황이 비슷하다. 단 하나의 체코인들의 역사가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것은 두 번 다시 반복될 수 없을 것이다. 1618년 보헤미아의 각계각층 사람들은 그들의 종교적 자유를 옹호하려 과감히 일어났다. 그들은 비엔나에 거주하는 황제에 대해 분격하여 고위관직에 있는 심복 두 사람을 프라하 성의 창문으로부터 내동댕이쳤다. 그로 말미암아 체코 민족을 거의 몰살하다시피 한 @p 271 결과를 빚었던 30년 전쟁이 시작되었다. 그 당시 체코 사람들이 용기보다는 신증을 보였어야 하지 않았던가? 이에 대한 대답은 쉬운 것같이 보이나 실은 그렇지 않다. 그 후 320년이 지난 1938년 뮌헨회의가 있고 난 뒤 온 세계는 체코인들의 나라를 히틀러에게 희생시키기로 결의했다. 이제 체코 사람들은 여덟 곱절이나 세력이 큰 나라에 저항해 홀로 싸우려고 시도했어야 했는가? 1618년의 경우와는 달리 이번에는 용기보다는 신증을 보였다. 그들이 항복함으로써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다. 이 대전은 몇십년, 경우에 따라서는 몇백년 동안 체코 민족의 자유를 (최종적으로) 상실케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들이 신증보다는 용기를 보였어야 했단 말인가? 그들은 어떻게 했어야 했는가? 체코인들의 역사가 반복될 수 있다면 번번이 다른 가능성을 시도해 보고서 두 가지 결과를 비교한다면 확실히 나쁘지 않을 것이다. 그러한 실험을 하지 않고 서는 모든 숙고들은 가정의 유희에 불과하다. 한 번은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보헤미아 역사는 두 번 다시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유럽의 역사도 그렇다. 보헤미아의 역사와 유럽의 역사는 개별적인 인간의 삶과 똑같이 가벼운 존재다. 그것은 참을 수 없이 가벼운, 깃털처럼 가벼운, 휘날리는 먼지처럼 가벼운, 내일이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그 무엇처럼 가벼운 것이다. 다시 한번 토마스는 일종의 애수를, 아니 거의 사랑의 감정을 띠고, 그 키 큰, 앞으로 몸이 굽은 편집인을 회상했다. 이 인간은 마치 역사가 스케치가 아니라 완성된 그림처럼 행동했었다. 그는 마치 자기가 했던 모든 것이 <영원한 재귀> 속에서 무수히 반복될 수 있는 듯 행동했었다. 그는 자기 행위에 대해 결코 회의에 바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했다. 그는 자기의 진실에 대해 확신했고, 그리고 이것을 결코 제약의 징후로 보지 않고 고결함의 징후로 보았다. 이 인간은 토마스와는 다른 역사에서 살고 있었다. 스케치가 아닌 (혹은 스케치라는 것을 모르는) 역사 속에 살고 있었다. 16 며칠 뒤 토마스에게 어떤 생각이 떠올랐다. 앞장을 보충하는 뜻에서 나는 이 생각을 여기 인용하겠다. 우주에 모든

인간이 다시 한번 태어나는 흑성이 하나 있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모든 인간은 지상에서 그들 삶을 회상하고, 그들이 지상에서 했던 모든 경험들을 의식하게 될 것이다. 어쩌면 또 다른 어떤 흑성이 있어서 우리 모두가 앞서 산 두 삶의 경험을 가지고 세번째로 태어날 수 있을는지 모르겠다. 뿐만 아니라 인류가 계속 한 단계(한 삶) 더 성숙하여 새로이 태어나는 더 많은 흑성이 있을지 모른다. 이것이 <영원한 재귀>에 대한 토마스의 비전이다. 지상에서(제1흑성, 무경험의 흑성), 흑성에서 우리는 다른 흑성들에게 인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는 데 대해 아주 막연한 표상밖에 할 수 없다. 인간은 보다 더 현명해질 것인가? 성숙이라는 것이 도대체가 인간의 가능성에 놓여 있는 것인가? 인간이 그러한 성숙에 반복을 통해서 다다를 수 있는 것인가? 이러한 유토피아적 이상향의 시각에서만 낙천주의와 비관주의라는 두 개념을 의미 있게 적용할 수가 있다. 낙천주의자는 제5흑성상에서 인류의 역사는 보다 적게 피비린내난다고 @p 273 믿는 사람이요 비관주의자는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다. 17 토마스가 어릴 때 읽었던 켈 베른의 유명한 소설은 『2년간의 휴가』이다. 실제로 2년의 세월은 휴가를 위해서는 최고의 기간이다. 토마스는 이제 벌써 3년째 창문밖으로 일하고 있었다. 바로 지난 몇 주 동안 그에게 (한편으로는 슬퍼했고, 한편으로는 몰래 웃음지었던 일로서) 분명해진 것은 그가 육체적으로 지쳤다는 사실이다(그는 매일 한 두 건의 <사랑경기>에 참가했다). 하고 싶은 의욕을 상실하지 않고 그는 자기의 마지막 힘을 다해 여자들을 정복했다(그의 마지막 힘이란 성적인 힘이 아니라 육체적인 힘을 두고 말한다는 것을 여기 첨부한다. 그의 정력에는 조금도 문제가 없었지만 호흡에 다소의 문제가 있었다. 바로 이 점에 우스꽝스러움이 있었다). 어느 날 그는 오후에 데이트 약속을 해두려 애썼다. 그러나 때때로 그러했던 것처럼 그는 여러 여자들에게 전화했지만 통화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그날 오후는 그의 사랑경기가 성사되지 않으려 했다. 그는 그것에 절망했다. 그는 아주 매력적인 배우 지망생이었던 젊은 여자와 통화하려고 벌써 열 번이나 시도했다. 그녀의 육체는 유고슬라비아의 나체 해수욕장에서 온몸이 골고루 갈색으로 그을려 있었다. 마치 놀랍도록 정확히 작동되는 불고기용 기계의 꼬챙이에 그녀를 매달아 천천히 돌려 구운 것 같았다. 그날 그가 일한 상점들에서 그는 계속 전화했지만 헛수고였다. 그의 일과가 끝나 서명된 작업보고를 건네주려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도중 프라하 시의 중심가에서 갑자기 알지 못하는 여자가 그를 붙들고 미소지었다. 「의사 선생, 도대체 어디로 사라졌기에 볼 수가 없어요? 당신을 전혀 볼 수가 없으니!」 토마스가 자기가 그녀를 어디에서

알았던가를 꼼꼼히 생각했다. 전의 여자 환 자였던가? 하지만 그녀는 자기들이 아주 가까운 사이인 것처럼 행동했다. 그는 자기가 그녀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을 눈치채이지 않도록 그녀에게 대답하려 애 썼다. 그는 우연히 한 그녀의 말에서 그녀가 누구라는 것을 알자, 벌써 그녀를 데리고 자기 친구 집으로(이 집의 열쇠를 그는 호주머니에 지니고 있었다) 갈 수 있도록 어떻게 그녀를 설득할 것인가를 숙고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온종 일 계속 전화통화를 하려고 안간힘을 썼던 멋지게 갈색빛으로 그을린 바로 그 배우지망생 여자였다. 이 사건은 그를 즐겁게 했고 또한 이에 못지 않게 그를 놀라게 했다. 그는 지 쳤던 것이다. 육체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지쳤던 것이다. 2년간의 휴가는 무한정 연장될 수가 없었다. 수술대로부터 떠나는 이 휴가는 동시에 테레사 로부터의 휴가였다. 일주일에 6일을 그들은 거의 서로 보지 못했다. 일요일에만 그들은 함께 있었다. 그들은 서로가 성적인 갈망을 가졌지만 그가 취리히에서 돌아왔을 그때처럼 멀고 먼 거리에서 서로가 접근해야만 했다. 사랑은 그들에게 실로 무거운 길을 안겨주었지만 어떠한 위안도 가져다주지 않았다. 그녀는 더 이상 전과 같이 소리지르지 않았다. 오르가즘에 다다를 때 그녀의 얼굴은 고통 을 표현하는 것 같았고 동시에 이상하게도 정신이 나간 표정을 지었다. 잠잘 때 만 그들은 매일 밤 다정하게 붙어 있었다. 그들은 서로가 손을 꼭 잡고, 그들을 서로 떨어지게 한 심연을(낮의 심연을) 잊었다. 하지만 토마스에게 밤만으로는 테레사를 보호하고 지키기에 충분하지 않았다. 그가 아침에 그녀를 바라볼 때면 그의 심장은 다시금 그녀에 대한 걱정 때문에 죄어들었다. 그녀는 병들고 슬퍼 보였기 때문이다. 어느 일요일 그녀는 함께 시골로 차를 타고 나가자고 그에게 청했다. 그들은 모든 거리가 러시아 이름으로 새로 바꾸어진 요양지로 갔다. 그리고 이곳에서 그들은 토마스의 옛 환자를 만났었다. 바로 이 만남이 토마스에게 충격을 주었 다. 다시금 누군가가 그를 의사로 보고 갑자기 말을 걸었던 것이다. 그러자 그는 자기—이 옛 삶이 다시 다가오는 것을 느꼈다. 유쾌한 규칙성을 지녔고 환자들 을 진찰하던 그의 삶이 자기를 믿는 환자들의 시선에 그는 별 신경을 쓰지 않는 것같이 보였지만 그것을 실은 그를 즐겁게 해주었고 또 그는 그것을 필요로 했 던 것이다. 그리고서 그들은 집으로 돌아왔다. 토마스는 글딜이 취리히에서 프라하로 돌아온 것이 파국적인 잘못된 결단이었다는 데 대해 숙고했다. 그는 테레사를 바라보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눈은 경련을 일으키며 거리만을 응시하고 있었 다. 그는 그녀에게 화가 났었다. 자기 옆에 그녀가 있다는 사실은 그에게 참을 수 없는 우연으로 나타났다. 왜 그녀는

여기 그의 옆에 앉아 있는가? 누가 그녀를 바구니에 담아서 물에 띄워 보냈는가? 그리고 왜 그녀가 하필이면 <그의> 침대 강독에 표착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왜 하필이면 그것이 그녀이고 다른 여자가 아닌가? 그들은 차를 타고 갔다. 아무도 한 마디 말을 하지 않았다. @p 276 집에 돌아와 그들은 묵묵히 저녁식사를 했다. 침묵은 마치 불행처럼 그들 사이에 놓여 있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것이 더 옥더 무거워졌다. 이 무거운 침묵에서 해방되기 위해 그들은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밤에 그는 그녀가 울었기 때문에 그녀를 깨워야 했다. 그녀는 그에게 이야기했다. 「나는 매장되어 있었어요. 이미 오래전예요. 당신 이 매주 한 번 나를 찾아주었어요. 당신이 내 무덤에 노크를 했어요. 그러면 나는 무덤 밖으로 나왔어요. 내 두 눈은 흙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당신은 말했어요. 그런 눈으로는 당신은 전혀 볼 수가 없어 하고, 그리고는 내 눈에서 흙을 닦아 주었어요. 그러면 난 당신에게 말했지요. 그렇지 않아도 내겐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요. 내겐 눈 대신에 두 구멍이 있을 뿐이에요 하고. 그런 다음 어느 날 당신은 밖에 나가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았어요. 당신이 내 가 모르는 여자에게 가 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어요. 수요일이 지나갔어요. 그럼에도 당신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당신을 놓칠까봐 겁이 나 도대체가 잠을 잘 수 없었어요. 드디어 당신이 다시금 내 무덤에 노크했어요. 그러나 나는 그 수요일의 세월을 잠을 이루지 못해, 너무도 지쳐 무덤 위로 올라갈 힘이 거의 없었어요. 안간힘을 다해 겨우 위로 올라가자 당신은 아주 실망한 것처럼 보였어요. 내 모습이 아주 나쁘다고 당신은 내게 말했어요. 움푹 들어간 내 볼과 맥 없는 내 동작을 보고 내가 흉측스럽다고 당신이 생각하는 것을 나는 느꼈어요. 나는 죄송하다는 표현을 했어요. 내게 화내지 말아요. 나는 오랫동안 전혀 잠을 자지 못했어요. 그러자 당신은 나를 달래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 목소리는 참되지 않았어요. 그것 봐. 당신은 쉬어야 해. 당신은 한 달 동안 휴가를 해야 해 하고. @p 277 그런데 휴가라는 말을 당신이 어떻게 이해하고 애쓰는가를 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당신이 다른 여자와 함께 있고자 하기 때문에 당신이 한 달 내내 나와 만나고자 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어요. 당신은 떠나갔고 나는 무덤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는 당신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잠을 못 이룰 것임을 알고 있었어요. 당신이 한 달 뒤 다시 올 때는 나는 오늘보다 더욱더 보기 흉하게 될 것이고 당신은 더욱더 실망할 거예요.」 그는 이 이야기보다 더 고통스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는 테레사를 품에 꼭 껴안았다. 그는 그녀의 몸이 떨고 있는 것을 느꼈고 그녀에 대한 그의 사랑을 더 이상 견딜 수 없는듯 여겨졌다.

지구가 폭탄 폭발로 뒤흔들리고, 조국이 매일 다른 침략자에게
약탈당하고, 그 가 사는 거리의 모든 권이 처형장으로 끌려간다
하더라도 그는 이 모든 것을, 지금 자신의 십중을 감히 털어 놓기
보다는 보다 쉽게 견뎌낼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테레사가 꿈 이
꿈의 슬픔, 그것은 견딜 수가 없었다. 그는 그녀가 그에게 이야기해 준
꿈의 내면 속으로 되돌아갔다. 그는 자기가 그녀의 얼굴을 쓰다듬고
그녀가 알지 못하도록 가만 가만히 그녀의 동공에서 흙 을 닦아내는 것을
머릿속에 그려보았다. 그러자 그녀가 그에게 헤아릴 수 없이 고통스런
문장을 말하는 것이 그에게 들렸다. 「그렇지 않아도 아무것도 안 보여
요. 내겐 눈 대신에 동공밖에 없어요.」 그의 심장이 짝 죄어왔다. 그는
심장경맥증에 걸린 듯한 느낌이였다. 테레사는 다시 잠이 들었지만 그는
한잠도 잘 수가 없었다. 그는 그녀의 죽음을 상상해 보았다. 그녀는
죽었고 가위눌려 있었다. 그러나 그녀가 죽었기 때문 에 그는 그녀를
깨울 수가 없었다. 그렇다. 그런 상황이 죽음이다. 테레사는 잠 자면서
가위눌려 있는데도 그는 그녀를 깨울 수가 없다. 19 러시아 군대가
토마스의 고향에 진입하고서 5년이 지난 뒤 프라하는 많이 변 했다.
토마스가 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전과 같은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가
아는 사람들 중 반은 이민을 갔고, 남은 사람들의 반은 죽었다. 이것은
어떤 역사가도 언급하지 않은 사실이다. 러시아군 침공 후의 세월은
장례의 시기였다. 사망률이 전례없이 높았다. 내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얀 프록사스카의 경우 처럼 누가 사주를 받아 죽게 되는(오히려
드문) 경우를 두고 하는 것이 아니다. 프록사스카의 사적인 대담이 방송된
후 2주가 지나 그는 병원으로 옮겨져야 했다. 아마도 이미 그 이전에
그의 육체 속에 조용히 잠들고 있었던 암이 갑자기 한 송이 장미처럼
피어났던 것이다. 수술은 경찰의 입회 아래 진행되었다. 경찰 은 이
소설가가 치유될 수 없고, 사형선고를 받은 바와 다름없다는 것을 확인하
자 그에 대해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래서 그를 그의 부인의
품에서 죽 게 했다. 그런데 직접 박해받지 아니했던 사람들도 죽었다.
체코를 휩쓴 절망감 이 영혼을 통해 육체 속으로 파고들어 이 육체를
물러 해지게 했다. 일부의 사 람들은 자기들에게 명예훈장을 주어 이런
방식으로 새로운 권력자의 편에 모습을 드러내도록 자기들을 강요하려
한 정권의 호의 앞에서 절망적인 도주를 했다. 프란티체크 흐루빈은
그런 식으로 당의 애호에서 탈출하려고 도망 @p 279 치다 죽은
시인이었다. 문화부장관을 피해 그는 절망적으로 몸을 숨겼다. 그가 관
속에 누워 있을 때야 비로소 장관은 그를 찾아왔다. 바로 이 관에 대고
장관 은 소비에트 연방에 대한 이 시인의 사랑에 관해 조사의 연설을

했다. 어쩌면 그는 이 치욕적인 연설로 흐루빈을 깨어나게 하려 했는지 모른다. 하지만 세상은 너무나도 흥측하게 되어, 죽은 사람들 중 아무도 소생하려 하지 않았다. 토마스는 대학 및 학술원에서 쫓겨난 어떤 유명한 생물학자의 장례에 참석하려고 화장터로 갔다. 사망 광고에는 장례시각을 기재할 수 없었다. 이것은 장례식이 말하자면 데모로 바뀌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래서 마지막 시각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유족들은 시신이 아침 6시 반에 화장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토마스가 화장터의 홀에 들어갔을 때 처음 그는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는가를 알지 못했다. 홀은 마치 영화촬영 스튜디오처럼 환하게 조명되어 있었다. 깜짝 놀라 그는 사방을 둘러보고, 세 곳에 실제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 아니, 장례식을 촬영한 것은 텔레비전이 아니라 경찰이었다. 경찰은 누가 이 장례식에 참석했나를 후에 밝혀내려고 그렇게 했다. 여전히 학술원 회원으로써, 죽은 이 학자의 나이 든 동료 한 사람이 관에 대고 조사를 말하는 용기를 동원 했다. 그는 이날 영화배우가 되는 것을 고려했던 것은 틀림없이 아니었다. 장례식이 끝나고 모두가 유족에게 조의를 표했을 때 토마스는 홀의 한 모퉁이에 남자들이 그룹을 이루어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 중에는 몸이 앞으로 굽은 키 큰 그 편집인도 끼여 있었다. 그는 다시금 아무 것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틀림없이 서로가 대단한 우정으로 결속되어 있는 이들 인간에 대해 일종의 애수를 느꼈다. 그는 그들에게로 다가갔다. 그는 미소를 짓고 몸이 앞으로 굽은 그 남자에게 인사하려 했다. 그러자 이 남자는 말했다. @p 280 「의사 선생, 조심하십시오. 더 이상 가까이 오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오!」 이 문장은 특이했다. 토마스는 이 문장을 솔직하고 우정어린 경고로 풀이할 수 있었다(「조심하오, 우리는 촬영되고 있소. 당신이 우리와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당신에게 하나의 심문을 더 뜻할 수가 있소」). 아니면 이 문장은 반어적으로 이야기된 것이었다(「당신에게는 청원서에 서명할 용기가 없었소. 그러니 시종일 관하시어 우리와 교제하는 것을 삼가시오!」). 어떤 의미가 올바른 풀이이든간에, 토마스는 키 큰 그 남자의 말에 따라 그곳을 떠났다. 그에게는 플랫폼의 그 아름다운 여자가, 바로 이 순간 급행열차의 침대차에 올라타고 말았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그가 그녀를 경모한다고 말하려 하자 그녀가 손가락을 입에 대고 그가 말하는 것을 급했다는 느낌이 그에게 들었다. 20 그날 오후 또 다른 재미있는 만남이 그에게 있었다. 그가 큰 양화점의 창문을 닦고 있었는데, 그때 창유리에 코를 바삭 누르면서 진열장 안의 가격 팻말을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었다. 「값을 올렸지요」 하고 코마스는 닦개로 창유리를 닦으며 말리는 작업을 중단하지 않고 말했다. 그 젊은

남자는 돌아보았다. 이 남자는 병원 동료로서 내가 이 소설에서 S라고 일컬었던 사람이었다. 그는 토마스가 자아비판을 쓸 것이라는 데 대해 미소를 지으면서 화를 낸 적이 있었다. 토마스 @p 281 스는 이 만남을 기뻐했다(예기치 아니한 만남이 주는 순수한, 순박한 기쁨이었다).

그러나 그는 그이 동료의 시선에서 (처음 순간 S가 정신을 가다듬을 시간을 갖기전에) 이 갑작스런 만남이 그에게 불쾌했음을 알 수 있었다. (어떻게 지내요?) 하고 물었다. 무엇을 대답할 수 있기 전에 자기가 안부를 물은 데 대해 S가 부끄러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자기 직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입장에 있는 의사가 창문담이를 하는 의사에게 (어떻게 지내요?) 하고 물었다는 것은 물론 우둔한 행동이었다. 그가 당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토마스는 가능한 한 유쾌히 대답했다. (난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러나 그는 즉시 (아주 잘) 이라는 말이 자기의 의도와는 반대로 (다름아니라 그는 이 말을 그토록 유쾌히 말하려 했기 때문이다) 마치 쓰디쓴 반어처럼 들렸다. 그 때문에 그는 즉각 덧붙여 말했다. (병원에는 뭐 새로운 것이 있나요?) S는 대답했다.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이 평소와 다름없어요) 이 대답 또한 가능한 한 중립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잘못된 것이었다. 두 사람은 이것을 알고 있었고, 또 그들은 상대가 이것을 알고 있음을 또한 알고 있었다. 그들 중 한 사람이 창문담이를 해야 한다면 어떻게 모든 것이 평소와 다름없다고 할 수 있는가? (그리고 과장 선생은?) 하고 토마스가 물었다. (서로 만나지 않나요?) 하고 S가 물었다. (아아니) 하고 토마스가 대답했다. 이것은 사실과 일치했다. 토마스는 병원을 떠난 이래 과장 선생 @p 282 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 그들은 전에 더할 나위 없이 콤플렉스가 맞아 함께 일했고, 서로가 거의 친구로서 간주하려 했었다. 그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든 간에 토마스가 방금 대답한 (아아니)라는 말은 일종의 슬픔을 내포했다. 그래서 자기가 도대체 그런 질문을 한 것을 S가 나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예감했다. 왜냐하면 S는 과장 선생과 마찬가지로 토마스에게 어떻게 지내며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고 문의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예날 두 동료간의 대화는 불가능하게 되었다. 두 사람 모두, 특히 토마스는 이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했다. 토마스는 그의 동료들이 자기를 잊었다고 이들에게 화나 있지 않았다. 그는 이것을 이 젊은 사람에게 기꺼이 해명했을 것이다. 그는 그에게 기꺼이 다음과 같이 말할 것을 것이다. 자네는 조금도 부끄럽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 자네들이 나와 교제하지 않는 것은 정상적이며 전혀 이상할 것 없어. 그 때문에 자네는 콤플렉스를 가질 필요가 없어. 나는 자네를 보게 되어 더없이 기뻐! 그러나 이 말조차도 말하기를 그는 두려워했다. 지금까지의 그의

말이 모두 그가 의도했던 것과는 다르게 들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문장도 그의 동료에게는 반어적이고 공격적인 것이 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내게 화내지 말아줘요) 하고 S는 결국 말했다. (나는 몹시 바빠요) 그리고 그는 그에게 손을 내밀어 악수했다. (당신에게 전화할게요) 그의 동료들이 당시 잘못 생각한 것이 비접함 때문에 그를 멀리 했을 때, 그들은 모두가 그를 행해 미소를 지었었다. 그를 더 이상 멀리할 수 없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를 존경해야 할 지금 그들은 그를 피했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옛 환자들까지도 그들 더 이상 초대하지 않았으며 그를 더 이상 삼페인으로 맞아주지 않았다. 거세된 지식인 @p 283 들의 상황은 더 이상 비상한 것이 못 되었다. 이 상황은 지속적인 상태가 되어 이것을 바라본다는 것은 비참한 일이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 몸을 누이고 여느 때보다 일찍 잠이 들었다. 약 한 시간 뒤 그는 위통으로 인해 잠이 깨었다. 우울할 때면 언제나 나타나는, 오래전부터 잘 알고 있는 통증이었다. 그는 가스정상비약통을 열고 욕을 늘어놓았다. 그 속엔 약이라곤 하난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새로운 약을 마련해 두는 것을 잊었었다. 그는 위통의 발작을 의지력으로 억누르려고 애썼다. 그러자 어느 정도는 가라앉힐 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더 이상 잠들 수가 없었다. 테레사가 밤 1시 반에 돌아오자 그는 그녀와 이야기하고 싶었다. 그는 그녀에게 장례에 대해서, 자기와 이야기하기를 거절했던 편집인에 대해서, 그리고 옛 동료였던 S의 만남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었다. (프라하는 흥측하게 되었어요) 하고 테레사가 말했다. (확실히 그래) 하고 토마스가 말했다. 잠시 후 테레사가 조용히 말했다. (우리가 여기에서 멀리 이사가는 것이 제일 좋겠어요) (틀림없지) 하고 토마스는 말했다. (다만 갈 수 있는 곳이 아무데도 없다는 거요) 그는 파자마 차림으로 침대 모서리에 앉아 있었고 그녀는 그의 옆에 앉아 할 팔로 그의 몸을 껴안고 있었다. 그녀는 말했다. (시골로 가요) @p 284 (시골로?) 하고 그는 이상하게 여겼다. (시골에서는 우리만 있게 될 거예요. 그곳에서 당신은 그 편집인도, 당신의 옛 동료들도 만날 되지 않을 거예요. 그곳에서는 사람들이 달라요. 그리고 자연은 전과 다름없이 있어요) 토마스는 이 순간 다시 위에 가벼운 통증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낡은 듯 여겨졌고, 오직 다소의 안정과 평온을 갈망하고 있는 듯 여겨졌다. (어쩌면 당신의 말이 옳은 것 같소) 하고 그는 힘들여 말했다. 왜냐하면 통증이 있을 때면 그는 오직 힘들여 호흡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테레사는 말을 계속했다. (그곳에서 우리는 정원이 있는 작은 집을 하나 가질 수 있을 것이며, 카레닌 또한 마음껏 미친 듯 뛰어 돌아다닐 수 있을 거예요. (그래) 하고 토마스는 말했다. 그런 다음 그는

그들이 실제 시골로 이사할 경우 어떤 것인가를 상상해 보았다.

시골마을에서는 매주 다른 여자를 갖는다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그이 예로적 모험의 종말이 될 것이다. (그러나 당신은 시골마을에서 나와 함께 살면 지루할 거예요) 하고 테레사는 그의 생각을 알아내기라도 한 것처럼 말했다. 통증은 점점 심해졌다. 그는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었다. 여자들에 대한 그이 사냥 또한 그를 노예로 만드는 명령인 어떤 형태의 (그렇게 할 수밖에!)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휴가를 갈망했다. 그러나 정식휴가를, 모든 명령들과 모든 (그렇게 할 수밖에!) 앞에서의 휴식을 갈망했다. 그가 영원히 병원 수술대로부터 떠날 수 있었다면 세상의 수술대로부터 결별하는 것 또한 무엇 때문에 가능하지 않겠는가? 말하자면 그는 세상의 수술대에서 여자들이 @p 285 알아보기 힘든 그 백만분의 이의 닭지 않은 부분을 감추어둔 싸개를 해부도로 열어젖혔던 것이다. (당신은 위통을 앓고 있군요!) 하고 테레사가 이제서야 비로소 확인했다. 그는 그렇다고 자인했다. (당신 스스로 주사를 놓았나요?) 그는 머리를 흔들었다. (약을 마련해 두는 것을 잊었소) 그녀는 그의 부주의한 태만을 나무라고 땀으로 덮인 그의 이마를 쓰다듬어 주었다. (벌써 좀 나온것 같소) 하고 그는 말했다. (누워요) 하고 그녀는 말하고 그의 몸을 덮어주었다. 그런 다음 그녀는 욕실에 들어갔고 얼마 후 그의 곁에 누웠다. 그는 베개를 벤 자기 머리를 그녀에게로 돌렸다. 그러자 그는 충격을 받았다. 그녀의 두 눈에서 표현하고 있는 슬픔은 견딜 수가 없었다. 그는 말했다. (테레사, 당신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제발 내게 말해 줘. 최근 당신에겐 무슨 일이 일어났어. 나는 그것을 느껴요. 나는 그것을 알고 있어) 그녀는 머리를 흔들었다. (아뇨, 아무 일도 없어요) (제말 그렇게 부인하지 말아요!) (언제나 똑같아요) 하고 그녀는 말했다. (언제나 똑같다)는 것은 그녀가 질투를 하고 있고, 그는 외도하고 있음을 의미 했다. 그러나 토마스는 계속 캐어물었다. (아니야, 테레사. 이번에는 좀 달라. 당신의 표정이 그렇게 나쁜 적이 아직 없었어) 테레사는 말했다. (그렇다면 당신에게 말하겠어요. 가서 당신 머리를 씻어요) @p 286 그는 그녀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녀는 서글프게, 공격성이 없이, 아니 거의 다정하게 말했다. (당신의 머리에 서는 이미 수개월 전부터 몹시 심한 냄새가 나요. 여자의 국부 냄새가 나요. 나는 그것을 당신에게 말하려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미 그토록 많은 밤을 나는 당신의 여자들 중 어니 한 여자의 국부 냄새를 숨쉬며 들이켜야만 해요) 그녀가 이 말을 하자 곧 그의 위는 다시금 통증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그는 절망했다. 하지만 그는 몸을 아주 철저히 씻었었다! 낯선 냄새의 흔적이 그에게 붙어 있지 않도록

그는 온몸을, 손과 얼굴을 꼼꼼하게 문질러 닦았다. 그는 다른 여자의 욕실에서 향수 비누를 사용하는 것을 피했다. 그는 자기 자신의 최고급 비누를 늘 지니고 다녔다. 그러나 그는 머리 감는 것을 잊었다! 아니, 머리까 지도 생각한다는 것, 그것은 나에게 생각나지 않았을 것이다! 말타듯 그의 얼굴 위에 올라타 그가 그의 온 얼굴을 가지고서 그녀의 머리끝 까지 애무를 해줄 것을 바랐던 여자를 그는 회상했다. 그 순간 그는 그녀를 증 오했다. 그와 같이 멍청한 착상을 갖다니! 그는 무엇인가 부인하는 게 불가능하 다는 것을, 그리고 오직 멍청하게 웃고 머리를 감으러 욕실로 갈 수 있을 뿐임을 통찰했다. 그녀는 그를 다시 쓰다듬으려 말했다. (조용히 누워 있어요. 이제는 소용없어 요. 나는 그런 것에 익숙해 있어요) 위가 그에게 아픔을 더해 주었고 그는 안정과 평온을 갈망했다. 그는 말했다. (우리가 요양지에서 만났던 그 환자에게 편지 쓰겠소. 당신, 그 마을이 있는 지역을 아오?) (몰라요) 하고 테레사가 말했다. 토마스는 오직 힘들어서만 말할 수 있었다. 그는 겨우 다음처럼 말할 수 있을 분이였다. (숲들..... 언덕들.....) @p 287 (그래요, 그건 좋아요. 우리 여기로부터 멀리 이사가기로 해요. 그러나 지금은 더 이상 말하지 말아요) 하고 그녀가 말했다. 그리고 그녀는 아직도 계속 그의 이마를 쓰다듬고 있었다. 그들은 나란히 누운 채 말이 없었다. 통증이 점차 사라 졌다. 바로 그 다음 그들 둘은 잠이 들었다. 한밤중에 그는 잠이 깨었다. 그는 자기가 순전히 에로적인 꿈들만을 꾸었던 것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다. 그가 아주 확실하게 기억할 수 있었던 꿈은 마지막 꿈뿐이었다. 수영장에서 거대한 나체의 여자 한 사람이 배영을 하고 있었다. 그 녀는 적어도 그보다는 다섯 배나 컸다. 그녀의 배는 국부에서부터 배꼽까지 뻑 뻑이 털로 덮여 있었다. 그는 수영장 가장자리에서 그녀를 내려다보았고 미칠 듯 흥분되었다. 그의 육체가 위통으로 인해 약해진 순간에 어떻게 그가 그토록 흥분할 수 있었는가? 잠이 깨어 있는 평상시 같으면 그에게 오직 구역질만 일어나게 할 수 있었을 여자를 보고 어떻게 그가 그토록 흥분할 수 있었는가?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우리 머릿속에 든 시계장치에서는 두개의 톱니바퀴가 서로 반대방향으로 돌아가는 거야. 한쪽 톱니바퀴에는 환상들이, 다른 쪽에는 육체의 반응들이 있는 거야. 나체여인의 환상이 기록되어 있는 톱니가 성기 발 기를 위한 명령이 새겨져 있는 맞은편 톱니를 건드리는 거야. 작은 바퀴들이 잘 못하여 위치가 바뀌게 되어, 흥분 자극 톱니가 날아가는 제비의 모습이 @p 288 그려져 있는 톱니와 맞물리게 되면 제가를 볼 때 우리가 성기가 발기하는 거 야 하고. 뿐만 아니라 토마스는, 인간의 수면을 연구했으며 남자는 꿈꿀때마다 발기를 갖는다고 주장한 한

동료의 논문을 알고 있었다. 이것은 발기와 나체 여인 간의 연관이 조물주가 남자 머릿속에 있는 시계장치를 조절하기 위해서 선택한 수천 종류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것을 뜻했다. 이 모든 것이 사랑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아무 관계가 없다. 토마스의 머릿 속 작은 바퀴 하나의 위치가 바뀐 것으로 충분한 것이다. 그러면 그는 한 마리 제비를 보고도 흥분하게 된다. 하지만 그것은 테레사에 대한 그의 사랑에는 아무런 변화도 주지 못한다. 흥분이 우리들 조물주의 번덕 덕분에 돌릴 수밖에 없는 일종의 기계장치에 의한 것이라면, 사랑은 이와는 반대로 오직 우리에게만 속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통해서 조물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사랑은 우리들의 자유다. 사랑은 (그렇게 할 수밖에!)의 피안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 또한 진실 전체가 아니다. 비록 사랑이 조물주가 자기 만족을 위해 생각해 낸 성의 시계장치와는 다른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이 기계장치의 첨가물이다. 사랑은 마치 나체의 아름다운 여인이 벽시계의 추에 묶여 있듯 기계장치에 묶여 있다. 토마스는 자신에게 말했다. 사랑을 서의 우둔함으로부터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들 머릿속 시계들을 달리 맞추고 한 마리 제비를 볼 때 흥분하는 것일 거야 하고. 이런 아름다운 생각을 하면서 그는 잠이 들었다. 그리고 잠의 무턱에서, 어지러운 표상들의 영역, 마법에 걸린 이 영역에서 그 @p 289 는 갑자기 모든 수수께끼의 해명을, 비밀의 열쇠를, 하나의 새로운 상상의 세계, 파라다이스를 방금 찾았다고 확신했다. 다시 말하면 한 마리 제비를 보고 흥분하고, 성의 공격적 우둔성의 번거로운 방해로 받지 안혹 테레사를 사랑할 수 있는 세계를 발견했다고 그는 확신했다.

그리고서 그는 깊이 잠이 들었다. 그는 자기 주위를 어지럽게 맴돌고 있는 반라의 몇몇 여자들의 한가운데 있었다. 그는 피곤하게 느껴졌다. 이들 여자들로부터 빠져나가기 위해 그는 옆방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었다. 그는 건너편 긴 안락의자 위에 젊은 처녀가 있는 것을 보았다. 이 여자도 반라였다. 팬츠만을 걸치고서 옆으로 누워 팔꿈치로 머리를 받치고 있었다. 그가 올 것이라는 사실을 알기라도 했던 것처럼 그녀는 미소를 지으면서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에게로 다가갔다. 무한한 행복감이 그를 사로잡았다. 왜냐하면 그는 그녀를 마침내 찾아냈고, 그녀와 함께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는 그녀 앞에 앉아 무엇인가를 그녀에게 말했다. 그리고 그녀가 무엇인가를 그에게 말했다. 그녀는 조용함을

품기고 있었다. 그녀 두 손의 움직임은 느렸고 우아했다. 평생 그는 바로 이 조용한 동작을 동경했었다. 바로 여자의 이 조용함이 평생 동안 그에게 결여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순간 그는 꿈에서 잠이 깬 상태로 일어났다. 그는 잠자는 것도 아니고 올바르게 잠이 깬 상태도 아닌 중간지대에 처해 @p 290 있었다. 그는 그 처녀를 시계에서 놓칠까봐 걱정했다. 그는 혼잣말을 했다. 야 단났군, 저 여자를 놓쳐서는 안 되는데! 그는 이 처녀가 누구며, 그녀를 어디에서 만났으며, 그녀와 함께 어떤 체험을 했는가를 기억하려고 절망적으로 애썼다. 그가 어디에서 그녀를 그토록 잘 알았던가를 더 이상 알지 못할 수가 있단 말인가? 그는 다음날 그녀에게 전화하려고 마음먹었다. 그가 이렇게 혼잣말을 하자 마자 그는 깜짝 놀랐다. 왜냐하면 그는 그녀의 이름을 잊었으므로 그녀에게 더 이상 전화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가 그토록 잘 알았던 사람의 이름을 어떻게 잊을 수 있었는가? 그러자 그는 거의 잠이 깨었다. 그는 눈을 떴고 자 신에게 말했다. 내가 어디에 있지? 그렇다. 난 프라하에 있어. 그런데 그 처녀는 도대체 프라하 출신인가? 그 여자를 어딘가 다른 곳에서 만나지 않았던가? 어쩌면 스위스 출신의 처녀가 아닐까? 그러고도 한참 지나서야 비로소 그는 자기가 그 처녀를 전혀 알지 못하며, 그녀가 취리히 출신도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그 처녀는 그이 꿈에서 나온 여자이지 그 외의 어느 곳에서의 여자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이에 대해 너무도 당황하여 침대 모서리에 걸터앉았다. 테레사가 잠 속에서 숨을 깊이 쉬었다. 그는 꿈에서의 그 처녀가 그가 자기 삶에서 만난 어떤 여자라도 같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했다. 그에게 그토록 친숙하고 그토록 잘 아는 듯 생각된 그 처녀는 실제로 그가 전혀 알지 못하는 여자였다. 그러나 바로 그 여자를 그는 늘 동경했었다. 그에게 개인적인 파라다이스가 있다면 그는 이 파라다이스에서 그녀 곁에 살 것임이 틀림없을 것이다. 이 여인은 그의 사랑의 (그렇게 할 수밖에!)였다. 그는 플라톤의 (향연)에 나오는 잘 알려진 신화를 회상했다. 처음에 인간은 반 음양자였다. 후에 신은 그들을 두 쪽으로 @p291 갈라놓았다. 그 후 이들은 세상을 돌아다니며 서로를 찾는다. 사랑은 우리들 자신의 상실된 반쪽에 대한 동경이다. 우리들 각자가 세상 어디인가, 옛날 언젠가 하나의 육체를 이루었던 파트너를 갖고 있다고 가정하자. 토마스의 제2의 이 분신은 그가 꿈꾸었던 그 처녀이다. 다만 누구나 자기의 제2분신을 결코 다시는 찾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 대신 우리에게서 테레사와 같은 여자가 바구니에 담겨져 물 위에 띄워 보내진다. 그런데 만약 우리에게 정해진 여자, 즉 자기 자신의 제2의 분신을 만나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누구를 우선할 것인가? 바구니에 담긴 여자를, 아니면 플라톤의 신화에 나오는

여자를? 그는 어떤 이상적인 세계에서 그가 꿈속의 여자와 함께 사는 것을 상상해 보았다. 그러자 벌써 테레사는 그들 빌라의 열려진 창문을 따라가고 있다. 그녀는 혼자다. 그녀는 보도 위에 서서 끝없이 슬퍼하는 눈으로 그를 바라본다. 그는 이 시신을 견뎌내지 못한다. 벌써 다시금 그는 그녀의 고통을 자기 자신의 가슴 속에서 느낀다. 벌써 그는 다시금 동감의 강한 힘 속에 들어가 테레사의 영혼으로 빠져들어간다. 그는 창을 통해 밖으로 뛰어내린다. 그러나 그녀는 그가 행복 스럽게 느끼는 곳에 머물러 달라고 그에게 괴롭게 말한다. 그녀의 동작은 산만 하고 연결성이 없다. 그녀에게서 항상 그의 마음을 거슬리게 했던 동작이었고, 늘 그의 마음에 들지 않았던 동작이다. 그는 그녀의 신경질적인 두 손을 잡아 그녀를 진정시키려고 자기의 두 손에 꼭 쥐고 있다. 그리고 그는 알고 있다. 자기의 행복의 집을 어느 순간 곧 떠나게 될 것임을. 그가 꿈속의 처녀와 함께 살고 있는 파라다이스를 떠나게 될 것임을 그는 알고 있다. 여섯 가지 우스꽝스러운 우연에서 탄생된 여자인 테레사와 함께 떠나기 위해서 그는 그의 사랑의 (그렇게 할 수밖에!)를 배반하게 될 것임을 알고 있다. @p292 그는 여전히 침대 모서리에 앉아서, 자기 옆에 누워 자면서 그의 손을 꼭 잡고 있는 부인을 바라본다. 그는 그녀에 대한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느꼈다. 그녀의 잠은 이 순간 매우 가벼웠음이 틀림 없었다. 왜냐하면 그녀는 눈을 뜨고 어리둥절해하며 그를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당신 어디를 보고 있어요?)하고 그녀는 물었다. 그는 그녀를 깨워서 안 되며 그녀를 다시 잠 속으로 되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 때문에 그는 자기의 말이 그녀의 정신 속에서 어떤 새로운 꿈의 시작의 이미지가 되도록 대답하려 애썼다. (별들을 바라보고 있어) 하고 그는 말했다. (거짓말하지 말아요. 당신은 별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밑을 내려다보고 있어요!) (우리가 비행기 속에 앉아 있기 때문이요. 별들이 우리 밑에 있어요) 하고 토마스는 대답했다. (아, 그래요, 비행기 속에 있다고요) 하고 테레사는 말했다. 그녀는 토마스의 손을 더욱더 꼭 쥐고 다시 잠들었다. 토마스는 테레사가 지금 별들 위를 높이 날아가고 있는 비행기의 둥근 창문을 통해 밖을 내다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p 295 1980년에야 비로소 사람들은 (선데이 타임스)지에서 스탈린의 아들 아이코프가 어떻게 죽었는가를 읽어 알았다. 그는 제2차세계대전 포로로서 영국 장교들과 함께 독일 포로수용소에 감금되었다. 그들에게는 하나의 공동 변소가 있었다. 스탈린의 아들은 변을 볼 때마다 늘 변소를 더럽혀놓았다. 비록 그 당시 세상에 서 가장 권위 있는 사람의 자식의 똥이 문제되었지만, 똥이 발라져 더럽혀진 변소를 보아야만 한다는 것은 영국군 장교들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들은 그를 나무랐다. 그는 모욕을 당했다. 그들은 그들의 질책을 번번이 되풀이하여 그가 변소를 깨끗이 하도록 강요했다. 그는 화가 나 다투었고 그들과 치고받으며 주 먹싸움까지 했다. 결국 그는 수용소 소장과의 접견을 청했다. 그는 소장이 자기 들 다툼을 해결해 줄 것을 바랐다. 거만한 독일 소장은 하지만 똥에 대해 말하 기를 거부했다. 스탈린의 아들은 이 굴욕을 참을 수가 없었다. 거친 러이사 욕설 을 하늘에다 외치면서 그는 수용소 주위의 담장을 이루고 있는, 전기가 흐르고 있는 전선을 행해 달 @p 296 려갔다. 그는 철조망 속으로 뛰어들었다. 이제는 결코 영국인들에게 변소를 더럽혀주지 않을 그의 욕체가 그 속에 걸려 있었다. 스탈린의 아들은 편안하게 살지 못했다. 그의 아버지는 짐작건대 후에 자기가 총살하도록 했던 여자와 그를 만들었다. 그래서 이 젊은 스탈린은 하나님의 아 들이요(그이 아버지가 하나님처럼 숭배되었기 때문이다)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 로부터 저주를 받았다. 사람들은 그를 이중으로 두려워했다. 즉, 그는 그의 권력 을 통해 그들을 해칠 수가 있었다(그는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스탈린의 아들이 었다). 그러나 또한 그의 호의를 통해서도 그들을 해칠 수 있었다(아버지 스탈린 은 저주받은 아들 대신에 친구를 벌할 수 있었다). 저주와 특권, 행복과 불행, 이 대치들이 얼마나 서로 교체될 수 있는가를, 그 리고 얼마나 작은 간격이 인간 존재의 이 두 극간에 놓여 있는가를 이보다 더 강력하게 자신의 몸에서 느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전쟁이 시작되자 곧 그는 독일군의 포로가 되었다. 다른 포로들이 속한 국민 은 납득할 수 없는 폐쇄적인 그의 태도 때문에 언제나 그이 성미에 전혀 맞지 않았다. 그리고 이들은 더럽다는 죄를 그에게 씌웠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드 라마들 중 가장 숭고한 드라마를 자신의 양 어깨에 걸머진 그가(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동시에 타락한 천사였다) 이제 자신에게 판결을 내리게 해야 하겠는 가? 그것도 예컨대(하나님이나 천사들에 관계되는) 위엄 있는 @p 297 것들을 위해서가 아니고 똥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하겠는가? 도대체 모든 드라 마 중에서 가장 숭고한 드라마가 가장 저속한 것 가까이에 그것도 그토록 현기 증을 불러일으키도록 가까이에 놓여 있단 말인가? 현기증을 불러일으키도록 가까이라고? 가까움이 도대체 현기증을 불러일으킬 수 있단 말인가? 있다. 만약 북극과 남극이 서로 그토록 접근하여 서로가 닿게 될 때면 지구는 사라져버릴 것이고, 인간은 현기증나게 하고 추락하도록 유인하는 허공에 있게 될 것이다. 저주와 특권이 동일한 것이라며, 숭고한 것과 저속한 것 간에 차이가 없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똥 때문에 유죄판결을 받게 될수 있다면, 인\간적 존재는 그 것의 차원들을 상실하게 되고 참을수 없도록 가벼워질 것이다.

스탈린의 아들은 전류가 흐르는 철조망을 향해 달려가 자신의 육체를 그 위에 던진다. 그것은 마치 자신의 차원들을 상실한 어떤 세계의 무한한 가벼움으로 인해 비참하게도 높이 치솟는 천칭의 저울판에 몸을 던지는 것과 같다. 스탈린의 아들은 자신의 삶을 뚝 때문에 버렸다. 그러나 뚝을 위한 죽음은 무 의미한 죽음이 아니다. 자신들의 제국을 동쪽으로 확장하기 위해 자신들의 삶을 희생시킨 독일 사람들, 자신들의 조국이 세력을 서쪽으로 더욱더 뻗도록 죽은 러시아 사람들, 그렇다. 그들은 모두 어리석음을 위해 죽어갔다. 그래서 그들의 죽음은 무의미했고 보편적인 의미가 없는 것이었다. 이와는 반대로 스탈린 아들 의 죽은 전쟁의 일반적인 우둔성 한가운데서 유일무이한 형이상학적 죽음이었다. @p 298

내가 어렸을 때, 구스타브 도레의 부식 동판화들을 삼입하여 아동용으로 다시 쓴 구약성서를 펴보았을 때 나는 사랑스런 하나님께서 구름 위에 앉아 있는 그림 을 보았다. 하나님은 나이 든 남자로서, 두 누나가 코와 긴 수염이 있었다. 그때 나는 자신에게 말했다. 하나님에게 입이 있다면 하나님도 먹어야만 하지. 그리고 하나님이 먹는다면 하나님에게도 내장이 있을 것임이 틀림없다고. 하지만 이 생 각은 나를 몹시 놀라게끔 했다. 왜냐하면 나는 비록 내가 믿음이 없는 가문에서 출생했지만 하나님의 내장에 대한 생각이 하나님에 대한 모독임을 느꼈기 때문 이다. 전혀 신학적인 예비교육도 없이 나는 벌써 아이 때 아주 즉흥적으로 뚝과 하나님께서 합치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 결과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 에 따라 만들어졌다고 보는 기독교 인류학의 기본논제가 지닌 문제성까지도 나 는 그때 이미 깨달았다. 둘 중의 하나다. 인간이 하나님과 똑같은 형상으로 창조 되었다면 하나님에게도 내장이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에게 내장이 없다면 인간 은 하나님과 동일하지 않다. 옛날 그노시스파의 사람들은 내가 다섯 살 아니로 그랬던 것과 똑같이 그 사실을 명확히 직시했다. 까다로운 이 문제를 최종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기원 2세 기 그노시스파의 대가였던 발렌틴은 주장했다. (예수께서는 먹고 마셨지만 변을 보지 않았다) 뚝은 악보다도 더 다루기 힘든 신학적 문제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를 주 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의 범죄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 다. 그러나 뚝에 대한 책임은 오로지 @p299 인간을 창조한 분이 진다. - 4 - 성 히르니무스는 기원 4세기에 아담과 이브가 동참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단호 히 거부했다. 9세기에 저명한 신학자였던 요하네스 스코투스 에리우게나는 그와 는 반대로 이 생각을 인정했다. 그러나 그는 아담이 그의 남근을 언제든지, 그리고 어떻게든지 그가 원하는 대로, 마치 팔이나 발을 치켜올리듯 발기시킬 수 있 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생각 이면에서

성교불능증에 대한 위협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남자의 꿈을 찾아보지 말아야 한다. 스코투스 에리우게나 의 생각은 다른 의미를 지닌다. 만약 남근이 단순히 두뇌의 명령에 의해 발기할 수 있다면 이것은 흥분이 필요없이 존재한다는 것을 뜻한다. 남근이 발기하는 것은 흥분해서가 아니라 발기하도록 남근에게 명령하기 때문이다. 이 위대한 신학자에게 낙원과 모순되게 여겨진 것은 성교와 이것과 결부된 관능적 쾌락이 아니었다. 파라다이스와 모순된 것은 흥분이었다. 우리 이것을 잘 유념해 두자. 낙원에는 관능적 쾌락은 존재했으나 흥분은 존재하지 않았다. 스코투스 에리우게나의 이 같은 관찰에서 우리는 똥을 정당화시키는 일종의 신학적 정당화 (달리 말하면 일종의 신의론) 를 위한 열쇠를 찾아볼 수 있다. 인간이 낙원에 있을 수 있었던 동안에는 똥을 누지 않았다 (발렌틴이 표상한 예수 그리스도와 비슷하다). 아니면 (보다 더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서) 똥이 역겨운 것으로 간주되지 않았던 것이다. 하나님이 인간을 낙원으로부터 추방 @p300 한 순간 하나님은 인간에게 인간이 얼마나 구역질나는 존재인가하는 것을 이 해하도록 했다. 인간은 그가 부끄럽게 생각한 것을 감추기 시작했다. 그리고 감추었던 비밀을 들추어내는 순간 그는 눈부신 빛에 눈이 멀었다. 그런 식으로 인간은 구역질에 이어 흥분을 알게 되었다. 똥이 (말 그대로의 의미 및 전의적인 의미에서) 없었던들 성적인 사랑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가슴이 두근거리고 모든 감각이 눈멀게 되는 현상을 동반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 소설의 제3부에서 나는 사비나가 반라로, 머리에는 멜론모를 쓰고 정장을 한 토마스 옆에 서 있는 것을 이야기했다. 그때 나는 무엇인가를 이야기하지 않고 입다물었다. 그녀가 거울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동안 그녀는 흥분을 느꼈다. 자신의 모습이 우스꽝스러웠기 때문이다. 그녀는 토마스가 자기 를 그런 모습으로 머리에 멜론모를 쓴 채 변기위에 앉혀주고, 그의 앞에서 자기 가 변을 보게 되는 것을 상상했다. 이 표상이 그녀의 심장을 더욱 빠르게 뛰게 했고, 그녀를 완전히 어리둥절하게 했다. 그녀는 토마스를 양탄자 위로 끌어 눕혔고, 잠시 후 그녀는 쾌감에 소리쳤다. - 5 -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세상은 자생했노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간의 논쟁은 우리들의 이성과 우리들의 경험을 초월하는 것에 근거한다. 인간에게 주어진 대로의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주어졌든 간에) 존재에 회의 하는 사람들과 유보 없이 이 존재에 동의하여 수락하는 사람들 간의 차이가 훨씬 @p301 더 현실적이다. 종교적인 것이든 정치적인 것이든 모든 유럽의 신앙 종파들 이면에는 창세기의 첫장이 자리잡고 있다. 창세기 첫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내용은 세상은 마땅히 그렇게 조재해야만 하는 것처럼

창조되었고, 존재는 선하며 그 때문에 올바르다는 것, 인간은 번식한다는 것이다. 이 기본적인 신앙의 존재에 대한 정언적 동의라고 부르기로 하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똥이란 말은 책에 쓰일 때는 몇 개의 점으로 대치했다. 그렇게 한 것은 도덕적인 근거에서가 아니었다. 똥이 비도덕적이라고 당신도 주장하여 하지 않겠지! 똥의 부인은 형이상학적인 성질의 것이다. 똥 누는 순간은 하나님의 창조를 수락하지 못하겠다는 데 대한 일상의 증명이다. 둘 중의 하나다. 똥을 수락하든지 (이런 경우 당신은 변을 볼 때 화장실 문을 잠그지 마시오!). 아니면 우리들 자신이 수락할 수 없는 주제로 창조된 것이다. 여기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존재에 대한 정언적 동의의 미학적 이상은 똥이 부인되는 세계, 모두가 거기에서는 마치 똥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는 세계라는 사실이다. 이러한 미학적 이상은 키취 (저속) 라고 일컫는다. 이것은 독일말로써 감상적인 19세기에 나타나 모든 언어들에 수용되었다. 너 무 자주 사용한 탓으로 이 말이 지닌 원래의 형이상학적 의미는 없어져버렸다. 즉, 키취는 똥의 절대적 부정이라는 의미가 없어져버렸다. 말 그대로의 의미 및 전의적인 의미에서 키취란 인간존재에서 본질적으로 수락할 수 없는 것은 모두 그것의 시야에서 제외시킨다. @p302 - 6 - 공산주의에 대한 사비나의 첫번째 내면적 거부는 윤리적인 것이 아니라 미학적 성질의 것이었다. 그녀가 마음에 거슬리는 것으로 느꼈던 것은 공산주의 세계의 흉한 모습 (소의 마굿간으로 바뀐 성들) 보다는 공산주의 세계가 자신의 얼굴에 쓴 아름다움의 가면, 달리 말하면 공산주의적 키취다. 이러한 저속을 위한 모델이 근로자의 날인 5.1 축제다. 그녀는 5.1절의 행진을 사람들이 아직도 열광했던, 아니면 적어도 이 열광을 부지런히 연출해 보이던 시기에 체험했다. 여자들은 적. 백. 청의 브라우스를 입고 - 발코니와 창문에서 바라보면 - 여러 가지 모형을 만들었다. 오각형의 별, 심장, 글자들을 만들었다. 행진의 각 단위들간에는 작은 오케스트라가 끼어서 행진곡을 연주했다. 행진대열의 관람대에 가까이 오면 더없이 지루해하고 있는 얼굴들까지도 마치 자기들이 감동적으로 기뻐하고 있다는 것을.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기들이 당연히 동의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것처럼 미소를 띄면서 화기를 풍겼다. 그러나 단순히 공산주의에 대한 정치적 동의가 문제된 것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에 대한 동의가 문제된 것이다. 5.1절 축제는 존재에 대한 정언적 동의의 깊은 우물물로 흠뻑 젖어 있었다. 적혀 있지도, 표현되지도 아니한 행진표어는 <공산주의 만세!> 가 아니고 <삶 만세!> 였다. 공산주의 정책의 강점과 꺾는 이 표어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다는 데 있다. 바로 이 어처구니없는 동어반복은 (<삶 만세!> =

<삶이 살기를!>) 공산주의의 논제들에 무관심한 사람 들까지도 공산주의
행지네 말려들게 한다. @p303 - 7 - 10년 뒤 (사비나는 벌써 미국에 살고
있었다) 그녀는 언젠가 그녀의 남자친구 들 중 한 사람인 미국의 한
상원의원과 함께 그의 대형차를 타고 갔다. 뒷좌석 에 네 아이들이 몰려
탔다. 상원의원은 정차를 했고 아이들은 차에서 내려 넓은 잔디밭을 달려
그 너머에 있는 경기장으로 갔다. 그곳에는 인공 빙판의 스케이 트장이
있었던 것이다. 상원의원은 운전대에 앉아 달려가는 네 아이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런 다음 그는 사비나를 향해 말했다. “저것 좀
바라봐요!” 그는 한 손으로 경기장, 잔디밭, 아이들을 포함하는 하나의
원을 그렸다. “이것 을 나는 행복이라 부르겠소” 이 말 속에는 아이들이
달려가고, 풀이 자라고 있는 데 대한 기쁨뿐만 아니라, 상원의원의 확신에
의하면, 풀도 자라고 있지 않으며 아이들도 달리지 않는 공 산주의 국가
출신의 여자에 대한 이해의 표현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사비나는 바로 그
순간 이 상원의원이 프라하에 있는 어떤 광장에 설 치된 관람대에 서 있는
것을 상상해 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공산주의 정치가들 이, 행진하며
지나가고 미소짓고 있는 시민들을 그들의 관람대로부터 내려다보 며 짓고
있는, 말하자면 바로 그 미소가 나타나 있었다. @p304 - 8 - 아이들이
행복을 의미한다는 것을 이 상원의원은 어떻게 알 수 있었는가? 말 하자면
그가 그들의 영혼 속을 들여다보았던가? 그런데 이제 그들이 그의 시야
에서 사라지자마자 그들 중 셋이 나머지 다른 아이에게 덤벼들어 그
아이를 때 려눅혔다면? 상원의원은 그의 주장을 위해 오직 유일한 논증을
가졌을 뿐이다. 그것은 그 의 감정이었다. 마음이 말할 때에는 오성이
그것에 대해 모든 이의를 제기한다 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 키취의
제국에서는 마음의 독재가 지배한다. 키취를 통해 야기된 감정은 여하튼
대중이 그것을 나누어 가질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 때문에 키취는 비상한
상황에 근거할 수 없고, 다만 사람의 기억 속에 아로새겨진 근원
이미지들에 근거한다. 감사할 줄 모르는 딸, 배반당한 아버지, 잔디밭
위를 달리는 아이들, 버리고 떠난 고향, 첫사랑의 회상 등. 키취는 나란히
흘러내리는 두 줄기 감동의 눈물을 나오게끔 한다. 첫번째 줄 기의 눈물이
말한다. 하지만 잔디밭 위를 달리는 아이들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고.
두번째 줄기의 눈물이 말한다. 하지만 온 인류와 함께 모두 다같이 잔디밭
위 를 달리는 아이들을 보고 감동된다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고.
두번째의 이 눈물이 비로소 키취를 키취로 만든다.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이
형제처럼 우애를 갖는다는 것, 그것은 오직 키취를 통 해서만 근거될 수
있을 것이다. @p305 - 9 - 정치가들보다 이것을 더 잘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사진기가 가까이 있으 면 그들은 즉시 우선 눈에 띄는 아이에게

달려가 그 아이를 팔에 안아서 뺨에 키스한다. 키위는 모든 정치가, 모든 정당, 모든 정치운동의 미학적 이상이다. 서로의 영향이 서로 방해하고 제약하는 여러 정치 과당이 존재하는 사회에서는 키위를 통해서 심문을 피할 수가 있다. 개인은 자기의 독창성을 보유할 수 있고 예술가는 예기치 않은 작품을 창조할 수 있다. 그러나 유일한 정당이 모든 세력을 장악하고 있는 곳에서는 우리는 전적인 키위의 제국에 있게 된다. 전적이라고 내가 말할 때 이것은 키위를 방해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삶에서 추방된다는 것을 뜻한다. 즉, 모든 개인주의의 표현 (벗어나는 것은 어떤 것이나 미소짓는 우애의 얼굴에 침뱉는 것이다). 모든 회의주의 (하찮은 것에 의심하기 시작하는 자는 삶 자체를 의심하는 것으로 끝나게 된다), 모든 아이러니 (키위의 제국에서는 모든 것은 무조건 진지하게 받아들여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을 버리고 떠난 어머니, 혹은 남자들을 여자들보다 더 좋아하여 <서로 사랑 하고 자손을 퍼뜨려라> 라는 아주 성스러운 표어를 문제시하는 남자 또한 그렇 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소위 <굴락> (Gulag: 교정노동수용소) 을 전적인 키 위가 버리는 쓰레기를 정화하는 정화조로 볼 수 있다. @p306 - 10 - 제2차세계대전 후 10년은 가장 가공할 스탈린 테러의 시기였다. 그때 테레사 의 아버지는 하찮은 일로 이해 체포되었고, 당시 열살 먹은 처녀였던 테레사는 집에서 쫓겨났다. 사비나는 그때 스무살이었고, 미술대학에서 공부하고 있었다. 마르크스주의 전공 교수는 그녀와 그녀의 학우들에게 사회주의 예술의 다음 논 제를 해명해 주었다. 소련 사회는 그것의 발전단계에서 너무도 발전하여 선과 악 간의 갈등이 더 이상 없으며 다만 좋은 것과 더 좋은 것 간의 갈등이 아직 있을 뿐이다. 똥 (원칙적으로 수락할 수 없는 것) 은 따라서 (예컨데 스파이의 모습으로) <좋고 더 좋은> 세계로 침투해 들어 올 수 있었다. 실제로 잔인하다는 것 이상인 이 시기에 모든 공산주의 국가의 영화관들에 범 랩했던 소련 영화들은 도저히 믿기지 않을 순진함을 흠뻑 담고 있었다. 두 러시 아인들간에 나타날 수 있는 가장 큰 갈등은 연애편제의 오해였다. 말하자면 그 는 그녀가 자기를 더이상 사랑하지 않는다고 믿는다. 마지막에 그들은 서로 포 용하고, 행복의 눈물이 그들의 눈에 쏟아진다. 오늘날 이들 영화의 일반적 해석 은 다음과 같다. 이들 영화는 공산주의 현실이 훨씬 더 나빴던 동안 공산주의 의 이상을 보였다고. 사비나는 그와 같은 해석에 대해 거부감을 보였다. 소련의 키위 세계가 현실 이 될 수 있을 것이며 그녀는 그 속에서 살아야 할 것 @p307 이라는 생각에 그녀는 등골이 오싹했다. 잠시도 주저하지 않고 그녀는 모든 박해와 정육점 앞 장사진에도 불구하고 실제 공산주의적 정권 아래 있어서의 삶 을 우선할 것이다. 실제로 공산주의 세계에서는 살 수가

있다. 현실이 되어버린 공산주의의 이상세계에서는, 그녀가 결코 한 마디 말도 나눌 수가 없었을 일간 이들의 이 세계에서는 그녀는 일주일도 못 가서 무서워 줄고 말았을 것이다. 소련형 키취가 사바나의 마음속에 불러일으킨 감정은 테레사가 꿈에서 나체의 여인들과 함께 풀 주위를 행진하며 만족스런 노래를 불러야만 했을 때 체험했 던 그 엄청난 무서움과 같은 것으로 내게 생각된다. 수면 밑에 시체들이 떠다녔 다. 테레사는 어느 한 여자와 말할 수도, 질문할 수도 없었다. 질문을 했던들 그녀는 대담으로 다만 부르던 노래의 다음 절을 들었을 뿐일 것이다. 어느 단 한 여자에게도 그녀는 몰래 손짓할 수 없었다. 그랬던 들 그 여자는 즉시 그녀를 풀 위에 매달린 바구니 속에 서 있는 남자에게 일러바쳤을 것이고, 그는 그녀를 사살했을 것이다. 테레사의 꿈은 키취의 참된 기능을 드러내 보인다. 키취는 죽음을 감추고 있는 병풍이다. - 11 - 전적인 키취의 제국에서는 대답은 처음부터 주어져 있다. 그래서 그것은 모든 질문을 배제하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전적인 키취의 본래적인 적은 질문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질문은 무대화의 그려진 캔버스 뒤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가를 볼 수 있도록 이것을 갈기갈기 잘라버리는 칼과 같다. 그런 식 으로 @p308 언젠가 사비나가 테레사에게 자기 그림의 의미를 해명했다. 전면에는 이해하 기 쉬운 거짓이 있고, 뒤쪽에서부터 이해하기 어려운 진실의 빛이 스며나온다고. 그러나 소위 전체주의 정권에 대항해서 싸우는 사람들은 질문과 회의만 갖고 는 출정하기가 어렵다. 그들 또한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이해될 수 있어야 하고 집단적으로 눈물을 흘리도록 해야 하는 담보 및 단순한 진실을 필요로 한 다. 언젠가 독일에 있는 어떤 정치집단이 사비나를 위해 전담회를 마련했다. 사 비나가 카탈로그를 손에 들었다. 그녀의 사진 너머로 철조망이 그려져 있었다. 인쇄된 그녀의 생애 서술은 순교자의 성지 같았다. 말하자면 그녀는 갖은 고생 을 했고, 부정에 대항해 싸웠고, 고문당한 그녀의 조국을 떠나지 않을 수 없었으 며, 그러고도 그녀는 계속 항쟁했다고 했다. <그녀는 행복을 위해 그녀의 그림 들과 싸우고 있다> 고 그녀 생애 서술의 마지막 문장은 끝맺고 있었다. 그녀는 항의했으나 사람들은 그녀를 이해하지 못했다. 공산주의 나라에서 현대예술이 박해받고 있는 것이 도대체 사실이 아닌가? 화를 내면서 그녀는 말했다. “내 적은 공산주의가 아니고 키취예요” 그 후 그녀는 자기의 생애를 기만으로 감쌌다. 그래서 후에 미국에서 살 때 그녀는 자기가 체코인이라는 것까지도 비밀로 할 수 있었다. @p309 - 12 - 그녀는 미완성의 그림을 올려놓은 화가 앞에 서 있었다. 그녀의 등뒤에서는 한 늙은 남자가 안락의자에 앉아서 그녀의 터치 하나하나를 추적하며 보고

있었다. 그런 다음 그는 자기 시계를 보고 말했다. “이제 우린 가야겠어요” 그녀는 팔레트를 손에서 놓고 몸을 깨끗이 하기 위해 욕실로 들어갔다. 노인은 안락의자에서 일어나 책상에 기대어두었던 그의 지팡이를 잡으려고 몸을 앞으로 숙였다. 화실의 문은 바로 바깥 잔디밭으로 나 있었다. 날이 어두워졌다. 20미터 떨어진 곳에 흰칠을 한 나무집이 하나 서 있었는데 이 집의 아래층 창문들은 환하게 불이 밝혀져 있었다. 사비나는 땅거미가 질 때 불 밝혀진 이 두 창문을 보고 감동되었다. 평생 동안 그녀는 자기의 적은 키취라고 주장했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을 자신 속에 지니고 있지 않은가? 그녀의 키취는 사랑하는 어머니와 현명한 아버지가 이끌어어나가고 있는 조용하고 유화하며 조화로운 집안의 이미지다. 이 이미지는 그녀의 양친이 죽은 후 그녀의 마음속에 발생했다. 그녀의 삶이 이 감미로운 꿈과 같지 않으면 않을수록 그녀는 이것이 마력에 더욱더 민감해졌다. 그래서 이미 몇 번 그녀는 텔레비전에서 감상적인 이야기를 볼 때 눈물을 닦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이야기에서는 배은망덕한 딸이 배반당한 아버지를 껴안았고, 행복한 가족이 사는 집의 불 밝혀진 창문이 땅거미가 질 때 빛났다. 이 노인을 그녀는 뉴욕에서 알게 되었다. 그는 부자였고 그림들 @p310 을 좋아했다. 그는 자기와 동갑의 부인과 시골 별장에서 살고 있었다. 별장 맞은편에 있는 그의 토지에는 오래된 마구간이 하나 서 있었다. 그는 사비나를 위해 그것을 화실로 개조하도록 했다. 그리고 그녀를 그곳으로 초청했다. 그래서 그는 날마다 그녀의 터치 동작을 바라보았다. 이제 그들 셋 모두는 저녁식사하며 앉아 있다. 노파는 “내 귀여운 딸” 하며 사비나에게 말을 건다. 그러나 겉으로 보아서는 그것은 정반대다. 사비나는 여기서 마치 그녀에게 매달려 있는 두 아이들을 거느린 엄마와 같다. 이들은 사비나를 경탄하며 그녀가 자기들에게 무엇인가 명령할 경우 그녀의 이 명령에 순종할 태세를 하고 있는 듯 보였다. 사비나는 아이 때 양친과의 관계를 끊는다고 선언했는데 이제 늙어가는 문턱에서 양친을 찾았단 말인가? 그녀는 자신이 한 번도 갖지 못했던 아이들을 드디어 찾았단 말인가? 그녀는 그것이 하나의 환상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이 늙은이들 집에서 그녀가 거주하는 것은 다만 짧은 멈춤일 뿐이다. 노인은 심한 병이 들어 있다. 그리고 자기의 부인이 혼자 남게 되면 곧 캐나다에 있는 그녀의 아들에게로 이사갈 것이다. 사비나는 배반에서 배반으로 가는 길을 계속할 것이고, 때때로 그녀 내면으로부터 우수꽝스럽도록 감상적인 노래가 울려나와 존재의 견딜 수 없는 가벼움 속으로 울려들어갈 것이다. 그것은 행복한 가족이 살고 있는 집의 불 밝혀진 두 창문에 대한 노래다. 이 노래는 사비나를 감동시킨다. 하지만 그녀는 그녀 자신의 감동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녀는 이 노래가 아름다운 거짓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리고 키취가 거짓으로 드러나게 되는 순간 그것은 비키취의 연관 속으로 들어가 게 된다. 그것은 그것의 권위 있는 세력을 상실하고 인간의 모든 다른 약점처럼 감 @p311 동적이 된다. 우리들은 아무도 완전히 키취의 해를 받지 않는 초인이 아니다. 우리는 키취를 아직은 그토록 혐오할 수 있지만, 그것은 이제 인간실존에 속한 다. - 13 - 키취의 원천은 존재에 대한 절대적 동의다. 그런데 무엇이 존재의 기반인가? 하나님? 인간? 투쟁? 사랑? 남자? 여자?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종류의 키취가 있는 것 같다. 카톨릭의 키취, 개신교의 키취, 유대인 키취, 공산주의 키취, 파시즘 주의 키취, 민주주의 키취, 여성존중주의 키취, 유럽 키취, 미국 키취, 국내 키취, 국제 키취 등. 프랑스 혁명 후 유럽의 반쪽은 좌익이라 명명되고 반면 다른 반쪽은 우익이란 이름을 갖게 되었다. 어떤 개념을, 그것이 근거하고 있는 어떤 이론적인 원칙의 근거에서 정의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다음에 더 이상 놀랄 만한 일이 못 된다. 즉, 정치운동은 합리적인 태도에 근거하지 않고 전체로서 이런 혹은 저런 정치적 키취를 형성하는 표상, 이미지, 단어, 원형등에 근거한다. 프란츠가 도취되었던 대장정의 표상은 모든 시대, 모든 향방의 좌익계 사람들을 통합시키는 정치적 키취다. 대장정, 이것은 앞으로 나아가는 대규모의 길로서 우애, 평등, 정의 행복으로 나아가며 또한 계속 모든 장애를 넘어 나아가는 길이다. 왜냐하면 행진이 대장정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장애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프롤레타리아의 독재냐, 아니면 민주주의의 독재냐? 소비사회의 @p 312 저주냐, 아니면 생산의 증대냐? 단두대냐, 아니면 사형의 제거냐? 이것은 도대 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좌익의 사람을 좌익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 그것은 이 이론 혹은 저 이론이 아니라, 모든 이론을 앞으로 나아가는 대장정이라고 일컬 어지는 키취의 구성요인이 되게 하는 그의 능력이다. - 14 - 프란츠는 저속의 인간이 절대 아니었다. 그의 삶에서 대장정에 대한 생각은 대략 사비나의 삶에서 불 밝혀진 두 창문에 대한 감상적 노래와 동일한 역할을 했다. 프란츠는 어떤 정치 정당을 택하는가? 그가 전혀 선거를 하지 않고 선거 일에 차라리 산으로 소풍가지 않을까 염려스럽다. 여하튼 이것은 대장정이 더 이상 그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수백년이 지나는 동안 앞으로 나아가는 행진하는 군중의 부분이 된다고 꿈꾸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다. 그래서 프란츠는 이 아름다운 꿈을 한 번도 잊지 않았다. 어느 날 친구들이 그에게 파리에서 전화를 했다. 그들은 캄보디아로 가는 행진을 마련하고 있으며 그가 그들에게 가담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 당시 캄보디아는

시민전쟁, 미국의 폭격, 내국 공산주의자들의 광란을 겪은 뒤였다. 이것들은 이 적은 국민의 5분의 1을 축소시켜 놓았다. 그리고는 결국 그 당시 러시아의 도구 외에 아무것도 아니었던 이웃 베트남의 침략이 따랐다. 캄보디아에는 기근이 휩쓸었고, 사람들이 의사의 손길도 없이 죽어갔다. 국제의사 기구 @p313 들은 자기들에게 이 나라에 들어가는 입국허가를 해달라고 여러차례 요구했다. 그러나 베트남 사람들은 거부했다. 이름 있는 서방 지식인들이 그 때문에 도 보로 캄보디아 국경으로 행진하려 했다. 모든 세계인들의 눈앞에 감행되는 이 대스펙터클을 통해서 의사들이 이 점령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강요하려 했다. 프란츠에게 전화했던 친구는 그가 옛날 함께 시위대열을 이뤄 파리의 시가를 행진했던 동료들 중의 한 사람이었다. 우선 이 제의에 프란츠는 아주 열광했다. 그러나 그의 시선은 큰 안경을 쓴 여대생에게로 떨어졌다. 그녀는 그와 마주하여 안락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눈을 둥근 안경 유리 뒤에서 더욱더 크게 나타났다. 프란츠는 이 두 눈이 마치 제발 떠나지 말아달라고 그에게 간청하는 듯 느껴졌다. 그는 거부했다. 그러나 그가 수화기를 올려놓자마자 그는 거부한 것을 후회했다. 실은 그는 자기의 숙세의 애인에게 호의를 베풀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숭고한 사상을 등한시했다. 캄보디아는 사비나의 고향의 변형이 아닌가? 이웃한 공산주의 군대에게 점령당한 나라다! 러시아의 주먹이 내려친 나라다! 갑자기 프란츠에게 은근히 잊혀진 그의 친구가 사비나의 비밀 손짓에 따라 그에게 전화했던 것처럼 여겨졌다. 숭고한 존재는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본다. 그가 이 행진에 참여한다면 사비나가 그를 바라보고 기뻐할 것이다. 그가 그녀를 변함없이 사랑했음을 그녀는 깨달을 것이다. “그럼에도 내가 행진에 참가한다면 당신 내게 화내겠어?” 하고 그는 안경 쓴 그의 애인에게 물었다. 그가 없는 매일매일을 그녀는 애석하게 생각했다. 그러나 그녀는 그에게 아무것도 거부할 수 없었다. 며칠 뒤 그는 파리공항에 스무 명의 의사들, 그리고 약 오십 @p314 명의 지식인들 (교수, 작가, 국회의원, 뱅, 시장 등)과 이들을 동반한 사백 명의 기자들, 사진사들과 함께 큰 비행기 속에 앉아 있었다. - 15 - 비행기는 방콕에 착륙했다. 470명의 의사, 기자, 지식인들은 어느 국제호텔의 응접실로 들어갔다. 이곳에서는 또 다른 의사와 배우들, 가수와 철학자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이들 또한 수백명의 기자들이 녹음기, 그리고 사진기들을 가지고 동반하고 있었다. 여기에 약 스무 명 가량의 미국인들이 앉아서 이미 회합을 이끌어어나가기 시작했다. 프란츠와 함께 홀에 들어온 프랑스 지식인들은 뒷전으로 밀려나 격하된 듯 느꼈다. 캄보디아로 행진하자는 것은 그들의 아이디어였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늘

랍도록 자명하다는 태도로 주도권을 잡은 것은 미국인들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또한 영어로 말을 했다. 그들에게는 여기의 프랑스인들이나 덴마크인들이 그들의 말을 어찌면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던 모양이다. 덴마크인들은 여하튼 자기들도 하나의 국민이라는 것을 이미 오래전에 망각했다. 그래서 모든 유럽인들 중에서 프랑스인들만이 분개하며 항의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원칙을 지켰기 때문에 영어로 항의하는 것을 거부하고 그들은 모국어로 연단에 있는 미국인들에게 말했다. 미국인들은 친절하고 동의하는 듯한 미소를 짓는 반응을 보였다. 그들은 한마디의 프랑스어도 이해하지 못했다 @p315 기 때문이었다. 결국 프랑스인들에게는 그들의 의의를 영어로 표현하는 방법 밖에 없었다. “이 회합에 프랑스인들이 참석하고 있는 데로 왜 영어로 말을 하나요?” 미국인들은 그와 같은 특이한 의의에 대해 당황했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 미소를 지었고 모든 연설을 번역해야 한다는데 동의한다고 말했다. 회합을 속행할 수 있기 전에 오랫동안 통역할 사람을 찾았다. 문장 하나하나를 영어와 프랑스어로 말해야만 했다. 그래서 회합은 두 배의 시간이 걸렸다. 왜냐하면 프랑스인들은 모두가 영어를 할 수 있어서 통역관의 말을 계속 중단시키고 수정했으며 그가 번역하는 말마다 그와 실개이를 벌였다. 이 행사의 절정은 유명한 미국 여배우가 단상에 올라간 순간이었다. 그녀 때문에 더 많은 사진사들 및 카메라맨들이 홀로 들어왔고, 이 여배우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끝날 때마다 사진기의 찰찰거리는 소음소리가 들렸다. 이 여배우는 고통을 겪고 있는 아이들, 공산주의 독재의 야만성,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데 대한 인간의 권리, 문명사회의 전통적 가치들이 직면한 위협, 인간 개체의 불가침적인 자유에 대해 말했고, 캄보디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태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카터 대통령에 대해 말했다. 마지막 말을 그녀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했다. 이 순간 빨간 콧수염을 단 젊은 프랑스인 의사가 일어나 외쳤다. “우리가 여기 온 것은 사람들을 죽음에서 구제하기 위해서요! 카터 대통령의 명성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요! 이 회합이 미국의 선전무대로 변질해서는 안 되오! 우리는 공산주의에 항의하기 위해 여기 온 것이 아니라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 온 것이요!” 다른 프랑스인들도 콧수염을 단 이 의사의 말에 동조했다. 통역관은 겁을 먹고 그들이 말한 것을 감히 번역하지 못했다. 연단에 @p316 있던 스무 명의 미국인들은 따라서 그들은 다시금 동감에 찬 미소를 지으면서 바라보았다. 몇몇 사람들은 동의하는 듯 머리를 끄덕거렸다.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은 주먹을 높이 들었다. 왜냐하면 그는 유럽인들이 집단적 열광의 순간에 바로 이동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 16 - 좌익계 지식인이

(왜냐하면 콧수염을 단 이 의사는 좌익계 지식인이었기 때문 이다).

공산주의가 항상 좌익계 사람들의 구성요인으로 간주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산국가의 이익에 반하여 행진할 각오를 하고 있다는 것이 도대체 가능한 가? 소련연방이라고 일컬어지는 나라에서 범법행위가 너무나도 파렴치하게 자행되 었을 때, 좌익계 사람에게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게 되었다. 지금까지의 자기 삶 에 침을 뱉고 행진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다소의 의구심을 가지고) 소련연방국 을 대장정에서 마주치게 되는 방해물로 간주하고 계속 행진하는 것이다. 좌익의 사람을 좌익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대장정의 키취라는 것을 나는 말 했었다. 키취의 정체성은 정치전략을 통해 규정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지, 메타 포, 말의 선택을 통해 규정된다. 따라서 관습을 타파하고 공산국가의 이익에 반 해서 행진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말들을 다른 말로 대체하는 것을 불가능 하다. 주먹을 높이 들고 베트남군에 대해 항의하는 것은 가능하다.

베트남군에게 “공산주의 타도!”라고 외치는 것은 불가능하다.

“공산주의 타도!”라는 구호 는 말하자면 대장정의 적들이 사용하는 구호다. 자 @p 317 기의 체면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의 키취의 순수성에 성실해야 한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단지 프랑스 의사와 미국의 유명한 여배우 간의 오해 를 해명하기 위해서다. 미국의 여배우는 자기 중심적인 그녀의 태도에서 자기가 증오나 여성 적대감의 희생이 되었다고 믿었다. 실제로 프랑스 의사는 자기가 의학적인 섬세한 감각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즉 <카터 대통령>, <우 리들의 전통적 가치들>, <공산주의의 야만성> 과 같은 말들이 미국 키취의 어 휘에 속하며 대장정의 키취와는 도대체가 아무런 관련이 없다. 17 다음날 아침 모두 버스에 타고 타일랜드를 통과하여 캄보디아 국경에까지 갔 다.

저녁에 그들은 작은 마을에 도착했다. 이곳에서 그들은 나무기둥을 받쳐 지 은 작은 집 몇 개를 빌려놓았던 것이다. 계속 범람의 위협을 주는 강은 사람들 로 하여금 위쪽에서 살도록 했다. 반면 기둥의 밑쪽에는 돼지들이 모여들고 있 었다. 프란츠는 다른 네 교수들과 함께 한방에서 잠을 잤다. 밑쪽에서 돼지들이 꿀꿀대는 소리와 옆에서 들려오는 유명한 수학 교수의 코고는 소리가 그를 잠들 게 했다. 아침에 다시 모두는 버스에 탔다. 벌써 국경 2킬로미터 전방에서 차량 통행금 지가 시작되었다. 그곳에서부터는 국경초소에 이르는 군인들이 감시하는 좁다란 국도 하나만 있었다.

버스들은 정거했다. 프랑스인들은 버스에서 내리자 자기들 이 다시금 벌써 이 행진 대열의 선두를 차지한 미국인들에게 추월당했다는 사실 을 확인 @p 318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것은 아주 난처한 순간이었다. 다시 통역관이 개입해 야 했다. 심한 논쟁이 벌어졌다. 결국 다음과 같이

합의를 할 수밖에 없었다. 대 열의 선두에서 미국인 한 사람, 프랑스인 한 사람, 그리고 캄보디아의 여자 통역 관 한 사람이 자리를 차지하도록 했다. 그 다음에 의사들이 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 비로소 다른 모든 사람들이 행진하도록 했다. 미국 여배우는 대열의 마지막 막에 자리했다. 국도는 좁았으며 지뢰밭을 통과하도록 되어 있었다. 순간순간 그들은 바리케이드에 접했다. 철조망이 쳐져 있고 한가운데 좁다란 통로가 있는 콘크리트 구조물이 두 개나 있었다. 그들은 오리 행진을 해야만 했다. 프란츠보다 약 5미터 앞에는 유명한 독일 시인이자 팝 가수가 행진했다. 그는 이미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위한 930곡의 노래를 지었다. 그는 긴 막대기에 흰 기를 달고 이것을 들고 갔다. 이 기는 특히 그의 검은 수염과 잘 어울렸고, 그를 다른 사람들과 구분지어 주었다. 이 긴 행진 대열 옆에는 사진사와 카메라맨들이 왔다갔다했다. 그들은 찰칵거리며 사진을 찍었고, 사진기 만지는 소리를 요란하게 냈다. 그들은 앞으로 달려 가기도 했고, 멈추어 서기도 했고, 되돌아 달려가기도 했으며, 무릎을 꿇었다가 다시 일어나 앞으로 달려가기도 했다. 이따금 그들은 어떤 유명한 남자, 여자의 이름을 부르기도 했다. 그러면 당사자들은 자기도 모르게 몸을 돌렸다. 그래서 사진사들은 셔터를 누를 수 있었다. @p 319 18 어떤 일이 있다는 기미가 나타났다. 행진 참가자들이 발걸음을 천천히 하고 몸을 돌렸다. 행진 대열의 맨 마지막에 자리했던 미국 영화배우가 이 처욕을 더 오래 참기를 거부한 것이었다. 그녀는 공격할 것을 결심했다. 그녀는 앞으로 달려갔다. 그것은 마치 5천 미터 달리기에서 그때까지 힘을 아끼며 주자 그룹의 마지막에 머물렀던 선수가 갑자기 나타나서 다른 모든 경쟁자들을 앞질러가는 것 같았다. 사람들은 비웃으며, 그 유명한 여성 주자에게 승리를 가능케 하기 위해 옆으로 비켜섰다. 그러나 여자들은 소리쳤다. 「줄 서시오! 이것은 영화 스타를 위한 행진이 아니오!」 그 여배우는 위축되지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 달려갔고, 다섯명의 사진사와 두 명의 카메라맨들이 뒤따라갔다. 그때 프랑스의 여자 언어학자가 이 여배우의 손목을 꼭 잡고(형편없는 영어로) 그녀에게 말했다. 「이것은 죽을 병에 걸린 캄보디아 사람들을 구제하려고 하는 의사들의 행진이지 영화 스타를 위한 스펙터클이 아니오!」 여배우의 손목이 언어학 여교수의 손에 꼭 쥐어져 있었다. 그래서 그녀에게는 꼭 잡은 여교수의 손에서 빠져나갈 힘이 없었다. 그녀는 말했다(멋진 영어로). 「손 놓아요! 나는 벌써 수백의 이같은 행렬에 참가했소! 어디에서나 스타들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오! 우리들의 도덕적 의무이고요!」 「제기랄」하고 언어학 여교수는 (멋진 불어로) 말했다. @p 320 미국의 유명한 이 여배우는 그녀의 말을 이해하고 눈물을 터뜨렸다.

「그렇게 있어 줘요!」 하고 한 카메라맨이 외쳤다. 그리고 그는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다. 여배우는 오랫동안 카메라 렌즈를 바라보았다. 눈물이 그녀의 뺨 위를 굴러내렸다. 19 언어학 여교수는 여배우의 손목을 마침내 놓아주었다. 이 순간 검은 수염과 흰 기를 가진 독일 가수는 여배우의 이름을 외쳤다. 미국의 이 유명한 여배우는 실은 아직까지도 그에 대해서 들은 바가 전혀 없었다. 그러나 굴욕을 당한 이 순간에 자기에게 호의를 보이는 데 대해 그녀는 보통 때보다 민감했다. 그래서 그녀는 그에게 달려갔다. 가수는 깃대를 오른손에 들고 왼손을 여배우의 어깨 위에 올려놓았다. 다시금 사진사들과 카메라맨들이 쾅쾅쾅쾅 뛰면서 여배우와 가수 주위를 맴돌았다. 유명한 미국 사진사 한 사람이 이 두 얼굴을 기와 함께 모두 자기 렌즈 속에 담으려 했다. 이것은 어려웠다. 왜냐하면 깃대가 길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뒤쪽 눈 속으로 달려들어갔다. 그때 그는 지뢰를 밟았다. 폭발하는 소리가 들렸다. 산산조각이 난 그의 육체가 공중으로 날아 국제 지식인들에게 피세를 주었다. 가수와 여배우는 아연실색했다. 그들은 땅에 뿌리가 내린 듯 서 있었다. 그들은 눈을 들어 깃발을 올려보았다. 깃발을 보고 피로 얼룩져 있는 그들은 다시금 놀랐다. 그들은 몇 번씩이나 겁먹은 @p 321 표정으로 위를 올려다보고 나서야 미소짓기 시작했다. 그들은 아직껏 알지 못한 이상한 자만심에 차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든 깃발이 피로 신성하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행진을 계속했다. 20 국경은 작은 강으로 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 강을 볼 수는 없었다. 왜냐하면 강둑을 따라 1.5미터 높이의 끝없는 장벽이 축조되어 있었고 그 위에 다시 타일 랜드의 사수들을 위해 모래 가마니가 놓여져 있었기 때문이다. 오직 한 곳에서 만 장벽이 뚫려 있었다. 그곳에는 강 너머로 아치형의 다리가 하나 놓여 있었다. 이 다리의 통행은 금지되어 있었다. 건너편에는 베트남 점령군이 주둔하고 있었으나 볼 수는 없었다. 그들의 진지는 완전히 위장되어 있었다. 그러나 누가 다리에 발을 올려놓는 경우 즉각 보이지 않는 베트남군들이 사격을 가할 것임은 확실했다. 행진 대열의 참가자들은 장벽 있는 곳으로 가 발뒤꿈치를 들고 섰다. 프란츠는 두 모래 가마니 사이의 틈바구니 안쪽으로 몸을 기대고 무엇인가를 보려 했다.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프란츠의 자리를 차지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 사진사가 그를 밀쳐버렸기 때문이었다. 프란츠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외롭게 서 있는 한 그루 나무의 큰 수관 속에 마치 거대한 까마귀의 무리처럼 일곱 명의 사진사들이 눈을 다른 쪽의 강둑으로 향하고 앉아 있었다. 이 순간 대열의 선두에서 행진했던 여자 통역관이 메가폰을 입에 대고 크메르어로 강의 다른 쪽을 향해 외쳤다. 「여기에 의사들 @p

322 이 와 있소. 이들은 의사로서의 구제 활동을 위해 캄보디아 영내로
들어갈 수 있는 허가를 받고자 하오. 그들의 행위는 정치적 개입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소. 그들은 인간의 생명을 돌보려고 왔소」 상대방에서의
대답은 무시무시한 침묵이었다. 그토록 아주 조용했기 때문에 모두는 겁에
질렸다. 이렇게 고요한 가운데 다만 사진기의 셔터소리만이 마치 이국적인
곤충이 짹짹이는 듯이 들렸다. 프란츠에게는 갑자기 대장정이 끝났다는
느낌이 들었다. 유럽 주위에 침묵의 경계가 좁혀지고 있다. 대장정이
진행되고 있는 공간은 지구의 한가운데 자그마 한 연단에 불과하다.
언젠가 이 연단 주위에 몰려들었던 군중은 오래전에 그들 의 얼굴을
돌리고 말았다. 그런데도 대장정은 계속된다. 고독하게, 관객도 없이.
그렇다, 하고 프란츠는 스스로에게 말한다. 비록 세상사람들이 이
대장정에 더 이상 관심이 없다고 해도 그것은 계속된다. 그러나 그것은
불안하고 분주한 양 상을 띠게 되었다. 어제는 미국의 베트남 점령에
항의하는 것이었고, 오늘은 베 트남의 캄보디아 점령에 항의하는 것이다.
어제는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었고, 오 늘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위한
것이며, 어제는 쿠바를 위한 것이었고 내일은 쿠바에 항의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언제나 미국에 반대하는 것이었으며, 언제나 학살에
반대했고 또한 언제나 다른 학살을 지원하는 것이었다. 유럽은 행진한다.
사건의 리듬에 맞추어나가고 어떤 사건도 놓치지 않기 위해 행진의
발걸음은 점점 더 빨라지게 된다. 그리하여 대장정은 이제 급히
뿔뿔히 떨어져 가는 사람들의 행진이 되어버렸고, 행진 무대는 점점
작아져 어느 날엔가는 하 나의 점으로 위축되고 말 것이다. @p 323 21
여자 통역관은 다시 그녀의 외침을 메가폰에다 대고 반복했다. 다시금
대답은 무한한, 무한히 냉담한 침묵이었다. 프란츠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강 저쪽 편이 침묵은 모든 사람의 얼굴을 마치 뺨을 치듯 쳤다. 흰 깃발을
든 가수와 미국 여배우까지도 의기소침해했고 당황 해했다.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다. 프란츠는 갑자기 그들 모두가 우스꽝스럽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와 모 든 다른 사람들이. 그러나 이 인식은 그를 다른
사람들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마음을 아이러니로
충만시키지 않았다. 그 정반대였다. 바로 지금 그는 그들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느꼈다. 그것은 마치 선고받은 사람 들에 대해 느끼는 것 같은
사랑이었다. 확실히 대장정은 종말을 향해 가고 있었 다. 하지만 그것은
프란츠가 이 대장정을 배반한 이유였던가? 그 자신의 삶 또 한 종말을
향해 가고 있지 않았는가? 용감한 의사들을 국경에까지 동반했던 사
람들의 자기 과시를 그가 조소해야 했던가? 이 사람들 모두가
연극놀이하는 것 외에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었던가? 보다 나은 어떤

가능성이 그들에게 있었던 가? 프란츠가 옳았다. 나는 프라하에서 정치범 사면을 위해 서명운동을 벌였던 편 집인을 생각한다. 그는 이 운동이 정치범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할 것임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것의 본래 목적은 정치범들을 석방시키는 데 있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 있었다. 그가 했던 것은 연극이었다. 하지만 그에게는 다른 가능성이 없었다. 그는 실제의 @p 324 행동과 연극 간의 선택을 할 수 없었다. 그가 마주했던 선택이란 연극을 하느냐 아니면 전혀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오직 연극놀이 를 하도록 선고받고 있는 상황이 있다. 침묵하고 있는 힘(강 저편의 침묵하고 있는 힘, 벽에 걸려 있는 침묵하는 확성기로 변한 경찰)에 대한 투쟁은 군대의 공격을 받은 극단의 투쟁이다. 프란츠는 소르본 대학 시절의 친구가 주먹을 높이 들어 맞은편의 침묵을 위협 하는 것을 보았다. 22 여자 통역관은 다시 그녀의 세번째 외침을 메가폰에 대고 반복했다. 그녀에게 다시 대답으로 준 침묵은 프란츠의 불안을 사나운 분노로 바꾸어놓았다. 그는 태일랜드와 캄보디아를 분리시키고 있는 다리로부터 멀지 않는 곳에 서 있었다. 다리 위에 뛰어들어 무서운 육지거리 말을 하늘을 향해 외치고, 천둥같이 울리 며 무섭게 날아오는 총탄을 맞고 죽고 싶은 커다란 충동이 그를 사로잡았다. 프란츠의 갑작스런 이 충동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회상케 한다. 그렇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스탈린의 아들을 회상시켜 준다. 그는 전류가 흐르고 있는 철조망 속으로 뛰어들어 그것에 매달려 죽었다. 왜냐하면 그는 인간 존재의 두 극이 서로 닿도록 가까워져 승고함과 저속함 간의, 천사와 창녀 간의, 하나님 과 똥간의 구분이 전혀 없게 되는 것을 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프란츠는 대장정의 명성이, 함께 행진한 사람들의 우스꽝스런 허영 외에 아무 것도 아니라는 것을, 유럽 역사의 대단한 소음이 @p 325 무한한 침묵 속으로 침잠하여 역사와 침묵 간의 차이가 더 이상 없게 되는 것 을 인지하지 않으려 한다. 이 순간 그는 대장정이 똥보다 더 많은 비중을 갖는 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자신의 삶을 천칭의 저울판에 던졌을 것이다. 하지만 그와 같은 것은 증명될 수가 없다. 한쪽 저울판에는 한 무더기의 똥이 놓여 있었고, 다른 쪽 저울판에는 스탈린의 아들이 그의 온 육체의 무게를 지니 고 놓여 있었다. 그리고 천칭의 저울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자신을 사살하도록 하는 대신 프란츠는 머리를 떨구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천 천히 행진하여 버스로 돌아갔다. 23 우리들 모두는 누가 우리를 보아주었으면 하는 욕구를 지니고 있다. 우리들은 어떤 시선을 받고 살기를 바란다. 그러한 시선의 종류에 따라 우리는 네 카테고리 로 분류될 수 있다. 첫째 카테고리는 무한히 많은

익명의 눈들이 바라보는 시선을 동경한다. 달리 말하자면 어떤 관중의 시선을 동경한다. 이것은 독일 가수와 미국의 여배우에게 해당되며, 또한 큰 턱을 한 편집인에게도 해당된다. 편집인은 자기 독자들에게 습관화되어 있었다. 그래서 러시아인들이 어느 날 그가 펴내는 주간지를 금지시키자 그는 백 배나 공기가 희박한 어떤 대기권에 머물고 있는 듯한 느낌을 가졌다. 아무도 미지의 눈들이 바라보아 주는 시선을 그에게 대치시켜 줄 수 없었다. 그는 질식할 것 같은 느낌을 가졌다. 그것은 그 자신이 철저히 경찰의 감시를 받고 있으며 자기의 전화 @p 326 가 도청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거리에서까지 몰래 자기가 촬영되고 있다는 것을 알 때까지 그랬다. 그러자 익명의 눈들이 갑자기 다시금 그를 동반했다. 그는 다시 숨을 쉴 수 있었다! 마치 연극하듯 그는 벽에 있는 확정기에다 말을 했다. 그는 경찰에서 그가 상실한 관중을 다시금 찾았던 것이다. 살기 위해 많은 친숙한 눈들의 시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두번째 카테고리에 속한다. 전혀 지칠 줄 모르는 칵테일과 파티들을 마련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다. 이들은 첫번째 카테고리의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다. 자기들의 관중을 상실하면 자기들의 삶의 활에 불이 꺼진 것 같은 느낌을 갖는 것이 첫번째 카테고리의 사람들이었다. 언젠가는 이런 일이 그들 누구에게나 거의 빠짐없이 발생한다. 그와는 반대로 두번째 카테고리의 사람들은 언제나 어떤 시선이든 자신에게로 끈다. 마리-클로드와 그녀의 딸이 이들에 속한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의 시야에 있어야만 하는 세번째 카테고리의 사람들이 있다. 이들의 상황도 첫번째 카테고리의 사람들에게 있어서와 똑같이 위험하다. 사랑하는 사람의 눈이 감길 때면 홀은 깜깜해진다. 이들에 속하는 사람으로 테레사와 토마스를 들 수 있다. 그리고 또한 부재하는 사람들이 환상적 시선에서만 사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의 카텍리가 네번째 카테고리로서 아주 드문 경우다. 이들은 몽상가들이다. 예컨대 프란츠가 그렇다. 그는 오직 사비나 때문에 캄보디아 국경으로 갔다. 버스가 덜커덩거리면서 타일랜드의 국도를 달린다. 그리고 그는 그녀의 긴 시선이 그들 응시하고 있음을 느낀다. 바로 이 카테고리에 또한 토마스의 아들이 속한다. 나는 그를 시몬이라 부르겠다(자기 아버지처럼 성경에 나오는 이름을 갖게 된 것을 그는 기뻐할 것이다). 그가 동경하고 있는 눈은 토마스의 눈이다. 그가 서명운동에 휘말려들어난 뒤 그는 대학에서 쫓겨났 @p 327 다. 그가 가까이 사귀었던 처녀는 마을 목사의 질녀였다. 그는 그녀와 결혼했고 농업협동조합에서 트랙터 운전사가 되었으며 진실한 카톨릭 교도 및 가장이 되었다. 그 후 그는 자기 아버지도 시골에 산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했다. 운명이 그들의 삶을 대칭의 균형을 갖도록 했다. 이것은 그로

하여금 그의 아버지에게 편지 쓸 용기를 갖도록 했다. 그러나 아버지의 답장을 간청하지 않았다. 그는 다 만 토마스가 자기 삶에 한번 시선을 던져주기를 바랐을 뿐이다. 24 프란츠와 시몬은 이 소설의 몽상가들이다. 프란츠와는 다르게 시몬은 자기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았다. 어린 시절부터 그는 아버지를 찾고 있었다. 그는 전에 아버지가 부당함을 겪게 되었음을 믿으려 했다. 이 부당함은 아버지가 그에게 가했던 부당함을 정당화시켰다. 그 때문에 그는 아버지께 화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는 자기 아버지를 계속 욕한 어머니 편에 서고자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열여덟 살이 될 때까지 어머니와 함께 살았다. 그런 다음 그는 대학 공부를 위해 프라하로 옮겨갔다. 이때 이미 토마스는 유리창 청소부였다. 시몬은 이따금 우연히 자기 아버지와 만날 기회를 갖기 위해 거리에서 기다리곤 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한 번도 서 있는 적이 없었다. 그가 전에 턱이 큰 그 편집인에게 가담한 이유는 오직 이 편집인의 운명이 그로 하여금 자기 아버지의 운명을 회상케 했기 때문이었다. 편집인은 토마스의 이름을 알지 못했다. 그가 오이디푸스 @p 328 에 관한 그 기사를 읽은 지는 이미 오래되었다. 그래서 그는 시몬을 통해서야 비로소 그것에 대해 알게 되었다. 시몬은 함께 자기 아버지에게 가 서명을 부탁 하자고 그에게 간청했었다. 편집인은 오직 그가 좋아하는 이 젊은이에게 기쁜 일을 해주려고 했기 때문에 승낙했었다. 이때의 이 만남을 돌이켜 생각할 때마다 시몬은 당시 자기를 어리둥절하게 했던 압박감을 부끄럽게 여겼다. 확실히 그는 그의 아버지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 대신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마음에 들었었다. 그는 당시 아버지의 말 하나하나를 모두 기억했고, 그에게 점차 더 많은 정당성을 부여하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문장 하나가 그의 마음속에 아로새겨졌다. <자기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벌한다는 것은 야만적 행위야.> 그의 애인의 아저씨가 그의 손에 성경책 하나를 쥐어주었을 때, 그가 한 예수의 다음 말은 시몬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 <그들을 용서하라.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기 때문이니라.> 그는 자기 아버지가 신앙을 갖지 않았던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두 문장의 유사성에서 어떤 비밀의 표지를 보았다. 즉, 그의 아버지가 자기가 택한 길을 용인하고 있다고 본 것이다. 그가 아버지로부터 방문 초청 편지를 받았을 때 그는 시골에서 이미 3년째 살고 있었다. 이들의 상봉은 아주 다정했다. 시몬은 기분이 좋았고 한 번도 말을 더듬지 않았다. 그때 그들이 서로 아주 잘 이해하지는 못했다는 것이 아마도 그에게는 전혀 눈에 띄지 않았을 것이다. 그 후 약 4개월이 지났을 때 그는 전보를 받았다. 토마스와 그의 부인이 트럭에 부딪쳐 비참하게 죽었던 것이다. 그

당시 그는 옛날 자기 아버지의 애인이었고 당시 프랑스에 살고 있던 여자
에 대해 알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주소를 찾아냈다. 그는 계속 자기의
삶을 바라보아 줄 어떤 환상적인 눈을 필사적으 @p 329 로 필요로 했기
때문에 이따금 그녀에게 긴 편지를 썼다. 25 사비나는 그녀의 삶이 끝날
때까지 슬픈 이 마을 시인으로부터 계속 편지를 받았다. 많은 편지는
읽지도 않고 두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녀에게는 자기가 출생한 나라에
대해서 점점 관심이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 나이 든 노인은 죽었고,
사비나는 캘리포니아로 이사했다. 서쪽으로 점점 더 멀리 갔고,
보헤미아에서 점점 더 멀리 떠나갔다. 그녀의 그림들은 잘 팔렸다. 그리고
그녀는 미국을 좋아했다. 그러나 지상의 표면에서만 그랬다. 이 표면
밑쪽에는 낯선 세계가 놓여 있었다. 그 밑쪽에서는 그녀에게는 할아버지도
아저씨도 없었다. 그녀는 관에 입관되어 미국 땅에 묻히 게 될까 겁이
났다. 그래서 그녀는 어느 날 유언장을 썼는데 거기에서 그녀는 자신의
시체를 화장 하고 그 재를 바람에 흩날려 보내도록 결정했다. 테레사와
토마스는 무거움의 표지 밑에 죽었다. 사비나는 가벼움의 표지 밑에
죽으려 했다. 그녀는 대기보다 더 가볍게 될 것이다. 파르메니데스의 말에
의하면 이것은 부정적인 것이 긍정 적인 것으로 바뀌는 변화이다. @p 330
26 버스가 방콕의 어느 호텔 앞에 섰다. 더 회합을 개최하고 싶은 생각이
아무에 게도 없었다. 사람들은 작은 그룹별로 시내로 뿔뿔이 흩어졌다.
그들은 절을 구 경했고 사창가로 들어갔다. 소르본대학의 친구는 저녁을
함께 보내자고 프란츠 에게 제의했다. 그러나 그는 차라리 혼자 있고자
했다. 그가 거리에 나갔을 때는 이미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그는
계속 사비나 를 생각했고 그녀의 긴 시선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느꼈다. 이 시선은 그가 그 기♣에서 늘 자기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했던
시선이다. 사비나가 실제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그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금도 이 시선은 그를 당 황하게 했다. 그녀가 그를
조소했던가? 그가 그녀와 함께 행했던 우상적인 숭배 를 그녀가 바보 같은
짓거리로 생각했던가? 그가 제발 성장해서 그녀 자신이 그 에게 보낸
애인에게 자신을 완전히 바쳐야 한다는 것을 그녀가 그에게 말하려
했던가? 그는 큰 안경을 쓴 얼굴을 머릿속에 떠올려보았다. 그는 자기의
제자 여대생 과 얼마나 행복했던가를 깨달았다. 캄보디아로의 여행이
갑자기 그에게 우스꽝 스럽고 무의미한 것처럼 여겨졌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가 여기로 왔단 말인 가? 이제 그는 그것을 알았다. 그가 여기로
온 것은, 그의 실제적인, 그의 유일 하게 실제적인 삶은 시위행렬도
사비나도 아니라 안경 쓴 그의 제자 여대생이라 는 것을 마침내 깨닫기
위해서였다. 그가 여기로 온 것은 현실이 꿈 이상이라는 것, 훨씬 더 꿈

이상이라는 것을 확신하기 위해서였다. @p 331 그때 어스름한 어둠 속에서 한 인물이 나타나 알 수 없는 말로 그에게 말을 건넸다. 그는 이 인물을 이상하게, 동시에 동정적으로 바라보았다. 알 수 없는 이 남자는 미소를 지으면서 허리를 굽혔고 매우 절박한 어조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계속 지껄었다. 그가 프란츠에게 무엇을 말하려 했던가? 그가 자기를 따라와 달라고 프란츠에게 요청하는 듯했다. 그 남자는 그의 손을 잡고 그를 끌었다. 프란츠는 누가 자기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양이라고 자신에게 말했다. 그가 여기 온것이 어찌면 소용없는 짓거리는 아니었던가? 그가 여기에서 누군가를 돕도록 되어 있었던가? 갑자기 또 다른 두 인물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지껄여대는 이 남자 곁에 섰다. 그중 한 사람은 영어로 프란츠로부터 돈을 요구했다. 이 순간 안경 쓴 그 처녀는 그의 생각에서 사라졌다. 그를 바라본 것은 다시 금 사비나였다. 비상한 운명을 지닌 비현실적인 사비나였다. 그녀 앞에서 그는 자신이 무척인 하찮게 느껴졌다. 화가 나고 불만에 찬 그녀의 시선이 그를 노려 보고 있었다. 그는 벌써 다시금 속임을 당하고 말았는가? 벌써 다시금 어느 누가 그의 멍청한 친절을 악용했는가? 그는 자기의 팔소매를 딱 잡고 있는 남자를 핵 밀쳐 뿌리쳤다. 그는 사비나가 자기의 강한 힘을 늘 좋아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다른 남자가 그에게 뺨친 팔을 잡아채어, 그것을 딱 붙들어 완전한 유도 솜씨로 자기 머리 너머로 이 남자를 동댕이쳤다. 이제 그는 자신에게 만족했다. 사비나의 눈은 아직 여전히 그에게 향하고 있었다. 그녀의 두 눈은 그가 모욕당하는 것을 다시는 결코 보지 않을 것이다! 프란츠는 다시는 약하고 감상적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자기의 순진성을 노리고자 했던 이 세 남자들에 대해 거의 @p 332 즐거운 증오를 느꼈다. 그는 약간 몸을 굽힌 자세로 서서 그들을 시야에서 놓치지 않았다. 갑자기 무거운 것이 그의 머리를 쳤다. 그는 기절했다. 몽롱하게 그는 자기가 옮겨져 가는 것을 느꼈다. 그런 다음 그는 깊은 곳에 떨어졌다. 그는 자기 몸이 강하게 통겨지는 것을 느끼고는 의식을 잃었다. 그는 제네바의 어떤 병원에서 비로소 다시 깨어났다. 그의 침대 위로 마리-클로드가 몸을 굽혔다. 그는 그녀가 여기 있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그녀에게 말하려 했다. 그는 큰 안경 쓴 여대생에게 즉각 자기의 소식을 전해 줄 것을 원했다. 그는 그녀를 생각했고 다른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어떤 다른 사람도 자기 옆에 있는 것을 바라지 않노라고 소리치고자 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말 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너무나도 놀랐다. 그는 마리-클로드를 무한한 증오 심을 갖고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는 벽 쪽으로 몸을 돌리고자 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육체를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는 머리를 돌리려 했다. 하지만 머리마저도 그는

조금도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는 마리-클로드를 보지 않으려고 두 눈을 감았다. 27 죽은 프란츠는 이제 마침내 그의 합법적인 부인에게 속하게 된다. 이전에 그가 그녀에게 속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마리-클로드는 모든 것을 규정한다. 그녀는 장례 절차를 떠맡는다. 그녀는 부고를 발소하고 화환을 산다. 그녀는 검은 옷을 맞춘다. 이 옷은 실제로 결혼복이다. 그렇다. 남편의 장례가 비로소 이 부인에게는 @p 333 진정한 결혼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그녀의 삶의 대관식이요, 그녀가 겪은 모든 고통에 대한 보상이다. 목사는 이것을 완전히 의식하고 무덤 앞에서 부부간의 성실과 사랑에 대해 주사를 했다. 부부간의 이 성실과 사랑은 많은 시련을 거쳐야만 했으나 저세상으로 간 사람에게는 그의 삶의 마지막까지 안전한 항구로 되어 있었고, 그는 그의 마지막 시간에 이 항구로 되돌아올 수 있었노라고 말했다. 마리-클로드는 프란츠의 동료 한 사람에게 그의 시신 앞에서 몇 마디 말을 해줄 것을 부탁했다. 그 또한, 무엇보다도 의연한 태도를 하고 있는 죽은 사람의 부인에게 그의 존경심을 보였다. 큰 안경을 쓴 처녀는 그녀의 여자친구의 부축을 받으면서 뒤쪽에 머물렀다. 그녀는 너무도 많은 눈물을 흘렸고, 또한 너무도 많은 진정제를 먹은 탓으로 장례식이 끝나기도 전에 몸에 심한 경련이 일어났다. 그녀는 몸을 웅크렸고 배를 짝 잡았다. 그녀는 결국 그녀의 여자친구에 의해 공동묘지로부터 이끌려 나가야만 했다. 28 그가 노동조합의 조합장으로부터 전보를 받자 그는 즉시 모터사이클을 타고 떠났다. 그는 장례에 신경을 썼다. 그는 묘석의 자기 아버지 이름 밑에 다음 비문을 새기도록 했다. <그는 지상에서 천국을 바랐다.> 그는 자기 아버지가 이 말을 결코 사용하지 않았을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 비문이 그의 아버지가 원했던 바로 그것을 표현하라고 그는 확신했다. 천국은 정의를 의미한다. 토마스는 정의 @p 334가 지배하는 세계를 갈망했다. 시몬에게는 자기 아버지의 삶을 자기 자신의 말로 표현할 권리가 있지 않은가? 그런데 이것은 아득한 예날부터 모든 유족의 권리이다. <긴 미로 끝에 되돌아가다> 라는 비문이 프란츠의 묘석에 새겨져 있다. 우리는 이 비문을 종교적 상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속세적 삶의 미로, 하나님의 품 속으로 돌아감. 그러나 내막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 문장이 또한 매우 세속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안다. 뿐만 아니라 마리-클로드는 매일 그것에 대해 말한다. 프란츠, 그녀의 착하고 사랑스런 프란츠, 그는 그의 험살의 위기를 견뎌낼 수 없었다. 한 가련한 처녀의 울가미에 그는 걸려들었다! 그녀는 예쁘지도 않았다 (그녀가 쓴 큰 안경을 보았는가? 안경 뒤의 그녀의 모습은 거의 알아볼 수조차 없지). 그런데 험살의 나이를 먹은 이들은(이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 다) 자기들의 영혼을 한 조각의 짧은 살을 위한 대가로 팔아버린다. 자신의 부인 만이 얼마나 그가 그 때문에 피로워했는가를 알 수 있다! 그것은 그에게 크나큰 도덕적인 피로움이었다! 왜냐하면 프란츠는 그의 마음 밑바닥에서는 선하고 정직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아시아의 구석으로 간, 무의미하고 절망적인 그 여행이 어떻게 설명될 수 있었겠는가? 그는 죽음 속으로 뛰어들기 위해 그곳으로 갔다. 그렇다. 마리-클로드가 그것을 잘 알고 있다. 프란츠는 의도적으로 죽음을 찾았다. 그가 임종의 침상에 누워 있었고 거짓말을 할 이유가 전혀 없던 ; 마지막 며칠 동안 그는 오직 그녀만을 보고자 했다. 그는 말을 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는 시선으로 그녀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의 눈은 그녀에게 용서를 빌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를 용서했다. @p 335 29 캄보디아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서 남은 것은 무엇인가? 아시아의 아기 하나를 품에 껴안고 있는 미국 여배우의 큰 사진하나 토마스에게서 남은 것이 무엇인가? 하나의 비문, <그는 지상에서 천국을 바랐다>는 비문. 베토벤에게서 남은 것이 무엇인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텅수룩한 머리를 한 무뚝뚝한 남자, <그렇게 할 수밖에!> 라고 처음으로 말하는 남자. 프란츠에게서 남은 것이 무엇인가? 하나의 비문. <긴 미로 끝에 되돌아가다>라고 새긴 비문. 기타 등등. 사람들이 우리를 망각하기 전에 우리는 키취로 바뀐다. 키취는 존재와 망각간에 갈아 타는 정거장이다. @p 337 제7부 카레닌의 미수 @p 339 1 창밖으로 산비탈이 보였다. 그곳에는 줄기가 울퉁불퉁한 고목의 사과나무들이 자라나 있었다. 산 너머 지평선은 숲과 경계를 이루고 있었다. 물결 모양을 이룬 산의 능선은 멀리 사라졌다. 창백한 저녁 하늘에 하얀 달이 떠 있었다. 테 레사가 문지방으로 나온 것이 바로 이때였다. 달은 아직도 흐려지지 않은 하늘에 매달려 있었고 그녀에게 그것은 마치 아침에 불끄는 것을 잊어 하루종일 영 안실에 밝혀진 등처럼 여겨졌다. 산비탈에는 줄기가 울퉁불퉁한 사과나무들이 자라나 있었다. 이들 중 한 그루도 뿌리를 내렸던 곳에서 떠날 수 없다. 이것이 이마을에서 결코 떠나갈 수 없을 테레사와 토마스의 신세와 똑같았다. 그들은 도시로 이시간 농부로부터 정원 이 있는 작은 집을 사기 위해 자동차, 텔레비전, 라디오를 모두 팔았다. 시골에서 사는 것이 그들에게 남은 유일한 도피 가능성이었다. 왜냐하면 여기 시골에는 거주 공간이 충분하게 있는 데 반해 계속 노동력 결핍현상이 재배했기 때문이었다. 들과 숲에서 일할 각오 @p 340 가 되어 있는 사람들의 정치적 과거를 조사하는 데 관심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리고 아무도 그들을 부러워하지 않았다. 테레사는 자기들이 도시를 떠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했다. 바스텐드에 술취 한 손님들이 있고 음부의 냄새를 토마스의 머리칼에 묻혀 놓는 알지 못하는 여자들이 있는 도시를 떠났기 때문이다. 경찰은 그들을 추적하는 것을 그만두었다. 그때 그 기사와의 사건은 그녀의 회상에서 라우렌치산에서의 에피소드와 함께 용해되어 그녀는 꿈과 현실을 더 이상 분리할 수 없었다(그 기사는 실제로 비밀 경찰에 고용되어 있었는가? 아마도 그랬을 거야. 아마도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 지. 몰래 여자들과 만나기 위해 집을 빌려사용하는 남자들이 많다. 그들은 같은 여자와 한 번 이상 동침하기 않는다). 테레사는 그 때문에 행복했고 마침내 목적지에 도달했다는 느낌을 가졌다. 즉, 그녀는 토마스와 함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단둘이었다. 단둘이라고? 하 는 이것을 보다 더 정확히 말해야 하겠다. 내가 외로움이라고 일컬었던 것은 그 들이 그들의 옛 친구 및 친지들과 모든 관계를 끊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들은 그들의 삶을 마치 한 조각의 끈인 것처럼 절단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마을 주민들과 함께 있을 때 기분이 좋았다. 그들은 주민들과 함께 일했고, 이들 주민 들은 그들을 이따금 방문했고 또한 자기들에게로 초대하기도 했다. 테레사가 러시아 거리 이름을 가진 요양지에서 그 지역 농업협동조합의 조합 장을 알게 되었던 바로 그날, 그녀는 자기 내면에서 갑자기 시골생활의 모습을 발견했다. 이것은 책에서 읽은 거역들 및 그녀의 선조들이 그녀의 내면에 새겨 놓았던 것이었다. 하나의 공동체 세계, 그 속에서 모든 임원들은 하나의 큰 가 족을 이루며 공동의 관심과 관심을 통해 서로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즉, 이 @p 341 들은

일요일마다 교회에서 예배를 보며, 식당에서는 부인들 없이 남자들끼리 만 서로 만나고, 이 식당의 홀에서 토요일에는 밴드가 마을사람들이 춤추도록 연주했다. 그러나 공산주의 치하에서는 시골마을은 그 옛날 모습과는 같지 않았다. 교회 가 이웃마을에 있었는데 아무도 가지 않았다. 식당은 사무실이 되었다. 남자들에 게는 맥주 마실 곳이 없었다. 청년들에게는 춤출 공간이 없었다. 교회의 축제는 거행되지 못하게 했고, 국가의 경축일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다. 가장 가까이 있는 영화관이 20킬로미터나 떨어진 도시에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일하는 동안에는 즐겁게 서로 부르기도 하고 휴식 때는 서로가 잡담을 하는 반면 일이 끝난 다음에는 현대식 가구를 들여놓은 그들의 작은 집의 네 벽 속으로 돌아가(마치 스쳐가는 바람처럼 물취미의 찬바람이 그들 방에 불었다) 텔레 비전 화면에 눈을 맡기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가 더 이상 방문은 하지 않았고 기껏해야 저녁식사 전 바로 옆에 있는 이웃에 가 몇 마디 말을 나누었을 뿐이 다. 모두가 도시로 이사가는 것을 꿈꾸고 있었다. 시골마을은 조금이라고 삶을 재미있게 할 만한 아무것도 그들에게 제공 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국가가 시골 마을에 대해서는 세력을 상실했음은, 아마도, 어느 누구나 여기에 뿌리내리고자 하는 않는다는 바로 이 이유 때문이었을 것이다. 자기의 땅이 더 이상 자기에게 속하지 않고, 오직 들에서 노동하는 일꾼에 불과한 농부는 풍경에도, 그의 일에도 매달리지 않는다. 그에게는 잃어버린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염려하여 보살필 것이 아무것도 없다. 바로 이 같은 무관심으로 말미암아 시골은 상당한 자율성과 자유를 보유하게 되었다. 협동조합의 조합장은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앉혀놓은 것이 아니고 직접 마을 주민들에 의해 선출되었다. 그는 이들 중 한 사람인 것이다. @p 342 모두가 떠나려 했기 때문에 테레사와 토마스는 그곳에서 비상한 지위를 가졌다. 그들은 우선 자발적으로 이곳에 왔다. 다른 사람들은 적어도 하루쯤 주위에 있는 도시에서 지내기 위해 어떤 기회든 놓치지 않고 이용했다면, 테레사와 토마스는 자기들이 있는 그곳에 머무는 것 외에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 때문에 그들은 마을 주민들을, 이들이 서로간에 알았던 것보다는 좀 더 잘 알게 되었다. 협동조합의 조합장은 그들에게 정말 좋은 친구가 되었다. 그에게는 부인과 네 자녀가 있었고 또한 돼지 한 마리가 있었는데 그는 이 돼지를 마치 개처럼 훈련 시켰다. 이 돼지 이름은 메피스토였고, 이 돼지는 이 마을의 자랑이요 매력이었다. 그것은 말귀를 알아듣고 순종했으며 반질반질하게 깨끗한 분홍색의 피부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작은 발굽으로, 마치 뚱뚱한 장판지를 한부인이 굽 높은 하이힐을 신고 걸듯 느릿느릿 걸어왔다. 카레닌이 메피스토를 처음으로 보았을 때 그놈은 아주 흥분하여 이 메피스토 돼지의 주위를 맴돌며 쿵쿵거리고 뽀뽀를 맡았다. 그러나 곧 개는 돼지와 친구가 되어 마을의 다른 개들보다 이 돼지를 더 좋아했다. 카레닌은 마을의 개들을 멸시했다. 왜냐하면 이들 개는 우리에게 묶여 있었고 이유 없이 계속 멍청하게 짖어댔기 때문이다. 카레닌은 희귀성을 올바르게 평가할 줄 알았다. 나는 감히 말 하겠다. 카레닌은 돼지와 우정관계를 높이 평가하고 있었다는 것을. 조합장은 자기를 치료했던 옛날 외과의를 도울 수 있었다는 데 대해 매우 기뻐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이 외과의를 위해 할 수 없는 데 대해 불행해했다. 토마스는 트럭 운전사가 되어 시골 일꾼들을 들판으로 태워다 주거나 혹은 농기구들을 운반해 주었다. @p 343 협동조합에 속했던 것으로, 40마리 송아지를 넣어둔 네 개의 큰우사와 작은 우사 하나가 있었다. 송아지들은 테레사가 돌보도록 그녀에게 맡겨졌다. 그래서 그녀는 이들 송아지를 매일 두 번 목초지로 몰고 갔다. 쉽게 갈 수 있는 주위의 목초지들은 건초를 위해 풀베기를 해야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테레사는 송아지 떼를 데리고 가까운 언덕으로 가야

했다. 송아지들은 점점 더 멀리 떨어진 목초지의 풀을 다 뜯어 먹었다. 그래서 테레사는 1년이 지나는 동안에 이들 송아지를 데리고 마을 주위의 광범한 지역을 두루 돌아다녀야 했다. 옛날 작은 도시에 살 때처럼 테레사의 손에는 언제나 책 한 권이 쥐어져 있었다. 목초지에 도착하면 그녀는 이 책을 펴고 읽었다. 케레닌이 언제나 그녀를 동반했다. 개는 어린 소들이 너무나 방자하게 되어 다른 소들로부터 이탈하려 할 때면 짚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개는 이것을 눈에 띄도록 기뻐하며 했다. 말할 필요도 없이 개는 세 식구 중 가장 행복했었다. <시간의 감시자>로서의 개의 직책은 여기처럼 그토록 존중된 적이 지금까지 한번도 없었다. 여기에서는 즉흥적인 행위를 위한 장소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테레사와 토마스가 산 시간이 개 자신의 시간이 담은 규칙성에 근접했던 것이다. 어느 날 이들 셋 모두는 점심식사를 마친 뒤(점심식사는 이들 부부가 다 같이 한 시간 쉴 수 있는 시간이었다)그들 집 뒤 산비탈을 산보했다. 「개가 뛰는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하고 테레사가 말했다. 케레닌은 뒷다리 하나를 절름거렸다. 토마스는 개에게로 허리를 굽혀 저는 다리를 만져보았다. 그는 허벅지에서 작은 혹 하나를 발견했다. 다음날 그는 개를 트럭의 자기 옆자리에 앉히고 차를 몰아 수의 @p 344 사가 사는 이웃마을로 갔다. 일주일 뒤 그는 다시 수의사에게 들렸다. 그는 카레닌이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갖고 집으로 돌아왔다. 사흘 후 그는 수의사와 함께 카레닌을 수술했다. 그가 개를 집으로 데려왔을 때까지도 개는 마취에서 깨어나지 않았다. 개는 뜯눈으로 침대 옆 양탄자 위에 누워 킁킁거리며 울었다. 개의 허벅지 털은 깎아내어 없었다. 그곳에는 여섯 바늘을 꿰맨 자국이 나 있었다. 얼마 뒤 개는 일어서려 애썼다. 그러나 일어설 수가 없었다. 테레사는 개가 앞으로는 전혀 달릴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아연실색했다. 「겁내지 말아요. 개에게 아직도 마취기가 있어서 그래요」하고 토마스가 말했다. 그녀는 개를 들어올리려고 했다. 그러나 개는 그녀를 덩석 물었다. 개가 테레사를 물려고 한 적은 한번도 없었다! 「카레닌은 당신이 누군지 몰라요. 그놈은 당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어요」하고 토마스가 말했다. 그들은 개를 다시 그들 침대 옆에 놓았다. 그러나 곧 잠이 들었다. 그들 또한 잠이 들었다. 새벽 3시에 개가 갑자기 그들을 깨웠다. 개는 꼬리를 흔들며 자고 있는 그들 몸 위를 사방으로 더듬거렸다. 개는 그들을 사납게 애무하며 그칠 줄을 몰랐다. 개가 그들을 깨운 적은 여태껏 한번도 없었다!보통 때 그놈은 그들 중 한 사람이 깰 때까지 계속 기다렸다가 누가 깰 다음에야 비로소 감히 그들 침대로 뛰어올랐다. 그런데 이번에 그놈은 한밤중에 갑자기 다시 의식을 갖게 되자 자제할 수가 없었다.

그놈이 얼마나 먼 곳에 갔다가 되돌아왔는가 @p 345 는 아무도 모른다!
그놈이 어떤 허깨비 환상들과 싸웠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놈은 자기가 집에 와 있다는 것을 보고, 또한 자기와 제일 가까운 주인들을 다시금 알아차리자 그들에게 자기의 미칠듯한 기쁨을 표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자기의 재귀와 자기의 재생에 대한 기쁨을 참을 수 없었던 것이다. 2
창세기 시작에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여 새와 물고기, 짐승을 지배하도록 했 노라고 적혀 있다. 이 창세기는 여하튼 어떤 사람이 쓴 것이지 어떤 말(馬)이 쓴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다른 생명체에 대한 지배권을 실제로 맡겼다는 확실성은 없다. 인간이 소와 말에 대한 지배권을 빼앗고, 이것을 신성불가침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 하나님을 생각해 냈다는 것이 훨씬 더 있을 법한 말이다. 그렇다. 사슴이나 소를 죽이는 권리는 전인류가 이구동성으로 의견의 일치를 볼 수 있는 유일한 권리다. 이러한 의견의 일치는 피비린내나는 처참한 전쟁 동안 에도 다를 바 없다. 이 권리는 우리에게 자명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것은 계급체제의 맨 꼭대기에 있는 것이 우리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떤 제삼의 존재를 개입시켜 보기만 하 면 된다. 예컨대 흑성으로부터의 방문자를 개입시켜 그의 하나님이 「너는 다른 천체의 피조물들을 지배할 것이니라」 라고 말했다고 한다면 벌써 창세기의 자명 성은 갑자기 문제가 될 것이다. 화성인에 의해 수레를 끌도록 매어지거나 혹은 은하수 주민에 의해 쇠창에 끼어 구워지는 인간은 아마도 자기가 쟁반 위에 담 아 칼질하도록 습관되어 있는 송아지 갈비고기 @p 346 를 회상하게 될 것이며, (너무나 뼈늦게도!) 소에게 용서를 빌 것이다. 테레사는 송아지들을 데리고 계속 돌아다닌다. 그녀는 송아지들을 앞으로 몰 아간다. 그리고 번번이 그것들 중 한 마리를 올바르게 이끌어가야 한다. 송아지 들은 방종해서 길에서 벗어나 곡식밭으로 뛰어들기 때문이다. 카레닌은 그녀를 동반한다. 2년 전부터 그것은 이젠 매일 그녀와 함께 목초지로 간다. 송아지들을 엄격하게 다루고 송아지들에게 짓고 야단치는 것이 카레닌에겐 재미가 있다(케 레닌의 하나님은 소들에 대한 지배권을 카레닌에게 맡겼다. 그래서 카레닌은 그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개는 몹시 힘들어하며 달리고 세 발로 뛰기 때문에 절룩거린다. 한쪽 다리에 상처가 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이 다. 몇번이고 케레사는 허리를 굽혀 개의 등을 쓰다듬어 준다. 수술 후 2주가 지 난 뒤 확실한 사실은 그놈의 암이 완전히 제거될 수 없었다는 것, 그래서 카레 닌의 상태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악화되리라는 것이다. 도중에 그들은 고무장화를 신고 소외양간으로 서둘러 들어가는 이웃 여자 한 명을 만난다. 그녀는 발을 멈추고 말한다. 「당신의 개가 왜 저러죠? 개가 절고 있는 것 같아요!」

테레사가 말한다. 「암에 걸렸어요. 치유될 수가 없어요!」 그 러자 그녀는 목이 메어 더 이상 말할 수 없음을 느낀다. 이웃 여자는 테레사의 눈물을 보고 거의 분노한다. 「저런, 하지만 개 한 마리 때문에 소리 높여 울지 는 말아야죠!」 그녀는 이 말을 나쁘게 말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좋은 여자로서, 그렇게 말함으로써 오히려 테레사를 위로하고자 했다. 테레사는 그것을 안 다. 뿐만 아니라 그녀는 이미 충분히 오랫동안 마을에 살고 있어, 마을 주민들이 그녀가 카레닌을 사랑하듯 토끼를 사랑한다면 그들 또한 한마리의 토끼를 죽일 수 없 @ p347 을 것이며, 멀지 않아 곧 그들이 기르는 짐승들과 함께 굶어죽을 것임이 틀림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웃여자의 말은 그녀에게 적의 를 담은 듯 보였다. 「알고 있어요」하고 그녀는 항의도 않고 말한다. 그리고는 그로부터 급히 몸을 돌려 계속 간다. 그녀는 개에 대한 그녀의 사랑과 더불어 혼자 버려진 듯한 느낌이 들었다. 슬픈 미소를 지으면서 그녀는 이 사랑을 어떤 부정(不貞)보다 더 비밀로 해야 하겠다고 다짐해 본다. 개에 대한 사랑에 대해 사람들은 노한다. 그 이웃 여자가, 테레사가 남편을 배반하여 부정한 짓을 했다 는 것을 알았던들 아마도 그녀는 무언의 동의표시로 테레사의 등을 유쾌히 툭툭 쳤을 것이다. 그녀는 어린 송아지들과 함께 돌아다닌다. 송아지들은 서로 옆구리를 문질러 댄다. 송아지들은 사랑스런 짐승이라고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한다. 조용하며, 악 의가 없고, 때때로 아이들처럼 거만스럽다. 이것들은 마치 쉰이 된 뚱뚱한 여자 들이 열네 살 소녀처럼 행동할 때처럼 보인다. 함께 놀이하는 소들보다 더 감동 적인 것은 없다. 테레사는 대단한 호감을 갖고 이것들을 바라본다. 그리고 그녀 는 (이것은 이미 2년 전부터 번번이 그녀가 생각한 것이다) 인류는 촌충이 인간 에게 기생하는 것처럼 소에 기생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한다. 인류는 마치 거머리 처럼 소젖을 빨아먹고 산다. 인간은 소의 기생충이다. 인간이 아닌 존재는 자기 동물학에서 인간을 그렇게 정의할 것이다. 우리는 이 정의를 순수한 농담으로 간주하고 이것에 대해 너그럽게 미소지을 수 있다. 그러나 테레사는 이 농담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잘못된 길로 빠져든다. 그녀의 생각은 위험하고 그녀를 인류로부터 소외시킨다. 창세기에서 이미 하나님은 인간에게 다른 생명체에 대한 지배권을 내맡겼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이 이 지배권을 인간에게 다만 빌려주는 식으로 내맡겼다고 파악 @p 348 할 수 있다. 인간은 이 지구의 소유주가 아니라 다만 관리자에 불과하다. 그래서 그는 언젠가는 이 관리에 대한 책임추궁을 받게 된다. 데타르트는 결정적으 로 진일보했다. 즉, 그는 인간이 <자연의 주인이요 소유주>라고 선언했다. 짐승 에게는 영혼이 없다고 말한 것이 하필이면 데카르트였다는

데는 물론 깊은 연관이 있다. 인간은 소유주요 주인이며, 짐승은 반대로 한낱 자동기, 생기 있는 기계에 불과하다고 데카르트는 말한다. 어떤 짐승이 비탄의 소리를 지를 때 그것은 비탄이 아니라 기능이 나쁜 기계장치가 끼익하고 내는 소리다. 마차 바퀴가 끼익 하고 소리낼 때 그것은 마차가 괴로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차에 기름이 칠해져 있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이와 똑같이 우리는 짐승의 울음을 이해해야 한다. 실험실에서 산 채로 해부되는 개를 슬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송아지들이 목초지에서 풀을 뜯고 있다. 테레사는 나무 그루터기에 앉아 있고, 카레닌은 그녀의 발부리에 앉아 머리를 그녀의 무릎에 올려놓고 있다. 테레사는 언젠가, 아마도 10년 전 자기가 두 줄의 신문 기사를 읽은 것을 회상한다. 거기에는 어떤 소련 도시에서 개를 모두 쏘아 죽였다고 적혀 있었다. 눈에 잘 띄지 않는, 보기에는 하찮은 이 보도가 그녀의 마음속에 너무나도 거대한 이웃하나를 직면하고 처음으로 몸이 오싹하는 공포감을 불러일으켰었다. 이 보도는 그 후에 다가오도록 되어 있었던 모든 것을 선취한 것이었다. 러시아 침입 후 처음 몇 년 동안은 아직 테러에 대해 언급할 수 없었다. 거의 전국 민이 점령군 정부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러시아인들은 우선 체코인들 중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찾아 이들이 권력을 갖도록 해야 했다. 그런데 공산주의에 대한 믿음과 러시아에 대한 애정이 죽어 있다면 그들은 어디에서 이들 새로운 @p 349 사람들을 구하겠는가? 그래서 그들은 삶에 복수를 하겠다는 마음 외에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찾았다. 이들의 공격성을 조종하며 가꾸어나가고 정보태세를 갖도록 해야 했다. 그리고 이들을 훈련시켜야 했는데 우선 임시적인 대상을 상대로 훈련시켜야 했다. 이 임시적인 대상이 짐승들이었다. 신문들은 당시 기사 시리즈를 실고 독자편지 캠페인을 벌이기 시작했다. 예컨대 도시에서는 비둘기를 모두 제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래서 비둘기들이 모두 제거되었다. 그러나 주된 캠페인은 개들을 겨냥했다. 사람들은 대파국적인 러시아군 점령에 대해 아직 완전히 절망하고 있었다. 그러나 모든 신문에는, 라디오와 텔레비전에서는 개에 대한 언급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개들이 보도와 공원에 똥을 싸 더럽히고, 이로 말미암아 개들은 아이들 건강을 위협하게 하고 아무 쓸모도 없는데 개를 기른다고 말했다. 그런 식으로 사람들의 정신병을 유발시켜, 화가 난 민중이 카레닌에게 무슨 짓을 할 수 있지나 않을까 하고 테레사는 겁이 났다. 그런 후 1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짐승을 대상으로 훈련된) 저장된 분노가 본래의 목적을 향해, 즉 인간을 향해 터져나왔다. 사람들을 해직 하고 체포하고 재판하기 시작했다. 짐승들이 그제서야 숨을 쉴 수 있었다. 테레사는 조용히 그녀의

무릎에서 잠든 카레닌의 머리를 쓰다듬는다. 그녀는 다음과 같이
속고한다. 이웃사람들에 대해 정직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별것이 못 된다.
테레사는 마을 주민들에 대해 나무랄 데 없는 처신을 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그녀는 마을에서 살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토마스에
대해서도 그녀는 그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다정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우리들의 관계라는 것이 어느 정도가 우리들 감정의,
우리들 사랑 의, 우리들 불쾌의, 우리들 호의의, 혹은 우리들 @p 350
악의의 결과인가 하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 개개인간의
역학관계를 통해 확정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확실하게
확정지을 수 없다. 참된 인간적 친절이 절대적인 순수성과 자유를 지니고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오직 어떠한 힘도 갖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뿐이다.
인류의 참된 도덕적 시험, 가장 근본적 시험은(이것은 인간 내면에 그토록
깊은 곳에 닿을 내리고 있어 우리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인간들에게
내맡겨져 있는 것들, 즉 짐승들에 대한 인간의 관계에서 나타난다. 바로
여기에서 근본적인 인간의 기능장애가 나타 났다. 이 기능장애는 너무도
근본적인 것이어서 모든 다른것들은 여기에서 추론 될 수 있다. 한 마리
송아지가 테레사에게 접근해 멈추어 서서 큰 갈색의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테레사는 이 송아지를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마르케타라고 불 렸다. 그녀는 기꺼이 모든 송아지들에게 각기 이름을
지어주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했다. 그러기에는 너무 많은
송아지였다. 오래전 언젠가는 40년 전 까지만 해도 틀림없이 그랬던 바로,
이 마을의 모든 소들에게는 이름이 있었다 (이름이란 영혼의 표지이기
때문에 그것들은 하나의 영혼을 지녔다고 나는 말할 수 있다. 이것은
데카르트에 대한 반론이다). 그러나 그 후 마을들은 노동조합으 로
만들어졌고, 그 후 소들은 자기들의 삶을 2평방미터의 우사에서 보내야
한다. 소들에게는 더 이상 이름이 없고<생기 있는 기계>가 되어버렸다.
세상사람들은 데카르트에게 정당성을 부여했던 것이다. 계속 내 눈앞에는
테레사가 나무 그루터기에 앉아서 카레닌의 머리를 쓰다듬 고, 인류의
기능장애을 생각하는 모습이 보인다. 동시에 또 다른 형상이 떠오른 다.
즉, 니체가 투린에서 그가 묵었던 호텔을 떠난다. 그는 자기 앞의 말과
마부 를 본다. 마부는 말에 채 @p 351 찍질을 하고 있다. 니체가 말에게로
다가가 무부가 보는 앞에서 두 팔로 말의 목을 껴안고 운다. 그것은
1889년이였다. 니체는 그때 이미 사람들에게서조차 소외된 상태였다. 달리
말하면 바로 그 시점에 그의 정신병이 돌발했다. 그러나 바로 그 때문에
그의 행동은 데카르트를 대신하여 말에게 사죄하기 위해 왔던 것이다.
그의 정 신착란(인류와의 단절)은 그가 말을 애도하여 우는 순간에

시작된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내가 좋아하는 니체다. 꼭 마찬가지로 자기의 무릎 위에 죽을 병이 걸린 개의 머리를 올려놓고 있는 테레사를 나를 나는 좋아한다. 나는 이 두 사람이 나란히 있는 것을 본다. 두사람은 인류가 <자연의 주인이자 소유 주>로서 앞으로 행진하고 있는 길에서 이탈하고 있다. 3 카레닌은 두 개의 크라상 빵과 한 마리의 꿀벌을 낳았다. 어리둥절하여 카레 닌은 이 놀라운 자기의 후예를 바라보았다. 크라상빵은 조용했지만 벌은 흥미상 태에서 비틀거리며 돌아다녔다. 그런 다음 벌은 높이 날아올라 사라졌다. 이것은 테레사가 꾸었던 꿈이었다. 잠이 깬 뒤 그녀는 이 꿈을 토마스에게 이 야기해 주었다. 그런데 두 사람은 이 꿈을 어떤지 위안을 주는 좋은 것으로 생 각했다. 말하자면 그것은 카레닌의 병을 새끼를 밴 상태로 변형시켰던 것이다. 그래서 새끼 탄생의 드라마는 우스꽝스럽고도 감동적인 결과를 가졌다. 두 개의 크라상빵과 한 마리의 꿀벌이 그것이였다. @p 352 다시금 그녀의 마음은 어처구니없는 희망에 가득 찼다. 그녀는 일어나 옷을 입었다. 마을에서도 그녀의 하루 일과는 우유, 빵, 크라상을 사기 위해 상점에 가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날 그녀를 동반하도록 카레닌을 불렀는데 개는 머리도 들지 않았다. 개가 전에 언제나 고집했던 의례적인 아침 외출에 참가하기를 거부한 것은 이것이 처음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카레닌 없이 혼자 갔다. 「도대체 카레닌은 어디 있어요?」 하 고 벌써 카레닌에게 주려고 크라상 하나를 손에 쥔 여자 판매원은 물었다. 이번에는 이 크라상을 케레사 자신이 호주머니에 넣고 집으로 가져가야 했다. 집의 현관문에서 이미 그녀는 이것을 꺼내어 카레닌에게 보였다. 그녀는 이것을 개가 와서 가져가기를 바랐다. 그러나 개는 누워서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토마스는 테레사가 얼마나 불행해하는가를 보았다. 그는 크라상을 입에 물고 네 발로 기어 카레닌 앞으로 가 바닥에 웅크리고 앉았다. 그런 다음 그는 천천 히 개에게로 기어갔다. 카레닌은 그를 바라보았다. 한 가닥 관심의 빛이 그것의 두 눈에 번쩍이는 것 같았다. 그러나 카레닌은 일어나지 않았다. 토마스는 자기의 얼굴을 카레닌의 코 앞으로 아주 바짝 가져갔다. 몸은 움직이지 않고 개는 토마스의 입에서 밖으로 나온 크라상의 부분을 입에 물었다. 크라상을 카레닌에게 주려고 토마스는 입에 문크라상을 놓았다. 그런 다음에도 토마스는 계속 네 발로 기어서 뒤로 물러가 으르렁거리기 시작 했다. 그는 마치 크라상을 차지하려고 서로 싸우려는 것처럼 행동했다. 이 순간 개는 자기 주인에게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내며 응답했다. 드디어 반응이 나왔다. 이것을 그들은 기다렸다! 카레닌에게 놀이하고 싶은 의욕이 생겼다! 카레닌에게 살고 싶은 의욕이 나타났다! @p 353 으르렁거리는 이 소리는 카레닌의 미소였다. 그들은 이

미소가 가능한 한 오랫동안 지속되게 하려 했다. 그 때문에 토마스는 다시 기어서 카레닌에게로 다가가 개의 주둥이에서 내민 크라상의 꼭지를 짹짹 물었다. 그들의 얼굴은 너 무도 바짝 접근해 있었기 때문에 토마스는 개의 호흡 냄새를 맡았고, 카레닌의 주둥이 주위에 자란 긴 털이 그의 뺨을 간지럽게 했다. 개가 다시 한번 으르렁 거렸고 갑자기 주둥이를 흔들었다. 각자 반쪽의 크라상을 이빨에 물고 있었다. 그러자 카레닌은 옛날의 실수를 저질렀다. 그것은 자기가 문 반쪽을 떨어뜨리고 주인 입에서 다른 반쪽을 낚아채려 했다. 언제나와 마찬가지로 카레닌은 토마스가 개가 아니며 그에게는 손이 있다는 것을 잊었다. 토마스는 물고 있던 크라상을 놓아주지 않고 바닥에 놓여 있는 동강이를 주웠다. 「토마스, 당신, 개의 크라상을 빼앗지 말아요!」 하고 테레사가 외쳤다. 토마스는 두 개의 반쪽 크라상을 카레닌 앞에 떨어뜨렸다. 카레닌은 한 개를 재빨리 꿀꺽 삼키고 다른 한 개를 시위하듯 오랫동안 입에 물고 있었다. 이것은 자기가 이 게임에 이겼다는 것을 자기 주인들 앞에서 뽐내기 위한 것이었다. 그들은 카레닌을 바라보고 카레닌이 미소짓는다는 것을 다시금 서로가 말했다. 그리고 개가 미소짓는 한 비록 그것이 죽음의 선고를 받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살 이유가 이 개에게 있다는 것을 서로 이야기했다. 다음날 개의 상태는 좋아지는 듯 보였다. 그들은 점심식사를 했다. 이 점심시간은 이들 부부가 자신들만을 위해 갖는 시간이었고, 그들이 개와 함께 산책하는 시간이었다. 그래서 보통 때 같으면 카레닌은 안절부절하며 그들 주의를 쫓아다녔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테레사가 개의 목줄과 끈을 손에 들었는데도 개는 @p 354 그녀와 토마스를 오랫동안 바라볼 뿐 전혀 움직이지를 않았다. 그들은 개 앞에 서서 그것의 기분을 돋구기 위해 기뻐하려고 애썼다. 한참 뒤에야 비로소 마치 그들을 동정이라도 하려는 듯 개는 세발로 질름거리며 그들에게로 다가와 목에 목줄을 매도록 했다. 「테레사, 난 당신이 사진기를 적대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오. 그러나 아 무리 그렇다고 해도 오늘은 사진기를 가지고 가요!」 하고 토마스가 말했다. 테레사는 이 말에 따랐다. 그녀는 창을 열고 깊이 파묻어둔, 오랫동안 잊고 있던 사진기를 찾았다. 토마스는 말을 계속했다. 「[이 사진들은 언젠가 우리에게 큰 기쁨을 안겨줄 것이오. 카레닌은 우리들 삶의 한 부분이오]」 「한 부분이었다니 무슨 말예요?」 하고 테레사가 마치 뺨에라도 물린 듯 놀라 말했다. 사진기는 그녀 앞에 있는 장(櫥) 밑칸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허리를 굽히지 않았다. 「사진기를 가져가지 않겠어요. 카레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나는 생각하지 않겠어요. 당신은 벌써 과거형으로 카레닌에 대해 말하고 있어요!」 「네게 화내지 말아요」

하고 토마스가 말했다. 「난 화나 있지 않아요」 하고 테레사가 부드럽게 말했다. 「나 자신 벌써 여러 번 과거 속에서 카레닌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번번이 나 자신을 나무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바로 그 때문에 사진기를 갖고 가지 않겠어요」 그들은 말을 하지 않고 길을 걸었다. 말하지 않는 것이 과거 속에서 카레닌을 생각하지 않는 유일한 가능성이었다. 그들은 카레닌으로부터 눈을 떼지 않았으며 계속 그의 곁에 있었다. 그들은 그의 미소를 기대했다. 그러나 그는 미소짓지 않았고 단순히 그들곁을 따라갔다. 카레닌은 계속 세 발로 걸었다. @p 355 카레닌은 오직 우리를 위해 따라온 거예요」 하고 테레사가 말했다.

「카레닌은 도대체가 산보하려 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려고 따라온 거예요」 그녀의 말은 실은 슬프게 들렸으나 그들은 행복했다. 단지 자신들이 행복했다는 것을 그들이 의식하지 못했을 뿐이다. 그들이 행복했다는 것은 슬픔에도 불구하고 아니라 바로 이 슬픔 때문이었다. 그들은 서로 손을 잡고 있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눈앞에 동일한 형상을 보고 있었다. 즉, 그들 삶의 10년을 구현하고 있는 절름거리의 개를 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얼마의 거리를 더 갔다. 그러나 카레닌이 발을 멈추고 몸을 돌렸다. 이 것에 그들은 매우 실망했음에도 되돌아가지 않을 수 없었다. 어쩌면 바로 그날인지 아니면 그 다음날인지 모르겠다. 테레사가 예기치 않게 토마스의 방으로 들어와 그가 편지를 읽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듣고 그 편지를 다른 서류들 사이에 밀어넣었다. 그녀는 이것을 보았다. 그가 방을 떠날 때 편지를 슬쩍 자기 호주머니에 집어넣는 것이 그녀의 눈에 띄었다. 하지만 봉투를 그는 잊었다. 테레사는 자기가 집에 혼자 있게 되자 곧 이 봉투를 살펴보았다. 주소는 그녀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쓴 것이었다. 매우 호감이 가는 글씨였다. 그녀는 이것이 어떤 여자의 필체라고 생각했다. 그들이 그 뒤 만나게 되었을 때 그녀는 편지가 왔더냐고 그에게 슬쩍 물었다.

「아니야」 하고 토마스는 말했다. 테레사는 절망감에 사로잡혔다. 그리고 이 절망은 그녀가 그 동안 이것에 익숙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더 나뉘었다. 아니 토마스에게 여기에 애인이 있다고는 테레사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것은 실제로 불가능했다. 그녀는 그 @p 356의 자유신가에 대해서는 분까지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분명히 프라하에 한 여자를 두고 왔을 거다. 비록 그녀가 그녀의 복부의 냄새를 더 이상 그의 머리칼에 남겨둘 수는 없었지만, 그는 그녀를 생각하고 그녀에게 매달렸을 거다. 토마스가 이 여자 때문에 자기를 버릴 수 있을 것이라고는 테레사는 믿지 않았다. 그러나 마을에서의 최근 2년간의 행복이 다시금 거짓으로 흐려지고 마는 듯 여겨졌다. 옛생각이 다시금

되돌아왔다. 그녀의 보금자리는 토마스가 아니라 카레닌이라 는 생각이 그것이다. 카레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면 누가 그녀의 나날의 해시계가 되겠는가? 테레사의 생각은 미래 속으로 달렸다. 카레닌이 없는 미래 속으로 달렸다. 그 녀는 홀로 버림받은 듯 느껴졌다. 카레닌이 모퉁이에 앉아서 킁킁거렸다. 테레사는 정원으로 나갔다. 그녀는 사과나무들 사이에 한 조각의 풀밭을 바라보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카레닌을 여기에 묻을 것이라고. 그녀는 신 뒤통치로 땅을 파 풀밭에 직사각형 선을 그어놓았다. 이것이 카레닌의 무덤을 위한 자리가 될 것이다.

「당신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지?」 하고 토마스가 물었다. 몇 시간 전 그녀 가 편지를 읽는 그를 불시에 습격했던 것과 똑같이 이번에는 그가 그녀를 깜짝 놀라게 했다. 그녀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손이 오랜만에 다시금 떨고 있는 것 을 보고 그녀의 손을 자기 손 안에 잡았다. 그녀는 손을 뿌리쳤다. 「이것이 카레닌 무덤이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의 침묵이 그를 자극시켰다. 그는 폭발하듯 소리쳤다.

「당신은 내가 과거 속에서 카레닌을 생각한다고 나를 비난했어! 그런 @p 357 데 당신은 지금 무슨 짓거리를 하고 있소? 당신은 케레닌을 벌써 물으려고 하 오?」 그녀는 그에게 등을 돌려 집안으로 들어갔다. 토마스는 그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하고 닫아버렸다. 케레사가 그의 방문을 다시금 열고 말했다. 「비록 당신은 언제나 당신만을 생각하지만 적어도 지금은 케레닌을 생각할 수 있겠죠. 카레닌은 잠을 잤고 당 신을 깨웠어요. 이제 개는 다시금 킁킁거리기 시작할 거예요」 그녀는 자기가 올바르게 못했음을(개는 잠자지 않았다) 알고 있었다. 그녀는 자기가 남의 마음을 해치려고 하는 모든 여자들 중 가장 저속한 여자처럼 행동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토마스는 발꿈치를 들고 카레닌이 누워 있는 방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그녀는 그를 카레닌과 단둘이 있게 하지 않으려고 했다. 그들은 둘 다 카레닌을 굶어보 았다. 각자 한쪽에서 굶어보았다. 그러나 이 공통된 동작은 화해의 제스처가 아 니었다. 그 반대였다. 두 사람은 혼자였다. 테레사는 그녀의 개와 함께 있었고 토마스는 그의 개와 함께 있었던 것이다. 그들이 그런 식으로 서로 분리되어 각자 혼자서 마지막 순간까지 카레닌의 곁 에 머물러 있을 것인지는 내겐 염려스럽다. 4

전원시란 말이 테레사에게 왜 그토록 중요한가? 구약성서의 신화교육을 받은 우리들은 전원시란 낙원에 대한 회상으로서 우리 들 마음속에 보존되어 있는 하나의 이미지라고 말할 @p 358 수 있을 것이다.

낙원에서의 삶은 우리를 미지의 세계로 이끌어가는 직선의 진행과 같지 않았다. 그것은 모험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미 아는 것들 사이에서 맴돌았다. 낙원에서의 삶이 갖는 단조로움은 지루함이 아니고 행복이었다.

인간이 시골의 자연 속에서 가축들에 둘러싸여, 계절과 계절의 변화 속에 보 호받고 살았던 때만 해도, 적어도 낙원 전원시의 반영이 그의 마음속에 남아 있 었다. 이러한 근거에서 테레사는 요양지에서 협동조합의 조합장을 만났을 때 갑 자기 사골마을의 모습이 눈앞에 떠올랐고(이 마을에서 그녀는 한 번도 산 적이 없었으며 이 마을을 그녀는 전혀 알지 못했다) 마치 마을에 걸린 듯 매혹되었 던 것이다. 그녀에게는 낙원을 되돌아보는 듯 생각되었다. 아담이 낙원에서 우물에 몸을 굽혔을 때 그가 물 속에서 본 것이 그 자신이었 다는 것을 그는 알지 못했다. 처녀로서 거울 앞에서의 자신의 육체를 꿰뚫어 영 혼을 보려고 애썼던 테레사를 아담은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다. 아담은 카레닌과 같았다. 테레사는 가끔 카레닌을 거울 앞으로 데려가는 것을 즐겼다. 개는 자신 의 상을 알지 못했다. 그것은 자신의 상에 대해 관심도 없었고, 주의도 기울이지 않았다. 카레닌과 아담 간의 비교는 인간이 낙원에서는 아직 인간이 아니었다는 생각 을 나로 하여금 갖게 한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인간은 인간 존재의 진로로 내 동맹이쳐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오래전에 이 진로에 내동맹 이쳐져 직선으로 진해하는 시간의 허공을 통해 날아가고 있다. 하지만 우리들 내면에는 우리를 아득히 멀리 떨어져 있는 낙원과 연결하고 있는 가느다란 줄이 아직도 존재한다. 그곳에서 아담은 우물 위를 굽어보고 나르시스와는 반대로 물 속에서 솟아오를 담황색의 이 얼룩 모습이 그자신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 낙원에 대한 동경은 인 @p 359 간의 존재가 되지 않으려는 인간의 갈망이다. 그녀가 어린 소녀로서 피로 얼룩진 어머니의 생리대가 사방에 흩어져 있는 것 을 볼 때마다 그녀는 그것에 구역질이 났다. 그녀는 어머니가 이들 생리대를 치워버릴 만큼의 수치심도 갖지 않았기 때문에 어머니를 증오했다. 암캐인 카레 닌에게도 꼭 마찬가지로 월경이 있었다. 6개월마다 한 번씩 멘스가 있었는데 14 일 동안 계속되었다. 개가 집안을 더럽히지 않도록 테레사는 개의 두 다리사이에 한 조각의 탈지면을 대고, 그녀의 흰 팬츠를 개에게 입혀서 이 팬츠를 긴 끈 으로 재치 있게 개의 몸에 짝 동여댔다. 14일동안 그녀는 개의 옷차림을 보고 웃었다. 그녀에게 자기 자신의 월경은 구역질이 나는 데 반해 개의 월경은 그녀 의 마음속에 즐거움과 애정을 불러일으키는 현상은 어떻게 된 것인가? 그 대답 은 내게는 단순한 것 같다. 개는 한 번도 낙원에서 추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카레닌은 육체와 영혼의 이원성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 그리고 구역질이 무엇 인가도 모른다. 그 때문에 테레사는 카레닌과 함께 있으면 자신이 그토록 편안 하고 안심이 됨을 느낀다(그 때문에 짐승을 생기 있는 기계로, 암소를 우유 자동 기로 변하게 한다는 것은 그토록

위험한 일이다. 인간은 이러한 방법으로 인간을 낙원과 연결시키고 있는 줄을 절단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할 경우 아무것도 그를 멈추게 하지 못할 것이며, 아무것도 시간의 허공 속을 통해 날아가는 그의 비행에서 그를 위로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같이 어지러운 생각에서 테레사의 마음속에는 신성모독적인 생각이 하나 떠올른다. 이 생각을 그녀는 억누를 수가 없다. 그녀를 카레닌과 연결시키고 있는 사랑은 그녀와 토마스 간에 있는 사랑보다 더 낫다고 생각된 것이다. 테레사는 그 책임을 자신에게도, 토마스에게도 전가시키려 하지 않는다. 그녀는 자기들이 서로 @p 360 가 더 사랑할 수 있을 거라고 주장하려 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녀에게는 인간 남녀의 짝은 그들의 사랑이 최선의 경우에도 사람과 개 간의 사랑보다 선천적으로 더 나쁘도록 창조되었다고 생각된다. 인류의 역사에서 이 특이한 현상은 아마도 창조에 의해 계획된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이 특이한 사랑은 몰아적이다. 테레사는 카레닌으로부터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사랑까지도 그녀는 한 번도 카레닌으로부터 요구하지 않는다. 인간 남녀의 짝들을 괴롭히는 질문을 그녀는 한번도 하지 않았다. 그가 나를 사랑하는가? 그가 나보다 어느 다른 누구를 더 사랑했는가? 내가 그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그는 나를 사랑할까? 라는 질문들 말이다. 사랑을 문제삼고, 사랑을 측정하고 감사 하며, 사랑을 조사해 보고 심문하는 이들 질문은 모두가 사랑이 이미 싹도 트기 전에 그것을 질식시켜 버린다고 볼 수 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없다는 것도 가능한 말이다. 바로 그 이유는 우리가 사랑받기를 갈구하기 때문이다. 다실 말하면 우리는 아무요구도 없이 다른 사람에게로 다가가 그의 현존 이외에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대신 다른 사람으로부터 무엇인가를(사랑을) 바라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다른 면이 있다. 테레사는 카레닌을 있는 그대로 수락했다. 그녀는 카레닌을 그녀의 형상에 따라 변경시키고자 하지 않았다. 그녀는 처음부터 카레닌이 지닌 개의 세계에 동의했고, 이 세계를 그것으로부터 뺏지 않으려 했다. 그녀는 그것이 지닌 숨은 성향에 질투하지 않았다. 그녀가 카레닌을 교육한 것은 변화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남편은 부인을, 또 부인은 남편을 변화시키려 한다) 서로가 이해하고 함께 살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 언어를 그것이 익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또, 개에 대한 그녀의 사랑은 자발적인 것이다. 아무도 @p 361 그녀가 그렇게 하도록 강요하지 않았다(그녀는 그녀의 어머니를 생각하고 몹시 섭섭함을 느낀다. 어머니가 시골마을의 보잘것없는 부인이었던들 테레사는 어머니의 활달한 야비함을 아마도 호감이 가는 것으로 생각했을 것이다! 아아, 어머니가 낯선 여자였더라면! 테레사는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가 그녀 자신의 얼굴 모습을 차지하고,

그녀 자신의 자아 소유권을 몰수해 버렸다는 데 대해 부끄러워했다. 그런데 가장 나빴던 것은 <너는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사랑해야 한다>라는 태고의 계명이 그녀로 하여금 그러한 점령을 승인하고 그러한 침공을 사랑이라 일컫도록 강요한 것이었다! 테레사가 어머니와 관계를 끊지 아니한 것은 어머니가 그래그래해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그녀의 어머니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떠한 사람도 다른 사람에게 전원시를 선사할 수가 없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짐승뿐이다. 왜냐하면 짐승은 낙원에서 쫓겨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간과 개 간의 사랑은 목가적이다. 그것은 갈등 없는 사랑이요, 가슴을 찢는 듯한 장면들이 없는 사랑이며, 발전이 없는 사랑이다. 카레닌은 테레사와 토마스를 예워쌌다. 카레닌은 반복에 근거한 자기 삶을 가지고 그들에게서 살았다. 그리고 카레닌은 그들로부터 동일한 삶을 기대했다. 카레닌이 인간이었고 개가 아니었던들 그것은 벌써 오래전에 테레사에게 틀림 없이 말했을 것이다. 「들어봐요, 매일 크라상 하나를 입에 물고 다닌다는 것은 내겐 더 이상 재미가 없어요. 새로운 것을 생각해 낼 수 없나요?」 하고. 이 문장은 인간에 대한 완전한 판결이다. 인간의 시간은 원형으로 맴돌지 않고 직선으로 진행된다. 이것이 왜 인간이 행복할 수 없는가 하는 이유다. 왜냐하면 행복이란 반복을 갈구하는 소망이기 때문이다. @p 362 그렇다. 행복이란 반복에 대한 소망이야, 하고 테레사는 자신에게 말한다. 조합장이 일과가 끝난 뒤 그의 메피스토를 산책시키기 위해 데리고 나와 테레사를 만날 때면 번번이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을 한 번도 잊지 않았다. [테레사 부인! 왜 내가 메피스토를 벌써 전에 사귀지 못했을까요? 우린 공동으로 처녀들 품무니를 따라 갔을 거요. 두 놈팽이에게 어떤 여자도 틀림없이 반항할 수 없을 거요!.] 그는 그의 돼지가 이 말이 끝난 다음에는 꿀꿀거리기 시작하도록 훈련을 시켜놓았다. 테레사는 조합장이 무슨 말을 할 것인가를 처음 순간부터 알고 있었지만 웃었다. 위트는 반복해도 그매력을 조금도 잃지 않는다. 그 반대다. 전원시와의 연관에서 해학까지도 반복의 감미로운 법칙에 예속되어 있다. 5 사람과 비교해 볼 때 개에게는 유리한 점이 그리 많지가 않다. 그러나 가지는 팔목할 만하다. 개의 경우 안락사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다. 짐승에게는 자비로운 죽음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카레닌은 세 발로 절뚝거리며 걸었고, 모퉁이에 엎드려 누워있는 데 점점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카레닌은 낄낄거렸다. 토마스와 테레사는 카레닌을 필요없이 고통스럽게 해서는 안 된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그러나 기본적인 이 의견의 일치는 그들에게 불안한 불확실성을 던져주지 못했다. 언제 고통이 불필요하게 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사는

것이 더 이상 아무런 보람도 없게 되는 순간을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까?
@p 363 하지만 토마스는 의사가 아니었던가? 토마스가 의사가 아니었던들 제3자를 핑계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수의사에게 개에게 주사 한 대 놓아달라고 그에게 부탁할 수 있을 것이다. 죽음의 역할을 스스로 넘겨받아야만 한다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토마스는 자기 자신이 카레닌에게 안락사 주사를 놓아줄 수 없으므로 수의사를 부를 것을 오랫동안 고집했다. 그러나 그 후 그는 자기가 개에게 특권을 인정해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것은 인간은 결코 향유할 수 없는 특권이다. 즉, 죽음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띠고 자기에게 오게 된다는 것이다. 카레닌은 밤새도록 끔찍거렸다. 토마스가 아침에 그를 손으로 진찰하고 난 뒤, 테레사에게 말했다. 「우린 더 오래 기다려서는 안되겠도」 아직도 이른 아침나절이었다. 곧 두 사람은 집을 떠나야 했다. 테레사가 카레닌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 그것에게로 나아갔다. 지금까지 카레닌은 무관심하게 엎드려 누워 있었다(토마스가 방금 그것을 진찰할 때까지도 그것은 아무런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듣자 그것은 머리를 들고 테레사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 시선을 견딜 수가 없었다. 그것은 그녀에게 아주 두려움을 주었다. 카레닌이 토마스를 그런 시선으로 바라본 적은 한번도 없었다. 카레닌은 그녀만을 언제나 그런 식으로 바라보았다. 하지만 지금처럼 그토록 절실하게 바라본 적은 아직 한 번도 없었다. 그것은 절망적이거나 슬픈 시선이 아니었다. 전혀 그러하지 않았다. 그것은 무섭도록, 참을 수 없도록 친밀함을 가득 담은 시선이었다. 이 시선은 열망적인 질문이었다. 카레닌은 자기 평생동안 테레사의 대답을 기다렸던 것이다. 지금도 여전히 카레닌은 그녀로부터 진실을 들으려는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그녀가 깨
@p 364 달도록 했다(전보다 훨씬 더 절실하게). (테레사에게서 나오는 것은 모두 카레닌에게는 진실이었다. 그녀가 카레닌에게 <앉아!>, '혹은<엎드려!> 하고 말한 다 해도 이것들은 카레닌에게는 진실이었다. 카레닌은 이것들과 자신을 일치시킬 수 있고, 이것들은 카레닌의 삶에 하나의 의미를 부여한다.) 무섭도록 친밀함을 담은 이 시선의 시간은 매우 짧았다. 곧 카레닌은 머리를 다시 두 앞발에 올려놓았다. 테레사는 다시는 자기를 어느 누가 그와 같은 눈초리로 바라보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카레닌에게 한 번도 단 것을 주지 않았다. 하지만 며칠전 그녀는 몇 개의 판초콜릿을 샀다. 그녀는 초콜릿의 은박지를 깼다. 그리고 이것들을 아주 작은 조각으로 부수어 카레닌 앞에 놓아주었다. 그리고 그녀는 쟁반에 물을 담은 그 옆에 놓아주었다. 이것은 카레닌이 혼자 집에 있게 될 시간 동안 카레닌에게 부족한 것이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다. 잠시 전 그녀를 바라보았던 카레 닌의 시선은 카레닌을
기진맥진하게 만든 것 같았다. 초콜릿이 자기 앞에 놓여 있는데도
카레닌은 머리를 들지 않았다. 그녀는 개의 옆 방바닥에 누워 두 팔로
케레닌을 안았다. 아주 천천히, 지친 동작으로 카레닌은 그녀의 몸에 코를
대고 쿵쿵거렸다. 그리고는 그녀의 얼굴을 한두 번 훑았다. 그녀는 이
애무를 마치 영원히 그녀의 기억에 새겨놓으려는 듯 두 눈을 감고
받아들였다. 그녀는 머리를 돌려 케레닌이 그녀의 다른 뺨을 훑도록
했다. 그런 다음 그녀는 그녀의 송아지들에게로 가야 했다. 그녀는
점심식사 후에야 비로소 돌아왔다. 토마스는 아직 집에 와 있지 않았다.
카레닌은 아직도 계속 초 콜릿 조각들 앞에 엎드려 있었다. 그녀가 오는
소리를 들었는데도 카레닌은 더 이상 머리를 들지 않 @p 365 았다. 그의
병든 다리는 부어 있었고 새로운 곳에 나타난 종기는 터져 있었다. 연한
붉은색의 방울이(이것은 피같이 보이지 않았다) 털 사이로 비쳐 나왔다.
다시 그녀는 개의 옆 방바닥에 누웠다. 그녀는 한쪽 팔로 카레닌의 몸을
감싸 안고 두 눈을 감았다. 그때 누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의사 선생, 의 사 선생! 돼지와 이놈의 조합장이오!”하고 외치는
소리가 울려왔다. 그녀는 누 구와 이야기할 처지가 아니었다. 그녀는 꿈쩍
않고 눈을 계속 감고 있었다. 다시 한번 “의사 선생, 그 두 마리의
암태지가 있어요!”하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런 다음 다시
조용해졌다. 토마스는 반 시간 뒤에야 비로소 왔다. 그는 말없이 부엌으로
가 주사 놓을 준비를 했다. 그가 방에 들어왔을 때 테레사는 이미 일어나
있었다. 그리고 카레 닌은 일어나려고 안간힘을 썼다. 토마스를 보자
카레닌은 힘없이 꼬리를 흔들었 다. “이것 봐요, 카레닌이 아직도 계속
미소짓고 있어요” 하고 테레사가 말했다. 그녀는 애원조의 어조로 마치
안락사를 잠시 연기해 줄 것을 호소하려는 듯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을 고집하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아마포를 소파위에
펴놓았다. 보랏빛의 꽃무늬가 있는 흰 아마 포였다. 그녀는 이미 여러 달
전에 카레닌의 죽음을 미리 마음속에 그리고 있었 던 듯 모든 것을
준비했고 모든 것을 생각했었다.(아!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의 죽음을 미리
꿈꾼다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카레닌은 소파에 뛰어오를 힘이
없었다. 그들은 카레닌을 팔에 올려놓고 함께 들었다. 테레사가 카레닌을
옆으로 누이고 토마스가 카레닌의 다리를 살펴보았 다. 그는 혈관이 잘
보일 수 있도록 @p 366 솟아오른 부위를 찾아냈다. 그는 가위로 그곳의
털을 깎았다. 테레사는 소파 옆에 무릎을 꿇고 카레닌의 머리를 자기
얼굴에 바짝 가까이 해서 잡고 있었다. 토마스는 그녀가 개 뒷발의 정맥
위를 꼭 눌러줄 것을 부탁했다. 왜냐하면 정 맥이 아주 가늘어서 애를

써야 겨우 주사바늘을 삽입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 녀는 카레닌의 발을 꼭 잡고 그녀의 얼굴을 카레닌의 머리로부터 돌리지 않았다. 그녀는 계속 조용한 목소리로 카레닌에게 간절하게 속삭였다. 그리고 카레닌은 그녀만을 생각했다. 카레닌은 겁내지 않았다. 카레닌은 다시 한번 그녀의 얼굴을 훑었다. 그리고 테레사는 그에게 속삭였다. “무서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네가 가는 그곳에서는 더 이상 아무것도 너를 아프게 하지 않을 거야. 그곳에서 사는 다람쥐와 토끼들의 꿈을 꾸게 될 것이야. 그곳에는 귀여운 송아지들이 있고 메피스토 돼지까지도 있을 거야. 무서워하지 마……” 토마스는 주사바늘을 정맥에 꽂고 주사기 뒤를 눌렀다. 카레닌의 다리에 약간 의 경련이 일어났다. 카레닌의 호흡이 좀 빨라졌다가 완전히 멈추었다. 테레사는 소파 옆 바닥에 무릎을 꿇고 그녀의 뺨에 카레닌의 머리를 눌렀다. 그들은 둘 다 다시금 일하러 가야 했다. 개는 소파 위, 보랏빛 꽃무늬가 있는 하얀 아마포 위에 두었다. 저녁에 그들은 집으로 돌아왔다. 토마스는 정원으로 나갔다. 사과나무 사이에서 테레사가 며칠 전 신 뒤창으로 땅에 그어놓았던 사각형의 네 선을 그는 보았다. 그는 선이 그어진 그대로 정확히 봤다. 그는 모든 것이 테레사가 원했던 대로 마련되기를 바랐다. 그녀는 집안에서 카레닌 곁에 머물렀다. 혹시 카레닌을 산 채로 묻는 것이 아닌가 하고 염려했기 때문에 그녀는 카레닌의 주둥이에 귀를 갖다 대었다. 그녀는 아직도 약한 숨소리가 들린다고 믿었다. 그녀는 약간 뒤로 물러나 카레닌의 가슴이 약간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 (아니다. 그녀는 자신의 숨소리를 들었던 것이며, 이 호흡은 그녀의 육체를 알지 못하도록 움직이게 했던 것이다. 그래서 그녀는 개의 가슴이 움직였다는 인상을 가진 것이었다.) 그녀는 자기 핸드백 속에 거울이 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카레닌의 주둥이 앞에 갖다 댔다. 거울이 좀 더럽혀졌다. 그래서 그녀는 거울에 카레닌 호흡의 습기가 끼어 있는 것을 본다고 믿었다. 토마스가 흙 묻은 장화를 신고 정원에서 돌아왔을 때 “토마스, 카레닌이 아직 살아 있어요!”하고 그녀는 외쳤다. 그는 카레닌을 굽어보고 머리를 저었다. 그들은 각자 개를 눕혀둔 아마포의 한쪽을 잡았다. 테레사는 개의 발 쪽을, 토마스는 머리 쪽을 잡았다. 그들은 개를 높이 들어 정원으로 들고 갔다. 테레사는 그녀의 두 손에서 아마포가 축축하게 되었음을 느꼈다. 카레닌은 오줌을 싸고 우리에게 왔다가 오줌을 싸고 우리로부터 가버렸군 하고 테레사는 생각했다. 그리고 그녀는 개의 마지막 인사의 축축한 오줌을 그녀의 손에 느끼고 기뻐했다. 그들은 카레닌을 두 사과나무 사이로 운반해 땅 속으로 내려놓았다. 그들은 파놓은 무덤 위로 몸을 굽혀 카레닌의 온 육체가 덮이도록 했다. 그들이 곧 카레닌에게

던질 흙이 그의 벌거숭이 육체에 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은 그녀에게 견딜 수 없었다. 그런 다음 그녀는 집안으로 돌아가 목줄과 끈, 그리고 아침부터 건드리지 않고 바닥에 놓여 있었던 한 움큼의 초콜릿 조각들을 가지고 되돌아왔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개의 무덤 속으로 던졌다. 구멍이 옆에는 방금 파낸 흙더미가 놓여 있었다. 토마스는 삼을 @p 368 손에 들었다. 테레사는 그녀의 꿈을 회상했다. 카레닌이 두 개의 크라상과 한 마리의 꿀벌을 낳았었다. 이 문장은 이제 갑자기 마치 비문처럼 들렸다. 그녀는 이 두 사과 나무 사이에 다음의 비문이 새겨진 묘비가 서 있는 것을 상상해 보았다. 여기에 카레닌이 잠들어 있다. 카레닌이 두 개의 크라상과 한 마리의 꿀벌을 낳았다. 정원에는 땅거미가 깔렸다. 낮과 저녁 사이의 순간이었다. 하늘에는 창백하게 달이 걸려 있었다. 시체실에 켜놓은 잊혀진 등불이었다. 테레사와 토마스의 신은 흙으로 더럽혀져 있었다. 그들은 팽이와 삼을 광으로 가져갔다. 광에는 갈퀴, 물초롱, 곡괭이 등과 같은 연장이 보관되어 있었다. 6 그는 자기 방 책상에 앉아 있었다. 그는 책을 읽을 때면 언제나 그랬다. 그러 한 순간에 테레사가 그에게로 다가가면 그녀는 그에게로 몸을 굽혀 자기의 얼굴을 뒤로부터 그의 뺨에 갖다 대고 눌렀다. 그런데 지금은 토마스가 책을 들여다 보고 있지 않다는 것을 그녀는 알았다. 그의 앞에는 편지가 놓여 있었다. 비록 이 편지가 다섯 행의 타자글씨로 씌어져 있었지만 토마스는 그의 시선을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고 그것에만 고정시키고 있었다. “그것이 뭐예요?”하고 테레사가 조바심나는 마음으로 물었다. 몸을 돌리지 않고 토마스는 편지를 쥐어 그녀에게 건네주었다. 편지에는 토마스가 바로 오늘 이웃 도시에 있는 비행장에 도착해야 한다는 말이 씌어 있었다. 마침내 그는 머리를 그녀에게로 돌렸다. 테레사는 그녀 자신이 느꼈던 무서운 놀라움을 그의 눈에서도 똑같이 읽을 수 있었다. “나도 당신과 함께 가겠어요”하고 그녀는 말했다. 그는 머리를 저었다. “이 소환은 나에게만 해당되는 거요” “하지만 난 당신과 함께 가요”하고 그녀는 반복했다. 그들은 토마스의 트럭을 타고 떠났다. 그 후 곧 그들은 비행장에 가 있었다. 안개가 자욱했다. 그들 앞에 있는 비행기들의 윤곽만이 아주 희미하게 보였을 뿐이었다. 그들은 이 비행기에서 저 비행기로 갔다. 그러나 문들이 모두 닫혀 있었다. 마침내 그들은 들어가는 문이 열려 있고 탑승 자동계단이 펼쳐진 비행기 하나를 찾았다. 그들은 탑승계단을 올라갔다. 문들에 승무원 한 사람이 나타났다. 그는 그들에게 들어오라고 요구했다. 비행기는 작았다. 30명의 승객이 겨우 탈 정도였다. 그런데 완전히 비어 있었다. 그들은 좌석 사이의 좁은 통로를 통해 서 걸어갔다. 그들은 서로가 잡은 손을 놓지 않았다. 그들은 자기들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별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두 좌석에 나란히 앉았다. 그리고 테레사는 머리를 토마스의 어깨 위에 얹었다. 처음의 무서운 놀라움은 사라졌고, 그것은 슬픔으로 바뀌었다. 무서운 놀라움이란 일종의 쇼크로서 완전히 눈을 멀게 하는 순간이다. 무서운 놀라움은 전혀 아름다운 면을 갖지 않는다. 자기에게 부닥칠 알 수 없는 사건의 눈부신 빛 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이에 반해 슬픔은 안다는 것을 전제한다. 토마스나 테레사는 자기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알고 있었다. 무서운 놀라움의 날카로운 빛은 약해졌다. 세상은 은은한 푸른빛으로 보였다. 이러 한 조명은 사물을 실제보다도 더 아름답게 보이게끔 한다. 테레사는 그 편지를 읽는 순간 토마스에 대한 사랑을 느끼지 않았다. 그녀는 다만 자기가 그를 한순간도 혼자 버려두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알았을 뿐이다. 무서운 놀라움이 모든 다른 감정과 느낌을 질식시켰던 것이다. 그녀가 그에게 바싹 달라붙어 낮아 있는 지금(비행기는 구름 속을 통해 날았다). 무서운 놀라움은 가셔졌다. 그리고 그녀는 그녀의 사랑을 느꼈으며 이것이 무한한 사랑임을 알았다. 마침내 비행기가 착륙했다. 그들은 일어나 문 쪽으로 갔다. 이미 승무원이 문을 열어놓고 있었다. 그들은 계속 서로 허리를 잡고 있었다. 그들은 펼쳐진 계단 위에 섰다. 아래쪽에 머리에 두건을 뒤집어쓴 세 남자가 총을 들고 있는 것이 보였다. 주저한다는 것을 쓸데없는 것이었다. 빠져나갈 수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천천히 계단을 내려왔다. 그들이 활주로를 밟았을 때, 세 남자들 중의 한 사람이 총을 들고 겨누었다. 총 쏘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테레사는 바로 직전까지만 해도 자기를 꼭 껴안고 있었던 토마스가 쓰러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그를 꼭 껴안았다. 하지만 그는 꺾어질 수가 없었다. 그는 콘크리트 활주로에 쓰러졌다. 그녀는 그에게 몸을 굽혔다. 그녀는 자신을 몸을 그의 위에 올려놓아 자신의 육체로 그를 덮으려고 했다. 하지만 이 순간 그녀는 이상한 것을 보았다. 그녀의 눈앞에서 그의 육체가 작아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너무나도 믿기지 않는 일이라 그녀는 모이 굳어져 마치 땅에 뿌리를 박은 듯 서 있었다. 토마스의 육체는 점점 더 작아졌다. 그래서 그것은 이미 더 이상 토마스 같아 보이지 않았다. 토마스로부터 남은 것은 오직 극소뿐이었다. 이 작은 것이 움직이기 시작하여 활주로를 넘어 도망쳤다. 총을 쏘았던 남자가 얼굴을 가렸던 마스크를 벗고 테레사에게 단정하게 미소 지었다. 그는 몸을 돌려 도망치고 있는 그 작은 것을 쫓아갔다. 이 작은 것은 미친 듯이 마치 누구를 피해서 절망적으로 숨을 곳을 찾으려는 듯 이리저리 달렸다. 한동안 그들은 그런 식으로 쫓기고 쫓겼다. 그러자 그 남자가 갑자기

땅에 몸을 던져 추적 사냥은 끝이 났다. 그는 일어나 테레사에게로 돌아왔다. 그는 그녀에게 손에 쥔 그 작은 것을 내밀었다. 그것은 겁이나 떨고 있었다. 그것은 한 마리의 토끼였다. 그는 그것을 테레사에게 건네주었다. 이 순간 두려움과 슬픔이 그녀에게서 가셨다. 그녀는 이 작은 동물을 자기의 팔에 안고 행복해했다. 이 동물은 그녀에게 속했고, 그녀는 이것을 꼭 껴안을 수 있었다. 그녀는 행복의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울고 울었다. 그녀는 눈물 때문에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다. 그녀는 이 작은 토끼를 집으로 들고 갔다. 이때 그녀에게 거의 목적지에 도달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곳은 그녀가 언제나 가고자 했었고, 그곳으로부터는 아무도 도망칠 수 없는 곳이었다. 그녀는 프라하의 거리를 통해 걸어갔고, 쉽게 그녀의 집을 다시 찾았다. 그녀는 어렸을 때 양친과 함께 그곳에 살았었다. 그러나 어머니도, 아버지도 집에 없었다. 그녀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두 노인이 그녀를 반겼다. 테레사는 이들이 자기의 선조 할아버지, 할머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두 노인의 얼굴에는 울퉁불퉁한 나무껍질처럼 주름살이 깊이 패여 있었다. 테레사는 이들에게서 살 수 있게 된 것을 기뻐했다. 그러나 그 순간 그녀는 그녀의 토끼와 단둘이 있고 싶었다. 힘들이지 않고 그녀는 자기가 살았던 방을 다시 찾았다. 그녀가 다섯 살이 되었을 때 그녀의 부모가 그녀에게 이전 자기 방을 가져도 좋다고 말했던 후부터 그녀는 이 방에 살았었다. 방에는 소파, 작은 책상, 의자가 각기 하나씩 놓여 있었다. 책상에는 그 동안 내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던 등불이 활활 타고 있었다. 이 등에 나비 한 마리가 나래를 펴고 앉아 있었다. 나래에는 큰 두 개의 눈이 그려져 있었다. 테레사는 자기가 목적지에 도착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소파에 누워 작은 토끼를 그녀 얼굴에 대고 껴안았다. 그는 책을 읽을 때,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책상에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편지가 담긴 봉투가 열린 채 놓여 있었다. 그는 테레사에게 말했다. “나는 당신에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편지를 이따금 받소. 내 아들이 내게 편지를 쓰오. 나는 그의 삶과 나의 삶이 접촉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다했소. 그는 몇 년 전 대학에서 쫓겨났어요. 지금 그는 시골마을의 트랙터 운전사요. 나의 삶과 그의 삶이 실은 서로 접하는 것은 아니지만 두 삶은 마치 두 평행선처럼 같은 방향으로 나란히 나아가고 있소” “그런데 왜 당신은 그 편지에 대해 말하고 싶지 않은가요?”하고 테레사가 말했다. 그녀는 마음이 아주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나도 잘 모르겠고. 어쩐지 내게 불쾌하게 여겨지오” “그가 당신에게 자주 편지하나요?” “이따금 쓰오” “무엇에 대해 쓰죠?” “자신에 대해서요” “그런데 그것이 재미있나요?” “그래요. 당신도 알다시피 그의 어머니는 완강한

공산주의자였소. 그는 벌써 오래전에 그의 어머니와 단절을 했소. 그리고 그는 @p 373 우리와 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들과 친하오. 그들은 정치적인 적극성을 발휘하려고 시도했고 그들 중 몇몇은 오늘도 감옥에 있소. 그러나 그들과도 그는 사이가 나빠졌소. 그는 그들에게 거리를 두고 그들을 “영원한 혁명가들”이라 표현하고 있소 “하지만 그는 이 정권과는 타협하지 못했나요?” “그렇소. 전혀 타협 못했소. 그는 하나님을 믿고 있으며, 이것이 모든 것의 열쇠라고 생각하고 있소. 그의 견해에 의하면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종교에 의해 마련된 규범에 따라 살아야 하며 도대체가 정권 같은 것을 안중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오. 그것을 전혀 무시해야 한다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게 되면 임의의 어떤 상황에서나 ”지상천국“이라고 일컫고 있는 것을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창조할 수 있다고 그는 말하고 있어요. 그는 내게 설명하기를 교회는 우리나라에서 국가의 조종에서 벗어난 유일무이한 자발적인 인간공동체라는 거요. 그가 보다 효과적으로 정권에 저항하기 위해 교회에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 그가 진정 하느님을 믿는지 내겐 관심이 많소” “그에게 물어보지요!” 토마스는 말을 계속했다. “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언제나 경탄했소. 그들은 내게 없는 초감각적인 지각의 각별한 재능을 소유하고 있다고 나는 생각했소. 예컨대 천리안 같은 것 말이오. 그런데 이제 나는 내 아들의 예에서, 신앙이란 근본적으로는 아주 가벼운 것임을 알게 되었소. 그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카톨릭교인들이 그를 보살펴주었소. 그러자 갑자기 그에게 신앙이 나타난 것이 오. 어쩌면 감사하는 마음에서 신앙을 갖겠다고 결심했을 지도 모르오. 인간의 결단은 너무나도 단순하오” “당신은 그의 편지에 한번도 답하지 않았어요?” “그는 내게 자기 주소를 적지 않았소” 하지만 그는 덧붙여 말했 @p 374 다. 우편 스탬프에는 여하튼 지역 이름이 나타나 있소. 답을 할 경우 그곳 협동 조합의 주소로만 편지를 보내야 할 것이오“ 테레사는 토마스 앞에서 그 동안 의심해 왔던 것을 부끄럽게 생각했다. 그녀는 그러한 자기 죄를 그의 아들에 대해 과장된 친절을 통해 속죄하려 했다. “ 왜 당신은 그에게 답장하지 않아요? 왜 그를 초대하지 않아요?” “그는 나를 닮았소”하고 토마스는 말했다. “말을 할 때면 그는 윗입술을 삐딱하게 하오. 꼭 나같이 말이오. 나 자신의 입술이 주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것을 본다는 것, 그건 내게 너무나도 이상하게 여겨지오” 테레사는 웃기 시작했다. 토마스도 함께 웃었다. 테레사는 말했다. “토마스, 아이처럼 굴지 말아요. 그것은 이미 옛날이야기잖 아요. 당신과 당신의 첫째부인 말예요. 그것이 그에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가 이 부인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당신이 젊을 때 좋지

못한 취향을 가졌었다는 이유 만으로 당신이 누구를 해쳐야 할 이유가
있나요?” “솔직히 말해서 공개석상에서 느끼는 압박감 같은 것이 내게
있오. 이것이 왜 내가 이 만남을 회피하려 하는가 하는 본래 이유요. 내가
왜 이렇게 완고했 는지 나도 모르겠소. 때때로 우리는 이유도 알지 못하고
무슨 결단을 하오. 그러 면 이 결단은 자체의 끈질긴 집요함을
발전시켜요. 해가 가면 갈수록 이것을 바 꾸기란 점점 더 어렵게 되오”
“그를 초대해요”하고 그녀는 말했다. 그녀가 발로 그날 소외양간에서
돌아올 때 길에서 소리들이 들렸다. 가까이 갔을 때 그녀에게 토마스의
트럭이 보였다. 토마스가 앞으로 몸을 굽혀 차바퀴 를 빼고 있었다. 몇몇
남자들이 자동 @p 375 차 주위에 둘러서서 멍하니 바라만 보면서 토마스가
수리를 끝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그곳에 서서 눈을 뺄 수가
없었다. 토마스가 늙어 보였기 때문이었다. 그의 머리털은 세었다. 그가
보인 서투른 동작은 트럭 운전사가 도니 의사의 서 투름이 아니라 이젠
젊지 않은 사람의 서투름이었다. 그녀는 최근에 조합장과 나눈 대화를
회상했다. 그는 토마스의 트럭 상태가 너무 형편없다고 그녀에게 말했다.
그는 비난하지 않고 농담으로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그는 자못 염려를
했다. “토마스는 모터의 내면보다 인간 육체의 내면 을 더 잘 알고
있어요”하고 그는 웃었다. 그리고는 그는 토마스가 이 지역에서 다시
의사로서 개업할 수 있는 허가를 몇 번이고 관청에 요구했노라고 그녀에게
고백했다. 하지만 경찰이 그것을 결코 용납 않을 것이라는 말을 그는 이미
그 이전에 듣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는 자동차 주위에 둘러서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볼 수 없도록 나무등치 뒤에 몸을 숨겼다. 그러나 그녀는
토마스는 눈에서 놓지 않았다. 그녀의 가슴이 원망 탓으로 죄어들었다.
그녀 때문에 그는 취리히로부터 프라하로 되돌아왔다. 그녀 때문에 그는
프라하를 떠났다. 그리고 여기에서조차도 그녀는 그를 편안하 게 해주지
않고, 죽어가는 카레닌 앞에서까지도 말로 표현만 하지 않은 혐의를
그에게 씌으로써 그를 괴롭혔다. 머릿속에서 그녀는 그가 자기를 충분히
사랑하지 않는다고 항시 그를 비난했 었다. 그녀 자신의 사랑은 모든
의심을 초연한 것으로 간주했었고, 그의 사랑은 그와는 반대로 순수한
관용의 표현으로 간주했었다. 이제 그녀는 자기가 얼마나 공정하지
못했었는가를 통찰했다. 그녀가 정말 토 마스에 대해 큰 사랑을
느꼈었던들 그녀는 그와 함 @p 376 게 외국에 머물렀을 것이다! 토마스는
그곳에서 만족했었다. 그곳에서는 새로운 삶이 그의 앞에 펼쳐졌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로부터 도망했었다! 물론, 그녀는 그에게
집이 되지 않으려고 관대한 마음에서 그렇게 행동했노라고 자신을
설득했다. 하지만 이러한 관대함은 한낱 핑계가 아니었던가? 실은 그가

그녀에게로 되돌아올 것임을 그녀는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그를 자기에게 로 불렀고, 그를 점점 더 심연 속으로 끌어당겼던 것이다. 이것은 마치 요정들이 농부들을 습지로 유인해서 그곳에 빠져 죽도록 했던 것과 같다. 그가 위경련을 앓던 순간을 그녀가 시골로 이사하겠다는 약속을 그에게서 받아내는 데 악용했 었다! 그녀가 얼마나 음험할 수 있었는가! 그녀는 또한 그가 자기를 정말 사랑 하고 있는지 번번이 실험해 보려고 하는 것처럼 그를 자기에게로 불렀다. 그가 여기로 올 때까지 그녀는 그토록 오랫동안 그를 불렀다. 그 동안 그의 머리는 세었고, 몸은 지쳤으며 손은 반 불구가 되었다. 그의 손은 다시는 결코 해부도를 잡을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은 다시는 떠나갈 수 없는 곳에 외 있었다. 그들은 여기서부터 또 어디로 갈 수 있었겠는가? 당국은 그들을 다시는 외국으로 여행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프라하로도 그들은 더 이상 되돌아갈 수 없었다. 프라하에서는 아무도 그들에게 일자리를 주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다른 마을로 이사할 이유가 그들에게는 없 었다. 원, 이럴 수가. 그가 그녀를 사랑한다는 것을 마침내 그녀가 믿도록 정말 여기 까지 그들이 와야만 했던가? 드디어 그는 차바퀴를 다시 끼워 넣을 수 있었다. 그는 운전석에 앉았고 남자 들은 짐 실는 곳으로 뛰어올랐다. 그리고는 엔진이 작동했다. 그녀는 집으로 가 목욕탕에 물을 받았다. 그녀는 더운 물 속에 누워 자신에게 말했다. 자기의 약점을 토마스에 대해 악용했다고. @p 377 우리들은 모두가 강점을 지닌 자에게서 무죄한 희생자를 보려는 성향을 지닌다. 그러나 이제 테레사에게는 명백해졌다. 그녀의 경우에 그것은 정반대로 되어 있 다는 것을! 테레사의 꿈까지도 그의 눈앞에 그녀의 고통을 보여주었다. 마치 그 녀의 이 꿈이 이 강한 남자의 유일한 약점을 정확히 알고서 그를 물러나게 하려 는 듯 보였다. 그녀의 약점은 공격적이었고 계속 그의 행복을 강요하여 결국 그 는 강하기를 포기하고 그녀의 팔에 안긴 한 마리의 작은 토끼로 변하고 말았다. 그녀는 계속 이 꿈을 생각했다. 그녀는 욕조에서 나와 입을 옷을 하나 찾았다. 그녀는 그의 마음에 들기 위해 서 그에게 기쁨을 주기위해 그녀의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고자 했다. 그녀가 옷의 마지막 단추를 잠그자마자 토마스가 요란스럽게 집안으로 뛰쳐 들어왔다. 그리고 협동조합의 조합장과 눈에 띄게 창백한 젊은 농부 하나가 그 를 따라왔다. "어서요! 독한 술을 내와요!"하고 토마스가 외쳤다. 테레사가 슬리보빗츠 병을 가져왔다. 그녀는 한 잔 가득 따랐고 젊은이가 그 것을 단숨에 비웠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그녀는 들었다. 이 농부는 일하다가 어깻죽 지 팔을 빼어 고통스러워 외쳤다. 그를 어떻게 해야 할 지를 아무도 알지 못했 다. 그래서 토마스를 불러왔고 토마스는 단 한 번의 동작으로 그의 뺨 팔을 끼

워주었다. 젊은이는 한 잔 더 마셨다. 그리고 토마스에게 말했다. “당신 부인이 오늘 너 무나도 아름다워요!” “멍청한 녀석, 테레사 부인은 언제나 아름다워”하고 조합장이 말했다. “부인께서 언제나 아름답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 부인께서는 그뿐만 아니라 아름답게 옷차림을 했어요. 이런 @p 378 옷을 입고 있는 부인 모습을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부인께서는 무슨 특별한 일이라도 계획하고 계시나요?”하고 젊은이가 말했다. “아뇨, 나는 이 옷을 토마스를 위해 입었어요” “의사 선생, 당신 좋겠어요”하고 조합장이 웃었다. “내 할망구는 나를 위해 옷을 그와 같이 아름답게 입지 않아요” “그 때문에 당신은 당신의 암태지와 산책하고, 당신의 부인과는 산책하지 않 죠”하고 젊은이는 말하고 오랫동안 웃었다. “도대체 메피스토는 무엇을 하고 있죠?”하고 토마스가 말했다. “나는 메피 스토를 본 지가 적어도……”하고 그는 숙고했다. “본지가 벌써 한 시간이 되 는데요!” “그놈은 나를 동경할 것이오”하고 조합장은 말했다. “이 옷을 입고 있는 부인을 보니까 부인과 함께 춤추러 가고 싶어 죽겠어요 ”하고 젊은이가 테레사에게 말했다. “의사 선생, 부인을 저와 함께 춤추러 가 도록 허락하실 수 있나요?” “우리 모두 함께 춤추러 갈 거예요”하고 테레사가 말했다. “함께 가지겠어요?”하고 젊은이가 토마스에게 말했다. “그런데 어디로 말인가?”하고 토마스가 물었다. 농부는 주위에 있는 한 도시의 이름을 말했다. 그곳에는 바와 무도장이 있는 호텔이 하나 있었다. “조합장도 우리와 함께 가는 거요”하고 젊은이가 명령조로 조합장에게 말했다. 그리고 그는 벌써 세 번째 슬리보빗츠 술잔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덧붙여 말했다. “메피스토가 당신을 그토록 동경하고 있다면 그놈을 함께 데리고 가요! 우린 두 마리의 암태지(역주:암태지가 여자를 지칭하기도 함)를 데리고 가기로 해요! 그곳에 있는 여자들이 갑자기 두 마리 돼지를 보게 되면 모두 질겁해서 넘어질 거요” 그리고는 그는 오랫동안 웃었다. @p 379 “여러분 모두가 메피스토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나도 함께 가겠소” 하고 조합장이 말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토마스의 트럭을 탔다. 토마스가 운 전석에 앉았고 테레사는 바로 그 옆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두 남자는 반쯤 마신 술병을 들고 뒷자리에 앉았다. 그들은 이미 마을을 뒤로 두고 있었다. 그때 그들 이 메피스토를 집에 두고 왔다는 것이 조합장에게 생각났다. 되돌아가야 한다고 그는 토마스에게 외쳤다. “필요없어요. 한 마리 암태지로 족해요”하고 젊은이가 그에게 말했다. 조합 장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날이 어두워졌다. 길은 꼬불꼬불 산 위로 나 있었다. 그들은 도시에 도착하여 호텔 앞에 멈추었다. 테레사와 토마스는 아직 한 번 도 그곳에 간 적이 없었다. 계단은 지하실로 나

있었다. 그곳에는 바가 있었고 무도장과 몇 개의 테이블이 있었다. 예순 살 가량 되어 보이는 남자가 피아노를 연주했고, 같은 나이의 여자가 바이올린을 쳤다. 그들은 40년 동안의 흘러간 유행가를 연주했다. 쪽마루의 무도장에서는 몇 쌍이 춤을 추고 있었다. 젊은이는 홀을 둘러보고 말했다. “여기 어떤 여자도 내겐 어울리지 않아요” 그리고 그는 즉시 테레사에게 춤을 요청했다. 조합장은 토마스와 함께 빈 테이블에 가서 앉아 포도주 한 병을 주문했다. “나는 술을 마서서는 안 돼요! 운전을 해야죠!”하고 토마스가 말했다. “쓸데없는 소리”하고 조합장은 말했다. “우린 여기서 밤을 지낼 거요”하고 수납에 가 방 두 개를 예약했다. 테레사와 젊은이가 무도장에서 돌아왔다. 조합장이 그녀에게 춤을 요청했다. 제일 마지막에 그녀는 토마스와 춤을 추었다. 춤추면서 그녀는 그에게 말했다. “토마스, 당신의 삶에서 모든 @p380 불행은 나로부터 와요. 나 때문에 당신은 이 지경에 까지 왔어요. 더 이상은 밑 으로 내려갈 수 없을 정도로 당신은 밑바닥으로 내려 왔어요” 토마스는 그녀에게 말했다. “당신 돌았소? 여기서 <밑>이란 말이 무슨 뜻이 오?” “우리가 취리히에 머물렀던들 당신은 지금 환자들을 수술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사진촬영을 하고 있을 게고” “그건 어처구니없는 비교예요”하고 테레사가 말했다. “당신에게 당신의 일은 모든 것을 의미했던 반면 내게는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상관없어요. 나는 잃은 것이 도대체가 아무것도 없어요” “테레사, 당신은 내가 여기서 행복해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했단 말이오?” 하고 토마스가 말했다. “당신에게는 의사가 천직이었어요”하고 그녀는 말했다. “테레사, 천직이란 어처구니 없는 말이오. 내겐 천직이 없어요. 누구에게도 천직이란 없어요. 자유롭고, 천직을 갖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다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굉장히 가볍게 해주오” 그의 솔직한 목소리를 믿지 않을 수 없었다. 오전의 모습이 그녀의 눈앞에 떠올랐다. 그는 트럭을 수리했고, 그녀에게 늙었다고 여겨졌었다. 그녀는 자기가 언제나 가 있고자 했던 곳에 도착했다. 말하자면 그가 늙었으면 하고 그녀는 언제나 소망했었다. 다시금 그녀는 그녀의 어린 시절 방에서 그녀의 얼굴에 대고 꼭 껴안았던 그 작은 토끼를 회상했다. 한 마리의 작은 토끼로 변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그것은 자기의 모든 강한 면을 포기했음을 의미한다. 그들은 피아노와 바이올린의 연주에 맞추어 춤 스텝을 밟으며 @p 381 움직였다. 테레사는 머리를 그의 어깨 위에 얹었다. 그들을 태우고 안개 속을 날 았던 비행기에서 그들이 함께 나란히 앉아 있던 그때처럼. 지금 그녀는 그때와 똑같은 독특한 행복을, 독특한 슬픔을 체험했다. 이 슬픔은 <우리는 종착역에 도착했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 행복은 <우리는

함께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슬픔은 형식이었고 행복은 내용이었다.
행복은 슬픔의 공간을 채웠다. 그들은 그들 테이블로 돌아왔다. 그녀는 두
번 더 조합장고 춤을 추었고 또 한 번은 젊은이와 추었다. 젊은이는 벌써
너무나 취해 그녀와 함께 쪽마루 무도 장에 쓰러졌다. 그리고서 그들은
모두 그들의 호텔방으로 올라갔다. 토마스는 자물쇠에 열쇠를 꽂아
돌렸다. 그리고 방의 불을 켰다. 그녀는 나란히 밀어붙여 놓은 두 개의
침대를 보았다. 한쪽 침대 옆에는 전등이 있는 침대 용 탁자가 놓여
있었다. 큰 나방 한 마리가 불빛에 놀라 전등갓으로부터 훨훨 날아올라
방에서 원을 그리며 빙빙 돌았다. 밑에서부터 바이올린과 피아노의 멜
로디가 은은히 울려왔다.